

제29호 / 2007 · 3 · 1



교 양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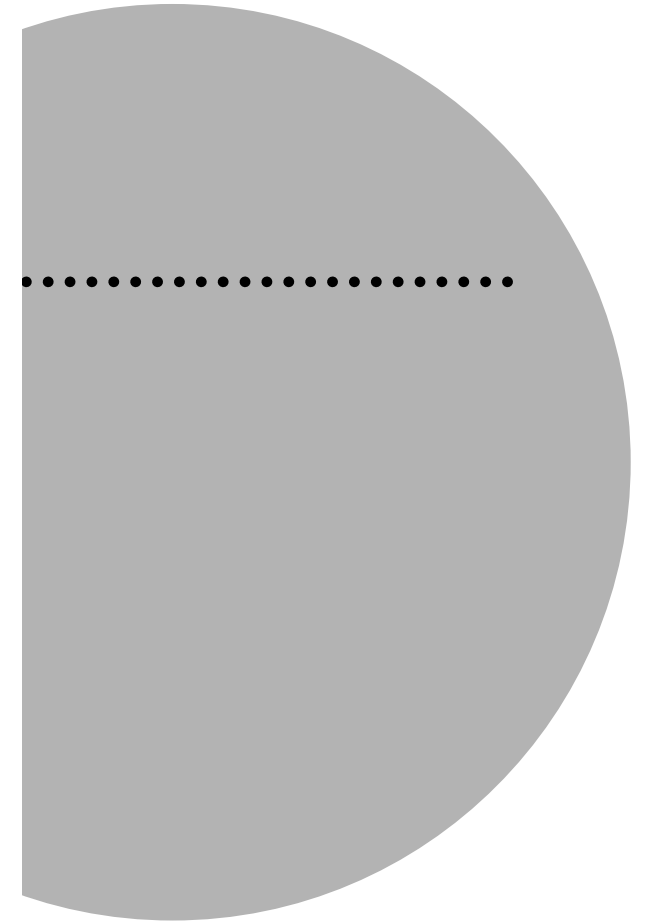
---

발행처 : 교양사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507호

-----  
편집인 : 조정남(☎010-4716-3616)

-----  
발행일 : 2007년 3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바 03304 / 등록일자 2004.3.3

-----  
ISSN 1229-2796 / 값 15,000원  
-----



29 2007 Spring



**특 집** 중국의 민족문제와 운남 소수민족

6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수민족지구 - 이양호

19 대만민족은 존재하는가? - 이상원

51 중국의 대 조선족정책 - 王生

**특별취재 - 운남성의 소수민족세계**

(트 포)

70 운남성 소수민족 탐방 - 김희선·송종호

(탐 방)

102 개발의 언덕에 서 있는 “納西族”사회 - 김희선

112 자긍심과 자존심의 민족 “白族”사회 - 송종호

127 운남성 최다 소수민족, “彝族”사회 - 김재원

(자 료)

143 운남성의 소수민족 현황 - 김재원

**논 단**

182 말레이시아의 한류와 한국과의 관계변화 - 조철호

198 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 - 명 드미뜨리

**기획연재 - 민족과 문학 4**

207 언어의 현실성과 민족어의 가능성 - 여태천

# Minjok Yeonku

Vol. 29

## CONTENTS

### **Ethnic minorities and Chinese economy --- 6**

Ho Yang Rhee (President of Institute for Chindirus Studies)

### **Is there Taiwan national identity?**

Lee, Sang Won (the National Assembly, Korea) --- 19

### **Study on Korean ethnic communities in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 51**

Wang Seng (Professor of China Ji-Lin University)

### **A report on the Yunnan province and ethnic minority residential areas --- 70**

Hee Sun Kim, Jong-Ho Song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 **The Naxi Society(納西族) --- 102**

Hee Sun Kim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 **The Bai Society((白族) --- 112**

Jong-Ho Song (Korea University Alumni Newspaper Correspondent)

### **The Yi Society(彝族) --- 127**

Jae-Won Kim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 **Ethnic Minorities in the Yunnan province(雲南省) -- 143**

Jae-Won Kim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 **Study on the change of relation between Korea and Malaysia with the Korean Wave --- 182**

Chul Ho Cho (Lecturer,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in University of Malaya, Malaysia)

### **Current Circumstance and Prospect of Korean Ethnic Minority in Kazakhstan --- 198**

Myeong Dmitri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in Almaty National University)

### **The reality of Language and the possibility of nation-language- Mainly focused on Lim Hwa --- 207**

Yeo, tae-chon (Lecturer, Korea University)



**특집** 중국의 민족문제와 운남 소수민족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수민족지구 - 이양호

대만민족은 존재하는가? - 이상원

중국의 대 조선족정책 - 王生

**특별취재 - 운남성의 소수민족세계**

〈르 포〉

운남성 소수민족 탐방 - 김희선·송종호

〈탐 방〉

개발의 언덕에 서 있는 “納西族”사회 - 김희선

자긍심과 자존심의 민족 “白族”사회 - 송종호

운남성 최다 소수민족, “彝族”사회 - 김재원

〈자 료〉

운남성의 소수민족 현황 - 김재원





특 집

##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수민족지구

이 양 호  
(친디루스(Chindirus)연구소 소장)  
rheeyaho@hanmail.net



### 들어가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거의 20여년 동안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생산량 많고, 세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2050년 경에는 경제대적으로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뒤편에는 빈부격차, 지역격차 등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중국 변방 지역을 둘러싼 소수민족 문제일 것이다.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있으며 분포 지역은 155개 민족자치지방(5개 자치구, 자치주 30개, 자치현·진 120개)으로 전국 면적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공식적인 민족수는 많지만 공인된 민족수는 한족을 포함하여 56개이다. 빈부 격차가 심하거나, 가난한 지역들이 대부분 소수민족 지역이며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빈곤화는 결과적으로 변경지역

에서의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고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려는 경향을 유발시킬 것이다. 소수민족이 경제적으로 한족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거 구소련에서와 같이 중국 분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손문은 과거 중국 5대민족 한족, 만족, 몽고족, 장족, 회족이 하나의 중국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손문은 나중에 한족이라는 이름을 중국민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만들었다. 그는 광둥사람으로서 북부와 남부간의 적대감이 민족주의운동에 장애가 되고 그의 민족주의 운동이 과거 송나라의 연속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족을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이라고 표방함으로써 북부의 만다린을 말하는 사람들, 절강과 상해의 상인들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었다.<sup>1)</sup> 혁명시기에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지구에서 산관(山官), 두인(頭人), 천백호(千百戶), 토사(土司) 등 봉건적 소수민족 상층부와 연계하기도 했다.<sup>2)</sup> 중국공산당 집권이후 과거 경멸이나 모멸감을 나타내는 소수민족이름 즉, 이름에 견(犬), 충(蟲)과 같은 변을 단 이름들을 개선시키고 소수민족지역의 봉건주의적 잔재를 청산하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소수민족은 경제적으로 한족에 비해 더욱 더 낙후되면서 분리독립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으로서도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고 나머지도 따라서 부자가 되는 선부론 또는 쌍궤제(雙軌制) 정책에 따라 장쩌민 시대에는 상해지역 등 동부지역을 먼저 발전시키고 후진타오 시대에는 변경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변방지역에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한 후진타오는 서부대개발 등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분배와 평등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수민족지역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 소수민족과 한족의 경제적 격차

소수민족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1990년 제4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소수민족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4%였다. 1995년의 1% 인구 표본조사에서는 8.98%를 차지하였다.<sup>3)</sup> 2000년 제5차 인구조사에서는 소수민족이 전체인구의 8.41%를 차지하였고, 2005년 전국 1% 인구표본조사에 의하면 소수민족은 1억 2,3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44%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64년 5.77%, 1982년 6.6%, 1990년 8.04%, 2000년 8.41%, 2005년 9.44%로 증가추세에 있다.<sup>4)</sup>

2000년의 경우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서장 94.07%, 신강 59.39%, 청해성 45.51%, 광서성 38.34%, 귀주성 37.85%, 녕하성 34.53%, 운남성 33.41%, 내몽고

1) Dru C. Gladney, *Dislocating China: Muslims, Minorities, and Other Subaltern Subjects*,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p.20-21.

2) 趙政男, 『中國의 民族問題』, 서울: 敎養社, 1987, pp.164-165.

3)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2-11/15/content\\_630587.htm](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2-11/15/content_630587.htm).

4) <http://www.tianxiabbs.org/thread-5472-1-1.html>.

20.76%, 해남성 17.29%, 요령성 16.02%, 호남성 10.21% 순이었다. 이에 반해 소수민족이 1%미만인 지역은 강서, 산서 등이다. 2005년 전국 소수민족 비율이 9.44%을 감안하면 호남성이 10.13%로 거의 중국 전체 평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민족과 한족의 경제적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2004년 중국정부가 수정 발표한 GDP를 보면 동부지구 92,819억 위안으로 동북 14,545억 위안, 중부지구 31,617억 위안, 서부지구 28,620억 위안을 합한 것보다 많다.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5)</sup> 서부에는 40여 개 민족이 전국 소수민족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55개 민족자치지방 중 5개 자치구, 27개 자치주, 84개 자치현이 서부에 있다.

소수민족지역은 1950년대 초 특히 5대 민족자치구의 경우 광서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던데 비해 2000년에는 신강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소수민족이 1%미만인 지역의 경우 강서, 산서, 섬서, 안휘를 제외한 강소, 산둥, 절강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 만큼 발전하였다. 소수민족 비율이 전국 평균에 가까운 호남성은 완만한 상승세이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소수민족 지역은 대체로 1인당 GDP가 급격하게 하강한 추세를 보인 반면 한족지역은 대체로 급상승하거나 감소추세가 완만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수민족 비율이 중국 전체 평균 수준과

<표 1> 소수민족 분포

	지역	소수민족비율
5대 민족자치구	서장	94.07%
	신강	59.39%
	광서	38.34%
	녕하	34.53%
	내몽고	20.76%
3대 다민족지구	청해	45.51%
	귀주	37.85%
	운남	33.41%
소수민족약 10% 지역	호남	10.21%
소수민족 1% 미만 지역	강서	0.27%
	산서	0.29%
	강소	0.33%
	섬서	0.49%
	안휘	0.63%
	산둥	0.68%
	절강	0.85%

출처: <http://www.stats.gov.cn/was40/gjtjj.de...FD%C3%F1%D7%E5&channelid=9401&record=1>.

<표 2> 소수민족 1인당 평균 GDP

(전국 평균 = 100%)

	지역	1952년	1978년	2000년
5대 민족 자치구	서장	99.2	98.9	64.4
	신강	142.9	81.5	105.5
	광서	55.5	96.3	61
	녕하	102.3	93.4	68.4
	내몽고	142.8	81	82.9
3대 다민족 지구	청해	47.9	46.2	32
	귀주	58	59.6	65.5
	운남	84.9	113.7	71.9
소수민족 약 10% 지역	호남	71.4	75.5	79.7
소수민족 1% 미만 지역	강서	95.8	72.8	68.5
	산서	96.6	96.3	72.6
	강소	108.4	113.5	166.3
	섬서	70.6	77	64.3
	안휘	64.7	63.8	68.8
	산둥	76.5	84.7	135
	절강	93.3	86.8	190.2

출처: 林善曄가 계산한 수치중 민족지역과 소수민족 10% 지역, 1%미만 지역의 1인당 GDP 수준을 표시함. 林善曄, 『中國經濟結構調整戰略』,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p.319.

5) 서부지역은 내몽고, 광서,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청해, 감숙, 녕하, 신강 지역을 포함한다. [http://www.stats.gov.cn/zgjpc/cgfb/20060307\\_402309439.htm](http://www.stats.gov.cn/zgjpc/cgfb/20060307_402309439.htm).

비슷한 호남성의 경우 <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소수민족의 1인당 GDP는 1982년 225.74로서 전체 호남성의 1인당 평균 GDP 363.04 위안 보다 낮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있으며 분포 지역은 155개 민족자치지방(5개 자치구, 자치주 30개, 자치현·진 120개)으로 전국 면적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았다. 2000년에는 소수민족의 1인당 GDP는 2,513 위안으로 전체 호남성의 1인당 평균 GDP 4,940 위안의 절반에 불과했다. 오히려 소수민족과 한족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수민족지역은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현은 소수민족 자치현의 경우 1인당 평균 수입이

1985년에는 200위안 이하, 1990년에는 300 위안 이하, 1993년에는 400위안 이하(민족, 역사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는 700위안)로 규정되었다. 1980년대 중반 빈곤구제사업을 보면 1986년 국가가 중점적으로 빈곤을 구제해야 할 중점빈곤구제현(國家重點扶持貧困縣) 331개 중 민족자치지방이 141개로 42.6%였다. 1994년에는 592개 중점빈곤구제현중 민족자치지방이 257개로 43.4%를 차지하였다. 또, 2001년부터 실시된 중국농촌개발 중점빈곤구제현은 592개중 267개로 45.1%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빈곤한 현들의 숫자가 소수민족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빈곤발생율은 서장, 귀주, 칭해, 녕하 등이 10%를 넘고 있으며 내몽고, 운남, 신강 등은 5%~10%사이이다. 결국 소수민족 지역의 빈곤발생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호남성 소수민족의 1인당 GDP (단위 : 위안)

	성(省)	소수민족	소수민족 1인당 GDP가 성 평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0년	363.04	225.74	61.8%
2000년	4,940	2,513	50.9%

출처: 湖南省統計局, “少數民族人口與民族地區經濟發展的比較研究,” <http://www.hntj.gov.cn/rkpc/200208210023.htm>.

### 소수민족은 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가?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민족지역은 과거 공산당 지배이전에는 자연경제상태였으며 한족에 비해 그리 뒤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자연경제가 파괴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는 하향하기 시작했다. 물론 산업구조 등 경제적 요인이 있겠지만 소수민족지역의 장래를 이야기할때 함께 논하기로 하고, 우선 역사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지배하기도 했으며 적어도 서구 제국주의 침략이

6)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



〈표 4〉 소수민족지역 빈곤호 숫자와 빈곤인구 비율

	지역	빈곤호 숫자 (1993년)	빈곤호 숫자 (2000년)	전국빈곤인 구총수중비 율(1993년)
5대 민족 자치구	서장	5	-	0.15
	신강	25	27	1.48
	광서	28	28	3.72
	닝하	8	8	1.31
	내몽고	31	31	1.90
3대 다민족 지구	청해	14	15	0.66
	귀주	48	50	7.90
	윈남	73	73	9.71
소수민족 약 10% 지역	호남	10	20	2.06
소수민족 1% 미만 지역	강서	18	21	1.27
	산서	35	35	3.31
	강소	-	-	1.61
	섬서	50	50	6.50
	안휘	17	19	5.19
	산둥	10	-	5.18
절강	3	-	1.57	

출처: 陳秀山 編, 『中國區域經濟問題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5, pp.310-317.

〈표 5〉 빈곤 발생률

빈곤발생률	지역
1% 이하	상해, 북경, 천진, 절강, 강소, 산둥, 광둥, 복건 (8개 지역)
2% ~ 5%	허북, 요령, 길림, 호북, 호남, 안휘, 강서, 하남, 광서, 해남, 중경, 사천 (12개 지역)
5% ~ 10%	흑룡강, 산서, 내몽고, 섬서, 감숙, 윈남, 신강
10% 이상	서장, 귀주, 청해, 닝하

출처: 陳秀山 編, 『中國區域經濟問題研究』, p.318.

그러나 서구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동북의 만족지역에서는 서구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농업과 가정수공업이 급속하게 몰락하고 콩, 누에, 담배, 삼 등과 같은 경제작물의 경작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자연경제상태에 머물러 있던 만족 농민들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몽고지역에서도 서구 자본주의가 몽고 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당시 몽고시장에서 유통되는 일용품 153종 중에서 서양에서 만든 것이 121종을

전에는 한족과의 수준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한족에 대한 소수민족의 반란도 많았다. 7세기에서 17세기까지 소수민족이 한족에 대해 일으킨 반란을 보면 618 ~ 959년 82건, 960 ~ 1279년 232건, 1280 ~ 1367년 35건, 1368 ~ 1644년 382건이었다.<sup>7)</sup> 만주족, 조선족, 장족, 백족, 회족, 사족, 포의(布依)족 등은 아편전쟁이전만 해도 경작과 방직업을 겸하거나 경작과 목축업을 겸한 자연경제로서 한족에 뒤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편전쟁이후 자연경제가 파괴되고 경제상의 특권을 서구에 넘겨주면서 이들 소수민족의 경제는 한족에 비해 뒤쳐지기 시작하였다.<sup>8)</sup>

과거에는 둔전(屯田)제도를 통해 병사들이 변방에 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게 했으며 농업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족지역의 농작물들도 소수민족지역에 도입되어 농업생산은 늘어났다. 아울러 많은 한족들이 소수지역 내에서 수공업 노동자로 일하면서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또한 비단길 등을 통한 무역거래를 통해 소수민족 지역은 경제적으로 활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족상인들은 비단, 종이 등을 변경지역에 가져왔고 소수민족은 말, 낙타, 향료 등을 제공했다.<sup>9)</sup>

7) <http://www.answers.com>.

8) <http://www.studa.net/shehuiqita/060421/17361465-3.html>.

9) 마인 편, 『중국소수민족상식』, 북경: 민족출판사, 1986, pp.33-38.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몽고지역의 수공업이 도태되고 실업자들이 속출하게 된다. 광서의 장족 지역의 경우에도 이전에 가정에서 만들던 무명



소수민족지역은 과거 공산당 지배이전에는 자연경제상태였으나 서구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자연경제가 파괴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실이 배척당하면서 자연경제와 수공업이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운남의 백족의 경우에도 서양으로부터 껄련을 수입하면서 담배를 작두로 써는 수공업이 몰락하고 양사, 캘리코, 석유, 담배 등이 들어오면서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는 와해되어 대리(大理)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방적업마저도 몰락한다. 사족, 회족, 묘족, 장족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파산하고 한족이 지주인 땅을 경작하는 농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남방의 광서장족, 귀주, 호남의 묘족, 운남의 백족, 절간, 복건의 사족 지역에서는 채광, 정미, 제당, 성냥, 짜낸 기름 등의 분야에서 자본주의형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독립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고 시장은 위축되어 민족자본주의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했다.<sup>10)</sup>

아울러 자연조건이 빈곤의 원인이기도 하다. 빈곤한 현들의 자연환경을 보면 2000년의 경우 평원 17.8%, 구릉 21.8%, 산지 60.4%였다.<sup>11)</sup>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막화 현상이다. 사막화는 매년 2000만 무(畝)의 속도로 치달아 가고 있다. 중국의 사막화된 토지는 전국 토지면적의 27%이상으로 신강, 내몽고가 각각 47%, 60%이다. 수자원 고갈도 계속되고 있다. 신강의 뽈뿌뽈(羅布泊) 호수가 바닥을 보이고 있고 신강의 아이뻬(艾比) 호수는 역사적으로 녹색의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칭했지만 점차 축소되고 있다. 토지유실도 심각하다. 섬서성만해도 매년 황하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가 8억 톤, 사천성은 장강의 토사 10억 톤, 귀주성은 주강과 장강의 토사 8,100만 톤이 흘러내린다.<sup>12)</sup>

이러한 열악한 자연환경 외에도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낮다. 서부지역 면적이 전국의 71.54%인데 반해 인구는 2000년의 경우 28.1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인구밀도를 보면 1km<sup>2</sup> 당 귀주 200, 광서 186, 섬서 172, 사천 170으로 전국 평균 129명을 넘고 있다. 운남은 107명, 녕하는 106명이다.<sup>13)</sup> 낮은 인구밀도는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의 논리처럼 분업화를 저해하여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민족문화적인 요소도 소수민족의 경제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기형적인 소비행태를 들 수 있다. “먹고 쓰고 술마시는”(穿在銀上, 用在鬼上, 吃在酒上) 소비행태라든지 보석이나 비싼 복장 등이 자기 생활의 최고 목표가 되는 소비행태가 소수민족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또한, 음주의 비용이 수입의 반절을 차지하는 소수민족이 많다. 아

10) <http://www.studa.net/shehuiqita/060421/17361465-3.html>.

11) 陳秀山 編, 『中國區域經濟問題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5, p.319.

12) <http://www.cpic.org.cn/rkxh/lwjl/lwjl-1.pdf>.

13) <http://www.cpic.org.cn/rkxh/lwjl/lwjl-1.pdf>.

올리 농경이나 목축으로 생존을 해야 했던 역사전통 때문에 공동 경작하고 공동으로 먹고 어려움이 닥치면 공동으로 대처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눠가지는(有田同耕, 有食同吃, 有難同當, 有福同享) 소박한 평등사상이 강하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대동(大同)관념 그리고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풍습에 사회주의적인 평균주의까지 더해져 평균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소수민족의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일 수 밖에 없다. 의리를 중시하고 재물을 경시하고 사업을 경시하고 일을 천하게 여기는(重義輕財, 輕商賤役) 소수민족의 관념도 문제다. 경제상업과 운송판매를 수치로 여기며 “금그릇을 들고 밥을 빌어 먹는”(捧着金碗討飯吃) 현상이 만연하여 상품교환 개념이 결핍되어 있다.<sup>14)</sup>

### 중국 중앙정부의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떠한가?

정부는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혹은 다른 부유한 지방이 빈곤한 지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1984~1994년 중앙정부는 서장에 4.8억 위안을 투자했고, 1994~2001년 중앙정부 직접투자는 39억 위안, 2001~2005년 중앙정부는 312억 위안을 투자한 바 있다.<sup>15)</sup> 1980~1998년 중앙재정 보조가 1,400억 위안에 달했다. 1998년 중앙의 5개 민족 자치구와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는 귀주, 운남, 청해에 지원된 일반지원액은 29억 위안으로 전국 지원총액의 48%였다.<sup>16)</sup> 아울러 1950년대, 60년대 실시하던 민족지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1980~1988년에는 몽고, 신강, 광서, 녕하, 서장 등 5개 자치구 및 운남, 귀주, 청해 등 3개 소수민족에 대해 10%의 보조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4년에는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가지는 분세제(分稅制)를 채택하고도 지원정책을 계속하였다. 중국은 선부정책을 통한 공동부유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1996년부터 북경이 내몽고를, 산둥이 신강을, 복건이 녕하를, 광둥이 광서를 그리고 전국 각성이 서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994~2001년 15개 성이 31.6억 위안을 무상 지원하였다. 2001~2005년에는 전국 각성이 서장에 10.62억 위안을 무상 투입했다.<sup>17)</sup>

정부는 또한 빈곤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1996~1998년 국가는 257개 소수민족 빈곤현에 빈곤구제자금의 45%에 해당하는 169.5억 위안을 중앙지원자금으로 투여했다. 1983~2002년 중앙정부는 감숙과 녕하와 같은 “삼서”(三西: 甘肅省的定西, 河西地區, 寧夏回族自治區的西海固地區)에 매년 2억 위안을 집중적으로 투여했다. 1990년 설립된 소수민족온포기금회(少數民族貧困地區溫飽基金)는 전국의 143개 소수민족 중점빈곤현에 대해 지원했다.<sup>18)</sup> 이러한 결과 1995~1998년 257개 소수민족빈곤현은 주민 1,092만명, 가축 1,514만 두의 식수문제

14) 任福耀, 王洪瑞, 『中國反腐敗理論實踐』, 北京: 人民出版社, 2003, pp.393-396.

15)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

16) <http://www.xj.cninfo.net/culture/customs/zhenglun>.

17)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

18) <http://www.xj.cninfo.net/culture/customs/zhenglun>.



를 해결했고 5개민족자치구 빈곤인구가 835만 명에서 473만 명으로 감소하며 빈곤발생률이 12.4%에서 6.9%로 낮아졌다. 빈곤현 농민의 1인당 평균수입은 833위안에서 1,395위안으로 증가했다.<sup>19)</sup> 2002년 전국 “변방지방을 잘살게 하는 운동”(興邊富民行動)으로 150억 위안을 투입하여 2,100만 명이 수혜를 받았다.<sup>20)</sup>

소수민족지역을 대외 개방하는 것도 소수민족의 경제적 발전을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이후 광서자치구의 북해시는 14개 연해개방도시의 하나로 되었으며 곤명시, 귀양시 등이 내륙개방도시가 되었다. 이외에도 계림시, 남령시, 포두시 등이 새로운 기술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 1993년에는 연변 조선족자치주, 임하 회족자치주 등 7개 민족지구를 개방하였다. 광서성의 개방이후 1991~1995년 32.4억 달러의 외국자본을 이용하였다.<sup>21)</sup> 1987년 정부는 국제적인 내륙개발구와 변경자유무역구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 내몽고 자치구의 만주리, 길림성의 훈춘, 신강의 이령, 광서의 동흥 등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는 변경지역의 도시들을 개방하였다. 광서 개방이후 광서는 1991~1995년 32.4억 달러, 1986~1990년에는 5.6배 증가하였다. 1997년말까지 광서성이 비준한 외국자본금은 137.9억 달러로 실제 이용자는 67.1억 달러였다.<sup>22)</sup>

### 소수민족의 경제적 장래는?

소수민족 지역이 현재 상대적으로 뒤쳐져있지만 이 지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최근 연평균 GDP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수민족지역은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sup>23)</sup> 2003년 중국민족자치지방 국내생산총량(GDP)는 10,381억 위안이었다. 1994-2003년 민족자치지방 연평균 GDP 증가율은 9.87%로서 전국 평균보다 1% 높았다. 민족자치지방 GDP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 8.5%에서 2003년 8.9%로 증가하였다. 1994년 1인당 GDP는 전국 1인당 GDP의 63.5% 수준이었던 데 비해 2003년에는 66.3%로 증가하였다.<sup>24)</sup>

내몽고 자치주를 보면 1993~2003년까지 GDP 연평균 증가율이 1999년을 제외하고는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3년 17.9%, 2004년 20.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sup>25)</sup> 2003년 신강지구 1인당 GDP는 9,700위안으로 전국 1인당 GDP의 106.58%였다. 신강 농촌가정 매1인 순수입은 2,106.19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80.32%를 차지하였다. 서장지구 1인당 GDP는 6,871위안으로 전국 1인당 GDP의 75.5%에 달했다. 서장 농촌가정 매1인 평균 순수익은 1,690.76위안으로

19 <http://www.xj.cninfo.net/culture/customs/zhenglun>.

20 <http://zhidao.baidu.com/question/12419852.html?si=9>.

21 <http://www.xj.cninfo.net/culture/customs/zhenglun>.

22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2-11/15/content\\_630587.htm](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2-11/15/content_630587.htm).

23 <http://www.trade.gov.cn/english/php/show.php?id=1372>.

24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

25 [http://www.stats.gov.cn/zgjpc/cgfbt20060313\\_402311311.htm](http://www.stats.gov.cn/zgjpc/cgfbt20060313_402311311.htm).

로 전국 평균의 64.48%였다.<sup>26)</sup>

사실 소수민족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유 중 하나는 소수민족의 경제구조가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남성의 예를 들면 2000년 소수민족의 1차 산업 종사인구가 84.29%로서 한족 73.84%보다 10%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기형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소수민족의 현실이다.<sup>27)</sup> 아울러 정신노동자 인구가 6.31%밖에 되지 않아 한족보다 1.9% 낮으며 반대로 육체노동자가 93.69%로 한족보다 1.9% 높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소수민족지역의 혁신(創新: 이노베이션)능력이나 경쟁력은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 천수산(陳秀山)이 지표화한 이노베이션 능력은 지식창조, 지식이전, 기업 혁신능력, 혁신 환경, 혁신의 경제효과를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소수민족 지역은 혁신능력총합이 20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족지역은 20을 넘어 40에 가까운 지역도 있다.

경쟁력에서도 소수민족지역은 차이가 나고 있다. 천수산(陳秀山)이 지표화한 경쟁력은 경제운용 총량, 지방재정수입, 기업영업액, 기초설비를 종합 평가한 것이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경쟁력 총합에서 소수민족지역은 대체로 10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족지역은 일부가 10을 넘지 못하기는 하지만 30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민족지역이 비록 혁신능력이나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소수민족 지역에 긍정적으로 미칠 요인들이 있다. 인구증가가 소수민족의 경제적 장래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클 것이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총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족의 인구가 1982~1990년 10% 증가한 데 반해 소수민족은 35% 증가하였다. 1982~2000년 18년 동안 소수민족은 전체 증가된 전국 인구의 16%를 차지하였다. 국가통계국의 2005년 전국 1% 인구표본조사에 의하면 한족은 2.03% 증가한 데 반해 소수민족은 15.88% 증가했으며 5년간 증가된 전국인구의 42%를 차지하였다. 앞으로 소수민족 인구가 2000년 1억, 2010년 1.31억, 2030년 2.21억, 2080년 8.64억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sup>28)</sup>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1990~2000년 사이 소수민족의 변화추이를 보면 평균 증가율이 1.40 이상인 비율이 55개 소수민족의 56.37%를 차지하였다. 물론 0% 이하인 비율도 55개 소수민족의 9.08%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교적 인구가 적은 민족은 10만 명 이하의 민족을 말하며 1990년의 경우 22개로서 52.59만 명이였다. 2000년의 인구조사에서는 20개 민족, 42.0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살라족(撒拉族), 모남족(毛南族)은 1990년 10만 미만이었으나 2000년 10만 명을 넘은 경우이다.<sup>29)</sup> 결국 인구증가는 소수민족의 경제적 장래에 청신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증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족자치구의 도시화율과 비농 취업인구라고

26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5-02/28/content_2628105_1.htm).

27 <http://www.hntj.gov.cn/tpce/200208210023.htm>.

28 Gladney, op.cit, pp.20-21.

29 <http://www.cpic.org.cn/rkxh/lw/jx/lw/jx-1.pdf>.

〈표 6〉 호남성 한족과 소수민족의 산업종사인구

	전체 호남성	한 족	소수민족
국가기관, 당, 기업단위 책임자	1.17	1.23	0.67
전문기술인원	4.71	4.81	3.89
사무인원	2.12	2.17	1.75
상업, 서비스업 종사자	7.54	7.88	4.64
농·임, 목축, 어업 종사자	74.97	73.86	84.28
생산, 운수설비 종사자	9.32	9.87	4.67
기타	0.17	0.18	0.10
합계	100	100	100

출처: 湖南省統計局, “少數民族人口與民族地區經濟發展的比較研究,” <http://www.hntj.gov.cn/rkpc/200208210023.htm>.

〈표 7〉 혁신(創新) 능력

	지역	혁신능력 총합	지식 창조	지식 이전	기업 혁신능력	혁신 환경	혁신적 경제효과
5대 민족자치구	서장	12.79	5.97	5.79	7.41	19.37	21.65
	신강	18.64	9.54	13.03	24.03	18.29	23.38
	광서	18.84	12.84	13.46	34.53	15.51	11.93
	닝하	16.67	7.91	5.95	26.67	16.77	18.64
	내몽고	18.41	9.41	19.36	24.03	16.59	19.70
3대 다민족지구	청해	18.04	11.42	9.53	28.24	15.48	19.85
	귀주	17.10	11.08	10.44	32.02	15.61	9.84
	운남	16.38	10.97	12.30	23.43	17.07	12.55
약 10% 민족지구	호남	24.17	16.44	21.84	36.42	23.41	17.35
소수민족 1% 미만지역	강서	17.72	8.37	11.25	30.27	17.81	13.75
	산서	25.09	11.07	8.42	45.13	28.33	19.03
	강소	43.31	28.49	51.68	61.62	40.44	28.83
	섬서	28.75	22.39	13.11	44.87	28.77	25.06
	안휘	21.65	13.8	19.08	35.00	22.70	11.44
	산둥	37.15	28.83	41.73	54.91	35.19	23.96
	절강	36.85	19.00	36.21	50.88	39.14	34.31

출처: 陳秀山 編, 『中國區域經濟問題研究』, pp.414-422.

할 수 있다. 특히 도시화율 증가는 개인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경제총량의 증가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가 공업생산성이나 농업생산성보다 경제발전이 더욱 기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sup>30)</sup> 소수민족 지역의 도시화율이 한족지역에 비해 아직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도시화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한족 지역의 도시화율이 1982년 17%, 1990년 27%, 2000년 40%인데 반해 소수민족지역은 아직 도시화가 진행될 여지가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티베트족의 경우 1982년 2%, 2000년 13%였고 위그르족의 경우 1982년 10%, 1990년 13%, 2000년 23%였다.<sup>31)</sup> 호남성의 경우 전체 도시인구는 36.97%로서 높은 편이지만 도시에서 사는 소수민족인구는 소수민족인구 중 5.77%로

30 이양호, 『China 2050 Project』, 서울: 한스앤리, 2006, pp.40-43 참조.

31 [http://www.mansfielddn.org/pubs/pub\\_pdfs/wen0105\\_chinaurban.pdf](http://www.mansfielddn.org/pubs/pub_pdfs/wen0105_chinaurban.pdf).

〈표 8〉 민족의 경쟁력

	지역	경쟁력 총합	경제운용 총량	지방 재정수입	기업 영업액	기초 설비
5대 민족자치구	서장	0.95	0.14	0.09	0.04	0.69
	신강	5.42	1.24	1.37	1.13	1.67
	광서	6.57	1.43	2.19	1.18	1.76
	닝하	1.50	0.30	0.31	0.25	0.63
	내몽고	5.05	1.24	1.33	0.80	1.69
3대 다민족지구	칭해	1.52	0.29	0.25	0.20	0.79
	귀주	4.39	0.88	1.27	0.66	1.58
	운남	8.22	1.40	2.43	1.66	2.72
약 10% 민족지구	호남	9.59	2.47	2.71	1.98	2.43
소수민족 1% 미만지역	강서	6.72	1.51	1.65	1.18	2.38
	산서	6.41	1.34	1.77	1.57	1.73
	강소	33.77	8.95	7.56	10.61	6.59
	섬서	10.02	1.45	1.77	1.38	5.42
	안휘	8.38	2.10	2.35	1.95	1.99
	산둥	27.61	7.50	7.17	7.97	4.98
	절강	26.36	6.92	6.66	8.25	4.53

출처: 陳秀山 編, 『中國區域經濟問題研究』, pp.414 ~ 422.

서 한족 17.81%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다.<sup>32)</sup> 따라서 소수민족지역의 도시화율이 증가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도시에서 일하면 농촌에서 일할 때의 1인당 노동생산성에 비해 몇 배 높은 생산성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수민족지역의 총생산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민족의 경제적 장래에 미칠 중요한 요인은 최근 소수민족의 문맹률이 감소하고 고등교육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현재는 소수민족의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소수민족의 성인문맹자(15세이상인구)는 1990년 1,857만 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113만 명으로 약 743만 명이 감소하였다. 10년 동안 문맹인구가 40.04% 감소한 것이다. 한족을 100으로 했을 때 소수민족의 고등교육은 1990년 65.88에서 69.71로 증가하였다. 1000명당 고등교육을 받는 소수민족 인구는 1990년 55개 소수민족 평균 16명에서 2000년 36명으로 19명 증가한다. 2000년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은 타타르족(塔塔爾族)으로 140%였고 최고로 적은 민족은 동향족(東鄉族)으로 4%이었다.<sup>33)</sup> 이러한 점진적 교육증대는 소수민족의 장래를 밝게 해주는 요인일 것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민족의 우대정책으로 시행되는 쿼터제 즉, 각 성의 대학에 소수민족 비율을 정하여 입학시키는 제도로 말미암아 소수민족지역의 경쟁력이 한족에 비해서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성에서 소수민족에게 쿼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의 다른 성으로 쿼터 덕분에 지역을 옮겨 입학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32 <http://www.hntj.gov.cn/rkpc/200208210023.htm>.

33 <http://www.cpic.org.cn/rkxh/lw/jx/lw/jx-1.pdf>.

좋은 한족이 대부분이며 소수민족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수민족 지역에 남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정한 쿼터 덕분에 입학하는 학생들(주로 소수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지역을 위해 외교적으로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어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주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족)과 다른 지역의 우수한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들(주로 한족)만 남아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추후 기업 등에 취업할 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장래를 가장 밝게 해줄 수 있는 요인은 풍부한 천연자원일 것이다. 소수민족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서부토지는 전국 국토면적의 71.54%로 자원이 풍부하여 중국 에너지 기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수자원의 경우 북방에는 물이 적고 남방에는 물이 많다. 장강이북 지역의 경지면적은 전국면적의 63.9%이지만 수자원은 전국의 17.2%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장강이 남은 경지면적이 36.1%인데 수자원은 82.8%를 가지고 있다. 물론 동부와 서부간에도 불균형하다.

동부지역은 에너지가 자원이 아주 부족한데 반해 서부지역은 자원이 풍부하여 천연가스 매장량 70%이상, 석탄 매장량 68%, 철광 매장량 60%, 인매장량 70%에 달한다.<sup>34)</sup>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더욱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의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발되지 않고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들은 자연 개발될 수 밖에 없다. 중국 소수민족지역은 현재까지는 인프라가 안정되지 못해 에너지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서부대개발사업 등으로 이곳 소수민족지역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표 9〉 1999~2000년 각 민족인구변화 추이

전체 호남성	민족	55개 소수민족 중의 비율
2.00~4.31	瑤, 土家, 高山, 東鄉, 土, 仫佬, 毛南, 塔吉克, 仡佬, 保安, 獨, 瑤巴, 羌 (13族)	23.64
1.40~2.00	蒙古, 藏, 維吾爾, 苗, 彝, 布依, 侗, 白, 水, 撒拉, 阿昌, 俄羅斯, 鄂溫克, 德昂, 京, 鄂倫春, 門巴, 基諾, (18族)	32.73
1.00~1.40	回, 哈尼, 哈薩克, 納西, 傣, 黎, 布朗, 佤, 畚, 柯爾克孜, 普米, 裕固 (12族)	21.82
0.50~1.00	傈僳, 拉祜, 景頗, 達斡爾, 錫伯, 怒, 赫哲, (7族)	12.73
0.00~0.50	壯, 滿, 朝鮮, (3族)	5.45
< 0	烏孜別克, 塔塔爾, (2族)	3.63

출처: 黃榮清, “少數民族人口與西部大開發,” <http://www.cpirc.org.cn/rkxh/lw/jx/lw/jx-1.pdf>.

<sup>34</sup> <http://finance.sina.com.cn>.

〈표 10〉 민족자치지구 및 한족지배지역의 도시화율, 비농취업인구 및 1인당 GDP

	지역	도시화율	비농취업인구	1인당 GDP (2000년)
5대 민족자치구	서장	18.93	26.2	4,483
	신강	33.82	42.3	7,087
	광서	28.15	37.8	4,500
	닝하	32.43	42.2	4,725
	내몽고	42.68	45.5	5,896
3대 다민족지구	청해	34.76	39.1	5,088
	귀주	23.87	32.7	2,818
	운남	23.36	26.1	4,559
소수민족 약 10% 지역	호남	29.75	39.2	5,732
소수민족 1% 미만 지역	강서	27.67	48.1	4,838
	산서	34.91	53.3	4,985
	강소	41.49	57.8	11,539
	섬서	32.26	44.3	4,607
	안휘	27.81	40.2	5,075
	산둥	38.00	46.9	9,409
	절강	48.67	62.2	12,906

출처: 陳愛民, 『中國城市化: 田野研究與省例分析』,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2003, pp.2~3.

## 나가며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경제적으로 한족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수민족이 자연환경이 열악한 산악지대 등에 살고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아 교통 등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경제가 낙후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에 소수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상업을 경시하고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문화적 요인도 경제 낙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소수민족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한족에 비해 증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전망은 어둡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2070년 까지 감속, 청해, 귀주, 신강을 현대화시킨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들 지역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소수민족지역이 분리독립과 같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나타날지 여부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대충 소수민족이 50%이상을 점하고 1개 민족이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신강이나 서장이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지역임에 틀림없다. 특히 신강지역의 경우 소수민족이 못사는 이유가 한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수민족이 50%미만이고 어느 한민족이 월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광서, ning하, 청해, 귀주, 운남 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이른(Tom Naim)이 지적하는 상대적 과발전(relative overdevelopment)의 가능성, 즉,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에 다른 지역에 대해 느끼는 우월한 민족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리주의적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외교적으로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어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주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부대개발이 소수민족지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 집

## 대만민족은 존재하는가

민족적 정체성, 정당일체감 그리고 통독문제의 상관관계 중심으로

이상원 (대한민국 국회)  
thirdtony@hanmail.net



### 서론

### 문제제기

‘본토화’(本土化, bentuhua) 또는 ‘대만화’(台灣化; Taiwanization)<sup>1)</sup>는, 민주화와 함께, 지난 20여 년간 대만이 경험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sup>2)</sup> 본토화는 그 성격과 내용이 대만 인민 / 민족 자신에게(by the Taiwanese people) 맡겨져야 하는 대만인 정체성[台灣認同; Taiwanese identity]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민족주의의 한 유형(a type of nationalism)으로서 기능해왔다.<sup>3)</sup> 그러나 동시에 본토화는 대만독립의식[台獨意識; Taiwan independence consciousness] 형성과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대만사회에서 이른바 통독(統獨; 통일-독립)문제가 전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 제이콥스(J. Bruce Jacobs)는 중국어인 ‘本土化’를 영어로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토(本土, bentu)가 중국( 또는 세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대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를 ‘대만화’(Taiwanization)로 번역하는 것이 개념 사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J. Bruce Jacobs, “Taiwanization” in Taiwan’s Politics,” in John Makeham and A-Chin Hsiau, eds., *Cultural, ethnic, and political nationalism in contemporary Taiwan: Bentuhu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p. 18-19 참조. 한편, 현재 대만에서는 ‘台灣化’(Taiwanhua)보다는 ‘本土化’(bentuhua)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한다. John Makeham, “Introduction,” in John Makeham and A-Chin Hsiau(2005), p. 11.

1986년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의 창당 이래로 통독문제는, 대만의 각 정당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 기본적 쟁점들(primary issues) 중 하나였다.<sup>4)</sup> 대만의 정당정치는, 양안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통일노선과 대만독립 노선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정당 간 상호불신에 따른 교착국면(deadlock)의 주기적 반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본토화에 따른 대만인 정체성의 형성과 함께 각 정당을 매개로 표출되고 있는 통독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대만의 현 정치지형을 주조한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라고 하겠다. 1980년대 이후 대만은, 본토화에 따른 정체성의 전환과 민주화에 따른 체제 전환이라는 이중의 전환을 경험했다.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 중첩적인 현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현 대만정치의 본령을 이뤄왔다. 따라서 정체성의 전환과 체제 전환 중 어느 하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경우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sup>5)</sup>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만에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과 정치과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통독문제와 민족적 정체성이 정당일체감을 표상되는 정당정치를 매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대만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분석법을 적용하여 논증하려고 한다.<sup>6)</sup>

첫째, 대만의 민족적 정체성은 관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특징으로 한다. 대만 민족의 내포와 외연의 문제 역시 이러한 이질성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대만의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는 정치 엘리트, 특히 정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정당일체감과 민족적 정체성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대만의 정당정치가 민족문제와 관련된 통독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본토화, 민주화 이후 대만의 정당들은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셋째, 심리적 귀속감인 민족적 정체성은 정당을 통하여 민족문제와 관련된 집합적 결정 또는 집합행위로 전환된다. 통독문제의 전면화는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정당 개입의 근

2) 본토화는, 정치적 측면에서 본성인(本省人, *benshengren*)들이 완전한 시민적 시민권(civic citizenship)을 요구하여 확보하고, 동등한 정치적 시민권(political citizenship)과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마침내] 대만의 민족국가로서의 지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과정을 지칭한다. 문화적으로는 대만 사회/문화/역사의 독자성(uniquness)이 대만 인민/민족 자신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Makeham(2005), p. 11.

3) *Ibid.*, p. 1.

4) Emerson M.S. Niou, "Understanding Taiwan Independe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sian Survey*, Vol. 44, No. 4(2004), p. 555.

5) 체제 전환과 정체성의 전환 양자 간의 상관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Chang Maukuei, "Understanding Contending Nationalist Identities: Reading Ernest Gellner and Benedict Anderson from Taiwan," in Susan J. Henders, ed., *Democratization and Identity: Regimes and Ethnicity in East and Southeast Asia* (Lanham, Maryland: Lexington Books, 2004), pp. 67-93; Fu-chang Wang, "Why Bother about School Textbooks?: An Analysis of the Origin of the Disputes over *Renshi Taiwan* Textbooks in 1997," in John Makeham and A-Chin Hsiau(2005), pp. 55-99 참조.

6)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台灣地區社會變遷基本調查計劃：第四期第四次(問卷二：國家認同組)」(Taiwan's Social Change Survey, 이하 TSCS 2003); 2001年「台灣選舉與民主化調查研究」; 民國九十年立法委員選舉全國大型民意調查研究(Taiwan's Election and Democratization Study 2001, 이하 TEDS 2001); 2002年至2004年「選舉與民主化調查」三年期研究規劃(I)：民國九十一年北高兩市選舉大型面訪案(Taiwan's Election and Democratization Study 2002, 이하 TEDS 2002); 2002年至2004年「選舉與民主化調查」三年期研究規劃(II)：民國九十二年民主化與政治變遷民調案(Taiwan's Election and Democratization Study 2003, 이하 TEDS 2003).



거인 동시에 통독문제에 대한 집합적 선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민족문제에 대한 대만인들의 집합적 선호, 즉 대만 민족주의의 내용 형성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토화에 따른 대만인 정체성 형성과 함께 각 정당을 매개로 표출되고 있는 통독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대만의 현 정치 지형을 주도한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민족에 대한 동일성 인식 과정을 통해 형성된 귀속감인 민족적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인식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동시에 타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 대한 귀속감인 정체성의 형성이 타자인식의 내용과 타자와의 관계 설정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아의 인식이 타자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과 방향은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이 필연적으로 대만의 독립여부에 대한 집합적 선호 또는 집합적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아를 대만 민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개인은 대만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이론적으로 독립과 통일 이외에도 연방, 연맹, 유럽식 통합모델 등 여러 대안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민족과 관련한 집합적 결정 또는 선호의 문제가 독립과 통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심리적 귀속감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집합적 결정 또는 집합 행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정당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

특정 집단에 대한 동일성 인식(group identification)은 대중들의 정치행태(political behavior)를 결정하는 정치적 입장/관점(political attitude)과 심리적 선호/편향(psychological predispositions)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상이한 집단에 동일성 인식을 형성한 개인들은 서로 다른 것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들을 평가한다. 즉, 경험에서 연원하는 집단에 대한 동일성 인식은 개인의 정치적 인식(perception)과 평가(evaluation)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sup>7)</sup>

인간의 집단에 대한 동일성 인식은 자기도식(self-schema)의 표지(標識)이며, 각 개인이 특정 상황(a situation)을 지각하는데 동원하는 관점(perceptual viewpoint)을 획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sup>8)</sup> 자아의 확장이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동일성 인식과정은 정체성 형성 과정이

7) Pamela Johnston Conover, "The Influence of Group Identifications on Political Perception and Evalu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6, No. 3 (Aug., 1984), pp. 760-785.

8) Conover (1984), pp. 762-763.

다. 즉 정체성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을 ‘본질적으로 제한적이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 (imagined political community-imagined as both inherently limited and sovereign)로 정의하였다.<sup>9)</sup> 즉 민족은 구성된다는(constructed)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식된 개인이 가지는 민족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 역시 구성된다.

민족주의는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즉,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정치원칙<sup>10)</sup>이지만 동시에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정체성의 근원을, 주권의 담지자인 동시에 중심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집합적 연대의 기초인 인민/민족(a people) 내에 위치시킨다.”<sup>11)</sup> 따라서, 민족적 정체성은 민족으로 개념화된(또는 구성된) 집단에 대한 동일성 인식 과정을 통해 형성(또는 전환)된(trans|formed) 심리적 귀속감(psychological attachment)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민족은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실현<sup>12)</sup>인 동시에 영토적 한계 내에서 그 제도적 표현<sup>13)</sup>으로서 국가(state) 건설을 실현(또는 지향)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합법적인(de jure) 정치적 실체로서 국제사회의 승인(international recognition)을 실현(또는 지향)하는<sup>14)</sup>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이다.<sup>15)</sup> 이러한 민족의 구성원은 동질적(homogeneous)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상징적, 사회문화적 기제들이 동원된다. 따라서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할 때 정체성의<sup>16)</sup> 또한 전제된다.

일반적으로 인민/민족(a people)은 인간의 다른 모든 하위집단을 포괄하는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실체로 인식된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은 정체성은 동질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은 다양한 정체성들 또는 민족관(nation-view)들이 서로 경쟁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섭/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정체성은 관계적인(relational)<sup>17)</sup> 것이며, 교섭되는(negotiated)<sup>18)</sup> 대상이다.

민족에 대한 귀속감인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은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

9)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Verso, 1991), p. 6.

10)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83), p. 1.

11) Liah Greenf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 3.

12) Greenfeld(1992).

13) Yongnian Zheng,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x.

14) 국제사회의 승인은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의 네 가지 주권 개념 중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legal sovereignty)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 9-25 특히, pp. 14-20 참조.

15) 대만의 경우 이 세 가지 요소는 대만의 ‘정상’ 국가화(normal country)와 관련하여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A-chin Hsiau, “Epilogue: Bentuhua-An Endeavor for Normalizing a Would-Be Nation-State?” in John Makeham and A-Chin Hsiau(2005), pp. 271-273 참조.

16) 유동성(fluidity), 변화가능성(changeability) 유동성이, 민족의 외연과 관련되어 특정 민족의 경계는 고정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그 경계는,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변화가능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존과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정체성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집단은 이를 넘어설 수 있고, 전자와 관련하여 개인과 집단이 가진 정체성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체성의 경계는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Melisa J. Brown, *Is Taiwan Chinese?: The Impact of culture, Power, and Migration on Changing Identi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 16-18 참조.

러한 귀속감은 개인의 정치적 인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 집합 행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체성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형성의 과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단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합치될 때 개인들의 개별적 귀속감이 집합적 결정 또는 집합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과정과 기존 정치과정과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중은 스스로 동원하지 않는다. 정치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중을 동원 또는 탈동원화하여 특정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이들의 개별적 귀속감에서 집합적 결정 및 집합 행위를 이끌어 내고자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과 조건 하에서 누구에 의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이 상상되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 민족으로서의 대만인의 정체성

### 대만인의 정체성

#### 대만민족은 존재하는가?

민족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된, 민족이라는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 대한 심리적 귀속감이라고 할 때 대만 섬에 자리한 정치 공동체에 삶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을 체현하고 있는가?

앞서 필자는 민족을,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이 실현인 동시에 영토적 한계 내에서 그 제도적 표현으로서 국가(state) 건설을 실현(또는 지향)하고, 그리고 합법적인(de jure) 정치적 실체로서 국제사회의 승인(international recognition)을 실현(또는 지향)하는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대만민족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만인들이 대만 섬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그 귀속감의 대상이 민족으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를 탐구해야 한다.

대만에 존재하는 정치적 공동체가 민족을 정의할 때 제시된 영토, 국가성(statehood) 등의 객관적 표지를 만족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민주권의 실현을 대표의 선출 문제로 한정시켜 선거경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만인들은 (피)선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sup>17)</sup>, 입법원(立法院:

17) Pransanjit Duara, "Historicizing National Identity, or Who imagines What and When," in Geoff Eley and Ronald Grigor Suny, eds., *Becoming Nation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163.

18) Brown(2004) 참조.

Legislative Yuan), 국민대회(國民大會; National Assembly) 등 각종 선거에서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sup>20)</sup> 이는 대만의 민족 문제는 주관적 표지인 심리적 귀속감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정체성의 형성과 결정과정: 중층적 결정

민족에 대한 동일성 인식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 귀속감인 민족적 정체성은 자연발생적이고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진공상태에서 처음부터(ab ovo)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특정한 계기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민족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서로 다른 정치적 공동체들에 대한 다양한 귀속감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또는 이와는 다른 대안적 정치 공동체에 대한 상이한 관점의 정체성들이 경쟁하게 된다.

이들 정체성들은 상호 경쟁과 교섭(negotiated)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sup>21)</sup> 즉, 민족적 정체성의 구성은 관계적이며(relational),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이다.<sup>22)</sup> 민족은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실체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의 결과 내적 구성은 이질성을 특징으로 한다. 더구나 [완전한] 문화적 동질화는 불가능하다. 문화적 실천은 한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의 동일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집단 간의 차별성을 조직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승인된 전형에서 벗어난 실천(practices)과 집단(populations)을 기준에 맞추고(normalize), 동질화하는(homogenize)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위계를 조직하고(hierarchize), 이를 제한하고(encapsulate), 배제하며(exclude), 또한 처벌하고(criminalize), 이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 하며(hegemonize), 이들을 소외시킨다(marginalize).<sup>23)</sup>

결국 민족적 정체성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그 내용과 정도가 달라진다. 크루즈(Consuelo Cruz)의 표현을 빌리면, 민족적 정체성은 상상 가능한 가능성들의 총체적 장(a collective field of imaginable possibilities)내에서만 그 형성이 가능하다.<sup>24)</sup>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올바른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19)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06년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대만은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 (civil liberties) 부문에서 모두 1점을 받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칠레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에 각각 1점과 2점을 받았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7점과 6점을 받았다. <http://www.freedomhouse.org/uploads/pdf/Charts2006.pdf>

20) 객관적 표지 중 국제적 승인 실현(또는 지향)의 문제는 이른바 '대만문제'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1) Duara(1996);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Brown(2004) 참조.

22) Duara(1995, 1996) 참조.

23) William H. Sewell, Jr., "The Concept(s) of Culture," in Victoria E. Bonnel and Lynn Hunt, eds., *Beyond the Cultural Tur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 56.

24) Consuelo Cruz, "Identity and Persuasion: How Nations Remember Their Pasts and Make Their Futures," *World Politics*, 52 (April, 2000), pp. 275-312 참조.

## 종족적 정체성과 대만 정체성

### 성적(省籍)과 종족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형성 이전에 대만 사회의 사회적 균열은 이른바 성적모순(省籍矛盾)이라는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과 대립이었다. 성적모순은 민난(閩南)계를 중심으로 한 대만인들과 국공내전에서 패전으로 대만으로 철수한 대륙인들의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 정부 간 갈등과 마찰이라는 형태로 표출됐다. 이는 본질적으로 종족적 정체성 간의 갈등과 대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의 종족(ethnic)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본성인들 역시 외성인들과 같이 대륙 출신으로 주로 동서연해지구(주로 푸젠성과 광둥성) 출신이다. 실제로 인종적 차이가 나타나는 원주민의 경우 2003년 현재 전체 인구의 2%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省籍)을 중심으로 한 갈등은 종족 간의 그것으로 전치되어갔고, 이들 집단은 상호 대별되는 종족적 정체성의 형성으로 결과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의 할양 이후 50년간 지속된 대만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와 대만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은 대륙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대만인(native Taiwanese)으로서의 정체성의 형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에게 이러한 대만인들의 정체성은 고려나 관심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전 이후 대만의 주권을 회복한 중국국민당 정부의 대만인들에 대한 태도는 해방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승리를 통해 획득한 지역에 대한 점령자의 그것이었다. 국민당 당국은 본성인들을 이등시민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에 대한 요구는 묵살되었다.<sup>25)</sup> 1947년의 2.28 사건<sup>26)</sup>과 일련의 백색테러 이후 외성인과 본성인 간의 구분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구분으로 통치되어 감에 따라,<sup>27)</sup> 본성인과 대륙인의 성적 구분이 사실상 종족 간 구분으로 고착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고착은 서로 다른 정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객관적 개념으로서의 성적이 종족 집단 형성의 주관적 기준으로 전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종족적 정체성 간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대만인 정체성을 형성해 내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국민당 정부의 대만의 지위에 대한 기본 입장은 현재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입장과 동일하였다. 즉, 대만은

25) Christopher Hughes, *Taiwan and Chinese nationalism: National identity and status in international society* (Routledge, 1997), p. 25.

26) 2.28사건의 전개와 의미에 대해서는 張星久, 吳懷連, 「대만현대정치사 上」, 한인회 옮김, (지영사, 1992), p. 72; C. L. Chiou, "Taiwan's evolving nationalism: Ideology for independence", in Leong H. Liew and Shaoguang Wang, eds., *Nationalism, Democracy and National Integration in China*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pp. 110~112; Christopher Hughes(1997), pp. 25~26; Robert Edmondson, "The February 28 Incident and National Identity," in Stephane Corcuff(2002), pp. 25-46.

27) 王家英, 「대만내셔널리즘의 발흥과 변천」, 『민족연구』, 제5호(한국민족연구원, 2000), p. 134. 이러한 의미에서 종족적 갈등은 새로운 '식민' 지배로부터의 '탈식민'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정체성은 결국 사회적 범주, 그중에서도 특히 개별 구성원이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거나 다소간 변화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표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범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국의 하나의 '성'(省)에 불과하며 따라서 본성인들은 중국인으로 간주되었고, 이와 다른 형태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무시, 억압되었다. 특히,

1966년 중화문화부흥운동(中華文化復興運動) 추진 이후 국민당 정부는 국가기구를 동원한 대대적이고 억압적인 본성인에 대한 중국화 정책을 단행하였다.<sup>28)</sup> 결국 국민당 정부는 정체성 간 다름을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국민당이 주도 하에 통일된 '중국'을 귀속감의 대상으로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 종족적 정체성을 넘어

대만의 민주화는 국민당-외성인 중심의 독점적 권력구조의 해체와 함께 종족적 부정의(ethnic injustice)의 극복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본성인들은, 선거제도의 부분적 도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표되지 못함으로써 국민당 정부 하에서 주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기존의 자신들의 정체성 역시 일제잔재의 척결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부정되어 왔다. 국민당의 중화문화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중화적 요소는, 오히려 본성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정치·문화면에서의 대륙에 대한 소외감은 본성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29)</sup>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은 민주화 및 본토화와 결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분절이 아닌 통합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종족적 갈등은 일차적으로 국민당 정부-외성인의 중화민족주의에 대한 반발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그 갈등은 본성인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독점적 권력구조의 해체와 이를 통한 종족적 불평등의 해소로써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즉, 기존의 갈등구조는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본토화라는 국민당 정부의 대응을 가능케 한 구조였던 것이다. 선거경쟁은 다수의 확보를 일차적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본성인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종족 간 차이와 갈등을 가로지르려 했던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신대만인'(New Taiwanese) 선언은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 아래로부터의 도전인 종족적 정체성의 형성과 종족 간 갈등은 위로부터의 대응인 민주화와 본토화를 불러왔고, 이는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제는 외성인의 대륙이 아닌 대만인의

28) Wang(2005).

29) Ibid., p. 135.

본토가 문제의 핵심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 민족적 정체성으로서의 대만인의 심리적 귀속감

#### 측정의 문제: 대만인? 중국인?

대만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관적 정체성 인식을 중심으로 한다. 즉, '대만인(台灣人)', '중국인(中國人)', 그리고 '대만인인 동시에 중국인'의 세 범주 중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주관적 인식 기준으로 정체성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sup>30)</sup>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내용과 정도를 해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대만인'과 '중국인'의 내포와 외연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A와 중국인을 우선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B가 생각하는 '중국인' 또는 '중국'이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각각의 경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집단에 대한 동일성 인식이 자기도식의 표지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개인의 자기도식은 중요성(salience)과 차별성(distinctiveness)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sup>31)</sup> 정체성은 결국 사회적 범주, 그중에서도 특히 개별 구성원이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거나 다소간 변화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consequential) 표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범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회적 범주들은 두 가지 중요 특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1) 누가 범주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 자격의 준거(rules of membership), 그리고 (2) 특정 범주의 구성원들에게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들 또는 일정한 상황 하에서 구성원들에게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동(역할) 등의 총체(sets)로서의 내용(content) 등이 그것이다.<sup>32)</sup>

정체성을 이상과 같이 사회적 범주로서 이해할 때, 대만인들의 대만의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의 내용과 정도는, 이들이 '대만인'과 '중국인'이라는 사회적 범주를 규정하는 자격의 준거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 대만인의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에서 민족적 정체성으로

#### 주관적 정체성 인식의 변화 양상

기존의 세 범주화에 따른 대만인들의 주관적 정체성의 인식 변화상의 특징은 <그림 2.1>

30) TEDS: K1: 在我們(台語: 咱)社會上, 有人設自己是「台灣人」, 也有人設自己是「中國人」, 也有人設都是. 請問您認為自己是「台灣人」, 「中國人」, 或者都是?; K1a: 請問您覺得您自己「是台灣人也是中國人」, 還是說「是中國人也是台灣人」?

31) Conover(1984), p. 764.

32)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tin, "Violenc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4 (Autumn, 2000), p. 848.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만인 정체성의 증가와 중국인 정체성의 감소, 그리고 과반에 근접하는 이중 정체성의 지속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소의 변동이 존재하지만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진 사람들의 수의 경우, 지난 5년간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10월 『台灣中央通信』 보도에 따르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전체 62.2%, 중국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은 14.4%를 차지하였고,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18.6%에 불과하였다.<sup>33)</sup> 이러한 변화는 2005년 2월 『聯合報』의 보도에서도 확인되는데, 전체 응답자 817명 중 자신을 대만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 63%, 중국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14%를 차지하였다.<sup>34)</sup> 자신을 중국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의 비중이 일정하게 지속되었다는 점과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중적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과연 이들 중 누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했는가? 아래 <표 2.1>은 이러한 물음에 적절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표 2.1>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만인 정체성의 증가와 이중적 정체성의 감소이다. 그러나 그 변동 폭은 앞서 제시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 둘째, 이중적 정체성 내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과 2003년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대만인 우선의 비중은 14.3%에서 25.2%로 10.9% 포인트 증가하였고, 중국인 우선의 비중은 31.5%에서 9.6%로 21.9% 포인트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으로 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대만인 우선의 이중 정체성으로 재구성하고, 대만인 우선의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서만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3년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규정한 사람들과 대만인 우선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비율은 약 70%로 이는 2004년과 2005년 자신을 대만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의 비율인 62~63%에 근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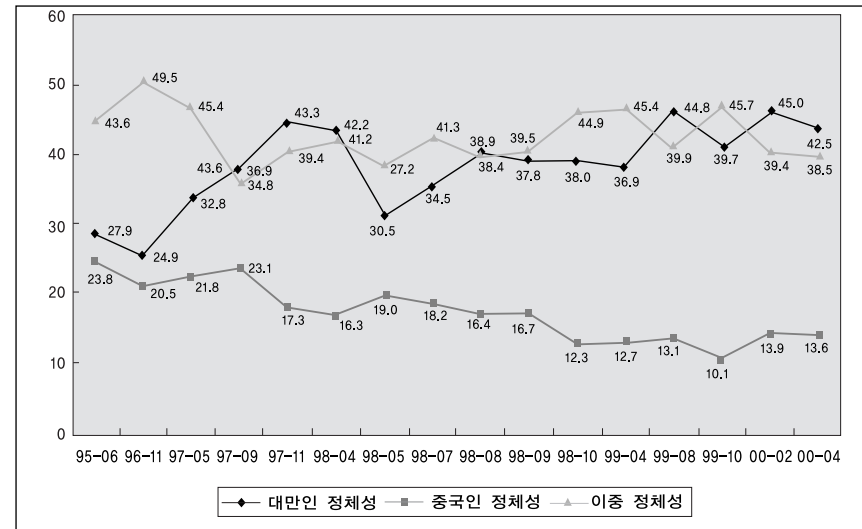
또한 중국인 우선의 이중적 정체성과 양자 간의 차이가 없다는 사람들의 경우 2003년 약 22%로 2004년 자신의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의 19%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대만인 우선의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포함하여 2003년 현재 약 70%에 이르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인 우선의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 전체 15%에 불과하다.

33) 『台灣中央通信』 2004년 10월.

34) 『聯合報』 2005년 2월 28일.



〈그림 2.1〉 대만인들의 주관적 정체성 인식 변화 (1995~2000)



출처: 臺灣 行政院大陸委員會 (www.mac.gov.tw)

〈표 2.1〉 대만인들의 주관적 정체성 인식변화 (2001~2003년 단위: %)

	2001	2002 (타이베이)	2002 (가오슝)	2002 (평균)	2003	
대만인 정체성	36.5	35.7	44.8	40.25	44.4	
이중적 정체성	51.7	53.0	46.1	49.55	47.6	
	대만인 우선	14.3	13.6	11.9	12.75	25.2
	차이 없음	5.1	6.1	3.8	4.95	12.0
중국어 우선	31.5	33.0	29.9	31.45	9.6	
중국어 정체성	8.5	8.0	6.1	7.05	6.5	
기타	3.9	3.6	3.5	3.55	2.4	
N	2022	1216	1227		1674	

자료: TEDS 2001, 2002, 2003.

### 사회적 범주로서 '대만인' 과 '중국어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대만인' 과 '중국어인' 의 개념이 명확한 정의 아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2>는 어떠한 집단이 '대만인' 과 중화민족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이 다. 위 표에서 '대만인' 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의 경우 '대만인' 또는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통독문제와 관련하여 '대만인' 의 경우 양안통일파에 대한 인식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외국거주교민의 경우 '대만인' 에 포함된다는 의견

〈표 2.2〉 누가 '대만인' 또는 중화민족인가

(단위: %)

대만인				중화민족			
	포함	불포함	기타		포함	불포함	기타
외성인	85.7	9.2	5.1	외성인	91.5	3.9	4.6
민남인	96.6	1.1	2.3	민남인	94.5	1.8	3.7
객가인	95.4	1.8	2.8	객가인	93.9	2.1	4
원주민	96.3	1.1	2.6	원주민	90.8	4.9	4.3
현재 외국거주교민	45.2	37.5	17.3	중국대륙인민	74.9	16.9	8.2
대만독립파	85.7	4.6	9.7	현재 외국거주교민	62.5	23.6	13.9
양안통일파	75.2	13	11.8	대만독립파	82.3	6.7	11
				양안통일파	80.9	7.2	11.9
N	2016			N	2016		

자료: TSCS 2003 47a 중화민족 47b 대만인.

〈표 2.3〉 주관적 정체성 인식\* '중국인' 으로서의 자각 교차표

			대만인정체성	이중 정체성	중국인정체성	N
중국인임이 자랑스럽다*	매우 동의	관측빈도(I)	19.0	81.0	19.0	118
		기대빈도(II)	52.0	58.8	7.9	
		I-II	-33.0	22.2	11.1	
	동의	관측빈도	261.0	456.0	64.0	777
		기대빈도	342.4	386.7	51.8	
		I-II	-81.4	69.3	12.2	
	부동의	관측빈도	305.0	178.0	14.0	496
		기대빈도	218.2	246.5	33.0	
		I-II	86.8	-68.5	-19.0	
	매우 부동의	관측빈도	63.0	17.0	1.0	81
		기대빈도	35.4	40.0	5.4	
		I-II	27.6	-23.0	-4.4	
N			648	726	98	1472

\* 설문 M9a. 不管中國是怎樣的落伍(台: 落伍), 我覺得做一個中國人是最值得驕傲的.  
자료: TEDS 2003.

이 45%에 불과하다는 점과 중국대륙인민이 중화민족에 포함된다고 하는 의견이 7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대만인' 이 중화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 경계 내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지칭한다는 점과 '중국인' 이 적어도 중화민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론해 낼 수 있다. <표 2.3>은 주관적 정체성 인식과 중국인으로서의 자각 문항 간 교차표로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중국인' 이라는 기표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을 통해 '중국인' 이 의미하는 바를 해명하기 위함이다.

교차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확률 0.0으로 중국인으로서의 자각과 주관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강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경우 "중국인임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명

제가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찰빈도와 기대빈도 간 차가 동의에서 동의하지 않음으로 갈 때(-)에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찰빈도와 기대빈도 간 차의 절대값을 통해 그 정도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일명제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와는 반대로 관찰빈도와 기대빈도 간 차가(+)에서(-)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만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 '중국인' 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만인' 과 '중국인' 의 사회적 범주를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인' 은 '대만인' 과 '중국인' 을 중첩적인 사회적 범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만인' 은 영토적/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중국인' 은 시원적/문화적 척도에 따라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up>35)</sup>

그러나 <표 2.3>은 이러한 해석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대만인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 다른 집단의 '중국인' 을 바라보는 인식들이 다르며, 이에 따라 하나의 개념을 놓고 상반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기존의 중화적인 것에 대한 반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중적 정체성의 감소가 200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문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통독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정당일체감의 문제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는 누가 나의 동포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묻고 있다. 도표의 윗부분은 정치적, 시민적 척도를, 아래는 문화적, 시원적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대만인들은 대만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인종적, 문화적, 혈연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시민적 척도를 통해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치적, 시민적, 영토적 성격을 가지며, 문화적 내지 종족적 성격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기존의 종족적 것에서 민족적인 것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대만의 민족주의가 일차적으로 시민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집단의 '중국인' 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것이 종족적 민족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중국인' 범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 중국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35) Chia-lung Lin, "The Political formation of Taiwanese nationalism," in Leong H. Liew and Shaoguang Wang(2004), p. 127.

## 민족적 정체성과 정당일체감

### 민족적 정체성과 정당일체감

####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 정치엘리트의 역할과 한계

앞에서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치적, 시민적, 영토적 척도를 기준으로 한 민족을 심리적 귀속감의 대상으로 하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집단에 대한 동일성 인식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심리적 귀속감으로서의 정체성은 따라서 그 출발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수준의 정체성이 집합행위로 전환될 때 비로소 민족은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족-국가 건설을 실현(또는 지향)하며 국제적 승인을 실현(또는 지향)할 수 있는 실천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심리적 귀속감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을 매개로 집합행위로 전환되는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브로일리(John Breuilly)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정치의 한 형태이다. 민족주의는 정치에 관한 것이고, 정치는 권력에 관한 것이며, 근대세계에서 권력은 대체로 국가에 대한 지배(control)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정치는 국가권력의 장악과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민족주의는 국가권력의 장악과 실현을 위한 정치엘리트들의 합리적 선택의 과정이다.<sup>36)</sup> 한편, 자오(Suisheng Zhao)는 이른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자기이해관계적인 행위의 결과로 본다. 민족의식은, 특정 이해관계들 또는 정치적 힘들이 성공적으로 정치적 공동체 또는 민족의 역사를 상상해내고, 인위적으로 공유된 기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인민/민족(people)이라고 설득해내는 역사적 맥락의 결과이다.<sup>37)</sup> 따라서

〈표 2.4〉 누가 나의 동포(同胞; countrymen)인가에 대한 판단기준\*

(N=2016, 단위: %)

	대만에서 출생여부	대만국적 보유여부	대만에서 의 거주 기간	대만정치 체제와 법 률준중	대만에 대 한 동일성 인식	국어 (中國語) 구사능력	閩南語 구사 능력	客家語 구사 능력	拜拜 행사 여부	선조의 본국인 여부
매우 중요	32.7	43.4	33.9	53.8	56.5	23.3	20	5.2	7.5	21.62
조금 중요	31.5	34.5	37.7	34.2	33.0	34.8	32.1	19.2	17.9	8.1
그다지 중요않음	23.9	14.3	21.3	6.0	5.8	30.1	36	52.2	38.1	33.2
전혀중요않음	9.0	5.1	4.6	2.0	1.7	9.5	9.7	20.1	33.8	13.8
기타	2.8	2.7	2.5	3.9	3.0	2.2	2.2	3.2	2.5	23.2

\* 설문 17. 如果要成爲我們眞政的同胞, 有人認爲下列條件非常重要, 也有人認爲下重要. 請問您覺得它們重不重要? 1. 非常重要 2. 有點重要 3. 不怎麼重要 4. 一點也不重要 5. 無法決定  
자료: TSCS 2003

36) John Breuilly, *Nationalism and the State, 2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37) Suisheng Zhao,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Dynamics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 4.

민족주의는 역사발전의 국면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situational). 결국 민족 구성 (construction)과 그에 따른 민족주의의 형성은 정치 엘리트(political entrepreneurs)들의 특정 환경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sup>38)</sup>

그러나 정치엘리트들이 어떠한 정체성이라도 자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 역시 대중들과 동일한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와 선택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올바른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특히 일단 형성된 대중들의 정체성은 이후 정치 엘리트들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경쟁하는 복수의 엘리트 집단의 존재는 그들의 의도와 능력을 상호 제약한다.

### 집합적 선호에 대한 매개로서의 정당일체감

선거는 시장과 함께 유일하게 개인들의 선택을 집합적 결정에 매개하는 수단이다.<sup>39)</sup> 특히 대만의 경우 여러 조건으로 인하여 정당들 간의 선거경쟁은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통독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sup>40)</sup> 이하에서는 앞서 제기한 개인수준의 정체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합적 결정 내지 선호로 전환 내지 구성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을 중심으로 해명하려고 한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치엘리트들은 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장악을 의도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동원의 기제를 활용한다. 민족적 정체성 역시 이러한 동원 기제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의 논의의 토대가 준거집단이라고 할 때<sup>41)</sup> 정당일체감을 형성한 개인은 정당을 준거집단으로 활용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한 정체성은 공백 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정체성들과 절연된 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만의 정당일체감

### 왜 정당일체감인가?

현 대만의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각종 선거에서의 민진당의 잇따른 패배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12월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의석수를 2석 늘리는데 만족해야만 했고, 범람진영에게 의회다수파의 지위를 넘겨주고 말았다. 2006년 3월 가이(嘉義)시 입법위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당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한편, 2005년 12월 현(시)장 선거에서도 민진당은 참

38) Ibid., p. 5.

39) Angus Campbell,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unabridge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1980), p. 3.

40) Chu(2001).

41) Campbell et al.(1978/1980); Warren E. Miller and J. Merrill Shanks,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2004년 12월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의석수를 2석 늘리는데 만족해야만 했고, 범람진영에 다수파를 넘겨주고 말았다.

패하고 말았다. 민진당은 전체 23곳 중 6곳에서만 승리하였으며, 타이베이(臺北)현과 이란(宜蘭)현 장 직을 내놓는 등 큰 패배를 맞보아야만 했다. <

표 3.1>과 <표 3.2>는 90년대 이후 입법위원 선거와 현(시)장 선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5월 비례대표 정당투표제 방식으로 치러진 국민대회대표선거에서 민진당은 126석을 차지하여, 21석을 획득한 같은 범록진영의 대만단결연맹과 함께, 117석을 차지한 국민당, 18석을 차지한 친민당의 범람진영에 대하여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득표율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한다.

입법위원 선거의 경우, 민진당은 1992년 선거 이래로 각각 30.8%(1992), 33.2%(1995),

<표 3.1> 입법위원 선거 결과

	第2屆 立法委員選舉 (1992.12)			第3屆 立法委員選舉 (1995.12)			第4屆 立法委員選舉 (1998.12)			第5屆 立法委員選舉 (2001.12)			第6屆 立法委員選舉 (2004.12)		
	의석수	의석비율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득표율
민진당	51	31.7	30.8	54	32.9	33.2	70	31.1	29.6	87	38.7	33.4	89	39.6	35.7
대련	-	-	-	-	-	-	-	-	-	13	5.8	7.8	12	5.3	7.8
범록										100	44.4	41.2	101	44.9	43.5
국민당	101	62.7	52.5	85	51.8	46.1	123	54.7	46.4	68	30.2	28.6	79	35.1	32.8
신당	-	-	-	21	12.8	13	11	4.9	7.1	1	0.4	2.6	1	0.4	0.1
친민당	-	-	-	-	-	-	-	-	-	46	20.4	18.6	34	15.1	13.9
범람										115	51.1	49.8	114	50.7	46.9
기타	9	5.6	16.7	4	2.4	7.8	20	8.9	17.0	10	4.4	9.0	10	4.4	9.6
합계	161			165			225			225			225		

\* 대련: 台灣獨立聯盟; 범록: 泛綠陣營; 범람: 泛藍陣營; 신당: 中國新黨  
출처: 臺灣 中央選舉委員會

<표 3.2> 현(시장) 선거 결과

	第13屆 縣(市)長選舉 (1997.11)		第14屆 縣(市)長選舉 (2001.12)		第15屆 縣(市)長選舉 (2005.12)	
	당선자수	득표율	당선자수	득표율	당선자수	득표율
민진당	12	43.3	9	45.3	6	42.0
대련	-	-	-	-	0	1.1
범록					6	43.1
국민당	8	42.1	9	35.1	14	51.0
신당	0	1.4	1	9.9	1	0.2
친민당	-	-	2	2.2	1	1.1
범람					16	52.3
기타	3	13.2	2	7.3	1	4.7
합계	23		23		23	

출처: 臺灣 中央選舉委員會

29.6%(1998), 33.4%(2001), 35.7%(2004)의 득표율을 보여 왔다. 또한 현(시)장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97년 이래로 43.3%(1997), 45.3%(2001), 42.0%(2005)의 안정적인 득표율을 보여 왔다. 2004년 입법위원 선거는 의석수에서만 아니라 득표율에서의 진전을 보여준 선거였고, 2005년 선거의 경우는 득표율이 약 3%정도 감소하기는 했지만 득표율만으로는 당선자 수에서 국민당과 2001년 9:9에서 2005년 6:14로 악화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즉 각종 선거에서의 의석수 또는 당선자 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득표율을 통해 고정 지지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실제 선거 결과는 상이하지만, 일정한 득표율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지층은 결국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유권자들(party identifiers)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이 곧바로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그림 3.1>은 92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선거에서의 각 정당별 득표율을 보여주는데, 각 정당 특히 민진당과 국민당의 득표율이 안정적인 지지선 이상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민진당의 득표율은 대략 35%를 하한선으로 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민당 내 파벌갈등의 기원인 신당과 송추위(宋楚瑜)의 친민당은 지방선거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선거에서의 득표율도 점차 하락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국민당의 득표율은 반등하고 있다. 이러한 득표율 양상은 2005년 6월에 통과된 헌법 개정안이 담고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와 함께 양당제의 출현을 예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한다.

### 대만의 정당일체감

TEDS 2003을 이용하여 정당별, 단계별로 정당일체감을 분류하면 <표 3.3>과 같다.

TEDS는 정당일체감의 정도를 강, 중, 약의 3단계로 나누고 H1 질문에서 아니라고 응답을 한 사람들을 무당파(independent)로 분류하고 이들의 정당성향을 H1b에서 확인함으로써 정당일체감을 모두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즉, 강한 수준의 정당일체감, 중간 수준의 정당일체감, 약한 수준의 정당일체감 마지막으로 무당파 중 정당성향을 갖는 경우(independent leaner)가 그것이다.<sup>42)</sup>

대만 유권자 중 58%가 특정 정당에 대하여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약 44%가 민진당에, 34%는 국민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비중을 보면 4명 중 1명은 민진당에, 5명 중 1명은 국민당에 대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는 정당별 정당일체감에 따른 정당별 호감도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42) H1. 目前國內有幾個主要政黨, 包括國民黨, 民進黨, 親民黨, 新黨, 以及台灣團結聯盟, 請問是否(台: 敢有) 偏向任一政黨?  
H1a. 那相對來說(台: 那安捏比較起來), 請問有沒有稍微偏向任一政黨?  
H1b. 請問是任一政黨?  
H1c. 請問, 怎偏向這個政黨的 정도는??, 普通, 還是有一點?



〈표 3.3〉 대만의 정당일체감(2003)

	사 례 수	퍼 센 트
국민당에 대한 강한 정당일체감	58	5.9
국민당에 대한 보통의 정당일체감	119	12.2
국민당에 대한 약한 정당일체감	40	4.1
무당파 중 국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115	11.8
국민당	332	34.0/19.83*
민진당에 대한 강한 정당일체감	70	7.2
민진당에 대한 보통의 정당일체감	151	15.5
민진당에 대한 약한 정당일체감	67	6.9
무당파 중 민진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137	14
민진당	425	43.5/25.39*
신당에 대한 강한 정당일체감	1	0.1
신당에 대한 보통의 정당일체감	4	0.4
무당파 중 신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2	0.2
신 당	7	0.7/0.42*
친민당에 대한 강한 정당일체감	27	2.8
친민당에 대한 보통의 정당일체감	57	5.8
친민당에 대한 약한 정당일체감	36	3.7
무당파 중 친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62	6.4
친민당	182	18.6/10.87*
대련에 대한 강한 정당일체감	5	0.5
대련에 대한 보통의 정당일체감	10	1.0
대련에 대한 약한 정당일체감	4	0.4
무당파 중 대련에 대한 정당일체감	11	1.1
대 련	30	3.1/1.79*
	976/1674	100/58.30*

\* 정당일체감 응답자 중 비중/전체응답자 중 비중  
자료: TEDS 2003.

〈표 3.4〉 정당일체감에 따른 각 정당별 호감도 평균

	사 례 수	퍼 센 트	동일집단군
국민당에 대한 호감도 (11점 척도 0-10)	민진당	3.99 (422)	민진당+대련 vs. 신당+친민당 vs. 친민당+국민당
	대 련	4.10 (29)	
	신 당	5.71 (7)	
	친민당	5.99 (182)	
민진당에 대한 호감도 (상동)	국민당	7.33 (329)	친민당+국민당+신당 vs. 대련+민진당
	친민당	3.47 (182)	
	국 민 당	3.80 (329)	
	신 당	4.14 (7)	
친민당에 대한 호감도 (상동)	대 련	6.34 (29)	민진당+대련 vs. 신당+국민당 vs. 국민당+친민당
	민진당	7.11 (423)	
	대 련	2.84 (418)	
	신 당	2.93 (29)	
신당에 대한 호감도 (상동)	신 당	5.33 (6)	민진당+대련 vs. 국민당+친민당 vs. 친민당+신당
	국 민 당	5.65 (322)	
	친민당	7.37 (182)	
	민진당	2.31 (403)	
대련에 대한 호감도 (상동)	대 련	2.52 (29)	친민당+신당+국민당 vs. 민진당
	국 민 당	4.43 (311)	
	친민당	5.13 (178)	
	신 당	6.67 (6)	
대련에 대한 호감도 (상동)	친민당	2.01 (180)	친민당+신당+국민당 vs. 민진당 vs. 대련
	신 당	2.17 (6)	
	국 민 당	2.43 (314)	
	민진당	4.49 (406)	
	대 련	7.41 (29)	

설문 H2. 我們想要請您用0到10來表示您對國內幾個政黨的看法。0表示您「非常不喜歡」這個政黨，10表示您「非常喜歡」這個政黨。首先請問\*\*黨您要給他多少?  
자료: TEDS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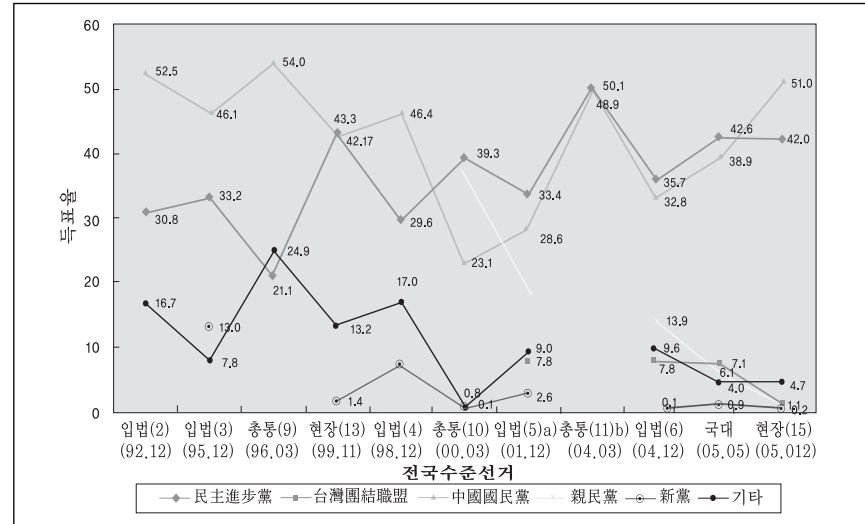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한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정당이 하나의 준거집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입장/관점(political attitude)과 심리적 선호/편향(psychological predispositions)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정당일체감을 기준으로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연관성을 살펴볼 때 정당 간 경쟁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간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할 경우 조정과 타협보다는 상호불신, 대립과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에서 범람진영과 범록진영 간 관계에 있어 다른 진영에 속한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일체감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더 강하다.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서 일체화된 동일정당에 대한 평균을 제외할 경우 범람진영에 대한 호감도는 범록진영과 범람진영으로 나뉘어 알 수 있다. 범록진영의 경우 민진당에 대한 호감도는 범람진영의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범록진영과 범람진영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대련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는 특이하게 동일 집단군이 셋으로 나누어진다. 즉, 대



〈그림 3.1〉 각종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 변화



\*입법: 立法委員選舉; 총통: 總統選舉; 현장: 縣(市)長選舉; 국대: 國民大會代表選舉  
 a) 2001년 12월 第14屆 縣(市)長選舉 정당별 득표율: 민진당 45.3%, 국민당 35.1%, 신당 9.9%, 친민당 2.2%  
 b) 공동후보: 총통후보(국민당) 쉐안(連戰), 부총통후보(친민당) 쑹추위(宋楚瑜)  
 출처: 臺灣 中央選舉委員會

련에 대한 호감도는 범람진영 vs 민진당 vs 대만독립연맹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련의 경우 민진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도 평균 4.49라는 보통 이하의 호감을 주고 있다. 대련에 일체감을 느끼는 집단의 민진당에 대한 호감도 평균이 6.34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정당일체감이 투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표 3.5>는 2000년 총통선거 결과와 정당일체감 간 교차표이다. <표 3.5>는 2000년 선거에서 왜 국민당의 쉐안 후보가 3위에 그쳤으며 쑹장 후보가 선전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민진당에 정당일체감을 갖는 집단의 천-취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무당파 중 민진당 성향의 집단들조차 90% 가까이 민진당 후보에 표를 던졌고, 강한 정당일체감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거의 100% 가까운 지지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천-취 후보는 39.3%의 지지를 얻어 36.8%에 그친 쑹장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표의 결집은 친민당 그룹 내에서도 확인된다. 반면 국민당의 경우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제외하고(약 70%), 나머지 집단 내에서 친민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국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례수를 보이는 중간 수준의 정당일체감 집단의 경우 표가 양분되었으며, 무당파 중 국민당성향의 집단의 경우는 오히려 친민당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 이상의 투표 결과는 대만의 정당정치에서 정당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정당일체감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충성심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거결과

〈표 3.5〉 정당일체감\* 2000년 총선거 교차표

	宋-長(친민당)	連-肅(국민당)	李-馮(신당)	許-朱(신당)	陳-呂(민진당)	사례수
강한 국민당	25.0%	73.2%	0.0%	0.0%	1.8%	56
보통 국민당	38.0%	39.5%	0.0%	0.0%	8.3%	108
약한 국민당	44.1%	47.1%	0.0%	0.0%	8.8%	34
무당파 국민당	47.6%	38.1%	0.0%	1.2%	13.1%	84
국민당	39.0%	52.1%	0.0%	0.4%	8.5%	282
강한 민진당	0.0%	1.5%	0.0%	0.0%	98.5%	68
보통 민진당	0.7%	2.9%	0.0%	0.0%	95.6%	136
약한 민진당	1.8%	7.0%	0.0%	1.8%	89.5%	57
무당파 민진당	3.4%	6.9%	0.9%	0.0%	88.8%	116
민진당	1.6%	4.5%	0.3%	0.5%	93.1%	377
강한 친민당	92.0%	4.0%	0.0%	0.0%	4.0%	25
보통 친민당	90.4%	7.7%	0.0%	0.0%	1.9%	52
약한 친민당	87.1%	6.5%	0.0%	0.0%	6.5%	31
무당파 친민당	86.3%	3.9%	0.0%	2.0%	7.8%	51
친민당	88.7%	5.7%	0.0%	0.6%	5.0%	159

\* 第十任 總統(副總統)選舉候補: 천수이벤(陳水扁)·뤼슈롄(呂秀蓮)(민진당) 對 렌잔·샤오완창(蕭萬長)(국민당) 對 쑹추위(宋楚瑜)·장자오슝(長昭雄)(친민당) 對 리아오(李敖)·펑후샹(馮滙祥)(신당) 對 쉬신량(許信良)·즈후이량(朱惠良, Josephine Chu)(무당적)  
자료: TEDS 2003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정당일체감과 주관적 민족적 정체성

그렇다면 대만에서 정당일체감과 민족적 정체성 간에 과연 상관성이 존재하는가?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확률은 0.0으로 정당일체감과 민족적 정체성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민진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집단의 증가는 민진당에 대한 동일성 인식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민진당은 범람진영의 국민당, 친민당 등과 달리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인으로서 정체성 인식이 민진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독립문제와 결합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 국민당과 친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국민당과 친민당이 이들을 동시에 목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민당이 적실성 있는 정당으로 남아있는 한 국민당은 고정지지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친민당과 국민당은 통독문제에 있어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범람진영과 범록진영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결과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사람들 중 국민당과 친민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경우가 각각 34%와 18.6%이다. 이들을 합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국민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산하면 52.6%이고, 이는 민진당에 대한 일체감에 가지는 집단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따라서 통독문제를 둘러싼 범람진영과 범록진영 간의 경쟁은 현재의 대립적 양상을 한동안 지속할 듯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최근 2,3년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입장이 대만인 정체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당과 친민당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셋째,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국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신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중국인 정체성간에도 양(+)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신당의 적실성 상실로 인하여 대만의 정치지형에는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듯하다. 한편,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련에 대한 정당일체감 간에 양(+)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는 대련에 대한 지지층이 극단적인 대만독립파와 국민당 내의 리덩후이 지지 세력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sup>43)</sup>

## 민족적 정체성과 통독(統獨)문제

### 대만문제

#### 대만문제 : '하나의 중국' 원칙

양안 간 갈등과 대립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양안 간 무력분쟁은 미국의 개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의 개입은 미·중간 전쟁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sup>44)</sup> 이러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양안 간 갈등은 이른바 '대만문제'<sup>45)</sup>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대만문제란, 대만의(국제적) 지위(status)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만문제는 국제 체제 내에서 대만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또는 그 지위의 변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

43) Gunter Schubert, "Taiwan's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Identity: Rise of an Overarching Consensus," *Asian Survey*, Vol. 44, No. 5 (2004), p. 553.

44) Nancy Bernkopf Tucker, "Dangerous Strait: an Introduction," in Nancy Bernkopf Tucker(2005) 참조.

45)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서진영, 『21세기 중국의외교정책: '부강한 중국' 과 한반도』(폴리테이아, 2006), p. 273이하 참조.

〈표 3.7〉 정당일체감\* 주관적 정체성 인식 교차표

구 분			주관적 정체성 인식				
			대만인정체성	이중적경체성	중국인정체성	모름	전체
정당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	국민당	빈도	83	202	44	3	332
		기대빈도	142.8	164.1	23.7	1.4	332
		열 %	19.70%	41.60%	62.90%	75.00%	33.80%
	민진당	빈도	292	128	9	1	430
		기대빈도	185	212.6	30.7	1.8	430
		열 %	69.20%	26.40%	12.90%	25.00%	43.80%
	신 당	빈도	2	3	2	0	7
		기대빈도	3	3.5	0.5	0	7
		열 %	0.50%	0.60%	2.90%	0.00%	0.70%
	친민당	빈도	26	145	11	0	182
		기대빈도	78.3	90	13	0.7	182
		열 %	6.20%	29.90%	15.70%	0.00%	18.60%
	대 련	빈도	19	7	4	0	30
		기대빈도	12.9	14.8	2.1	0.1	30
		열 %	4.50%	1.40%	5.70%	0.00%	3.10%
	전 체	빈도	422	485	70	4	981
		기대빈도	422	485	70	4	981
		열 %	100%	100%	100%	100%	100%

\* 자료: TEDS 2003.

제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 과 이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는 이러한 대만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대만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대만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행정단위인 성(省)에 불과하며, 이러한 지위에 변동을 초래할 어떠한 행위도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무력개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2005년 3월 14일 제10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된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sup>46)</sup> 대만문제와 관련된 동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

第八條 “台獨” 分裂勢力以任何名義, 任何方式造成台灣從中國分裂出去的事實, 或者發生將會導致台灣從中國分裂出去的重大事變, 或者和平統一的可能性完全喪失, 國家得採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 捍衛國家主權和領土完整.

依照前款規定採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 由國務院, 中央軍事委員會決定和組織實施, 並及時向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報告.<sup>47)</sup>

“중국으로부터의 분열”(從中國分裂出去)이라는 표현에서 중국정부의 대만 지위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대만의 지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여 중국정부는 양안 관계 문제에 대한 대만당국과의 대화와 교섭을 당(黨) 대 당(黨)의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46) <반분열국가법>의 내용과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서진영(2006), pp. 300-306 참조.

47) <http://tw.people.com.cn/GB/14810/3240911.html>. 강조는 필자.

대만문제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본토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달리 대만은 대만문제에 관한 합의 (consensus) 형성에 실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진당 정부와 각 정당들이 각개약진하고 있다.<sup>48)</sup> 대만문제를 둘러싼 각 정당의 입장 차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이를 수용하는 범람진영은 양안 간 통일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원칙’을 주장하는 범록진영은 독립노선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 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특히 범람진영의 ‘하나의 중국’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중국당국과의 해석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둘러싼 양안 간 갈등과 대립은 다수의 행위자가 개입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sup>49)</sup>

### 민족문제로서의 대만문제

주권과 국가의 관련성은 영토적 한계 내에서 정부단위(즉, 국가)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의 문제이다. 크라스너(Stephen Krasner)는 주권 개념이 서로 구분되는 네 가지 차원으로 이뤄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50)</sup> 부시(Richard C. Bush)는 이러한 크라스너의 주권개념을 대만에 적용하여 현재 대만의 주권은 국제법적 주권의 차원에서 가장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법적 주권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국제법상의 국가임을 승인받고, 가입을 위한 자격 조건을 국가로 한정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독립 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확립함을 의미한다고 할 때,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1)</sup>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30개가 채 되지 않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이 반영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만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 내지 독립의 움직임은 국제법적 주권의 실현, 곧 대만의 지위 변동, “양안 관계의 현상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결국 대만의 완전한 민족-국가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와 대외관

48) 예를 들어 2005년 4월과 5월 쑨원 국민당 주석과 쑹추위 친민당 주석이 중국을 각각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회담을 가졌다. 반면 2006년 2월 천수이볜 총통은 국가통일위원회의 운영과 국가통일강령의 적용 중지를 선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49)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요 행위자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동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valence)과 현상유지(status quo)전략으로 정리될 수 있다. 미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은 서진영(2006); Tucker(2005) 참조. 부시행정부(George Bush) 이후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Robert L. Suettinger, *Beyond Tiananmen: The Politics of U.S.-China Relations 1989-200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2003) 참조. 특히, 대만과 미국 간 군사·안보협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Michael S. Chase, “U.S.-Taiwan Security Cooperation: Enhancing an Unofficial Relationship,” in Nancy Bernkopf Tucker(2005) 참조.

50) 크라스너는 주권을, 국내적 주권(domestic sovereignty), 웨스트팔리안 주권(Westphalian sovereignty),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legal sovereignty), 상호의존 주권(interdependence sovereignty)의 네 가지 차원을 구분하고 있다. 크라스너의 주권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Krasner(1999), pp. 4, 11-25 참조.

51) Richard C. Bush, *Untying the Knot: Making Peace in the Taiwan Strai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2005), pp. 82-91, 특히 pp. 90-91.

계인식 특히, 통독문제는 연동되어 있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 통독문제를 둘러싼 대만의 정치지형

### 정당별 입장: 범록진영(泛綠陣營) 대 범람진영(泛藍陣營)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통독문제는, 대만의 각 정당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 기본적 쟁점들 중 하나이다. 1991년 독립강령노선 선택 이전부터 민진당은 이미 선거 전략의 하나로 민족적 정체성과 대만독립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민당 내 파벌경쟁의 결과인 신당 및 친민당의 창당은, 리덩후이 총통 집권기 국민당의 대륙정책 및 통일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2000년 총통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당으로부터 사실상 축출된 이후 리덩후이 전 총통이 결성한 대련의 정강정책은 대만독립노선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대만의 개방적이고 유동적 계급구조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균열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민주화 이후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당의 이데올로기적 유연성은, 사회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 차별화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52)</sup> 특히, 민진당 집권 이후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 상황에서의 지배당과 반대당 간의 교착 국면과 민진당 정부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특히, 민진당이 지속적으로 통독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다른 정당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범람진영(국민당, 친민당, 신당 등)과 범록진영(민진당, 대련 등) 간의 대립과 표면적으로는 통일노선과 독립노선 간의 대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지 여부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대립은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범록진영의 입장은 간단하다. 이들은 이 원칙의 수용을 거부하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범람진영의 경우 명시적인 통일노선을 지향하는 국민당과는 달리 친민당은 유럽연합모델에 따라 양안간의 정치적 통합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당국과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중국’에 대한 해석은 중국당국의 그것과 다르다. 중국당국은 철저하게 대만의 국가성을 부정하는데 반하여 범람진영은 대만의 국가성을 인정할 것과 외교권 즉, 국제법적 주권의 용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52)Chu(1999); Shelley Rigger, *From Opposition To Power: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Boulder,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1), pp. 38-39.

## 통독문제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

###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 경향

시기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통독문제에 대한 대만인들의 입장의 특징은 10명 중 9명이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데 있다. 조속한 통일 내지 독립을 선호하는 집단, 특히 중국과의 조속한 통일을 선호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림 4.3>은 조속한 통일(내지 독립)을 선호하는 집단과 현상유지 이후 통일(내지 독립)을 선호하는 집단을 묶고 현상유지를 선호하나 결정을 미룬 집단과 무기한적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집단을 묶어 이를 각 독립선호와 통일선호 및 현상유지선호 집단으로 구별하여 그 변화 추세를 살펴본 것이다.<sup>53)</sup> 독립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통일에 대한 선호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중반 이후 독립에 대한 선호가 통일에 대한 선호를 앞서고, 역전의 조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의 25%가 독립노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12~13%의 사람들만이 통일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제3차 국공합작 등 범람진영 인사들의 잇따른 중국방문과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는 일단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하다. 이는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가 민족적 정체성 또는 정당일체감을 반영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적 태도와 심리적 선호에 관한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제는 대략 60%에 이르는 현상유지 선호 집단이다. 계속적인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40%에 이르는 사람들이 상황변화에 따라 통일과 독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

니어우(Emerson M.S. Niou)은, 조건적 상황에서의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와 현재적 상황에서의 이에 대한 선호라는 두 개의 차원을 설정하여 통독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유형화함으로써 앞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sup>54)</sup>

<표 4.1>은 조건적 상황에서의 통일과 독립에 대한 선호를 유형화한 것이다. 도표 상의 로

53) 일반적으로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대만의 여론조사는 문항을 조속한 통일, 현상유지 이후 통일, 현상유지 이후 결정, 무기한적 현상유지, 현상유지 이후 독립, 조속한 독립의 5가지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54) 새로운 분석틀에 대한 니어우의 논의는, John Fuh-sheng Hsieh and Emerson M.S. Niou, "Measuring Taiwanese Public Opinion on Taiwanese Independence," *The China Quarterly*, 181 (March 2005), pp. 158-168. 참조. 니어우 등은 본 논문에서 TEDS 2001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03 *Taiwan National Security Survey* (sponsored by the Program in Asian Security Studies at Duke University)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독문제에 대한 대만인들의 선호를 측정한 논문으로는, Emerson M.S. Niou, "Understanding Taiwan Independe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sian Surveys*, 44:4 (2004), pp. 555-567.



〈표 4.1〉 조건부적 상황에서의 독립과 통일에 대한 선호 (단위: %)

양안관계 평화유지시 독립국가 건설 <sup>55)</sup>	양안 간 조건상당(相當)시 통일 <sup>56)</sup>							
	(강한) 동의		(강한) 부동의		기타*		전체	
	2001	2003	2001	2003	2001	2003	2001	2003
(강한) 동의	I 22.7	I 21.8	II 20.3	II 26.6	III 4.6	III 2.7	47.6	51.1
(강한) 부동의	IV 18	IV 17.9	V 11.2	V 15.9	VI 3.1	VI 2.4	32.3	36.3
기타	VII 2.9	VII 1.7	VIII 1.9	VIII 1.6	IX 15.4	IX 9.4	20.2	12.6
전체	43.5	41.3	33.4	44.1	23	14.6	100	100

\* "상황에 따라", "의견 없음", "잘 모르겠음", "답변 거부" 포함  
 자료: TEDS 2001, TEDS 2003.

〈표 4.2〉 통독문제에 관한 조건부적 상황과 현재적상황에서의 선호 교차표

통독문제에 대한 조건부적 상황에서의 선호	현재적 상황에서의 선호							
	대만독립		현상유지		양안통일		전체	
	2001	2003	2001	2003	2001	2003	2001	2003
독립만 수용	①189 10.4%	①191 12.7%	②187 10.3%	②233 15.5%	②27 1.5%	9 0.6%	403 22.3%	433 28.8%
모두 수용가능	②65 3.6%	②64 4.3%	③248 13.7%	③244 16.2%	④130 7.2%	④39 2.6%	443 24.5%	347 23.1%
통일만 수용	③10 0.6%	③3 0.2%	④140 7.7%	④201 13.4%	⑤209 11.5%	⑤85 5.7%	359 19.8%	289 19.2%
모두 수용불가능	④19 1.0%	④24 1.6%	⑤152 8.4%	⑤226 15.0%	⑥52 2.9%	⑥8 0.5%	223 12.3%	258 17.2%
기타	⑤38 2.1%	⑤28 1.9%	⑥285 15.7%	⑥140 9.3%	⑦29 3.3%	⑦9 0.6%	38.2 21.1%	177 11.8%
전체	321 17.7%	310 20.6%	1012 55.9%	1044 69.4%	477 26.4%	150 10.0%	1810 100.0%	1504 100.0%

자료: TEDS 2001, TEDS 2003.

마숫자는 조건부적 상황 하에서 각각 독립만 수용함(II), 통일만 수용함(IV),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함(I)을, 양쪽 모두 수용 불가능함(V)을 의미한다. 조건부적 상황에서의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는, 독립과 통일의 선택이 상호배타적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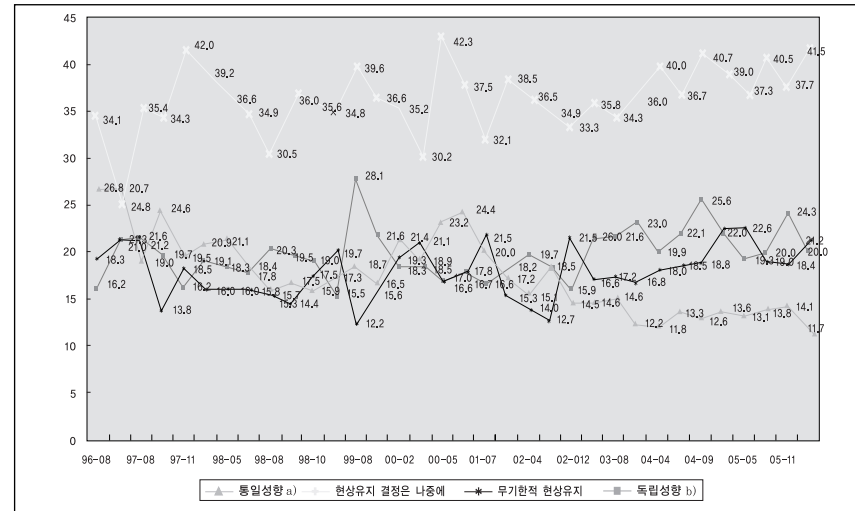
아래 <표 4.2>는 조건부적 상황 하에서의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와 현재의 통독 문제에 대한 선호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통독문제 대한 선호를 유형화한 것이다. 각 숫자는 통독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독립에 대한 강한 지지(①), 독립에 대한 약한 지지(②), 현상유지 지지(③), 통일에 대한 약한 지지(④), 통일에 대한 강한 지지(⑤)를 의미한다. <표 4.3>은 유형화에 따른 통

55) 설문 K3. 有人主張「如果大陸和台灣在經濟, 社會, 精緻各方面的條件相當, 則(台: 哪安捏)兩岸應該統一。」請問, 您同意還是不同意這種主張?(非常同意, 同意, 不同意, 非常不同意).

56) 설문 K2. 有人主張「如果台灣宣布獨立後, 仍然(台: 猶原)可以和中共維持和平的關係, 則(台: 哪安捏)台灣應該成爲一個新國家。」請問, 您同意還是不同意這種主張?(非常同意, 同意, 不同意, 非常不同意).



〈그림 4.3〉 독립선호, 통일선호 그리고 현상유지선호 집단의 변동추이



a) 통일선향: 조속한 통일+현상유지 이후 통일  
 b) 독립선향: 조속한 독립+현상유지 이후 독립  
 출처: 臺灣 行政院大陸委員會(www.mac.gov.tw)

〈표 4.3〉 통독문제 선호유형화에 따른 변화추이 (단위: %)

	독립에 대한 강한 지지층	독립에 대한 약한 지지층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층	통일에 대한 약한 지지층	통일에 대한 강한 지지층
2001	10.4	17.0	37.8	21.1	11.5
2003	12.7(+2.3)	23.3(+6.3)	40.5(+3.7)	17.1(- 4.0)	5.7(- 5.8)

자료: TEDS 2001, TEDS 2003.

독문제에 있어서의 선호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2003년 현재 독립 지지층은 36%, 현상유지 지지층은 40.5%, 통일 지지층은 전체 22.8%이다. 2001년과 비교할 경우 각각 8.6%, 3.7%, -9.8%의 변동 폭을 나타낸다. 즉, 독립에 대한 지지층이 특히, 약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통일에 대한 지지층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층 역시 증가하고 있다.

**민족적 정체성, 정당일체감 그리고 통독문제**

**주관적 정체성 인식과 통독문제**

주관적 정체성 인식과 통독문제에 대한 인식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표 4.4>는 주관적 정체성 인식과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 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 따른 관측빈도와 기대빈도 간의 차를 보여준다.

〈표 4.4〉 주관적 정체성 인식\* 통독문제 선호 교차표

구 분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					
			强獨①	弱獨②	現狀③	弱統④	强統⑤	전체
주관적 정체성 인식	대만인 정체성	빈도	159.0	196.0	160.0	57.0	7.0	579.0
		기대빈도	84.7	141.0	207.5	108.6	37.2	579.0
		차이	74.3	55.0	- 47.5	- 51.6	- 30.2	
	이중적 정체성	빈도	31.0	115.0	278.0	162.0	55.0	641.0
		기대빈도	93.7	156.1	229.7	120.2	41.2	641.0
		차이	- 62.7	- 41.1	48.3	41.8	13.8	
	중국인 정체성	빈도	1.0	7.0	30.0	26.0	22.0	86.0
		기대빈도	12.6	20.9	30.8	16.1	5.5	86.0
		차이	- 11.6	- 13.9	- 0.8	9.9	16.5	
	전 체	빈도	191.0	318.0	468.0	245.0	84.0	1306.0
		기대빈도	191.0	318.0	468.0	245.0	84.0	1306.0

\*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는 표 4.3에 따른 유형  
자료: TEDS 2003.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확률은 0.0으로 주관적 정체성 인식과 통독 문제에 대한 선호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만인 정체성을 가질수록 독립에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적 정체성 또는 중국인 정체성을 가질수록 통일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만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 귀속의 대상으로 느끼고 있는 집합적 존재로서의 대만은 하나의 민족으로 상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인 정체성 또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신들의 심리적 귀속이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이 심리적 귀속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 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이들은 '중국' 을 심리적 귀속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정당일체감과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 간의 상관성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중국' 은 분명히 중화인민공화국이 해석과는 중국과는 다른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이 귀속감의 대상으로 하는 '중국' 의 실체는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최근 대만인 정체성으로 자신의 주관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변경한 것도 이러한 모호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에 있어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만인 정체성의 확산에 따라 이들이 현상유지 선호에서 대만독립에 대한 선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정당일체감과 통독문제

심리적 귀속감으로서의 정체성이 정당을 통해 집합적 결정 또는 집합 행위로 전환된다고

〈표 4.5〉 정당일체감\* 통독문제 선호 교차표

구 분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					전체
			强獨①	弱獨②	現狀③	弱統④	强統⑤	
정당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	국민당	빈도	6.0	52.0	110.0	85.0	30.0	283.0
		기대빈도	45.2	68.2	95.1	54.9	19.6	283.0
		차이	-39.2	-16.2	14.9	30.1	10.4	
	민진당	빈도	120.0	123.0	99.0	26.0	7.0	375.0
		기대빈도	59.9	90.3	126.0	72.7	26.0	375.0
		차이	60.1	32.7	-27.0	-46.7	-19.0	
	신 당	빈도	0.0	0.0	3.0	3.0	1.0	7.0
		기대빈도	1.1	1.7	2.4	1.4	0.5	7.0
		차이	-1.1	-1.7	0.6	1.6	0.5	
	친민당	빈도	3.0	20.0	67.0	51.0	20.0	161.0
		기대빈도	25.7	38.8	54.1	31.2	11.2	161.0
		차이	-22.7	-18.8	12.9	19.8	8.8	
	대 련	빈도	7.0	10.0	7.0	0.0	1.0	25.0
		기대빈도	4.0	6.0	8.4	4.8	1.7	25.0
		차이	3.0	4.0	-1.4	-4.8	-0.7	0.0
	전 체	빈도	136	205	286	165	59	851
		기대빈도	136	205	286	165	59	851

\*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는 표 4.3에 따른 유형  
자료: TEDS 2003.

할 때, 정당일체감과 통독문제 대한 선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표 4.5>는 정당일체감과 통독문제에 대한 선호 간 카이제곱 검정 결과 관측빈도와 기대 빈도 간 차를 나타낸 교차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진당 및 대만독립연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니고 있는 집단의 경우 독립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민당과 친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현상유지 및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가 반드시 독립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우 그들이 심리적 귀속감의 대상은 앞서 지적한 국제법적 주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즉 이는 완전한 의미의 민족의 실현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대외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대만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할 때 친민당과 국민당에 대해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집단 중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집단의 경우 독립 내지 통일에 대한 선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친민당과 국민당의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민진당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선호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상정하고 있는 심리적 귀속감의 대상으로서 '중국'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을 민족으로 상상하여 심리적 귀속감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의 열망은 달성되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받고 있는 이상 민족으로서의 '중국'은 이상으로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한 국민당과 친민당의 운신의 폭은 넓어 보이지 않는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독문제에 대한 이들 정책의 지지층 확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력사용의 위협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하여 독립이라는 범람진영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지만, 이것이 역으로 국민당 및 친민당의 범람진영에 유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 및 전개와 정치과정(특히, 체제 전환)의 상관관계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의 정치엘리트의 역할을 해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 안에서 양안관계 및 대만문제와의 관련 하에서 대만정치의 전개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대만인들은 대만인, 중국인을 기본적 범주로 하여 자신의 심리적 귀속감의 대상을 형성시켜왔다. 이는 대만과 '중국'을 각각 민족으로 설정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족적 정체성을 논의할 때 단일한 정체성을 전제로 할 경우 이러한 현상을 잡아내기 어렵다. 이 '민족관(nation-views)<sup>57)</sup>은 정당 정치의 모습으로 서로 경쟁하고 교섭해 나가면서 하나의 민족관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증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민족으로 상정된 '중국'이 아닌 독립적 실체로서의 '대만'을 심리적 귀속감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대만을 민족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만을 민족으로 하는 민족관이 중국을 민족으로 하는 민족관 간의 경쟁에서 점차 우위를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을 민족으로 구성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권과 관련된 국제적 지위 변동문제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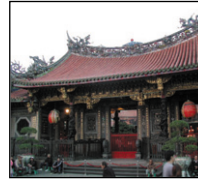
대만 사례는 복수의 민족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가지는 정체성은 변화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기도 하다. 민족적 정체성을 민족에 대한 동일성 인식 과정을 거쳐 구성된 심리적 귀속감으로 정의할 때, 어떠한 무엇을 민족으로 대상화할 것인가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이 개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재함을 경험한다. 이는 동일한 경험과 기억이 민족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sup>58)</sup>

개인들은 정당일체감을 매개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는 대만의 정치엘리트

57) Prasenjit Duara(1996), p. 161

58) Ernest Renan, "What is a Nation?," in Geoff Eley and Ronald Grigor Suny(1996).

들이 대만의 민족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개입 지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이후 정치엘리트들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0년



대만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는 다른 대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대만인들의 독립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총통선거는 좋은 사례가 된다. 국민당 정부 하에서 국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형성해 온 사람들은 이를 통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그들이 민족으로 상상한 대상은 중국이지 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리덩후이의 본토화 정책은 중국을 민족으로 이해해 온 이들에게는 생경한 것이었다. 즉, 리덩후이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의 민족 만들기과정에서의 민족은 중국이 아닌 대만이었던 것이다. 결과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정체성의 혼란이었고, 이들은 국민당이 아닌 친민당 쑹추위를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정당일체감과 함께 민족적 정체성은 안정적인 성격과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자기 범주화 즉, 자아의 사회적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독문제를 둘러싼 대만 정치의 교착국면과 정당의 부침의 이면에는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006년 4월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의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88.7%가 중국이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누가 주권을 행사 할 것인가의 문제에 따라 정치체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민족이 가지는 민주주의와의 근원적 친밀성은 민족의 구성원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상상된다는 데 있다. 민족의 정의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인민주권이라고 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민족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데에 있다. 르낭(Ernest Renan)이 일찍이 “개인의 존재가 삶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또는 지지)인 것처럼, 한 민족의 존재는 [그 존속에 대한 구성원들의] 매일 매일의 국민투표”<sup>59)</sup>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민족이 자아의 확장이며 따라서 민족의 운명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2006년 5월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주석이 한 강연에서, “대만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에 근거해 대만 독립을 포함한 어떠한 정치적 주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나 자신이 대만 독립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했을 때 그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던 것이다.


대만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는 다른 대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대만인들의 독립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국민당과 친민당 역시 이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슈베르트(Gunter Schubert)에 따르면, 대만 정당들 간에 대만민족(Taiwanese nation)의 존재에 대한 큰 틀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sup>60)</sup> 범람진영이 ‘하

59) Ibid., p. 53.

60) Schubert(2004) 참조.

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그것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민족에 대한 이해는, 중국공산당의 그것보다는 오히려 민진당의 그것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과 전개에 정당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민족문제는 대만의 정치에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양안관계의 불안정성은 계속 야기될 것이다. 대만의 정치과정은 정당을 매개로 민족주의와 근본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결합을 해체하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양안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제는 결국 대만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주요 목차〉

**제 1 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
4. 내셔널리즘
5. 국민국가론

**제 2 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료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샬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특 집

# 中国的朝鲜族政策及朝鲜族现状分析

王生 (中國 吉林大學 國際政治系 教授)  
ws72@hanmail.net



## 序言

在中国的东北部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相毗邻的地方,有一处群山耸立,峡谷纵横,风光绚丽的旅游胜地,这就是文明东北亚的长白山地区。山的主峰--白头山是中国东北地区的第一高峰,海拔 2744 米。著名的旅游胜地天池宛如一块剔透的碧玉,镶嵌在顶峰上,传说每年都有天上的仙女来这儿沐浴。天池北侧有一个瀑布,浩浩清流悬空而落,犹如白练垂天,银龙飞舞。长白山脉是鸭绿江、图们江和松花江的发源地。奔流不息的海兰江、布尔哈通河、嘎呀河、琿春河、古洞河等碧波如染、蜿蜒回环,滋润着长白山麓的广大地区。这里是中国满族的发源地和朝鲜族 (chaoxian zu Korean ethnic minority group) 的家乡。

中国是一个统一的多民族的国家,有汉族、蒙古族、回族、藏族、维吾尔族、苗族、彝族、壮族、布依族、朝鲜族、满族等 56 个民族。中国也是世界上人口最多的国家之一,现有 13 亿人口。根据国家统计局 2005 年 2 月 28 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 2004 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04 年末中国总人口为 129988 万人。2005 年 1 月 6 日零点 2 分,中国第 13 亿个公民在北京妇产医院出生,这一天也成为“中国 13 亿人口日”。在 56 个民族中,汉族约占人口总数比例的 92%,少数民族人口在 8% 以上。由于汉族以外的 55 个民族相对汉族人口较少,习惯上被称为“少数民族”。这些少数民族主要分布在中国西北、西南和东北等地区。而朝鲜族是中国 56 个少数民族之一。以人口计算,仅少于设有自治区的壮、回、蒙古、维吾尔、藏等民族。

朝鲜族在中国的 55 个少数民族中是一个具有鲜明特色的民族,虽然人口不多,但影响很大。近年来,由于韩流的盛行,人们对中国的朝鲜族越来越关注。那么,中国的朝鲜族的民族源流在哪里?中国的朝鲜族是在怎样的政策背景下成长并发展壮大的?当今的朝鲜族社会现状如何?今后面临着怎样的课题?这些正是本文所要探讨的议题。



## 一、中国朝鲜族的历史和由来

### 1、中国朝鲜族的民族来源

中国的朝鲜族并不是自古以来就生活在华夏大地上的固有民族，而是后来迁入的民族。中国朝鲜族是在特定历史条件下的特定概念，是指作为中国少数民族的朝鲜族，而不是泛指居住在中国的一般朝鲜人。做为中国的一个民族而出现的朝鲜族民族共同体，他们同中华大家庭中的汉族、满族及其他兄弟民族人民一道，为开发东北边疆，为保卫和建设伟大的祖国做出了重要的贡献。

关于朝鲜族的源流问题，在学术界一直存在较多争议。现参考韩俊光的《中国朝鲜族的由来及其分布》和孙进己的《朝鲜族的源流》以及相关的文章、资料，对朝鲜族的来源做一大体的描述：

中国朝鲜族的先民，是从朝鲜半岛迁入中国东北三省的朝鲜人。虽然从很久远的年代就已经有朝鲜人到中国来生活，但毕竟是一小部分，没有形成一个完整的民族共同体。1982年全国人口普查时发现，有一部分中国朝鲜族的祖先早在明末清初即已定居在东北境内。如辽宁省盖县朴家沟村姓朴的朝鲜族，在当地定居已有300多年的历史。另据中朝两国史籍记载，唐宋时期有许多“新罗”人流居山东、江苏、浙江等沿海地区，史称“新罗坊”。自辽代到清朝初期，历代都有众多的朝鲜人在我国东北地区居住。在这些朝鲜人中，大部分是战俘和在战争中被抓来的百姓，也有一部分是越境潜入的流民。这些在清初以前居住在中国东北地区及关内的朝鲜人，由于年代久远，已经融合到汉族和满族的群体之中，这些人的后裔作为民族的独立群体的主要特征已不复存在。现今的中国朝鲜族是与他们毫不相干的在近代和现代从朝鲜迁入的民族群体，因而，两者不能混为一谈。

17世纪初至18世纪中叶，清朝实行封禁政策，严禁朝鲜人民越境私垦，但是境外朝鲜北部穷苦农民犯禁潜入从未停顿。明朝对越垦的朝鲜族农民，毁田平舍，驱逐出境，而朝鲜族农民则采取“朝耕暮归”、“春耕秋归”、“令紧暂退，令弛又回”的办法，坚持在沿江一带垦种，使得地方官兵无可奈何。直到19世纪中叶，也就是近代和现代中国朝鲜族的大批迁入，才形成中国朝鲜族的历史源头。

1860年以来，朝鲜北部连年发生灾荒，1869年灾情达到顶点。于是大批境外朝鲜饥民，被迫扶老携幼，冒险破境迁入延边地区。他们披星戴月地开垦荒地，逐渐建立起新的家园。据不完全统计，到1881年定居在延边地区的朝鲜族农民达10000多人。19世纪80年代，清朝统治者为了缓和国内的阶级矛盾，防备沙俄的侵犯，就地解决饷源，逐步废除东北边外的封禁政策，实行招民垦荒的实边政策。1878年，吉林将军派员复查敦化一带的垦地亩数。根据旗民的呈报，实行领照升科。1881年，吉林将军奏准废除禁山围场之旧制，在吉林设置荒务局，办理图们江以北之垦务。同年，在南岗（今延吉）、珲春、东五道沟（今珲春市马滴达）、黑顶子（今珲春市敬信一带）等处设招垦局（局下设社），以招引移民开发。至此，延续二百多年的封禁制度终于全部废止。1881年延边地区刚开禁时，朝鲜垦民仅在图们江北岸就已开垦8,000余公顷土地。又据1881年珲春招垦局的调查，延边的熟地面积已达27,815垧。<sup>1</sup>

1883年9月，清廷为改善与朝鲜的关系，怀柔境外朝鲜族移民，以抗击沙俄侵略势力，

<sup>1</sup> 朴昌昱，《中国朝鲜族历史研究》，延边大学出版社1995年版，第104页。



特缔结“吉林朝鲜商民贸易地方章程”。1885年依据该章程，在和龙峪设通商局，在光霁峪（今龙井市开山屯泉坪）和西步江（今琿春河流入图们江处）设通商分局，办理南朝鲜会宁、钟城、庆源等地的通商事务。同年，把图们江以北长约700余里、宽40~50里的地区划为朝鲜族专垦区，又设越垦局专管朝鲜族的垦务。清朝政府的这一措施，在对待图们江以北地区朝鲜垦民的政策上，是一次重大的具有转折性的变化，对朝鲜垦民大量迁入图们江以北地区起到了重要的促进作用。朝鲜垦民在图们江以北垦种居住的时间虽然比鸭绿江以北地区晚，但是由于有了这一专垦区，使万千朝鲜垦民获得了安身立业之地，进而很快地形成了巩固的朝鲜垦民聚居区。当初设立越垦局时，朝鲜垦民的居住地主要在和龙峪所辖之地，后来，由于招垦的汉民大部分无力耕种自己承领的大片荒地，就招朝鲜垦民佃耕，于是，朝鲜垦民的足迹便逐渐踏入汉民招垦区域（后来的延吉厅所辖之地）。而且，由于有的汉民把部分荒地卖给朝鲜垦民，从而，使有的朝鲜垦民获得了土地所有权。从此，大批境外朝鲜人纷纷迁入延边地区。据1890年9月统计，在黑顶子、东五道沟、琿春、南岗所辖23个社，有垦民1883户、熟地9365垧。据《东三省记略》，1894年和龙峪抚垦局（改越垦局为抚垦局）管辖的四堡39社，共有4308户，垦民20899人，共丈报熟地15400余垧。这时，朝鲜族农民已冲破专垦区界限，迁移到布尔哈通河、嘎呀河北部和西部地区。

清政府为了加强对日益增多的朝鲜垦民的管理，于光绪十六年（1890年）颁布了“雉发易服”令。该令规定：朝鲜流民留去听其自便，愿留者必须“雉发易服”，只有“雉发易服”才能发给土地执照，并承认是中国百姓。这样一来，有好多朝鲜垦民因对“雉发易服”反感而返回朝鲜。留下来的朝鲜垦民，有的接受了“雉发易服”，也有的以种种巧妙的手法，既避免了“雉发易服”，又照样取得了土地。从光绪十六年（1890年）到光绪二十年（1894年）清政府对图们江以北朝鲜垦民越垦的地亩，进行清丈，然后对朝鲜垦民实行“编甲升科”。1894年把和龙峪越垦局改为抚垦局，下辖四个堡三十九个社。另外，在图们江下游的琿春、东五道沟、黑顶子一带建立十七个社；在南岗（现在的延吉）一带建立六个社。据有关史料记载：光绪十六年（1890年）时，在图们江以北越垦的朝鲜垦民“尚不过数千人”，到光绪二十年（1894年），“增至四千三百余户，男女丁口二万八百余人”，1894年，仅海兰江以南地区的朝鲜族就达34,000人，占该地区居民总数的78%以上。<sup>2</sup>到1910年，则达十六万三千余人。朝鲜垦民居住的区域，在光绪二十年（1894年）以前，仅限于图们江北岸之地，到1911年时，西自长白山麓，东至琿春河流域，北至铜佛寺、蛤蟆塘、绥芬甸子等处，大约4000方里之地，皆有韩民之足迹。且不仅延吉厅之地而已，西至长白山北麓，如进林府所属之头道江、柳河等处，敦化县所属之娘娘库（现为安图县松江镇）、小沙河、乳头山等处，东至绥芬厅所属蜂蜜山、三岔口等处，东北至距延吉700余里之宁古塔等处，越垦者皆有日增月盛之况。在“日韩合并”前，朝鲜垦民迁入中国，基本上是由于生计艰难而迁入的，而在“日韩合并”以后迁入的，政治因素则成为很重要的原因。因而，这个时期迁入的人，不仅限于农民，而且有工人、知识分子、军人等各个阶层的人。他们当中的许多人是为了寻求民族解放而到中国来找出路的。据当时日本领事馆调查资料，到1929年末，迁入东北的朝鲜人共计619276人，其分布状况为：南满铁路沿线为39531人；辽宁省135245人；吉林省54661人；延边382390人；黑龙江省7449人。大量的朝鲜族移民的到来，为开发东北的大片粮田、发展农业生产做出了贡献。特别是朝鲜族引入了水稻种植业。据统计，20世纪20年代，延边地区、吉林地区、北满地区的所有水田，开源地区水田的90%，通化地区、兴京地区、奉天附近

<sup>2</sup> 朴昌昱：《中国朝鲜族历史研究》，延边大学出版社1995年版，第104页。

水田的 85%，抚顺地区水田的 80%，安东地区水田的 70%都是朝鲜族开发和耕作的。<sup>3</sup>据统计，1907 年延吉厅境内朝鲜族有 5 万余户，其中汉族不到四分之一。1916 年延边地区总人口达 264982 人，其中朝鲜族占 20 多万人。1921 年达 32 万人。到 1931 年，达 40 万人，1943 年达 63 万人，占延边人口总数的 75%。另外，19 世纪 30 年代，境外朝鲜人民受日本帝国主义的侵略，受政治上的压迫和经济上的剥削日益加剧，大批难民坐船进入俄罗斯和我国的黑龙江省和辽宁省，使全国朝鲜族人口达 200 万人。

1952 年 9 月 3 日，根据中央人民政府颁布的《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实施纲要》成立了延边朝鲜族自治区。1955 年 4 月，省委、省人民政府根据我国第一部宪法的规定，经国务院批准，决定将延边自治区改为自治州。50 多年来，延边朝鲜族人民和各族人民一道，在吉林省委和省人民政府的直接领导下实行民族区域自治，表现出了高度的爱国主义热情，增强了各族人民的团结，把延边地区初步建设成了安定团结，经济繁荣，边防巩固的模范自治州。

## 2、中国朝鲜族共同体的形成

中国朝鲜族作为民族共同体，是有其形成发展阶段，有一定历史条件的，并不是朝鲜垦民（包括流民）一到中国就成为中国的一个少数民族的。

中国朝鲜族，是在近代和现代从朝鲜半岛迁入中国的民族，是长期在中国独特的历史环境中逐渐形成的民族共同体。它有两个方面的含义：第一，从民族特征上看，具有朝鲜的近代和现代朝鲜族固有的民族传统和基本特征，又在继承朝鲜民族传统和特征的基础上，带有中国色彩的近代和现代朝鲜民族；第二，从国籍和法律上看，它是由具有中国国籍的近代和现代朝鲜民族成员组成的并为我国宪法肯定的一个少数民族共同体。从这个意义上来讲，中国朝鲜族具有两重性：一方面，具有共性——它是近代和现代朝鲜族共同体的一分支；另一方面，又具有个性——它是整个朝鲜族共同体中的一个特殊类型，是独具中国特色的近代和现代朝鲜民族。

应该特别指出的是，这两个方面的含义，是形成中国朝鲜族的两个重要条件，两者缺一不可。如果只具备一个条件，就不能成其为中国朝鲜族。比如，同样是生活在中国的近代和现代的朝鲜人，如果没有加入中国国籍，就不是中国朝鲜族，而是外国人——朝侨。“八·一五”抗战胜利前居住在中国关内的朝鲜人，未加入中国国籍的，就不是中国朝鲜族成员。可见，中国朝鲜族不只是族源血统的概念，而是具有特定含义的历史概念。中国朝鲜族的形成，是同中国近代和现代历史联系在一起的。中国朝鲜族共同体的形成史，经过了一个复杂漫长的历史过程，大体上说，是从 19 世纪四五十年代开始，到中华人民共和国成立为止，前后大约经历 100 年的复杂过程。在这一过程中，曾有过几个阶段性的演变。1881 年（清光绪七年），清政府对近代迁入中国的朝鲜垦民实行“归化入籍”政策（实际上是一种同化政策），对接受中国政府管理的朝鲜垦民实行户口编甲，升科纳租，还要“雉发易服”才能加入中国国籍。1908 年，在中国东北地区的朝鲜垦民中，加入中国国籍的约有 4500 人。1909 年（宣统元年），清朝政府颁布《大清国国籍条例》和《大清国国籍条例施行细则》，从此，清朝政府不再推行“雉发易服”政策。后来，到了民国时期，在 1918 年 2 月 5 日，也颁布了《中华民国国籍法》和《国籍法施行条例》，到 1929 年，据不完全统计，加入中国国籍的朝鲜垦民有 10979 户，55723 人。尽管如此，不论是清朝政

<sup>3</sup> 参见[日]牛丸润亮等编：《最近间岛事情》，朝鲜及朝鲜人社出版，昭和二年，第 369 页。

府，还是民国政府对待朝鲜垦民并没有改变其限制、歧视和排斥政策。国民党政府则从来没把朝鲜族作为少数民族来对待。他们对居住在东北的朝鲜族，只承认居住权，不承认土地所有权和财产所有权。他们把朝鲜族耕种的土地和经营的工商业当作“敌伪资产”加以没收，使朝鲜族人民蒙受了深重的灾难。

自从有了中国共产党，居住在中国境内的朝鲜族人民，才逐渐改变了自己的历史命运。“从1928年中共“六大”以后，中共东北党组织，把东北的特别是延边的朝鲜居民列为东北境内的少数民族了”。但当时全国来看还没有完全解放，许多地区还被国民党占领着，国民党政府是不承认朝鲜族为中国的少数民族的。作为中国少数民族的朝鲜族，真正被世人所接受和承认，是从新中国成立以后。中国共产党成了执政党以后，明确规定：加入中国国籍的朝鲜族是中华民族的成员，朝鲜族是中国的少数民族之一。

## 二、中国的朝鲜族政策

### 1、建国以前中共对朝鲜族工作方针、原则的历史依据和原则

中国的朝鲜族是从朝鲜半岛迁入的民族。对这一迁居民族，中国历代统治阶级或不承认其在中国的合法地位，或施以反动的民族压迫、民族同化和民族歧视政策。中国共产党成立以来，尤其是1927年中国共产党满洲临时省委成立以后，一直承认东北朝鲜族为中国境内的一个少数民族，对朝鲜族问题予以高度重视，并根据党的民族政策在朝鲜族地区确定了一系列具体的工作方针和原则。制定这些方针、原则主要根据下面两个历史依据。第一，充分肯定朝鲜族人民对开发东北边疆的贡献。朝鲜移民迁入东北以后，同兄弟民族一道，披荆斩棘，刨地开荒，用辛勤的汗水把荒废数百年的荒凉空旷的东北边疆开拓为五谷丰登的良田。朝鲜族不仅开发了东北边疆，而且更重要的是在这片土地上普及了水田耕作技术，为近代东北农业发展史写下了光辉的一页。朝鲜族还参与了东北地区的矿产资源开采、铁路线铺设以及工厂企业的运营。对朝鲜族开拓和建设东北边疆的历史，中国共产党满洲省委予以充分的肯定，认为朝鲜族人民是“将荒地开为很好的水田”，<sup>4</sup>“用很大力量、很多本钱把旱田改成水田种水稻”的民族，<sup>5</sup>应“与中国农民一律享有土地所有权和居住权”。<sup>6</sup>朝鲜族在东北地区的开拓和建设中的血汗和做出的重大贡献，正是中国共产党确立朝鲜族社会历史地位，并制定对朝鲜族工作方针、原则的坚实基础和重要的依据。第二，充分认识到朝鲜族人民是富有“反日”革命传统的民族。中国朝鲜族中的绝大多数是日本吞并朝鲜后不堪忍受日本的殖民统治，才被迫移居到中国的。但迁居中国以后，朝鲜族人民仍未能摆脱日本殖民统治的魔掌。基于朝鲜族人民受双重压迫的悲惨处境，以及朝鲜族人民如火如荼的反日斗争历史，中国共产党认为朝鲜族人民的“革命热情尤其是反日情感特别浓厚”，因此朝鲜族“不但为反日本帝国主义者革命要素并为土地革命的主要动力”。<sup>7</sup>

基于对上述两个史实的充分认识，中共中央和中共满洲省委在新民主主义革命的实践中

<sup>4</sup>《满洲的朝鲜农民问题》(1928.4.15)，中央档案馆等编：《东北地区革命历史文件汇编》(甲2)，1988，第14页。

<sup>5</sup>《农民运动决议案》，《满洲通讯》1928年第14期。

<sup>6</sup>《农民运动决议案》，《满洲通讯》1928年第14期。

<sup>7</sup>杨昭全等编：《东北地区朝鲜人革命斗争资料汇编》，辽宁民族出版社1992年版，第702-703页。

制定了一系列有关朝鲜族工作的具体原则。

第一、保障朝鲜族人民的平等权利。坚持民族平等、反对民族压迫是中国共产党解决国内民族问题的一项根本原则和政策。中国共产党早在 1928 年 7 月，在《中国共产党第六次全国代表大会关于民族问题的决议案》中，就明确规定党对朝鲜族问题的原则立场，指出“满洲的高丽人”是中国境内的少数民族之一。党的六大亦明确指出：“中国境内少数民族的问题（北部之蒙古、回族、满洲之高丽人，福建之台湾人，以及南部苗、黎等原始民族，新疆和西藏）对于革命有重大的意义”。<sup>8</sup>抗日战争胜利后，中国共产党领导的东北根据地开始清匪反霸、发展生产、土地改革、建立民主政权。由于朝鲜族是从朝鲜迁居中国的跨界民族，因此在参军参战、土地改革等问题上，都涉及到朝鲜族的定位问题和政策问题。面对十分复杂而又深刻的朝鲜族问题，中国共产党从历史的角度客观地分析中国朝鲜族的状况，始终认定朝鲜族是中国的少数民族，同汉族一样享有平等权利和义务，认为“除参加华北抗联的朝鲜义勇军，在东北的朝鲜居民一般的是视同中国境内的少数民族”。<sup>9</sup> 1946 年 12 月，中共吉林省委召开民族工作会议，东北民主联军副司令兼吉林省政府主席周保中发表了《延边朝鲜民族问题》的演说，充分肯定了朝鲜族在开拓东北地区和抗日斗争方面的贡献，指出朝鲜族作为中国的一个民族毫不逊色。在东北地区特别是在延边地区的解放战争、土地改革和政权建设中，中国共产党完全承认朝鲜族的公民资格，无条件地给他们分配土地，让他们参与地方政权的建设，使他们真正当家做主。

第二、承认朝鲜族的自治权，实行民族区域自治。承认少数民族自治权和实行民族区域自治，是中国共产党民族政策的重要内容，也是实现民族平等的必要条件和有效途径。中国共产党对朝鲜族自治权的承认，由原来的民族自决逐步发展到把民族自治与统一国家联系起来。解放战争时期，随着东北根据地的巩固与发展，建立民族自治区域、实施民族区域自治政策的条件逐步形成，中国共产党进一步提出了民族自治区域行政区划的具体标准。1948 年 9 月，《东北解放区县乡村各级政府组织条例草案》规定：“民族自治区，各少数民族集中居住，超过该村、该区、该县人口半数以上者，得成立民族自治村，民族自治区，民族自治县。”<sup>10</sup>中国共产党的这些主张，从根本上保障了朝鲜族人民的平等权利，给朝鲜族和各族人民指出了争取民族解放、实现民族自治与民族平等的正确道路。

第三，大力培养朝鲜族干部。大力培养少数民族出身的具有革命觉悟的共产主义干部，是中国共产党一项重要的民族政策。1930 年初，中共满洲省委发布的文件指出，朝鲜族工农群众在中国共产党领导下，与各族工农群众联合起来，“打倒日本及一切帝国主义，打倒豪绅资产阶级国民党政府，建立中韩劳农兵苏维埃政权”才有出路；同时要求在满前朝鲜共产党员“为一国一党的原则和解放在满韩国劳农群众，更应加入中国党，在中国党第六次大会所指示的路线下奋斗”。<sup>11</sup>不仅如此，中共满洲省委还要求设立“少数民族委员会”（简称韩国委员会），“选拔韩国人的干部，计划出版韩国文的刊物和宣传品”，<sup>12</sup>并要求“派韩国同志到韩国农民群众中去工作”，<sup>13</sup>“派能说中国话的韩国同志和群众到中国农民中去活动”。<sup>14</sup>

<sup>8</sup>中共中央统战部：《民族问题文献汇编》，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1 年版，第 87 页。

<sup>9</sup> 延边档案馆编：《中共延边吉东吉敦地委延边专署重要文件汇编》，1985，第 327 页。

<sup>10</sup> 中共中央统战部：《民族问题文献汇编》，第 1332 页。

<sup>11</sup> 杨昭全等编：《东北地区朝人革命斗争资料汇编》，第 704 页。

<sup>12</sup> 杨昭全等编：《东北地区朝鲜人革命斗争资料汇编》，第 716 页。

<sup>13</sup> 中共中央统战部：《民族问题文献汇编》，第 115 页。

<sup>14</sup> 中央档案馆等编：《东北地区革命历史文件汇集》（甲 7），1988，第 169 页。

在共产国际“一国一党”的原则和中共满洲省委的领导、信任下，很多经过考验的朝鲜族工农积极分子和前朝鲜共产党人纷纷加入中国共产党，使东北地区基层党组织迅速发展壮大。到1931年3月止，全东北中国共产党党员有1190名，其中延边的延吉、和龙、珲春、安图、汪清五县党员有636名，占全东北党员总数的54.1%，而延边党员中的96.5%是朝鲜族党员。<sup>15</sup>抗日战争时期，许多优秀的朝鲜族干部活跃在我党和军队的重要领导岗位上。东北抗联各军中，仅师、军级以上朝鲜族干部就有20余名。关内地区的著名朝鲜族干部有杨林、武亭、周文彬、金山、李铁夫等。1945年2月，党中央在延安创办了旨在专门培养朝鲜族干部的朝鲜革命军政学校。1945年8月，日本帝国主义投降之后，该校的200余名师生奔赴东北各地，投入东北地区的根据地建设和土地改革，有的还参加了全国解放战争。

第四，发展朝鲜族文化教育和语言文字。发展民族文化教育和语言文字的政策是中国共产党的民族平等、团结政策在少数民族文化教育上的体现，是一项重要的民族政策。1934年1月，第二次全国苏维埃代表大会通过的《中华苏维埃共和国宪法大纲》中指出：“中国苏维埃政权要努力帮助这些弱小民族（蒙古、回、藏、苗、黎、高丽人等——引者注）脱离帝国主义，国民党军阀，王公喇嘛，土司等的压迫统治，而得到完全自主苏维埃政权，更要在这些民族中发展他们的民族文化和民族言语”。<sup>16</sup>因为朝鲜族“不仅是其语言文化，而且从经济上有机地同朝鲜联结”在一起，中共满洲省委特在“省委下成立少数民族部，专门计划讨论韩人工作问题”，而且考虑到朝鲜族语言、文化等特点，特设翻译科，“把省委各种文件和省委的党报完全译成韩文印发出去”。<sup>17</sup>中国共产党对朝鲜族的教育也予以高度重视。20世纪20年代末，国民党政府在收回教育权的名义下，强行取缔和封闭朝鲜族私立学校时，中共延边特支号召“反对日本帝国主义殖民地教育政策，反对国民党化教育，反对私立学校自行党化教育，实现培养民族独立精神的教育，实现工农需要的苏维埃教育”。<sup>18</sup>1932年冬，东满根据地颁布《小学义务教育法》，要求游击根据地实行适龄儿童义务教育。延边各根据地开办了30余所学校，用本民族语言向学生传授文化知识，提高少年儿童民族觉悟和阶级觉悟。东北解放后，1946年朝鲜族居住区就出现了《吉林日报》、《黑龙江日报》和《辽宁日报》等朝鲜文报。1947年，延吉市创办了延边教育出版社，主要用朝鲜文出版书刊。各地的朝鲜族学校也得到迅速的恢复和发展，1949年4月，我国第一所少数民族综合大学延边大学宣告成立。

## 2、建国以后中国的朝鲜族工作方针及政策

根据1949年制定的“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共同纲领”的有关条款，1952年9月3日，延边朝鲜族自治区成立大会在延吉市隆重举行。中央人民政府政务院民族事务委员会、东北人民政府、中共吉林省委和省政府的领导特地前来祝贺。自治区人民政府主席朱德海宣布延边朝鲜族自治区诞生。两年后，自治区改名为延边朝鲜族自治州。此后，每年的9月3日，成为延边各族人民的盛大节日。

中国一切实行民族区域自治的地方都是中华人民共和国不可分割的部分，它既不是脱离祖国大家庭的“独立自治”，也不是半独立状态的“自治邦”之类的事物，整个国家和自

<sup>15</sup> 参见中央档案馆等编：《东北地区革命历史文件汇集》（甲8），1988，第16-17页。

<sup>16</sup> 中共中央统战部：《民族问题文献汇编》，第209页。

<sup>17</sup> 中央档案馆等编：《东北地区革命历史文件汇集》（甲4），1988，第357页。

<sup>18</sup> 杨昭全等编：《东北地区朝鲜人革命斗争资料汇编》，第700页。

治地方的关系,是中央和地方的关系。但是,中国的民族区域自治地方,却能享受国外的“自治邦”所不能享受的许多特殊照顾,即不仅能享受汉族所能享受到的一切待遇,而且在政治、经济、文化、教育和人民生活等各个领域享受特殊待遇。中国最高权力机构全国人民代表大会,共有4000余名代表,相当于每30万人口有一个代表。少数民族则占代表总数的14%,比少数民族人口比例高出6个百分点。有的少数民族人口只有一千多人,也有全国人大代表,全国55个少数民族无一例外地拥有自己的代表。在延边州,80多万朝鲜族人口占全州总人口的38.5%,而州人大代表中朝鲜族却占52%。少数民族干部的状况,是衡量一个地方整个民族工作和自治水平的主要标志之一。中国共产党从实行民族区域自治那一天起,就高屋建瓴地提出了“自治机关干部民族化”的方针。延边州在配备各县、市党政主要领导人时,从历史与现实出发,形成了一个不成文的“规矩”:凡是朝鲜族占50%以上的县、市党政主要领导人均安排朝鲜族干部,即使是汉族群众占多数的县、市,党政领导机关也要适当安排朝鲜族干部。建州初期,延边的朝鲜族干部只有1700多人,目前,全州共有少数民族干部5万余人,其中州级少数民族领导干部20多人,占州级领导干部总数的54%;县级少数民族领导干部360多人,占县级领导干部总数的48%;乡科级少数民族领导干部2800多人,占同级领导干部总数的51%。这些少数民族领导干部,绝大多数是朝鲜族干部,而且干部队伍中具有大专以上学历的比例也由改革开放前的52%提到了70%以上。现在活跃在全国各地的朝鲜族干部,多数是从延边走出去的,其中有中共中央委员,有全国政协副主席,有解放军上将和中将,还有十余名省级领导干部。党的民族政策培养出的大批朝鲜族干部,在延边政治稳定中起到了至关重要的作用。

邓小平同志说过:“实行民族区域自治,不把经济搞好,那个自治就是空的”。在半个世纪的实践中,中国形成帮助少数民族发展经济的一系列政策和法规体系。比如拔出各种专项资金和定额补助费扶持民族自治地方的经济建设。从1979年到1989年,国家拨给民族自治地方的财政补助费和其他补助费共达800多亿元,其中国家和吉林省每年拨给延边州的各种补助费就达1800多万元。在投资、贷款、税收等方面,党和国家对民族自治地方予以特殊照顾和扶持,建国以来,国家和吉林省对延边民族企业和对边境贫困乡村所实行的减免税,每年达1200多万元。

在发展少数民族经济过程中,国家还加快对外开放,在民族地区建立特区或开放城市,鼓励边境少数民族地区开展边境贸易。地处图们江国际合作开发项目核心区的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近年来大力推进开发开放,现已累计利用外资6.7亿美元,有22个国家和地区客商在这里兴办三资企业682户,在图们江地区国际合作开发中处于“领跑”和领先地位。延边地处中国大陆的东北边陲,东与俄罗斯滨海边疆区毗邻,南隔图们江与朝鲜相望,边境线长755.2公里,处于东北亚地区中、朝、俄三国交界的地理中心,既沿边又近海,在中国大陆联接欧美海陆运输格局中具有重要的枢纽地位。1992年,联合国开发计划署提出并确立了“图们江地区国际合作开发项目”,延边的珲春市被国务院批准列为中国首批沿边开放城市,相继设立了珲春边境经济合作区、出口加工区、边境互市贸易区等个国家级开发区和延吉、敦化等4个省级开发区。延边州这个关闭着的祖国东方门户终于被打开,对外开放事业从此开始了长足发展。目前,延边州四通八达的立体交通网络已经初步形成。延吉机场达到4C级,即将成为国际空港。借俄罗斯、朝鲜港口开辟的海上运输航线正常。铁路内通8个县市,外接俄罗斯、朝鲜;公路通车里程达到4508公里,通县公路基本达到油路化,2000年实现了高等级公路“零”的突破,延吉至图们高等级公路建成通车,正在启动东西向横跨全境的长春至珲春高速公路。这里电力资源充裕,近年来建设了两

江电站、满台城水利枢纽、松月水利枢纽等项目，全州发电量21亿千瓦时，是1980年的3倍，足以满足上任何大项目的电能需要。通讯设施齐备，可与世界上200多个国家直通电话。

在图们江国际合作开发的有关国家中，中国延边州几年来一直处于“领跑”地位。延边现已建成10个对外开放口岸（其中对朝鲜8个，对俄罗斯2个），年过货能力达到500万吨，年过客能力100万人次，通关设施日臻完善，有效促进了对朝、对俄贸易的发展。2001年全州口岸过货71.2万吨，增长33.04%，过客50.5万人次，增长36.77%。在联合国开发计划署和国家的大力支持下，成功举办了’95、’98两届中国图们江地区国际投资贸易洽谈会。2001年在外贸大环境趋紧的情况下，延边州借助图们江地区开发，对外进出口仍实现3.2亿美元，增长4.2%。目前延边州正在积极筹备2002“图洽会”。

利用国家对民族区域自治的各种优惠政策，延边发挥资源优势，大力发展医药、纺织、造纸、化工、食品、水电、木制品、农副产品加工业和特色旅游业，综合实力在全国30个少数民族自治州中名列前茅。在民族政策指引下，延边朝鲜族的民族文化既保持了连续性，又做到了与时俱进。

国家自治法和州自治条例规定，实行民族区域自治的地方，可以自主地发展具有民族形式和特点的教育、文学、艺术、体育、新闻、民俗等文化事业。

延边朝鲜族是个非常重视和热爱教育的民族，有着崇尚文化、尊师重教的优良传统，素有“教育之乡”的美誉。建州50年来，经过几代人的辛勤耕耘，已经形成了门类齐全、层次完备、协调发展、特点鲜明的民族教育体系，延边朝鲜族也成为在国内各民族之中教育最普及，其教育水平一直居全国少数民族之首。平均文化程度最高的一个民族，成为国际朝鲜人社会中除朝鲜半岛外保持本民族的语言文字、风俗习惯最完整的一个群体。据我国第五次人口普查，延边州每万人中有大学生以上文化程度的为594人，是全国平均水平的1.7倍。<sup>19</sup>全州共有各类科技人员12.4万人，每万人拥有科技人员567人，全州中专毕业生和中级以上知识分子占人口的比例均超过了全国平均水平。延边州先后荣获“全国民族教育先进集体”、“全国重视幼儿教育最佳单位”、“全国职工教育先进”等21个国家级先进荣誉称号。

20世纪50年代，延边朝鲜族教育在全国少数民族教育中取得了五个第一：第一个基本普及了小学教育，第一个基本普及了初中教育（1958年），第一个基本实现了在青壮年中扫除了文盲，第一个实现了大学调整，建立了延边大学等三所民族院校，建立了第一所农民业余大学——黎明大学。1993年城区已基本普及了九年义务教育，1997年全州基本普及了九年义务教育，实现几代人梦寐以求的夙愿。在基本完成“普九”任务的基础上，以端正办学思想为前提，规范办学行为，摈弃“应试教育”，深化教育改革，不断把素质教育推向深入，培养出以珲春“主动发展教育”为代表的素质教育模式。在延边，最漂亮的建筑是学校的校舍，最为人们牵挂的是教育的发展。“卖了耕牛办教育”、“日子过得再苦，也要让孩子读书”，这是延边朝鲜族群众说到办到的事情。近年来，随着延边州“教育优先、科技兴州”战略的实施，国家和当地政府对教育投入的不断加大，民族教育设施日臻完备，办学条件不断优化，教师队伍建设进一步得到加强。目前，延边州适龄幼儿入园率达

<sup>19</sup> “中国共产党的民族政策的成功实践—延边朝鲜族自治州建州50年综述”，2002年10月08日，新华网。



90%；学龄儿童入学率达99.82%；全州初中毕业率97.1%；自恢复高考以来，到2001年为止，延边州为大专以上院校共输送6万多名优秀学生，录取比例最高达到78%。2001年全州生均占有校舍面积为5平方米，超过国家“普九”验收标准。中心校以上的小学自然实验室、村小综合实验室建室率、初中理、化、生实验室达标率都在80%以上；中小学配备语音室、微机室的学校分别占应配学校总数的83%和85%。

延边大学，是中国朝鲜族最大聚居区的唯一高等学府。截至1998年，已与美国、日本、俄罗斯、朝鲜、韩国等国家的40多所大学和科研机构建立了交流与合作关系，共派出1700名教师、科研人员到国外进修、考察、访问和参加各种国际学术会议；亲自举办了22次国际和地区性学术会议；邀请508名国外专家学者来校讲学，进行学术交流并合作科研；现有来自各国的留学生、进修生310人，还聘请182名国内外著名专家、学者担任学校的名誉教授，兼职教授和客座教授。现在自治州形成了一个从幼儿教育到高等教育的门和功能齐全、层次完备的民族教育体系，1996年经国家教委批准，延边大学还合并延边五所高校，并通过国家“211”工程预审，进入国家21世纪重点办的100所大学之列。现有本（专）科学生一万多名，硕士生700多名，博士生40名。延边高等教育形成了普通高等教育和成人高等教育两个系列，专科、本科、硕士生、博士生四个层次的发展格局。50年来，延边大学为国家培养了5.8万多名各类专门人才，为祖国的社会主义现代化建设作出了重大贡献，同时为朝鲜民族走向开放和繁荣，提供了强大的精神动力和智力支持。

延边建州之初就成立了延边文学艺术联合会，其中包括作家协会、戏剧协会、舞蹈家协会等九个协会。在“文联”的指导下，朝鲜族艺术工作者创作出大量富有民族特点的优秀作品和节目。延边歌舞团的大型舞剧《春香传》、歌剧《阿里郎》及舞蹈诗剧《长白情》都荣获国家最高奖——文化部“文华奖”。1994年《春香传》在韩国演出引起了很大反响，韩国观众认为这是与本国不同的绝好的朝鲜族文化。新闻出版、文艺创作日益繁荣，“歌舞之乡”、“足球之乡”享誉海内外，延边又是个1994年国务院命名的“全国民族团结进步模范自治州”。东北三省都有朝鲜文报纸和杂志、用本民族语言播放的广播和电视节目。吉林省朝鲜族作家创办的大型朝鲜文文学刊物《长白山》（双月刊）目前已发行朝鲜、韩国、美国、日本、加拿大、俄罗斯、瑞典、德国等12个国家。

尊重少数民族的风俗习惯是党的一贯政策。国家一些领导人到延边视察时，一踏进朝鲜族群众的家门，就脱鞋上炕，盘腿和群众唠家常。组织上选派汉族干部到延边工作时，都反复叮嘱要注意这些细节。已故的朝鲜族劳模金时龙1954年到北京参加全国人大第一次会议，晚宴时唯独他所在的列宴席上加了一小盘辣椒酱，使他激动不已。在党的政策关怀下，延边朝鲜族大多数保留了本民族的古老习俗，并破除了其中一些陈规陋习和封建迷信活动，不少传统习惯还融汇到现代生活方式中。

### 三、中国朝鲜族现状及面临的课题

朝鲜族是中国18个百万以上人口的主要少数民族之一，人口总量在55个少数民族中居第十二位。在大多数少数民族人口增长过快的同时，朝鲜族以其人口的低增长、低生育、较高的文化素质独秀于中华民族之林。朝鲜族已成为各民族中“控制人口数量，提高人口素质，振兴民族经济”的楷模，成为中国人口发展史上最具有特色的民族。

### 1、中国朝鲜族人口分布现状

中国朝鲜族的迁入过程，也是自然的分布过程。中国朝鲜族分布的主流在鸭绿江、图们江沿岸地区和绥芬河流域，并逐渐向北部和西部方向延伸，向东北内地称呼和扩散。朝鲜族是个擅长种水田的民族。他们一迁入，就沿着有水源的地区安家落户。东北绝大部分水田地区是朝鲜族迁入后由朝鲜族首先开发的。1945年“九·三”抗日战争胜利后，中国朝鲜族的人口布局轮廓已基本定型。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后，由于工作调动、毕业分配以及迁徙等原因，东北地区的一部分朝鲜族开始移入关内各地。由是，朝鲜的分布已遍及全国各省。

中国朝鲜族从分布格局上看，有以下四个特点：第一，朝鲜族人口绝大多数分布在东北三省，只有少量人口分散居住在内蒙古和关内各地，即形成大分散（吉林省的延边州、长白山自治县、吉林市、黑龙江省、辽宁省、内蒙古自治区）、小聚居（一片片的朝鲜族村落分散在汉族村屯的汪洋大海中）；第二，东北地区的朝鲜族农村人口，多分布在利于灌溉和种植水稻和江河冲积平原或河谷盆地及河谷平原；第三，东北地区朝鲜族人口分布，呈现出由南而北、由东往西逐渐稀少的态势；第四，东北地区朝鲜族，具有散居中有聚居，聚居中有杂居，既有聚居又有散居的特点。如内蒙古自治区2.3万朝鲜族形成“东部聚居，中、西部散居，遍布全区”、“农民聚居东部，职工散居全区”的格局。

2000年人口普查资料显示，朝鲜族总人口为192.38万人，朝鲜族在全国的31个省、自治区、直辖市中均有分布，主要集中聚居在吉林和黑龙江以及辽宁三省，共有177.52万人，占朝鲜族总人口的92.27%。有63%的人口分布在吉林省（其中在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的人口约占朝鲜族全部人口的43%）、黑龙江省的朝鲜族占25%左右；辽宁省占11%左右<sup>20</sup>，另外，朝鲜族人口超过1万以上的地区还有内蒙古、山东、广东、河北、天津和北京。

吉林省是一个多民族省份，全省共有48个民族，少数民族人口为246.36万，占全省人口的9.03%。少数民族人口总数和占人口比例在全国分别排第9位和第11位。吉林省是中国朝鲜族的主要聚居地区，2000年第五次人口普查时人口总数为114.6万人，比1990年第四次人口普查时减少3.8万人，减少3.21%。占全省总人口的比重为4.28%，比1990年下降0.52个百分点。占少数民族人口的比重为46.70%，比1990年下降0.17个百分点。他们主要聚居于延边朝鲜族自治州、长白朝鲜族自治县和吉林、永吉、磐石、舒兰、梅河口、蛟河、柳河、辉南、集安、通化、九台、长春等市县。

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吉林省先后建立了延边朝鲜族自治州和长白朝鲜族自治县，在其他地区还有7个朝鲜族乡（镇）和同满族共建的5个民族乡。在1952年9月3日，根据中国第一届政治协商会议通过的《共同纲领》精神和中央人民政府的批示成立了延边朝鲜族自治区（后于1955年根据我国第一次宪法规定改为自治州）。从此，中国朝鲜族便成为拥有自己的自治区域，享受自治权利，并受到中国法律保护的中华民族大家庭中的一员。1958年成立吉林省长白朝鲜族自治县。杂居在各地的朝鲜族也先后建立了几十个民族乡。到1990年为止，在东北朝鲜族居住地区建立的自治政权机构有：朝鲜族自治州1个、朝鲜族自治县1个、朝鲜族乡、镇（包括民族联合乡、镇）43个、朝鲜族村1000多个。

延边朝鲜族自治州位于吉林省东部，东与俄罗斯滨海边疆区接壤，南隔图们江与朝鲜咸镜北道、两江道相望，处于东北亚金三角中心地带。全州总面积4.27万平方公里，是中国的朝鲜族聚居地区，全州总人口217.7万人，其中朝鲜族人口82.0万人，占37.7%，汉族占

<sup>20</sup>曹善玉，《改革开放后东北三省朝鲜族的海外移民问题初探》，第1页。

59.29%,其他民族占3.01%。<sup>21</sup>延吉、龙井和图们朝鲜族人口分别占各市的59%、67%和58%。<sup>22</sup>黑龙江是朝鲜族人口分布第二大省,全省朝鲜族人口约为44.1万人,有7个地市23个县(市)聚居着朝鲜族,其中80%左右居住在农村。<sup>23</sup>辽宁省朝鲜族人口共有23万,其中60%居住在147个朝鲜族村、12个朝鲜族乡(镇)、4个混合民族乡;40%居住在14个大、中城市和100个县(市)区。<sup>24</sup>

## 2、中国朝鲜族对外交往的现状

中国改革开放以后,中国的朝鲜族也和其它边疆少数民族一样,与时俱进,解放思想、更新观念、发挥优势、走向开放,走上了开辟新生活的征途。朝鲜族本身就是移民形成的跨界民族,与朝鲜半岛的同一民族相邻而居,在朝鲜半岛仍有许多亲友,而且与分布在俄罗斯、日本、美国、加拿大等国家的约300万朝鲜族有着密切关系。对外开放后,他们充分利用经济全球化的有利时机,发挥地缘相近、亲缘相联、文缘相通的独特优势跨出国门,走向世界,积极发展与相邻而居的周边国家同一民族乃至世界各国人民之间的经济文化联系,不断促进自身变革和发展,促进睦邻友好关系的发展。

新中国成立后,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不仅建立了外交关系,而且继续保持和发展历史上形成的传统友谊,即使在中苏关系严重对抗的年代,两国在大部分时间仍和睦相处,我国政府对朝鲜族群众出境去朝鲜采取比较宽松的政策,所以两国间民间往来不断。以吉林省长白朝鲜族自治县为例,1958年自治县成立时,全县只有10235人朝鲜族,自治县成立前的1957年就有4896人次出境,其中绝大部分是去朝鲜探亲访友的,对外开放后,去朝鲜探亲访友的人数猛增,1992年就达到13487人次,比1957年增加1.8倍。延边州龙井市1993年赴朝探亲的人数达21766人,占全市朝鲜族人口的11.6%。

90年代,随着中苏两国实现了关系正常化、中韩两国建立外交关系,朝鲜族群众在继续保持和发展与朝鲜传统交往的同时,开始与韩国、俄罗斯、日本、美国、加拿大等众多国家的朝鲜族来往,对外联系领域和范围不断扩大。1990-1993年4年间,从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出境到韩国、俄罗斯、日本、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20多个国家和地区探亲访友的朝鲜族就达56200多人(不含去朝鲜的人数),其中去韩国的就占70%以上。中韩两国经济上的互补性很强,当时韩国经济持续高速增长带来的本国劳动力成本升高并大量吸纳国外劳动力的趋势,更加刺激了我国朝鲜族赴韩探亲贸易和打工经商。他们以探亲带贸易、贸易带劳务、劳务带技术等灵活多样的形式,不断拓展经济技术合作。

现在中国朝鲜族与韩国的经贸合作方式有了很大的变化,由起初的自发的零星打工变成有组织、有培训、有管理的劳务输出。韩国已成为我国朝鲜族的最大的劳务输出市场。截至1998年底,延边朝鲜族自治州累计向国外派出各类劳务人员49000多人次,其中80%是朝鲜族,约有70%的朝鲜族是去韩国。1998年末尚在国外的劳务人员数为5728人。黑龙江省朝鲜族人口近50万人,约70%的家庭在韩国亲属关系,因此向韩国派出的劳务人员也较多,1995年一年就有1.2万人,营业额达2.8亿美元。据不完全统计,目前黑龙江省正在赴国外从事劳务和经商办企业的朝鲜族已达8万人,接近全省朝鲜族人口的18%,其中约一半在

<sup>21</sup> <http://www.yanbian.gov.cn/> (检索日期:2007-1-2)

<sup>22</sup> <http://www.jlagri.gov.cn/yanbian/info.asp?id=134> (检索日期:2007-1-5)

<sup>23</sup> <http://www.chinapostnews.com.cn/794/07940201.htm> (检索日期:2007-1-6)

<sup>24</sup> <http://www.jlagri.gov.cn/yanbian/info.asp?id=134> (检索日期:2007-1-5)

韩国。该省的海林县海南、密山市和平、五常县民乐、绥化市兴和等 4 个朝鲜族乡镇赴韩劳务人员已占到各乡镇劳动力的 25-30%。<sup>25</sup>

劳务输出,使朝鲜族迅速走上了脱贫致富之路。黑龙江省海林市海南朝鲜族乡红星村有 1000 多口人,近几年在国外打工的就有 407 人,约占全村人口的 40%,每年国外打工收入达 2000 万元人民币,全村人均收入 1.4 万元,有 90%的农民安装了程控电话,有 8 户农民成为百万富翁。吉林省梅河口市花园朝鲜族乡已有 1700 多人出国打工,有几百人满载收获回国,他们都脱贫过上了小康生活,全乡 1.9 万人口 1998 年人均纯收入达到 3000 元,在全市名列前茅。

跨国界民族之间的往来,不但促进了边疆的繁荣与发展,而且促进睦邻友好和我国与邻国地方之间的经济文化交流。

对外开放以来特别是进入 90 年代以来,朝鲜族聚居的边疆地区与其毗邻的周边国家边疆地区一直和睦相处,随着对外开放的扩大,这种较好的睦邻关系在新形势下进一步得到了发展。1996 年朝鲜族聚居地区开通了集安、图们、长白、琿春、龙井、和龙、丹东、绥芬河等 8 个中朝、中俄边境旅游口岸,开展了一日、三日、多日游和对等旅游。目前,延边州 7 个边境口岸也普遍开展了边境旅游,1991-1998 年全州累计出境旅游人数达 4.9 万人次,其中仅 1998 年出境旅游人数为 1.4 万人次,比 1991 年提高 1.5 倍。截至 1999 年 9 月底,来延边旅游的海外游客达 56651 人次,国内游客达 263476 人次,分别比上年同期增长 77% 和 20%,边境游达 1.6 万人,已经超过 1998 年一年的边境游人数。延边的旅游业已步入稳步、快速发展轨道,正在成为延边新的经济增长点。以长白山为王牌旅游业方兴未艾,每年接待海外游客达十几万人。

### 3、中国朝鲜族海外移民的增多

随着改革开放,我国东北三省的朝鲜族陆续移居海外,迁入韩国者大约有 40 万;光是延边地区的朝鲜族在 1991 年至 1994 年迁入俄罗斯者为 3 万多;还有在 1995 年大约 2 万左右的人去了美国、加拿大、中东等地。

朝鲜族海外迁移的原因,主要有以下几点:第一,国际环境的变化,特别是两大阵营的解体以及中韩建交的实现,为朝鲜族大规模移居海外创造了客观条件。1992 年中韩建交后,双方人员的往来大幅度增加,韩国为推进民间交流采取了重大措施,即不再把中国列为特定国家,简化了中国公民赴韩、访韩的手续。建交前,甚至在建交后的一段时间内,中国公民访韩的手续十分繁杂,除了本人的有效证件,还必须由单位签发证明,证明访问者在单位的身份,担保访问者回单位工作,不滞留韩国等。中韩建交后,为适应双边关系发展的需要,均在对方国家增设了总领事馆。这样就方便了双方人员的签证问题。同时,中韩开通了海运和航道,特别是 94 年 12 月签订的航空协定,开辟直通航线,为扩大两国人员往来提供了交通方便。第二,改革开放以后,不少外国企业进入我国,拓宽了我们的视野,使不少中国人去发达的国家学习或“淘金”。第三,随着经济的发展,航海技术不断提高,加上航空运输,以前需要十来天、甚至几个月的旅途现在只需若干小时即可到达。还有电报、电话、传真、卫星广播、因特网,信息灵通,接触频繁,为海外移民提供了方便。第四,朝鲜族在语言上与朝鲜、韩国相通,所以朝鲜族出国首先会选择去朝鲜或韩国。由于朝鲜经济相对落后,只

<sup>25</sup> 郑玉善,“论东北朝鲜族的对外交往”,《满族研究》2000 年 01 期,第 93~96 页。

有去探亲的人，而且多数为短期的旅行，本文就不做讨论了。在随着中韩两国的正式建交和往来后，韩国作为二战后经济发展相对较快的国家，成为朝鲜族主要的移居国。

朝鲜族移居海外的途径主要有以下几种。第一，劳务输出。最初去韩国主要是以亲属访问，而随着中国进一步对外开放和农村劳动力的过剩，加上韩国劳动力的不足，大量的朝鲜族以劳务输出的方式去了韩国。劳务输出人员出国后所从事的职业包括建筑、纺织、服装加工、电器制造、捕鱼，等等。在这些职业中，有些是重体力劳动，是朝鲜族在国内择业时很少选择的。使他们克服传统择业观念的，显然是劳务输出可以挣得的丰厚收入。劳务输出人员的构成，从原来的职业上看，劳务输出人员主要由两部分人构成：一部分是城里效益较差的企业的职工；另一部分则是农民，他们多来自离城较近、信息较灵的农村。据介绍，这两部分人大体上各占一半。原企业职工都有一定的技能，而农民又具有吃苦耐劳的品德，他们都很爱外方的欢迎。从民族构成看，劳务人员中朝鲜族占绝大多数，这与他们同韩国人在语言上的相通有很大的关系。劳务人员的平均月工资是 599,000 韩币（相当于人民币 4000 元），而“跳槽”后成为非法滞留者的工资是 829,000 韩币（相当于人民币 6000 元）。在男女比例上，起初时由于劳务输出主要是从事重体力劳动，所以劳务人员大多都是中青年男性。但近年来，轻纺、服装、电器等行业也相继来招工，且多要女工，因此，在延边地区，女性在劳务人员中的比例迅速增加，现已超过一半以上，并还有进一步增加的趋势，女性劳务人员的主要职业是纺织、服装加工。在年龄结构上，劳务输出人员最初多是 30 岁以上的中青年。现在，随着女性的不断增多，年龄也趋于年轻，18 至 20 岁的年轻人占了劳务输出人员的大部分。在文化程度上，劳务输出人员基本上都是初高中毕业生，但专业知识仍显不足。但近年来，也出现了去韩国当汉语教师、当翻译的知识分子的劳务输出。

第二，出国探亲。1978 年中国同意居住在本国的韩侨返回韩国探亲、访友和定居。1984 年中韩双方允许公民到对方探亲，朝鲜族赴韩探亲 and 定居的人数大大增加，8 月底，共有 400 多的朝鲜族获准到韩定居（204 人）或探亲（240 人）。探亲者一般都带中国名贵的中草药和补品，一部分用以礼物，另一部分则在韩国以高价出售。在朝鲜族访韩的初期（也就是 70 年代末），韩国只允许在韩国亲戚关系且 50 岁以上的老人进入韩国，而到韩国的这些老人都带着中药或补品如：人参、熊胆、鹿茸、麝香、牛黄、白蛇等（一是用于礼物，二是想挣一些路费）结果收入不菲，如 30 厘米的白蛇能卖 700~800 万韩币（相当于人民币 5~6 万元），来源于经济上诱惑和对亲人思念，朝鲜族千方百计地寻找韩国亲戚，并联系他们，因为去韩国只有以商贸或亲属访问才可以进入。在上个世纪 80 年代末和 90 年代去韩国探亲的朝鲜族大多以卖中药和补品而发了财，带去的中药和补品有强心剂、健肾丸、牛黄清心丸、樟脑球、肝脏药、医药材、等等，一天可挣 5—10 万元韩币（相当于人民币 350—850 元）。他们还从中国偷偷带出人参、熊胆、鹿茸、麝香、牛黄、白蛇去卖，获得 2 至 5 倍的利润。但随着朝鲜族大量赴韩和卖假药的出现，风靡一时的探亲兼卖药从 1994 年开始冷清，现在偶尔能在汉城的地铁站看到卖中药的朝鲜族。但以出国探亲的方式赴韩的朝鲜族还是有增无减，如果说 80 年代出国探亲是由于在感情上的需要，那么，到了 90 年代经济上的功能成为主要原因。他们以探亲为由进入韩国之后，大多不按规定时间离境而滞留在韩国打工，所以越来越多的韩国人不愿意邀请朝鲜族来韩探亲。

第三，缔结涉外婚姻。在朝鲜族与韩国的频繁的交往过程中，他们之间的国际婚姻迅速发展起来。到 1998 年 3 月末朝鲜族女性改为韩国国籍者为 30349 人。为了取得韩国国籍和在韩国找到工作，朝鲜族姑娘找一些比她本人大好几岁甚至十几岁的韩国农村男青年或在城市里的低层劳动者。也有城市里离过婚的年龄稍微大一点的朝鲜族女性嫁到韩国。据统计婚

后绝大部分移民在韩国，她们居住在城市或周围的为70%，农村为28%，渔村为2%，也就是说朝鲜族姑娘与韩国城市里低收入者结婚为多。在中韩国际婚姻现状中我们发现，至今一起生活的占92.2%，离婚或逃婚占7.5%，分居占0.3%。虽然绝大多数维持婚姻关系，但考虑结婚时间的话离婚或逃婚的比例也相当高。

第四，留学。朝鲜族留学的主要国家是日本，还有韩国、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国家。留学人员主要是高中毕业、大学毕业或刚参加工作不久者，选择去日本留学是因为：一是他们在国内受过高等教育，去韩国打工有点屈；二是在日本工作工资比韩国高；三是可以学习日语，回国后还可以到国内企业当翻译。所以去日本留学的朝鲜族大多是自费的，是半工半读的。他们通过中介去的比较多。也有例外，比如在国内有些大学跟日本大学联谊，派中国学生去日本留学，其中就有朝鲜族大学生。朝鲜族学生去韩国留学主要通过大学，比如，延边科技大学每年都派优秀的学生到韩国学习，其中朝鲜族学生占大多数，有的学生回国之后，深受韩国学校的影响，继续深造。如2000年毕业于延边科技大学的某一朝鲜族男生，在校期间留学过韩国，大学毕业一年后考入美国某一大学读MBA。留学人员在移居国大多守法、勤奋、用功，回国后为我国的经济、文化发展做出更多的贡献。

第五，非法。由于物质上的诱惑，有些朝鲜族采取非法的手段达到海外移民的目的，如偷渡、假护照、假结婚等。朝鲜族从威海、青岛，大连等地由蛇头组织乘船秘密迁入韩国，每人为偷渡交给蛇头的费用为2—3万元人民币，据公安部统计，1995年在辽宁、山东、江苏省拘捕了密谋偷渡韩国者有1947人。假护照是指某些朝鲜族利用韩国已故人的名字，在中国办签证而出国，还有些地方朝鲜族利用偏僻农村的汉族人的名字出国，因为朝鲜族本身不好签证。正因为非法进入韩国，所以有的非法劳工也得不到很好的安排和法律上的援助。

大规模的中国朝鲜族海外移民风潮，不仅对中国整个朝鲜族社会震动很大，而且也给移民对象国特别是移居人数最多的韩国带来了很大影响。这种影响当然有正面影响，也有负面的影响。首先，朝鲜族的“韩流”，在朝鲜族社会中引起了前所未有的变化。生活水平空前提高；视野拓展、走向国际化；中华民族情结加深，他们因生在中国而感到自豪；更加爱国、向往祖国；更加热情地投身到祖国现代化建设事业中来。但是也存在一些不可忽视的问题：过度消费、家庭破裂、子女教育、农村男青年结婚等问题。

过度消费问题。延吉市是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的州府，是我国朝鲜族政治、经济、文化最集中的城市，随着在国外挣钱回国的人的增加，延吉市起了很大的变化。目前延吉市有200多家的茶座、练歌厅、夜总会、酒吧、按摩桑拿浴等娱乐场所，按人均可说是我国最高的消费城市。有些朝鲜族在韩国打工一年后回国，买一辆出租车让妻子白天出车，晚上自己出来挣钱，在韩国打工时间稍长的人回国后，就可开茶座、练歌厅，两年以上的人可在中国开夜总会等比较大一点的娱乐场所。其实朝鲜族海外移民初期，在韩国卖中药的朝鲜族回国后，可以创办相当规模的企业，如吉林省梅河口市某朝鲜族农民企业家，在韩国打工回国后，与韩国合作开一家果仁厂，专门把优质的松仔出口日本、韩国等地，不仅自己挣钱，还给家乡的妇女提供了第二副业（因为优质的松仔需要手巧的妇女来挑选）。在梅河口市的几个朝鲜族村有不少类似的乡镇企业，为梅河口市的经济发展做出了贡献。

家庭破裂问题。随着“韩流”，朝鲜族家庭的离婚率也逐年增加，特别是在夫妻一方出国挣钱回国的情况下更加严重，即使回国后一起生活的他们中也流行一种话：“过去的就不要过问”。传统上朝鲜族是比较注重家庭和和睦和团结的，具有尊老爱幼的优良传统，但在“韩流”的冲击下，回国的一些年轻人认为自己在国外辛苦挣钱是为了家庭，所以家里人都应唯他是宝；在家里带孩子的妻子（丈夫）或老人也认为出国挣钱不容易，久而久之本人回国后形成

了好吃懒做的习惯，夫妻感情淡化，也淡薄了尊老爱幼的传统。

子女教育问题。朝鲜族的教育水平在全国居于首位。据 1987 年的统计，在全国每 1 万人中具有大学文化水平的占 767 人，少数民族平均占 468 人，而朝鲜族是 2314 人。但近年来，由于朝鲜族的海外移民和低出生率朝鲜族的教育正面临着严重的危机，特别是在农村地区，如辽宁省某朝鲜族小学在 15 年前有 150 名的学生，但现在只有 45 名。吉林省梅河口市附近几个朝鲜族村的小学由于学生越来越少，合并到市里的朝鲜族中心小学中去。延边自治州的朝鲜族小学在 1985 年有 419 个，到 1995 年减到 177 个，中学从 118 个减到 49 个。不仅人数减少，也不像以前那么重视教育了，特别是父母出国在外的学生因为没有家长的约束，我行我素，学习成绩比其他学生下降得多，朝鲜族中学的老师们也反映父母在外的学生不好管理。

婚姻难的问题。据统计每年有 7000—8000 人的朝鲜族妇女嫁到韩国，其中除了年龄稍大的妇女以外，大部分是年轻的姑娘。年龄稍大的妇女一般是离过婚、工资又不高、所以嫁到韩国挣钱寄给自己的子女；年轻的姑娘一般是由家长包办，她们通常是农村的或城市里的低收入者、没工作者，她们的文化水平是小学或初中。这种涉外婚姻很大程度上解决了因家里贫穷而娶不到媳妇的韩国男子（因为在韩国传统上结婚以后，媳妇是通常不上班、而是在家里相夫教子，所以韩国女孩子在择偶时注重男子收入多不多，家庭条件好不好等），但是以前韩国男子婚姻问题转嫁到朝鲜族男青年身上，家里贫穷的、没有工作的或没有学历的朝鲜族男青年找不到对象，特别是农村朝鲜族男青年的婚姻问题成了让人担忧的地步，因为朝鲜族姑娘要么就是嫁到韩国，要么就是去北京、青岛、大连、深圳、秦皇岛、威海等地打工不回来，她们宁愿打工也不愿回到农村结婚，结婚也首先考虑嫁给韩国人。这样朝鲜族男青年年龄越来越大，有的找汉族姑娘，以前朝鲜族绝对是在同民族中找终身伴侣，即使自己愿意，家长是绝不允许与其他民族通婚的。但自从“韩流”以后，与汉族通婚的比例越来越高，家里也是默许。这种通婚也促进了朝鲜族与汉族之间的同化。

上当受骗问题。由于有些朝鲜族海外移民心切，但迁入韩国并非容易，上当受骗现象越来越严重。以邀请函、结婚、劳务、旅游观光为理由直接和间接上当受骗的朝鲜族达几十万人。特别是劳务输出，因为它规模较大、人数又多，所以上当受骗的人数多、金额也大。如在 1995 年因劳务输出上当受骗的朝鲜族有 5300 人，受骗金额达 1530 万人民币（约为 15 亿 3000 万韩币）。据统计，曾经在延吉市，由于海外移民，每三家就有一家上当受骗过；在吉林省梅河口市某朝鲜族光是在 1994 年至 1995 年间上当受骗过三次，金额达数十万，家破人亡。诈骗人不仅有出国过的朝鲜族还有相当一部分的韩国人，朝鲜族和韩国人联手诈骗，从他们的亲人入手，宣传的比较“真实”，加上有些朝鲜族认为只要出国就能赚钱，所以盲目相信他们，以至在财产上、精神上受到伤害。

由于移居韩国的朝鲜族人数越来越多，所以不可避免地对韩国社会也产生了很大影响。据 1998 年末韩国方面的统计，居住在韩国的外国劳动者有 154000 多人，其中朝鲜族劳动者约为 45000 多人，合法的研修生约 10000 人，其余的 35000 人为非法居住。朝鲜族迁入韩国不仅解决了韩国的劳动力不足的问题，还有效地解决了韩国贫穷男青年的婚姻问题。但也存在一些问题，不法分子利用朝鲜族急于进入韩国的心态，进行非法活动，如伪造护照，诈骗等。而其中不乏出现韩国人和中国人合作进行的国际诈骗活动。另一方面，由于非法进入韩国或超过滞留期间而继续留在韩国的朝鲜族大有人在，所以难免出现一些社会问题，如出现韩国老板拖欠非法滞留的朝鲜族的工资，朝鲜族又无法申斥，往往会做出过激的行为甚至于犯罪。再一点，朝鲜族做一些韩国工人不愿意干的粗活、脏活，间接地助长了韩国人的懒惰



性。近年来,由于韩国经济状况的影响,有些韩国企业不景气,一些人失业了。有人认为是因为朝鲜族的大量迁入造成的,还有些人认为韩国犯罪率上升也是因为朝鲜族,其实这是不符合事实的,失业的根本原因不是由朝鲜族的迁入造成,大部分的朝鲜族虽然非法滞留在韩国,但大部分守法又勤劳,不应该因一小部分的不法分子来否定朝鲜族在韩国所做的贡献。另一方面就是,越来越多的朝鲜族要求申请加入韩国国籍,这对中韩关系的发展也带来了负面的影响。

#### 4、中国国内朝鲜族人口的急剧减少

伴随着中国改革开放政策的全面深化和全球化趋势的进一步增强,最近几年中国朝鲜族人口的负增长速度越来越快,国内朝鲜族人口在不断减少。如果按这种递减趋势持续发展下去,10年以后朝鲜族人口将减至一半,不为夸张。

以吉林省为例。1953年第一次人口普查时,吉林省朝鲜族人口为75.6万人,占全省总人口的比重为6.70%,占全省少数民族人口的比重为63.37%。1990年第四次人口普查时全省朝鲜族人口为118.4万人,占全省总人口的比重为4.80%,占少数民族人口的比重为46.75%,表明朝鲜族人口的增长速度大大低于汉族和其他少数民族。到2000年第五次人口普查时,朝鲜族人口减少为114.6万人,比1990年减少3.8万人,减少3.21%。由于非普查年份没有全省的民族统计资料,从延边朝鲜族自治州统计资料看,朝鲜族人口的减少是从1996年开始的。延边朝鲜族自治州有关统计资料表明,自1996年开始,全州朝鲜族人口开始出现负增长,当年减少789人,2000年是负增长最多的一年,减少5013人。1990-2000年10年间全州朝鲜族人口减少20269人,占全省减少数的53.16%,朝鲜族人口占全州总人口的比重达历史新低,为36.26%。朝鲜族人口比重较高的边境县市和乡镇朝鲜族人口负增长尤为严重,2000年全州朝鲜族人口增长率为-2.47%,边境县、市为-5.17%,边境乡镇为-10.07%。其中和龙市增长率为-6.80%,和龙市的边境乡镇为-15.12%;龙井市增长率为-5.84%,边境乡镇为-15.12%;图们市增长率为-4.94%,边境乡镇为-10.86%;珲春市增长率为-1.58%,边境乡镇为-10.51%。

分析朝鲜族人口下降的原因,主要有以下几点:第一,人口出生率下降是朝鲜族人口减少的直接原因。2000年第五次人口普查时朝鲜族人口出生率为5.57%,比1990年下降了11.00个千分点,比同期全省平均水平低3.12个千分点。本来人口出生率就大大低于汉族和其他少数民族的朝鲜族,人口出生率的下降速度还快于汉族和其他少数民族。朝鲜族人口出生率大幅度下降的原因,一是朝鲜族人口婚育观念的转变。生育行为是生育观念的具体体现,随着朝鲜族妇女地位和文化素质的不断提高,广大朝鲜族妇女的生育观念发生了根本的变化,很多朝鲜族妇女在从事庭院经济、兴办第三产业中提高了自己的经济和社会地位,她们不再需要靠抚养儿女来实现自己的价值和家庭地位。特别是广大的青年妇女,有着较高的文化修养,生活在市场经济、信息化的社会里,在参与社会生产的同时,也在享受生活的乐趣,自觉不自觉的成了晚婚晚育的倡导者和实践者,据延边朝鲜族自治州统计,全州朝鲜族妇女晚婚率达84.68%以上,计划生育率达95.61%。婚育观念的转变在很大程度上导致了朝鲜族人口的生育周期延长,生育率下降。2000年朝鲜族育龄妇女总和生育率为0.7,比全省平均水平低0.14。二是婚龄人口性别比偏高是朝鲜族人口出生率下降的另一原因。朝鲜族男青年,特别是边境乡镇朝鲜族男青年进入婚育年龄以来,由于女青年纷纷进城打工,出国劳务,找对象成了一个最大的难题。第五次人口普查手工汇总资料显示,延边朝鲜族自治

州外出人员有 280757 人，其中边境城市有 83540 人，边境乡镇 12031 人，他们大部分人在外打工或出国劳务，而这些人绝大多数是朝鲜族，尤其是女青年所占比重更大。

据延边州妇联调查，全州 25—30 岁的未婚男青年有 7997 人，未婚女青年 1473 人，30 岁以上的未婚男性 50285 人，女性 374 人。婚龄男女性别比例严重失衡，造成初婚人数减少，势必导致出生人数和出生率的下降。据计划生育部门统计，延边州朝鲜族女性初婚人数由 1991 年的 6798 人下降到 2000 年的 2676 人，减少了 4122 人。三是教育费用的增加也是朝鲜族出生人口减少的重要原因。朝鲜族历来有重视教育，有着“卖牛教子”，倾其全力培养孩子的光荣传统。在贫困的山区，还流传着这样的话：“宁愿啃树皮，也要送孩子上学读书”、“哪怕明天就要饿死，今天还要送孩子上学”。特别是市场经济对人才的要求，表现为学历的高低直接影响将来就业难易及报酬高低，使朝鲜族家庭大都选择了把孩子培养成高素质、高层次人才的目标。在延边，朝鲜族学校的费用比汉族学校要高，在家庭对孩子的教育投入中朝鲜族也远比汉族高。绝大多数朝鲜族家庭为了孩子的教育竭尽全力，他们认为与其教育两个普通的孩子，不如养一个出色的孩子，从而放弃了生育二胎的念头。据初步计算，朝鲜族家庭一个孩子完成 9 年义务教育，最少也得 5 万元，提高孩子的生活、教育质量，望子成龙是朝鲜族不生育二胎的重要原因。

第三个原因就是中国朝鲜族人口的大流动趋势造成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以后，中国实行改革开放。改革开放以前，延边朝鲜族自治州 90% 以上的朝鲜族从事以水稻种植为主的农业生产。由于人均耕地面积少，只有 10% 的劳动力耕种经营。由于科技水平低，在农村可开发利用的自然资源少，水稻种植成本增高，粮价下跌，他们的生活陷入困境。随着市场经济的进一步发展，促使农村大批剩余劳动力流入城市创业。他们纷纷到外资企业打工，当翻译，有的搞导游，办民俗餐饮业，在饭店、宾馆当服务员等，据延边州调查，第五次人口普查时流出省外应在省外登记的朝鲜族人口达 40725 人，占全州流出省外人口的 53.1%，占朝鲜族总人口的 5.08%。而流入延边州的人口大都是从山东、江苏、湖北、河南等省流入，少数民族仅占 2.7%。据吉林市对朝鲜族人口比较多的乡、村的调查，全市外出半年以上的人口中，朝鲜族占 11.72%。舒兰市平安镇朝鲜族人口 6000 多人，在国内大、中、小城市打工或卖咸菜的就有 2000 多人，占该镇朝鲜族人口的三分之一。磐石市永乐乡外出半年以上人口 1798 人，其中朝鲜族为 270 人，占外出人口的 15.1%。总之，朝鲜族城乡人口的流动，使全国一些城市如天津、青岛、威海、烟台等地逐步形成以朝鲜族商业、教育为一体的新的社区。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朝鲜族人口居住向全国扩散。据媒体报道，“从黑龙江省到海南省，朝鲜族的居住地正呈 S 型扩散。”原本以延边朝鲜族自治州为中心，主要居住在东北 3 省的农村地区朝鲜族随着韩国企业进军到中国大城市和中国自身的经济发展，正向中国的各大城市广泛扩散并在当地定居。目前，约有 50-60 万人移往中国南方和东部沿海发达地区；黄荣清说：“现在内地韩国人开的宾馆、饭店越来越多，很多朝鲜族年轻妇女都到内地去打工，这些人大多是育龄妇女，这也是当地朝鲜族人口下降的一个原因。”

中国的朝鲜族不仅仅是国内的流动，而且是面向世界的全球性大移动。在改革开放以来的 20 多年里，以东北三省为主要居住地的朝鲜族人，约有 50 万人出国，移住世界各地——也就是说，有 50-60 的中国朝鲜族人离开了东北延边等故乡，走向全世界。朝鲜族人越海赴韩国、日本、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国家，从事劳务、经商、创收了数倍、数十倍于昔日的财富，丰富了见闻，增加了知识技能。在海外移住群落中，约有 17 万人在韩国，5 万人在日本，5 万人在美国，5 万人在俄罗斯，还有 4-5 万人散居于欧洲、中东、东南亚、南美等地。随着改革开放的不断深入和我国外交政策的进一步贯彻落实，延边朝鲜族自治州的涉外婚姻数量逐年上升。尤其是我国与韩国建交后，涉外婚姻数量明显增加。从 1993 年到

2001年,全州涉外婚姻共有18885人,其中,朝鲜族女性18000人,未婚9540人,占朝鲜族女性涉外婚姻的53%,离婚8460人,占47%。

中国朝鲜族人口迁移,给整个朝鲜族社会带来了深刻的变化。首先,人口迁移带来人文生态失调。延边朝鲜族自治州的人才资源本来比较丰富,由于大量高素质的朝鲜族人才外流,而低素质的汉族普通劳动力流入,加剧了高智力的科技和管理人才短缺,而一般劳动力却相对过剩的劳动力结构失调的矛盾。在市场经济不断发展的条件下,人口流动和人才流动是不可避免的必然现象,问题在于要通过宏观调控使其流动更合理,才不会带来不良的社会经济后果。第二,朝鲜族主要聚居区—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族人口比重下降较快。1953年第一次人口普查时,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族人口比重为60.17%,2000年第五次人口普查时降到36.26%,而同期汉族人口由37.40%上升到60.70%。如此发展下去,将会影响延边朝鲜族的民族区域自治,或难于发挥民族区域自治的优越性。延边朝鲜族人口比重下降,是由朝鲜族和汉族的人口出生、死亡、迁移诸方面的变动带来的直接后果,如何正确处理这些变动中的问题,以防止朝鲜族人口比重的进一步下降,是必须面对的现实问题。第三,朝鲜族人口死亡率偏高,预期寿命低于其他民族。2000年全省朝鲜族人口死亡率为6.25%,其中男性为7.61%,女性为5.43%,比全省平均水平分别高0.92和1.50、0.92个百分点。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族死亡率为7.00%,朝鲜族人口死亡率比全州和汉族分别高1.24和1.87个百分点。朝鲜族人口比重较高的和龙市人口死亡率为6.62%,男性死亡率为8.03%;龙井市为6.77%,男性为7.91%;图们市为6.11%,男性为7.48%。表明朝鲜族人口死亡率高于全省和其他民族,尤其是男性死亡率更高。由于较高的人口死亡率,致使朝鲜族人口预期寿命低于全省和其他民族。1990年朝鲜族人口预期寿命为66.93岁,其中男性63.70岁,女性70.14岁,比全省平均水平分别低1.59岁,男性低3.44岁,女性基本相同。第四,朝鲜族人口减少给边境乡镇社会事业发展带来诸多问题。由于朝鲜族人口的减少,给延边朝鲜族自治州的经济和社会事业发展带来较大的影响。首先是正常的教育体系受到冲击。据州教委有关资料表明,从朝鲜族学校数量看,1990年全州有朝鲜族中小学498所,而到2000年全州有朝鲜族中小学257所,减少241所,减少比重达48.39%;在农村这一问题表现更为突出,1990年全州农村有378所朝鲜族中小学,到2000年减少为125所,减少253所,减少比重高达66.93%。从朝鲜族在校学生看,1990年全州朝鲜族中小学在校学生数121551人,2000年比1990年减少18278人,下降了15.04%。特别是农村学校的减少,使原村办小学和中学都相继撤并到乡镇政府所在地,导致小学一年级学生也要寄宿上学,这种现象在边境乡镇十分普遍。在原本为数不多的乡镇朝鲜族中小学中,还广泛存在着师资力量差、教学水平低、学习环境恶化等问题。如龙井市三合镇明东小学现有学生27名,4名老师,学生之间缺少竞争,教师也是得过且过,没有比学赶、帮、超的氛围,整个教与学死气沉沉。其次是卫生状况恶化。据州卫生局有关资料表明,2001年,全州乡镇卫生院76个,比1991年减少23个,减少23.23%;卫生技术人员11624人,比1991年减少2621人,减少18.4%。就医患者减少的趋势在边境乡镇表现突出,三合镇卫生院骨干医护人员调离之后,使边境村民小病要么挺着不治,要么随便吃点药,大病就得走七十八里路到市医院,不但乡镇卫生院渡日艰难,更使患者正常的诊疗受到影响。三是边境乡镇村屯基本建设没有长进,路面年久失修,街道两旁房屋破旧不堪,文化生活较为贫乏,目前有的乡村仍未接通电话和电视,广大村民只能收听朝鲜的广播,收看韩国的电视节目。



특별취재

운남성의 소수민족세계 - 곤명, 구향, 석림, 대리, 리장

리포 **운남성 소수민족 탐방**

김희선 · 송종호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pisces8137@hanmail.net / joist1894@naver.com



이 글은 2007년 1월 13일 부터 18일까지 중국 운남성 여강 나시족 자치주(麗江納西族自治州) 취재여행을 토대로 작성됐다.

**운남성**



▲ 麗江古城, 石林, 九鄉洞屈, 운남민족촌에서의 민족공연(시계방향).

운남성은 중국 서남쪽 변방에 위치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삼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인들의 머리 속에 오색찬란한 성으로 각인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 이 곳을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이곳의 순수하면서 소박한 매력에 더욱 이끌리게 된다.

서남쪽에 있는 서쌍판납(西雙版納)의 유연하면서도 부드럽고 우아한 기세의 풍경은 아름답고 날씬한 여성들의 모습을 빗댄 듯 하며, 동남쪽의 산간평지에는 하니족(哈尼族)이 대대로 경작해 온 계단식 밭이 층층이 겹쳐져 있다. 매년 9월이면 노란색의 유채꽃이 산과 밭을 가득채워 마치 그 모습이 땅과 하늘을 황금색으로





가득 채운 듯하다.

이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땅에는 백족, 하니족, 태족, 나시족 등 25개 소수민족들이 운남성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나시족의 동파문화, 대리의 백족문화, 태족의 패엽문화 등 그들의 다양한 신화, 가무, 그림, 음악으로 운남의 독특한 민속문화를 만들어 냈다. 또, 운남성의 위엔모현이라는 곳은 인류 발원지 중의 하나로서 약 170만년 전 원시인 석화도 발견됐다. 성도(省都)는 곤명시로서 “춘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사계절이 모두 봄처럼 따뜻하며 언제나 꽃이 만발하고 산이 푸르며, 이런 자연환경에 어울려 수많은 명승고적이 자리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관광지이기도 하다.

중국의 제일 남쪽, 구름남쪽의 그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땅, 운남(云南). 이곳을 지난 1월 한국민족연구원은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 탐방을 목적으로 취재여행에 나섰다. 다음은 운남성을 탐방 행적을 따라 탐방 스케치를 정리한 것이다.

### 곤명(昆明)

이 곳은 중국 운남성의 성도로서 상그릴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다. 이미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인 곤명은 남부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 운남성으로 가기 위한 직항은 인천에서 곤명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한다. 1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곤명에 내려선 순간 두꺼운 코트를 벗어둘게 된다. 산들산들 바람을 느끼며 이곳이 왜 춘성(春城)으로 불리는지 실감한다. 해발 1891m에 위치해 1년 내내 5~25도 사이의 기온을 유지한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꿈의 도시이다.

본래는 타이족의 영역이었으나 원대 이후 중국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게 되었고, 청국·프랑스 조약 및 운남-베트남 철도의 개통 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철강·정밀 공작기계·화학비료·방직·전력 등의 공업이 활발하며, 부근에서는 인광석, 구리, 석탄, 철광석 등이 생산된다. 또 베트남과 구이저우로 통하는 철도, 구이저우(貴州)·쓰촨(四川)·광시(廣西) 등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요지이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곤명을 중국정부는 동남아시아와 연결할 수 있는 중국의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범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성의 일환으로 곤명(昆明)~싱가포르 철도 개설을 추진중이다. 곤명에서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싱가포르와 연결될 예정이며 길이는 총 5,500km다. 화교 자본이 장악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아세안 주요 국가 경제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만,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대중화’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는 의미가 있다.

곤명에도 역시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곤명의 전체 인구 370여만명 중 6%가 소수민족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한족화 돼 있고 곤명에서 소수민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민속촌이 유일하다. 현재 곤명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리우슈화(남, 42세)씨는 본래 이족이었다. 20여년 전부터 곤명에서 온갖 일을 다 하며 살고 있지만 눈으로는 한족과 소수민족을 분간하기 어렵다. “사람들과 섞여 살며 민족색이 많이 사라져 우리도 구별하지 못한다. 도시 속 소수민족은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다. 한족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소수민족 정책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 서산(西山)

첫째 날 곤명 호텔에서 투숙한 탐방단은 둘째 날 서산으로 길목을 잡았다. 서산은 곤명시내와 인접한 산으로 벽계산(碧鷄山)이라고도 하고 곤명시의 서쪽에 위치하므로 서산(西山)이라고도 부른다. 또



▲ 서산에서 바라본 곤명호. ▲ 제물신을 모신 누각. ▲ 암벽을 인공적으로 뚫었다.

해발 2,500m 길이 약 4km의 서산은 기복이 있으면서도 마치 잠자는 미녀처럼 보이므로 수미인산(睡美人山)이라고 불린다. 용문동굴은 아래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쉬운 방법으로는 리프트를 타고 위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다. 일행은 버스를 타고 산의 8부 능선까지 올라갔다. 아래로는 곤명호가 넓게 퍼져 있고 시가지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곤명호는 얼핏보기에 바다처럼 보일 정도로 그 넓이가 상상을 초월했다. 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곤명시가 마치 만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그 호수의 기세가 육지를 위협한다. 이처럼 큰 기세를 보이는 곤명호(昆明湖)는 곤명시의 중요한 수원으로 그 크기가 항주의 서호(西湖)를 연상케 한다. 호반에 있는 것이 서산삼림공원(西山森林公園)인데 그 넓이와 크기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유발케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발 2,280m에서 돌계단을 잠시 내려가면 용문동굴이 나온다. 이곳에서 삼청각(三清閣)까지는 암벽을 인공적으로 뚫어 만든 좁은 굴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이 굴은 1,333개의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청나라 중기 도사 오내청(吳來靑)이라는 사람이 정과 망치를 사용하여 아들 대(代)까지 72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라는 속담을 여기서도 확인한다. 길고 길게 내리쬐은 돌 계단은 어느새 끝을 보이며 다시 곤명호의 파란 물결을 내보인다. 어두운 동굴 속을 조심스럽게 돌계단을 타고 오르내리는데 그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발길을 내딛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앞서 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조심하라고 한다. 앞에 갑자기 낮은 층의 길이 나온다. 그 둘을 쓰다듬은 사람들의 수가 명나라와 청나라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명이었을까. 돌은 반질반질 하다 못해 보석과 같이 빛났다. 벼랑으로 내려서는 이 길에 동굴과 돌계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좁은 석벽의 공간에 화정사(華亭寺), 태화사(太華寺), 삼청각 등의 명소가 있다. 작은 절이 아닌 웅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건축물로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것이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그 흔적과 유적의 놓인 곳이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이마저도 소수민족의 솜씨로 보인다. 그들의 힘겨웠던 삶의 고난을 이곳을 통해 본다면 빈말일까. 그들은 이렇게 문화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놓고 있었다. 특히 삼청각은 ‘공중의 누각’으로 불리고 있으며,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형상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용의 여의주를 주머니에 넣는 시늉을 한다. 재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의 표현이라고나 할까.

그 밖에 뱀과 거북이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옥황상제에게 장군으로 삼아달라고 찾아갔다가 상제가 무슨 선물을 가져왔냐고 묻자 서로가 일단 물러났다가 뱀과 거북이가 같이 오니 뱀과 거북이의 한자음이 ‘장수(長壽)와 비슷한지라 이에 상제가 기뻐하며 장군으로 삼았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이 뱀과 거북이 상을 만지면 장수한다고 하여 오가며 이를 만지고 또 만지고 때로는 기도를 한다. 위의 사진에서 봤던 제물신은 그 현대가 권력을, 들고 있는 금이 부를 상징한다. 이 역시 금과 현대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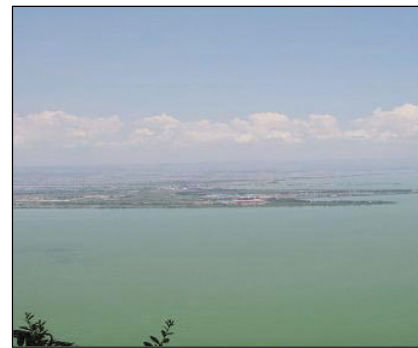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효우천(孝牛泉) 전설도 전해진다. 어떤 사람이 소를 잡으려고 하니 집 밖에서 송아

지가 계속 올면서 방해를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소 잡는 칼이 없어졌다. 이에 송아지가 그 어미를 살리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여 소를 잡는 것을 그만뒀다. 송아지는 어미를 살려준데 대한 보답으로 우물을 파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옆에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놨다.

처음의 석공이 죽은 후에 그 제자까지 60년이 걸려 완공한 용문석장은 마지막 제자가 결국 끝을 장식하는 용문 벽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 절벽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완전히 채색이 안 된 붓 자욱이 벽에 남아 있음을 보며 세월의 우수함을 확인한다. 마지막 코스인 산의 정상에는 용문이 자리하고 있다. 물고기가 고향에 가고 싶어 옥황상제에게 이야기하니 옥황상제가 이 용문을 넘는다면 용이 되게 하여 고향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에 홍하의 잉어 이마에 붉은 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용문을 못 넘어서 생긴 흉터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용문의 바로 정중앙에는 등근 원형의 돌출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만지고 있으면 부귀영화와 소원성취가 가능하다고 하여 관광객을 포함해 주민들이 수시로 만지고 기도를 한다. 산의 정상에서 바라본 곤명호는 맑은 햇살 속에서 말그대로 장관을 연출한다.

이곳 서산은 벽계산이라고도 하고 곤명시 교외 전지(곤명호)의 서쪽에 위치하므로 서산이라고 불리고 있다. 해발 2500m, 길이 4km의 녹색 옷에 덮인 서산은 굽이굽이 기복이 있으면서도 긴 머리를 곤명호에 드리우고 있다. 한국의 4월과 같은 봄날씨 속에서 선선한 바람과 맑고 밝은 곤명호의 빛을 바라보며 첫 방문지의 정상에 올라선다. 낫설음으로 시작한 운남의 탐방이 웅장함과 그 속에 자리한 작은 미학들로 인해 더욱 가슴을 뛰게 한다. 소수민족을 만나기 전에 자연이 먼저 연구원들을 맞아준다. 어쩌면 세속의 찌든 때를 이처럼 깨끗한 자연속에서 씻어내고 티없는 소수민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어떤 계시는 아닐까. 다시 다음 방문지로 발걸음을 옮긴다.

### 곤명호



▲ 곤명호

서산에 오르며 바라본 곤명호는 산을 내려오면서도 우리 옆에서 계속 그 웅장함을 보여주고 선선한 호수바람을 선사했다. 서산에 오르는 길에 훤히 보이는 곤명호(昆明湖, 곤명후)는 곤명의 서남쪽, 남북으로 40km, 동서로는 8km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 호수이다. 곤명호(昆明湖)라는 이름보다는 운남의 옛이름을 따온 전지(澱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면적 340km<sup>2</sup>의 중국에서 여섯번째로 큰 담수호다.

또한 해발 18,885m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원의 진주'라고도 불린다.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8m로 그다지 깊지 않으며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도 있고, 담수호답게 여러 양식장들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서산산림공원에서 내려다 볼 수 있고, 주변 경치도 좋아 볼만한 명소들이 10여군데 있다. 운남성 최대의 호수인 곤명호 주위에 동서로는 금마, 벽계의 두봉이 끼워있고, 남북으로는 장충, 백학 두산이 마주보고 있다. 풍경이 아름답고, 아늑하고 경치가 좋다. 어느 호수에서 볼 수 없는 그 웅장함을 강조하는 것은 연구원의 견문이 짧은 탓도 있겠지만, 곤명호의 웅장함은 어느 매체를 통해 본 세계 제1의 호수와 빗떨 것이 아니었다. 서산을 내려오고서 다음 방문지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서산의 기운보다는 곤명호의 기운이 더욱 연구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감할





성도는 곤명시로서 '춘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사계절이 모두 봄처럼 따뜻하며 언제나 꽃이 만발하고 많은 명승고적이 자리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여행지이기도 하다.

수 있었다. 곤명의 봄 바람은 바로 이 곤명호에서 불어오는 호수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큰 호수에서 부는 바람이 이처럼 산들산들한 봄바람으로 콧볼을 간지럼을 피우게 할 수 있을까. 비단 이 곳이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만은 아니다. 이곳의 사람들의 표정은 언제나 웃음이 피어오른다. 본래부터 심성이 악한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날 이들 사람처럼 티없이 맑은 웃음을 보이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호지의 라다크로부터의 교훈을 보여줬던 "오래된 미래"의 주인들을 보여주는 듯 하다. 간혹 약은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썸이 너무나 순진했기에 오히려 웃고 넘길 정도로 이들은 순진했다. 그 썸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바랄 뿐이다. 어느 여행자가 지적한 것 처럼 이들의 모습이 관광객들에 의해 상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곤명호의 맑은 빛깔처럼 이들 주민들의 심성도 언제나 맑은 빛깔을 유지하길 빌어본다.

### 대관루



▲ 대관루에서 수많은 기러기떼를 볼 수 있는 것은 행운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대관루라는 곳이다. 곤명의 훈풍이 여기에도 미친 것일까. 훈풍은 이제 봄바람 이상의 온기를 품고 연구원들의 옷자락을 풀어낸다. 어느새 반팔차림으로 변한 연구원들은 대관루의 곳곳에 스미어 있는 이곳 주민들의 섬세함을 눈여겨본다.

대관루(大觀樓, 따관로우)는 곤명시 서쪽, 곤명호를 사이에 두고 서산과 마주하고 있다. 근화포(近華浦), 누외루(樓外樓), 화원(花園) 등의 풍경구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명나라때 정원이 생기고 이어 청대에 누각이 건조되었는데, 주변의 서산과 곤명호 등과 함께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시인과 문장가들이 이곳에서 글을 썼다고 한다. 1690년에 건조되고 1860년에 재건되었다. 정자누각식 건축물로 앞문의 기둥에는 청나라 평민시인 손염옹이 지은 180자의 긴 주련이 써어 있는데, 내용은 곤명호의 풍치와 운남의 역사에 대해 읊고 있다. 대관루에 올라 곤명호를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에 빠져 신선의 세계를 들어가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또한 이곳에서는 4계절 꽃 전시회가 열려 매 1월과 8월이면 난구경을 하러 온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바야흐로 꽃의 도시가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다.

탐방단은 다시 대관루공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곤명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져 있는데, 남쪽에는 전지(澱池)가 있고 태화산과는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이 공원 안에 있는 대관루(大觀樓)는 청나라 때(1682년) 건인(乾印)이라는 스님이 이곳에 세운 관음사의 접한 곳에다 2층 건물을 짓고 대관루라 명칭한데서 유래한다. 대관루 위층에는 발랑천층(拔浪千層)이라 새겨진 편액이 걸려 있는데, 편액은 1855년 황제가 친히 하사한 것이다. 이 공원도 꽃이 만발해 있어 아름다우며 곳곳에서 춤을 추



▲ 대관루가 위용을 자랑한다.

고 악기를 타면서 노래하는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취호처럼 이곳 역시 노인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다. 되돌아 나와서는 분경원(盆景園)에서 전시해 놓은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재를 감상할 수 있는 재미도 누릴 수 있다.

공원은 크게 근화포(近華浦)구역, 서원(西園) 구역, 그리고 남원(南園)구역으로 크게 나눈다. 근화포(近華浦)구역에는 곧명 지역의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원림건축들이 집대성 되어있으며, 곧명의 고대, 근대 원림역사문화의 발전을 집약하고 있는 300년 역사의 곧명 조경림 발전사를 보여주고 있다. 남원구역은 현재의 중국과 서양의 근대원림문화를 보여주며, 서원구역은 현대의 원림조형을 이용하여 곧명호를 바라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관루의 인상적인 장면은 관광객보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웅장하고 섬세한 유적지를 휴식공간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다.



▲ 대관루 입구

한편, 청나라 건륭연간에게 바친 손염옹의 180자 대련은 그 기세가 대단히 웅대하고 뜻이 매우 깊어, 수백년동안 사람들 입에 “천하제일장련 - 天下第一長聯”이라고 불리웠다. 이 긴 대련으로 인하여 대관루는 중국의 명루에 올랐고, 무한황학루(武漢黃鶴樓), 악양악양루(岳陽岳陽樓), 남창 등왕각(南昌騰王閣)과 더불어 중국 4대명루라 불리워진다. 대관루의 입장료는 10위엔이고 대관루를 오르려면 별도로 2위엔의 요금을 내야 한다.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이에 앞서 대관루로 가는 길에 안내원은 ‘초도후’라는 곧명 지방의 음식을 소개했다. 물에 넣어 썩힌 두부를 튀겨서 판매한다고 한다. 냄새는 이상하나 이 지방은 물론 중국에서 소문난 명물요리란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나 냄새가 매우 심하다. 곧명사람들은 이 냄새에 익숙해져서 호텔에 들고 들어가도 제지를 안 받는다고 한다. 점심을 먹고 쉬는 사이에 찻집에 들렸다. ‘곧명차문화센터’로 중국 차를 판매하는 곳인데, 교포 직원이 유창한 우리말로 설명을 하고 한 잔씩 마시게 해 준다. 중국 차의 종류가 무려 168가지나 된다는데, 여기서는 4가지 차(평안차, 남기인차, 생태차, 진념보인차)를 설명과 더불어 시음시키고 판매한다.

이에 앞서 대관루로 가는 길에 안내원은 ‘초도후’라는 곧명 지방의 음식을 소개했다. 물에 넣어 썩힌 두부를 튀겨서 판매한다고 한다. 냄새는 이상하나 이 지방은 물론 중국에서 소문난 명물요리란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나 냄새가 매우 심하다. 곧명사람들은 이 냄새에 익숙해져서 호텔에 들고 들어가도 제지를 안 받는다고 한다. 점심을 먹고 쉬는 사이에 찻집에 들렸다. ‘곧명차문화센터’로 중국 차를 판매하는 곳인데, 교포 직원이 유창한 우리말로 설명을 하고 한 잔씩 마시게 해 준다. 중국 차의 종류가 무려 168가지나 된다는데, 여기서는 4가지 차(평안차, 남기인차, 생태차, 진념보인차)를 설명과 더불어 시음시키고 판매한다.



▲ 구향동굴 입구

## 구향동굴

곧명에서 구향동굴을 가려면 남쪽으로 98km를 달려야 한다. 아직 길이 좋지 못해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산과 언덕 지대이므로 굴곡이 많은 길이지만, 지금 길을 넓히고 교량을 정리하는 등 바쁜 공사현장을 보니 몇 년 후에는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길은 철길과 사이 좋게 달리다가 헤어지기도 하는데, 이 철길을 계속 따라가면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 다음 탐방 때에는 그 철길을 따라 베트남으로 내려가자는 일행들이 몇 있다.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곳으로부터 베트남으로 내려가는 남쪽 방향과 티벳으로 향하는 북쪽 방향보다 절세의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서남지역의 국경문제와 소수민족 등 민족지로서의 연구가 가능한 소재들이 지천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철길도 굴곡이 심하고 터널도 많은 것을 보면 당시 공사의 어려움을 짐작할 만하다. 이 철길은 프랑스가 착취의 수단으로 건설했는데, 당시 이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의 고통이 대단히 심했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당시의 고통을 「철길의 침묵 하나는 인부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인부들의 희생이 많았다는 것이다.

운남성은 산골이다 보니 평지는 물론 산등성이까지 밭을 일구어 놓았다. 벼농사는 별로 볼 수 없고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콩, 옥수수, 감자, 밀 등을 재배하고 있다. 농기계는 보이지 않고 물소가 끄는 쟁기질이 고작이고 주로 팽이와 호미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 산이 많지만 나무가 별로 없는 것은 산이 주로 암반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계절에 꽃이 피는 지방이라더니 그 이름에 걸맞게 꽃밭이 화려한 봄을 장식하고 있다. 빨간 복사꽃, 흰 사과나무꽃, 거기에 이름 모를 갖가지 꽃이 지천으로 피어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한적한 시골길을 꼬박 2시간 반을 달려 구향동굴(九鄉洞窟) 입구에 닿았다. 구향풍경구(九鄉風景區)라는 글자가 뚜렷한 정문 앞에서 화려한 민족의상을 입은 아가씨가 반갑게 맞이한다. 구향동굴 코스는 정문을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30여 미터) 아래 계곡으로 내려간다. 10명이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협곡을 유람한다. 옛날 동굴이었던 이 협곡은 수십 길의 절벽 아래로 물길이 나 있다. 절벽에 음취협(陰翠峽)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 협곡을 정니곡이라고도 하는데, 길이는 600m이고 왕복하는데 20여 분 걸리며,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당일 우리 탐방단들이 도착했을 때는 수심이 낮아 배를 탈수는 없었지만 그 위용은 실감할 수 있었다.

구향동굴은 현재 5개의 풍경지구가 있는데 삼각동(三脚洞)풍경구, 첩홍교(疊虹橋)풍경구, 상대동



▲ 산등성이에까지 밭을 일구어 비닐 하우스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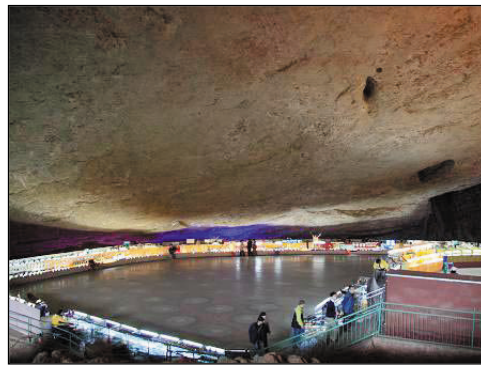


▲ 구향동굴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서는 내려갈 수 없다.



▲ 구향동굴의 절경은 운남의 지상과 지하가 모두 경이로울 뿐이다.





▲ 동굴 중앙에는 이처럼 넓은 광장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이 바로 구향기석전시관(九鄉奇石展示館)인데, 기석 중에는 검은 자연석에 희게 '구향 1989. 10. 1' 라는 글이 새겨진 돌맹이 8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어항에는 눈 없는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이것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살다보니 눈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퇴화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웅사대청을 나와서 석관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신녀궁(神女宮)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은 종유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동굴의 백미(白眉)에 해당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금교를 지나면 관음보살 바위 아래에 20m 높이의 쌍 갈래 폭포가 큰 물줄기를 쏟고 있으니 바로 자웅(雌雄)폭포이다. 폭포 앞을 지나면 조형은 마치 산지의 다락 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게 되고, 곧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박쥐가 없어진 박쥐동굴(Bat Cave)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는 계단 길을 올라가야 한다. 벌써 1시간 가량 동굴 속을 헤매고 다녔으니 다리도 아플 만한 하고 노약자들은 주저앉을 만한 때다. 이곳에는 가마꾼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마라는 것은 두 개의 장대에다 의자를 올려놓은 것으로, 대리가 아픈 사람은 물론이고 추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한 번쯤 타 볼 만하다.

각종 종유석과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갖가지 이름의 종유석을 보다보면 체육관만한 크기의 운동장이 나온다. 이곳에 고대인들의 문물과 매점 등이 시설되어 있다. 동굴을 감상하고 나면 출구에서 다시 370여개의 계단이 나오는데, 빌딩 30층 정도의 높이이다. 이곳에서 힘든 사람은 대기하고 있는 유료 가마꾼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계단 끝에는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리프트는 약 10분정도 탑승한다. 전체 관광거리는 약 3km정도이며, 전체 관광시간은 총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구향동굴의 입장료는 60위엔이다.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15위엔(길이 10km로서 박쥐동굴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이다. 개방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 이족 결혼식

다음 행선지인 석림으로 가는 길에 두 패의 사자탈춤이 장관을 이룬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귀하디 귀한 장면이다. 바로 이족의 결혼식 풍경이다. 긴 행렬을 따라 대열을 선도하고 나아가는 부채를 든 여인들이 노란 옷을 입고 옆에서 흥을 돋운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족의 결혼식이지만 사자탈춤 등 한족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봐서 한족과 이족의 결혼식일 것이라 설명을 덧붙인다.

(上大洞)풍경구, 대사패(大沙霸)풍경구와 명월호(明月湖)풍경구가 그것이다. 구향동굴에 도착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취협이라 불리는 깊은 협곡아래로 내려 갔다. 조그만 길로 가다보면 깎아지른 절벽사이가 나오며 조금만 걸어가면 어느덧 동굴의 입구에 다다르게 된다. 입구에 들어서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앞사람을 따라 조심스럽게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간다.

175km<sup>2</sup>나 된다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1.5m<sup>2</sup>에 이르는 웅사(雄獅)대청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동굴 앞의 종유석이 마치 숫사자 같다고 해서

소수민족에게 흔히 있는 성인식이 이족에게는 없다. 다만 결혼식이 곧 성인식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족의 남녀는 축제 기간 등에 노래와 춤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1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진 후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처녀를 등에 업고 와서 신부로 삼는 풍습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풍습을 이어가기 위해 이미 결혼을 약속한 집안끼리 서로 알고 퍼포먼스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랑 측의 가족이 약혼 이전에 신부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처녀를 잡아오는데, 처녀는 의례히 울며 도움을 청하고 신부의 가족들은 납치자를 쫓는 시늉만 한다. 또는 신랑 측의 사람들이 신부를 납치하려고 할 때 신부 측의 가족들이 이들에게 물이나 재를 뿌리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이들을 공격하는 척 하기도 한다.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술과 고기로 이들을 대접하고 신부를 말 등에 태워 데려가게 한다.



▲ 우연히 마주친 이족의 결혼식 풍경.

이족의 결혼식은 연회를 3일 동안 한다. 첫째 날은 동네사람들, 둘째 날은 일가친척, 셋째 날은 그들을 모두 모아서 치른다고 한다. 실제 결혼 첫날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친구들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신랑은 친구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한다. 둘째 날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때는 보통 말 6필을 준비해서 북과 쟁기를 두드리며 신부 집으로 가서 먼저 여자 집의 조상에게 인사를 올리고 예물을 신부 측에게 보여준다. 그 후 신부 부모가 신랑의 오른 손에 빨간 끈을 매어준다. 셋째 날에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는 연회를 가지는데, 이 날에야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동침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풍경으로 볼 때, 신랑 신부의 연회가 3일째 되는 날로 동네 사람들과 일가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결혼을 축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족의 여자가 15살이 되면 원래 두 갈래로 묶던 머리를 한 갈래로 묶게 되는데, 이는 이제 결혼해도 되는 처녀라는 의미라고 한다.

### 석림과 이족 새벽시장

석림에 들어가는 길에는 새벽을 여는 시장이 들어선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이족들로서, 한국의 시골장터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 장터를 지날 때 맛 볼 수 있는 “인삼과”는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이다. 석림 지역이 가물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 목숨까지도 위협에 처했을 때 이 “인삼과”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여 이 곳 사람들은 인삼과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석림에서는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꿀도 보였다. 한라봉과 비슷한 모양체와 맛을 가지고 있는 꿀을 비롯해 다양한 채소와 야채가 즐비한 시골 장터를 지나는 맛은 탐방 중에 스친 생각지 못한 귀한 경험이 됐다.

석림은 곤명의 동남쪽으로 부터 약 126km 떨어져 있다. 구향동굴에서 버스로 약 두 시간 달려야 한다. 구향을 출발한 지 2시간이 가까워지니 주위 산에 석순처럼 돌아난 바위들이 깔려있어 볼 만하다. 예사롭지 않아 ‘야’ 하고 감탄사를 보내니, 안내자는 “석림에 비하면 이것은 시작도 안 된다”며 한껏 바람을 넣는다. 드디어 별난 바위를 끼고 있는 석림호(石林湖)가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앞으로 아취형의 정문이 보인다. 정문 길가에는 이곳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사니족(이족의 일부) 여성들이 관광객들



▲ 석림의 새벽시장에서 만난 지역민들.

「石林」이 새겨져 있고 이것을 배경으로 샷니족 처녀들이 관광객을 위해 돈을 받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빈다.

이곳에서 석림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듯 하지만 화살표를 따라 가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계속 돌 골짜기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지나기도 하고 바위터널을 빠져나가야 하기도 한다. 지진에도 끄덕없던 바위지만 나쁜 사람이 지나가면 떨어진다는 '위기일발 바위'를 지나고, 연꽃 모양의 돌을 머리에 이고 있는 연화봉(蓮花峰)를 거치면 검봉지(劍鋒池)에 이른다. 또 칼처럼 생긴 검봉석주(劍峰石柱) 중에는 검봉(劍峰)이 있는데, 이것에는 왕과 악당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악당을 쫓아내기 위해 왕이 칼을 휘두르자 악당은 칼을 피해 바위에 구멍을 뚫고 도망치고 말았다. 휘두른 왕의 칼이 동강나 있는 모습과 악당이 도망갈 때 뚫린 바위구멍이 당시 상황을 연상케 한다.

여기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로 올라가면 망봉정(望峰亭)에 이른다. 이곳은 대석림구(大石林區)의 중앙에 우뚝 솟은 곳으로 석림의 중심부에 해당된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석림을 사방으로 환히 내려다볼 수 있는데, 어디를 보아도 뾰족한 바위들 뿐이다.

망봉정을 내려오면 소석림구역이다. 대석림에 비해 그 크기가 1/5에 지나지 않지만 이곳에도 볼거리는 제법 있다. 바위의 기묘한 자태가 대석림에 비하면 작지만 오밀조밀하면서 인공호수도 있고, 파란 잔디밭이 이웃하고 있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공적이라는 면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소석림을 벗어나니 석림호가 나타나는데, 이곳의 출수(出水)관음보살바위도 볼 만하다.



▲ 대석림의 위용은 운남성 탐방의 백미이다,

에게 선물을 팔려고 쫓아다니고, 전통의상을 입은 아가씨들은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석림에서 가장 높은(2,500m) 사자정(獅子亭)으로 올랐다. 대나무 숲을 지나 잠시 돌계단을 올라가면 정자에 오르게 된다. 석림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데, 가히 절경이고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앞서 안내자가 바람을 잡았던 것이 허풍은 아니다. 약 3만ha의 광대한 대지에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거대한 돌기둥이 몇 겹겹이나 겹쳐서 깔려있다. 대략 2억7천만년 전 이곳은 깊은 바다였다. 변화무쌍한 바다 속에 묻혀 있던 석회암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융기하고 빗물의 침식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 대지에 돌의 예술을 연출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바위들은 하나같이 형태가 기이하며 마치 돌의 산림 같다고 해서 '석림' (石林)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코스를 따라 내려가면 집채만한 큰돌이 서로 엉켜 있는 「國家級地質公園」이라는 뜻말이 서 있는 광장인데, 이곳이 석림의 입구이기 때문에 석병풍에 붉은 글씨로

「石林」이 새겨져 있고 이것을 배경으로 샷니족 처녀들이 관광객을 위해 돈을 받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빈다.

망봉정을 내려오면 소석림구역이다. 대석림에 비해 그 크기가 1/5에 지나지 않지만 이곳에도 볼거리는 제법 있다. 바위의 기묘한 자태가 대석림에 비하면 작지만 오밀조밀하면서 인공호수도 있고, 파란 잔디밭이 이웃하고 있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공적이라는 면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소석림을 벗어나니 석림호가 나타나는데, 이곳의 출수(出水)관음보살바위도 볼 만하다.

석림은 2억 7천만년전에만 해도 망망대해의 밑바닥이었던 전형적인 고원식 카르스트지형으로, 순수한 석회암으로 된 지층이 바닷물이 빠지면서 서서히 육지로 나타나 1,760미터로 융기 되었고, 세월을 거치며 마침내





석림에서 가장 높은(2,500m) 사자정(獅子亭)으로 올랐다. 대나무 숲을 지나 잠시 돌계단을 올라가면 정자에 오르게 된다. 석림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데, 가히 절경이다.

현재의 기묘한 모양을 갖추게 됐다고 한다. 또 구향동굴은 최근에 점점더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빼놓을 수 없는 곤명의 관광지로 물과 산, 동굴이 같이 있는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 석림입구에 쓰인 石林은 주은래의 필체다

안내에 의하면 석림은 원래는 그저 돌밭이라 이족들이 북경으로 올라가 이 돌밭을 제발 없애서 농사짓게 해 달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주은래가 내려와 현지를 시찰한 후 '이 돌밭이 너희를 먹고 살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며 관광지로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 석림 입구에 있는 "석림"이라는 글자가 바로 주은래가 쓴 것이다. 석림은 오르내림이 심한 대석림과 평탄한 평지에 있는 소석림으로 나누어지는데, 나쁜 사람이 지나가면 돌이 떨어진다든 지형, 만지면 심장이 좋아진다는 심장석, 장사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나 만져야한다는 양심석, 만지면 바람에 돛단듯 사업이 잘 된다는 돛바위 등이 있다.

"천하제일기경" 이라 불리는 석림에는 "아사마"라는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곤명의 전지는 중국의 6대 담수호 중 하나로 고원명주(高原明珠)라 칭해지기도 한다. 대석림, 소석림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카르스트지

모 경관이다. 약 350km<sup>2</sup>의 범위내에 기묘한 산봉과 폭포,鍾유동, 호수가 일체화돼있다. 그중 가장 신기한 것은 우뚝 솟은 석봉들이 숲을 이룬 듯한 것이다.

석림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석림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처음 석림을 찾을 때 만나는 곳이다. 사니족 처녀들이 대석림의 입구인 석병풍(石屏風)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곳이다. 여기가 석림의 처음이자 입구라는 표시로 석병풍에는 석림(石林)이라는 글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석병풍 뒤로는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통로가 여러 군데로 통해 있다. 그러나 화살표를 잘 따라 다니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대석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는 연화봉을 끼고 있는 검봉지(劍峰池)와 검봉지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망대인 망봉정(望峰亭)을 들 수 있다.

석림은 약 2억7천만 년 전 망망대해의 밑바닥이었으나 지각의 융기 작용으로 바다 밑이 몇 단계 남의 손을 거쳐 인쇄된 그림을 보는 것과 직접 솟아올라 석회암이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신비한 경관이 형성됐다. 300여 평방 킬로미터에 형성돼 있는 카르스트 지형인 석림 중 불과 5퍼센트만이 대석림과 소석림으로 구분돼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작게는 4-5미터에서 크게는 50미터에 이르는 뾰족한 바위들이 뾰족하게 솟아 숲을 이루고 있어 신비한 세계를 거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 그저 바위의 기묘함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대표적 기암괴석인 아사마석에는 이족 처녀의 슬픈 사랑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별천지 대석림을 배경으로 영화 '서유기'가 촬영되기도 했다.

석림은 이족 자치현으로 관광안내는 이족의 한 갈래인 사니족 여인들이 맡는다. 이들은 머리에 부리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데 부리가 2개는 처녀, 1개는 결혼을 앞둔 신부, 부리가 없으면 기혼을 뜻한다. 부리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부리에 손을 대는 것은 청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들과 기념사진을





▲ 대석림과 달리 온화함을 자랑하는 소석림.



▲ 석림의 귀괴한 바위숲 사이의 있는 석림호.

찍는 것도 석림의 즐거움 중 하나다. 석림 입구를 지나 잠시 걸어 들어서면 바위숲 앞 광장이 나타난다. 눈 앞의 바위 숲 중 가장 큰 뽕족바위에는 '석림(石林)' 이라는 커다란 붉은 글씨가 눈에 띄고 주위 기암 곳곳에 '천조기관(天造奇觀)' 등 푸르고 붉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기암괴석에 새겨 넣은 이 같은 사람의 흔적 때문에 이곳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지 못했다 한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기암들을 지나면 바위 숲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펼쳐지는데 미로 같아서 길을 잃기 쉽다. 깎아지른 바위 틈 사이로 난 길을 지나다 보면 어른 하나가 겨우 빠져 나갈 만한 곳도 있는데, 이곳을 지나면 액운을 막아 준다니 너도나도 안간힘을 써 겨우 빠져 나온다. 아득한 옛날 마치 바다 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한참을 걸어 정자 '망봉정' 에 오르면 대석림과 소석림이 한눈에 들어온다.

### 운남 민속촌

당일 오후 2시에 운남민속촌에 도착했다. 운남 민속촌은 운남성 곤명시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곤명호 주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곤명의 명승 관광지인 서산산림공원과 대관루 공원등과 서로 근접하고 있다. 면적은 485헥타르로 매우 큰 편이다.

민속촌에는 25개의 소수민족 촌락을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태족(傣族), 백족(白族), 이족(彝族), 남서족(納西族), 와족(佤族), 장족(藏族), 기나족(基諾族), 랍호족(拉祜族), 포랑족(布朗族), 합니족(哈尼族), 덕양족(德昂族), 경파족(景頗族) 등의 12개 소수민족 촌락이 형성되어있으며 나머지 부족의 촌락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단결광장, 민족무대, 풍미식품성, 숙박 오락시설 등의 종합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람과 오락, 휴가, 식사 등이 모두 가능하다. 민속촌의 입구에 들어서면 대만원주민(高山족) 목상 2개가 그 위용을 자랑한다.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민속촌이 타이족촌(佤族村 Dai Village)촌이다. 타이족은 162만이 되며, 주거하는 건물은 대체로 초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층에는 창고로 쓰거나 가축을 기르고 위층은 거실과 침실로 사용한다. 다른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모습들은 과거에 묻어버리고 그저 하나의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비해 타이족은 아직 굳건히 자기들만의 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운남민속촌에 들어서면 보이는 정경들.

타이족은 대부분 불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마을에는 반드시 사원이 있기 마련이고 이곳에도 탑 모양의 큰 사원이 있다. 남자로 태어나면 평생에 한 번은 일정기간 삭발을 하고 공양을 해야 한 것은 타이족의 오랜 습관이다.

와우족촌(佤族村 Wai Village)을 거쳐 라후족촌(基諾族村 Lahu Village)에 이르렀다. '라후' 라는 말이 '호랑이 고기를 굽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듯 과거에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민족' 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사냥을 생업으로 했던 민족이다. 운남성 전체에 약 4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차와 담배, 참쌀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알맞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남녀가 평등하며



▲덕홍에 있는 탑을 1:09 비율로 축소한 백담(다이족 마을) ▲ 대만 원주민 목상.

결혼은 100%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고 한다.

소수민족촌은 상업을 위해 만든 곳이라는 느낌이 든다. 각 부족의 생활 양식과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각 부족과 한족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곳곳에 상업성 짙은 물건 파는 곳이고,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라는 사람들뿐이다.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모아놓았다는 것 이외에는 큰 감흥을 느끼기 어렵다. 그래도 소독이 있다면 이들의 복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라후족촌에서 옷가게를 하는 젊은 점원은 “소수민족의 가장 큰 특색은 옷이라고 봐야한다. 이러한 옷을 실생활에서도 입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수민족들은 이러한 복식이 오랜 습관이어서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

장족촌(壯族村 Zhang Village)을 들어서니 분위기가 다르다. 다른 민족촌들이 모두 움막 같은 초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장족마을은 기와집이 즐비하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춤이 있다. 관광객들도 이곳에서는 발길을 멈추고 민속춤을 관람하는 여유로움을 누린다. 이어 나타난 백족(白族 Bai Village)도 부자촌이고 민속춤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맞고 있다. 660만 명이나 된다는 낙서족촌(納西族村 Naxi Village)을 거쳐 이족촌(彝族村 Yi Village) 마을에 이르니 코끼리 쇼가 한창이다. 큰 코끼리가 발로 공을 차는데 공이 아주 멀리 날아간다. 코로 공을 맡아 농구 링에 정확히 넣기도 하고 관람객을 높게 해서 발로 안마를 하는 아찔한 광경도 연출한다. 연구원이 안내자에게 “이족을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고 물었더니, 안내자의 대답은 이외다. “중국 사람이 일생동안 다 못하는 것이 3개 있는데, ①중국 글과 말을 다 못 배우고, ②중국 요리를 다 못 먹어보며, ③중국 땅을 다 구경 못 한다”라며 우문현답을 한다.

한편, 타이족이 있는데, 이들의 연주는 ‘장구오’ 등의 타악기로 음을 맞추며 사람들이 이 악기 주위를 돌며 손을 흔들어댄다. 이들에겐 탑이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와족은 ‘조롱박’이 이들의 조상이 조롱박에서 태어났다고 여기고 있다.

### 傣族村 (다이족 마을)

다이족 마을은 민족촌의 첫 번째 촌락으로 세면이 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촌락 안에는 푸른 나무와 신선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나무로 된 다이족 집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불구불한 길을 팔 걸어가다 보면 미얀마 형식의 절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가면 크고 높은 백담도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풍우교, 풍우정, 우물등의 건축물에선 다이족의 농후한 풍경을 느낄 수 있다. 다이족의 가장 큰 특징은 1년에 한번 “물뿌리는 행사”가 있다는 점이다. 다이족은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뿌려 복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이때는 서로에게 물을 뿌려도 화를 내지 않으며 온몸에 흠뻑 젖도록 물을 뿌려야 좋아한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은 성이 없다.

이들 모두가 한 가족의 후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하며 서로 기꺼이 돕고자 한다. 다이주인 샤오푸쇼우(여, 21세)씨는 “소수민족의 인구문제 때문에 결혼도 일찍한다. 한족의 경우 20세 이후에 하지만 다이주의 경우 16~18세부터 결혼을 한다. 처녀는 머리에 한 떨기의 꽃을 달고 다니고 이것을 통해 결혼 여부를 알리며 남자들은 이 꽃을 보고 여자에게 구애를 하게 된



▲ 다이촌의 백탑.



▲ 백탑 앞에서 다이족 공연이 한창이다.

은탑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탑의 끝에는 365개의 풍정이 걸려있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항상 소리를 낸다. 이 소리의 크기에 따라 다이족에게 상서로움이 온다고 믿고 있다.

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는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다른 종족과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근래에는 허용되기도 한다. 다이족 촌락 중 가운데에 있는 백탑은 덕홍에 있는 탑을 1:09 비율로 축소해서 만들었다. 중간의 주탑의 높이는 23.6m이고 주위에는 40여개의 작

### 白族村 (백족 마을)

백족촌은 운남민족촌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촌락은 백족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에 따라 건축되어진 건물들과 대리 삼탑을 4배로 축소하여 만든 탑 등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리고성의 양인거리를 모방하여 길 하나를 쇼핑거리로 만들었으며, 그곳에서 수공예품과 보석, 옥기, 목조석각



▲ 백족을 상징하는 흰색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깃발은 백족을 상징한다.



▲ 백족 여성들과 인터뷰 중인 김희선 연구원.

등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백족의 민족축제로는 “삼월의거리-三月街” 등의 행사가 있는데, 이는 백족의 가장 큰 민족 축제로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한다. 이 축제는 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설상의 관음이 이곳에 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생겼다고 한다. 일명 ‘관음제’ 라고도 한다. 그 중 백족 전통의 삼도차를 시음하는 행사는 백족의 전통적인 특징이다.

삼도차란 이 차를 마시면 3가지 맛이 난다고 한다. 처음 차를 마셨을 때는 무척 쓴맛이 난다. 이는 비교적 쓴 차잎을 골라 특별히 만든 작은 질 그릇에 넣고 얇은 불에서 끓여서 만든다고 한다. 두번째 차를 마셨을 때는 맛이 달고 마시기 좋다고 한다. 이는 그 속에 설탕과 호두알고 참깨를 넣어 만들었으므로 단맛이 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셨을 경우에는 그 맛이 독특하여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는데, 이것 역시 꿀과, 생각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차는 처음에 마시면 쓰고, 두 번째는 달며, 세 번째는 맛을 음미하며 마실 수 있는 차인데, 이것은 손님들로 하여금 오직 쓰디쓴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아름답고 달콤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대부분 백족의 80% 이상이 운남성의 대리(大理)에 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천과 귀주에 살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흰색을 숭배하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다. 왕명야오(여, 20)씨는 소수민족의 특징을 음악과 춤을 사랑하고 그것을 매일 즐기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소수민족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노래와 춤이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다. 그녀는 백족의 결혼풍습에 대해 “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가능하지만 잘 하지 않는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결혼을 하면 분가해서 생활한다.”고 전했다.

### 彝族村 (이족마을)



▲ 이족 여성들이 머리손질을 하고 있다.

이족 촌락은 민족 단결광장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안에는 독특한 성격의 세 마리 호랑이 조각이 있는 호랑이산이 있어, 이족문화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웅장한 태양력 광장의 중앙에 큰 토렘 기둥을 세워 놓고, 그 기둥위에 태양과 호랑이, 그리고 불과 중국 고대의 팔괘도(八卦圖)등이 새겨져 있으며, 주위에는 흑백의 12개월을 상징하는 둥근 돌들이 있으며, 그 밖으로 또 12개의 띠를 나타내는 석조들이 생동감 있게 전시되어 있다. 이족은 전통적으로 술을 상당히 좋아해 집 안에 술

을 만들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다. lahutu라는 도깨비 모양의 신을 숭배한다. 이족의 글씨 또한 특이하다. 이족인 장리(여, 23세)씨는 “현재 이족은 전통 글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단순히 전해져 내려오기만 한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족 역시 한어를 배울 뿐 그들의 언어는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였다. 이족촌 안에는 투우장, 전통 가옥 등이 생동감 있고 특이하게 구현되어 있다. 이족들은 춤과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민족이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열정적으로 하는 민족이다. 이러한 민족의 모습은 음력 6월24일 전후로 열리는 민족축제인 햇불제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태양력 광장에 모두모여서 성대한 경축활동을 벌인다. 이곳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햇불을 들고 춤과 노래로 축제를 벌인다.

이족은 특히 '샤시' 라는 계급을 이와 같은 민족촌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다. 사실 샤시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인구의 10% 정도였다. 재산권이나 자유는 전혀 없었고 도구나 가축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주인집에서 거주하였는데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였으며 옷은 너털너털한 양가죽을 걸쳤고 풀뿌리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였다. 노예주가 반항적인 샤시에게 쇠사슬이나 나무로 만든 차꼬를 채워 도망 못 가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자와 샤시 계급에는 백이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과 사로잡은 한족 등 이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많이 섞여 있었다. 이들 백이 계급은 흑이 계급으로의 계급이동은 할 수 없었으나 취뉘·아자·샤시 간에는 자유를 사거나 파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계급 간 이동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샤시 역시 이족이라는 전통문화를 상업과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소수민족의 전통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 나시족을 상징하는 대형 부조 ▲ 나시촌 입구.

### 納西族 (나시족)

나시족 마을은 백족마을의 서쪽에 위치

하고 있으며, 마을의 입구에 나시족의 동파문화를 나타내는 대형 부조가 벽에 새겨져 있다. 나시족의 역사문화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상용문자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동파문이라고 하는 이글자들은 현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상형문자이며, 이 문자를 이용하여 만든 책이 동파경이다. 이동파경은 나시족 문화의 백과사전이다. 또한 그들만의 독특한 동파 음악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느낌을 받게 한다.

### 佉族寨 (와족 마을)



▲ 와족촌의 소머리 광장.



▲와족촌 소머리의 확대사진이다.

와족마을에는 소머리 광장과 신령광장,곡식창고 등이 건설되어 있다. 그중 소머리광장은 옛부터 와족이 소를 잡을 때 사용하던 장소이다. 또한 신령광장은 와족의 자연숭배관념을 나타내는곳으로, 와족들은 만물에 모두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또한 그들의 춤은 매우 강력하고 호방하다. 와족여자들이 춤을 출 때는 긴머리를 날리며 춤을 추고 그 추는 모습이 매우 굳세고 힘이있어보인다. 이는 와족 민족의 질은 민족풍격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와족의 집은 대문에 소머리를 거는데, 이는 부유함의 상징이다. 소머리가 많을수록 부유한 집이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검을수록 아름답다고 한다. 라후족도 조롱박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과거 큰 흉수 때 조롱박에 타서 자신의 민족이 살아남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란다.

### 藏族寨 (장족 마을)



▲ 장족촌의 대표적인 건물

장족의 의식주와 교통, 관혼상제,예의와 풍속의 경축일등은 모두 선명하게 높은지역의 고원인상을 심어 준다. 보리와 소젖을 넣어 만든 술은 장족의 생활 필수품이다. 이 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하는 도수가 약한 술이며, 이들이 즐겨먹는 음식은 대부분이 고기와 우유로 만들 것들이다. 장족의 복장은 전통장족복장을 입는데, 특징은 긴소매와 오른쪽 앞섶의 옷을 입는 것이다. 여성은 겨울에 두루마리를 입고, 여름에 민소매 두루마리를 입고, 안에는 온갖 색깔의 꽃무늬가 그려있는 셔츠를 입고, 허리에는 컬러 무늬의 꽃무늬 앞치마를 입고 있다. 장족은 특별히 “하다-하?”라고 불리는 비단

수건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가장 진귀한 선물로 생각한다. 장족 촌에서는 구리로 만든 복인 동고의 모형을 볼 수 있는데 장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민족에게 있는 것이다. 동그란 원 세 개가 막대 위에 매달려 있는데, 이에 공을 던져 넣는 것이 남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종목 중 하나. 남자들이 많이 던져



이족은 특히 '샤시'라는 계급을 이와 같은 민족촌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다. 사실 샤시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인구의 10% 정도였다.

널을수록 여자에게 인기가.

### 基諾族寨 (지뉘족 마을)

지뉘족은 시쌍판나(西雙版納)주의 지뉘(基諾)산과 푸위엔(補遠)산에 살고 있다. 지뉘(基

諾)족은 1979년 9월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소수민족으로 외삼촌을 중시하는 모계 중심사회의 흔적이 있는 민족이다. 지뉘족 마을에는 민가건물과 마을회관과 같이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큰 방, 양식창고와 태양광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뉘족도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 이러한 춤과 노래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광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태양복춤-太陽鼓舞"은 경쾌하고 활기찬 것이 지뉘족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 拉祜族寨 (라후족 마을)



▲ 라후족 여성과 남성이 춤사위를 보인다.

라후족 마을에는 라후족 초가집과 마을회관, 교회당, 외양간 그리고 조롱박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조롱박 광장은 커다란 하나의 조롱박같이 만들어 저 있으며, 중심의 돌에 조롱박을 새겨놓았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큰 물난리가 나서 모든 만물이 다 죽었을 때 한 쌍의 오누이가 조롱박안에 숨어 목숨을 건졌고 후에 서로 부부의 연을 맺어 자손이 번창하였는데, 그것이 라후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롱박 광장에서의 활동은 라후족 선조를 숭배하는 의미의 행동인 것이다. 라후족을 보니 기독교 찬송가를 기타

로 부르고 있는 라후족 청년이 있어 인상에 남았다. 백족은 옷과 건물 모두를 흰색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앞은 벽으로 막아 바람을 막고 옆으로 대문을 놓았다. 우유와 치즈, 또는 찹쌀 등으로 떡거리 음식을 만들며, 우리의 김치와 거의 같은 김치를 만들어 즐겨 먹으며 고추장도 즐겨 먹는다.

### 布朗族寨 (부랑족 마을)

부랑족 마을에는 민가와 귀신광장등이 건축되어있다. 귀신광장에서는 부랑족의 만물의 모든 것에는 영이있다는 자연숭배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귀신광장은 부랑족의 성스러운 춤과 노래의 표현장소이며, 민족 활동의 중요한 장소이다.

### 摩梭之家 (모수족 마을)

모수족은 루구호 근처에 모수족 특유의 나무로 만든집에 거주하는데, 민족촌 모수족 마을에는 이 특유한 나무로 만든집을 건축해 놓고 있으며, 구조는 전통적인 사합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름은 "모수의집-摩梭之家"이라 칭한다. 모수족의 인구는 8만명 정도이며 아직까지도 모계사회를 유지





▲ 모수족을 설명하는 모수족 여성.

하고 있는 특유한 민족이다. 모수족은 남자가 밤에 자고 아침에 창을 통해 도망간다. 2층집이 보통이며 우유와 차잎을 넣어서 끓인 차를 마신다. 모수족의 집에는 불경을 적은 천들이 매달려 있다. 모수족인 나종궤와(여, 20) 씨는 “여자자 모든 일을 하고 남자는 노는 사회가 아니라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이다. 생활 분위기는 한족과 다르지 않다. 다만 엄마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사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 가정에 30여명 씩 사는 집도 많다.”고 모수족의 현재를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남자의 구애가가 있고 이 남자에 대한 주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20살 이상이 되면 결혼할 수 있고 2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



▲ 옥수수가 주식임을 보여주듯 옥수수를 늘어트린 모수족 주택의 마당.

### 티베트 족

티베트족은 남자 하나가 여자 넷을 거느릴 수 있다. 함부로 물건에 손가락질하는 것을 싫어한다. 종이 있는데 반드시 시계방향으로 세바퀴 정도 돌면서 종도 함께 돌리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 곤명에서 보게된 민족공연.

### 民族團結廣場(민족단결 광장)

민족촌을 들렀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광장이기도 하면서, 민족촌을 다 둘러 보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거치는 곳이 민족단결광장이다. 민족단결광장은 운남에 살고 있는 각 민족들의 단경을 희망하는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곳에서 운남성 각 민족들의 체육과 민족활동등을 한다. 매일 이곳에선 각 민족들의 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아시아 코끼리 군대의 공연은 운남민족촌에선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서 7마리의 훈련이 잘된 코끼리들이 각종 스텝과 웃음이 넘치는 공연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운남민족촌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었다. 운남 민족촌의 입장료는 성인이 70위엔이며, 학생은 35위엔이다. 개방시간은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민족활동 공연시간표는 위와 같다.

이후 연구원들은 민족 공연을 보게 됐다. 250위안의 공연료가 비싸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운남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응집해 보여주는 2시간 동안의 공연이다. 민족공연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각색한 면이 있으나, 그만큼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다.

공연의 내용은 운남 녹춘현 이족의 '신고(神鼓)', '구우(求雨)', 타이족의 '월광(月光)', 화요(花腰) 이족의 '花腰가무' 신평현 花腰 타이족의 '여인국(女人國)', 이족의 '타가打歌', 타이족의 공작춤 등의 공연이 있었다.



- 민족활동 공연시간표	
8 : 50 云南民族村開村儀式	13 : 30 彝族, 基諾族民俗歌舞
9 : 20 民族歌舞厅云南少数民族歌舞	13 : 50 傣族, 摩梭人民俗歌舞
9 : 30 傣族, 佤族民俗歌舞	14 : 00 佤族, 白族, 拉祜族民俗歌舞
9 : 50 團結嚴場民俗上刀杆, 基諾族民俗歌舞	14 : 10 團結嚴場民俗上刀杆表演
10 : 00 彝族, 納西族, 白族民俗歌舞	14 : 30 彝族, 基諾族民俗歌舞
10 : 20 佤族, 拉祜族民俗歌舞, 亞洲群象表演	14 : 40 傣族, 納西族民俗歌舞
10 : 40 傣族, 白族, 摩梭人民俗歌舞	14 : 50 亞洲群象表演
10 : 50 民族歌舞厅云南少数民族歌舞, 彝族, 基諾族民俗歌舞	15 : 00 民族歌舞厅云南省少数民族歌舞, 佤族民俗歌舞
11 : 10 團結嚴場民俗上刀杆, 佤族民俗歌舞	15 : 20 彝族, 白族民俗歌舞
11 : 20 基諾族, 拉祜族民俗歌舞	15 : 30 摩梭人, 基諾族民俗歌舞
11 : 30 傣族, 納西族民俗歌舞	16 : 00 團結嚴場民俗上刀杆表演
13 : 00 佤族, 納西族, 白族, 摩梭人民俗歌舞	16 : 20 民族歌舞厅云南少数民族歌舞, 納西族民俗歌舞
	16 : 30 亞洲群象表演, 傣族, 白族民俗歌舞表演
	16 : 40 佤族, 拉祜族民俗歌舞
	17 : 00 摩梭人民俗歌舞



▲ 대리 광장의 모습.



▲ 대리고성의 전경.

### 대 리

운남성에 온지 4일째. 일행은 대리로 향했다. 중국 정부는 민영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의 사영화를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이 개입하면서 배낭여행객이 여행하기에는 불편해졌다. 대리로 가는 길은 일반 차를 개조해 2층 침대차로 바꾼 버스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이다. 워낙 땅이 넓어 하루 이틀씩 다니는 장거리 버스는 기본이고 길면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이들은 가능한 통행료가 없는 길을 다닌다. 각 정부는 도로를 포장하고, 통행료를 받는데 지역 이기주의도 그 수위가 높아져 심한 곳은 30분 단위 통행료를 내기도 한다.

대리는 해발 고도 1976m로 한라산 정상보다도 약간 높은 고도에 위치한 동양의 스위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름다운 산악도시이다. 미얀마와의 국경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리석(大理石)의 고향이다. 남조국과 파리국의 수도였던 따리는 백족(白族)의 마을이다. 백족의 집은 곁에 회칠을 해

대부분이 흰색이다. 조상들도 쥘신을 신고 다녔다. 남성보다 여성이 일을 많이 해 남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불리는 마을이다. 대리에서 여성은 남성의 3분의 2정도 일을 더 한다. 그래도 집에 와서 살림을 도맡아야 한다. 단지 남자는 기술적인 분야의 일과 여자들이 하는 일의 보조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져 비교적 평등한 생활을 하지만 노인층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한다.

눈앞으로 희디 흰 백족의 집과 고풍스럽게 이어지던 따리 고성의 서로 잇닿은 처마들일 보인다. 백

족은 당대에 남소국(南昭國), 송대에 대리국(大理石)으로 비교적 강성한 국가를 형성했다. 하지만 13세기 중엽 세계를 유린하던 쿠빌라이 칸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이것이 중원에 지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6개 부락을 통일해 남조국을 세운 백족의 신시가지는 하관이라 불리고, 구시가지는 하안 집들로 되어 있다. 4120m가 넘는 창산을 넘어와야 대리를 볼 수 있다. 대리에는 왕궁이 없다. 역사에 기재되지 않았다. 22대 왕조가 있었지만 하나의 무덤도 나오지 않았다.

1천년이 넘는 고성과 수려한 창산 아래 펼쳐진 호수가 아름다운 이 도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전작업이나 되는 듯 도시 곳곳은 공사 중이다. 마치 그 리스트에 등재되면 전세계적으로 호객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듯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찍부터 때 묻지 않은 여행지만을 돌아다닌다는 배낭여행자들은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다. 그곳에는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샹그릴라로 추정되는 중넨(中甸)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티베트의 라싸가 현대화된 중국 도시로 변했을 때 실망했던 것처럼 또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할 듯하다. 운남성 정부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곤명에서 대리, 리장을 지나 중넨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교통이 불편해 여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일소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중국 안에서도 가난하기로 유명한 소수민족들의 고향인 운남성(현재는 귀주성이 가장 가난하다. 덕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별로 없다.) 주민들도 경제적 이득을 얻겠지만, 자신들의 문화는 차츰 잃어버릴 것이다.

운남성의 소수민족 정책은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남성에는 1500만명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소수민족이 간부, 지도자를 넘어 시장의 지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당서기 자리는 한족이 맡는 한계를 지닌다. 소수민족은 원주민이 아니다. 단지 이곳에 모여 살게끔 자치주를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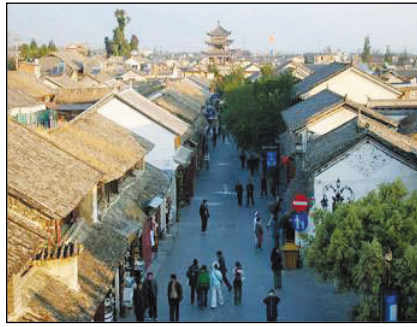
대리 고성에 살고 있는 백족 뒤커핑(28세, 여)씨는 5살 난 딸을 데리고 3대째 은 수공업 가게 일을 하고 있다. “대리의 경제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생활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취업 환경도 좋아져 다시 돈이 돌아온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이것들이 더욱 번창할 것이라 믿고 있다.” 고 대리 고성의 활발한 체감 경제 상황을 말했다.

고대 백족의 역사의 정취는 고성 지역에서 느낄 수 있다. 대리의 시가지인 샴관(下關)에서 고성까지는 8km 정도. 오른쪽에는 251㎡에 이르는 거대한 담수호인 얼하이(洱海)가 있다. 거대한 호수를 보고, 이들은 상상 속에 있는 바다로 이름을 붙였다. 리장에 비해서 아직 한적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리 고성은 세계 배낭여행자들이 모이는 휴식처 가운데 하나다. 대리에는 유독 비가 많이 온다. 시간 속을 거슬러 찾아온 것 같은 고성을 거닐며 그 중에서도 전통 백족 옛 마을인 희주는 오랜 세월 시간의 덮개를 온통 휘감고 있다.

## 대리고성

이곳이 대리국의 도읍지였을 때 축성되었던 성의 흔적으로, 현재 대리 도시 전체를 감싸는 듯한 성벽의 일부와 남문과 북문이 남아 있다. 성으로는 남문과 북문을 통해 올라갈 수도 있다. 성벽 안의 대리 시내에는 1~2층의 낮은 민가들이 죽 늘어서 있다. 검은 지붕과 하얀 벽이 대조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에서 오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리는 이해를 끼고 구시가와 신시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리국의 도읍지였을 때 축성됐던 대리고성으로 에워싸인 구시가지가 유명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집들의 1층에 가게들이 즐비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대리 고성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 가죽 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왕연화(여, 40세)씨 역시 개혁개방 이



▲ 대리고성에서 백족의 문화와 백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의 경우에도 이제는 공예품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공예품 노동자를 줄이고 있지만 기술의 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는 향상됐다.”고 말했다.

대리고성에 사는 한족 다이샤오창(남, 28세)씨는 대리가 좋아 3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고성 근처에서 백족을 화폭에 담으며 그들의 풍경과 전통문화 등 모든 것을 함께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의 자연환경은 나 같은 예술가에게겐 최고이며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공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림 중에는 특히 백족의 아가씨들 모습이 많은데 그들의 옷은 너무나 아름답다. 옷과 장신구 마다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고 소중한 것이다. 대리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나처럼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대리의 아름다움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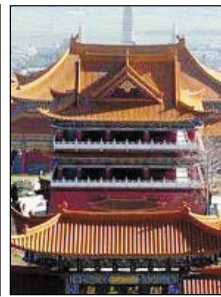
후 국가 경제가 나아졌고 국내 경제상황도 좋아졌다고 좋아한다. 주변 지역과의 교류도 늘어났고 모든 면에서 개방이 돼, 특히 아이의 교육 환경 교류가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좋아져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한족이 대리로 이주해왔으나 현재 30%가 소수민족이고 60%가 한족이다.

농촌지역에는 80% 정도가 소수민족이다. 왕 씨는 “대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예품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국가 공사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지만 돈벌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고성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 벌이가 훨씬 좋다. 공사

### 삼탑사



▲ 송성사는 삼탑으로 인해 삼탑사로 더 유명하다. ▲ 송성사 불전.



대리의 상징인 삼탑사는 (三塔寺) 거대한 탑 3개가 보인다. 대리고성에서 북쪽 창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 1.5km 떨어진 3개의 탑이다. 정식명칭은 송성사삼탑(崇聖寺三塔)인데 흔히 삼탑사(三塔寺)라 불린다. 높이 70m의 16층 탑 하나와 높이 40m의 10층 탑 두개로 이루

어진 삼탑사는 시내 어느 곳에서도 하얀 탑신이 눈에 띈다. 천신탑과 장탑으로 불린다. 400년이 됐지만 지진에 의해 많이 기울었고 보수공사로 속이 텅 비었다. 흙, 모래, 생석회로 지은 탑이다. 대리석은 금방 깨면 무르지만 생석회는 점점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다. 산을 만들고 위에서부터 깎아만든 탑이다. 천신탑이 완전히 갈라진 상태에서 10일 후 붙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왕족만 여기에 올 수 있었다. 탑 안으로는 못가고 밖에서만 구경할 수 있다.

종각 뒤로 우도와 관음절이 있다. 지진에 의해 파손되고 없는 것도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남쪽에 있는 삼탑도영공원의 작은 호수에 탑의 모습이 비추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시안의 소안탑과 비슷한 양식으로 지어졌다. 하늘이 쾌청한 날이면 4,000m급의 창산(蒼山)과 작은 호수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정확한 창건 연도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당나라 때인 남조국(南詔國) 초기 때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하이 호수**

얼하이 호수(이해)는 평균 해발 1,972m의 고산담수 호로 중국에서는 일곱번째로 큰 호수이다. 호수 주변은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호수의 남쪽 끝 하관(下關)에서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둘러볼 수 있다. 호수 가운데 솟아 있는 작은 섬에 내려 300여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시원스럽게 펼쳐진 호수를 조망할 수 있다. 공원 안에는 동물

**▲ 곤명호**

원과 백족 자치주 박물관이 있다. 얼하이의 남쪽 끝, 사관(下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으며, 얼하이를 돌아보는 유람선이 발착되기도 한다. 이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돌면 대리 시내의 전경을 빠르게 볼 수 있다. 얼하이 호반에 솟아 있는 높이 60m 정도 되는 투안산(團山)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전망이 좋은 편이며, 300개 정도 되는 돌계단을 올라가면 꼭대기에 망해루(望海樓)가 있다. 이곳에서는 얼하이의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공원 안에는 동물원이 있고 그 옆에 다리바이족자치주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에는 고대부터 중국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자료와 소수민족인 바이(白)족의 자료가 수장·전시되고 있다. 얼하이 호수의 유람선은 템포를 조절하면서 거대한 호수의 한쪽을 가로질러 갔다 온다. 맑은 빛의 호수, 조용한 고성, 그리고 고성을 에두른 최고 4122m의 창산(蒼山)은 신비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고성 뒷편에 버짐처럼 서 있는 건물들은 이곳에도 난개발이 불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남조풍경도는 얼하이 호수에 있는 작은 섬이다. 남조국의 풍광을 간직한 섬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여겨지고 있다. 남조국(南詔國:737-902)은 소수민족인 이족(彝族)이 당나라 때 대리에 세운 나라이다. 대리는 대리석이 나서 붙은 이름이기도 하고, 송나라 때 백족(白族)이 이곳에 대리국(大理國)을 세워 붙은 이름이기도 하다. 유적은 무너지고 흩어져 자취조차 없는 것이 더 많지만 풍경은 여전히 남아 역사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 바다처럼 보인다. 운남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얼하이 호수, 그래서 이름도 호수 호(湖)를 쓰지 않고 바다 해(海)를 쓴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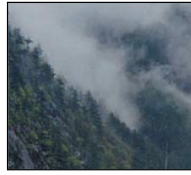
**호접천(蝴蝶泉)**

대리에서 24km 떨어진 얼하이의 북서쪽에 위치한 샘에 공원이 꾸며져 있다. 깊이 4m, 둘레 10m 정도의 작은 샘이지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깃든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백족의 아름다운 처녀와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 지방의 영주가 처녀를 탐냈고 그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샘에 빠져 자살을 했다. 그러자 샘에 1쌍의 나비가 나타났고 이어서 여러 무리의 나비가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대리는 곤명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추운 계절도 더운 계절도 없는 봄의 도시이다. 여름 평균기온은 21℃, 겨울에도 8℃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강수량이 많은 6월에서 9월을 피하면 언제든지 여행하기 좋은 곳.

**창산**

해발 4,000m의 창산에는 모두 19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그 중 최고봉은 해발 4,122m의 마룽봉이다.



해발 4,000m의 창산에는 모두 19개의 봉우리가 있다. 시내와 폭포는 절경을 이루며 특히 봉우리에 걸쳐있는 구름들 때문에 정상에서 서면 감동적인 운해(雲海)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산으로부터 흐르는 시내와 폭포는 절경을 이루며 특히 봉우리에 걸쳐있는 구름들 때문에 정상에서 서면 감동적인 운해(雲海)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9부 능선까지 리프트를 타면 20분 만에 도착하며 리프트



▲ 창산 중화사 내부.

가 도착하는 곳에 위치한 중화사(中和寺)에서 일하이 호수와 어우러진 대리 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 창산의 중화사는 백족이 많이 믿는 불교, 조상신, 도교의 신을 모두 모셔 놓았다. 절도 모두 하얀 색으로 뒤덮여 있다. 중화사는 대리 서쪽으로 높이 솟아 있는 창산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 창산의 중화봉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 사찰을 목적으로 오르기도 하는 오르면서 보는 창산 주변의 경관과 멀리 보이는 일하이와 대리의 경관이 좋다. 대리고성에서 길을 따라 서쪽으로 쪽 걸어가면 나오는데, 도보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완만한 언덕이므로 가벼운 등산을 한다는 기분으로 올라가면 된다. 하산하는 길은 약 1시간 40분이면 된다.

### 희주 백족마을



▲ 리장 주민이 생활하는 부엌.

대리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약 1500여 호의 백족이 거주하고 있다. 대리에서 가장 큰 백족 마을이며 당나라 때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약재와 옷감, 차의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이곳은 백족의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집들은 3면이 방이고 한 면이 벽이 형태로, 백색과 흑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 벽에는 산수화가 그려져 있으며,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염이 유명하다.

희주 마을에는 몇몇 집이 집 안까지는 모두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관광객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있다. 백족 야미소우(남, 75세)씨는 한 집에 현재 8개 가족이 살고 있다. 56년부터 이 집에 살아왔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나갔다. “죽기 전까지 이렇게 집을 개방해서 백족의 생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삶은 언제나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집은 2층집으로 돼 있고 1층은 가축, 2층에 사람이 사는 구조였다. 백색은 순결한 의미이다. 모든 집에 회백칠을 하고 자급자족을 하며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부터 나무를 대서라도 2층집에 살려고 했다. 아래층은 객실로 쓰기도 하며 대문과 벽을 보면 부유함이 판단 가능하다고 한다. 백족 전통모자에는 하얀 실이 나와 있고 그것을 바람이라 부른다. 어느 남성도 여자의 바람을 만지지 못하고 만지면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책임지지 않을 경우 처녀의 집에 가서 3년 고역을 치러야 한다. 처녀 바람과 관련된 고사 중 창산으로 도망가 만년설에 신부가 괴로워하는데 신랑이 법사에게 걸려 변신했다. 망부운은 부인이 신랑 기다리다 구름 돼 바람을 불게 했다는 고사가 전해지는 곳이다.

마을 한 편에는 백족의 전통을 춤으로 보여주며 삼도차를 대접하는 곳이 마련돼 있다. 신부를 꼬집는 결혼식과 리브샷으로 하는 합혼주를 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백족은 대략 18세에 시집을



▲ 마을에서 아이를 업고 있는 할머니.

가고 연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결혼식이 특이한데, 신방이 비어있고 혼수는 처녀의 집에 있다. 신부를 맞으러 갈 때 친구들이 같이 가서 사돈 지간에 인사도 안하고 들어가자마자 밥을 먹는다. 반찬도 사발로 8사발을 내온다. 처음 나오는 반찬이 끝이다. 밥사발을 훔쳐 저녁에 신부에게 주면 그 사발에 신부가 음식을 쥐야하기 때문에 밥사발을 밝힌다. 식사 끝나면 신부를 꼬집는 쇼가 시작된다. 신부의 몸을 아무데나 세게 꼬집을 수 있다. 이들이 돌아가면 신랑도 꼬집는다. 신랑이 신부를 안아 모두가 꼬집을 수 있게 한바퀴 돈다. 하객은 신부를 축하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의미로 꼬집는다. 신방에서는 베게 쟁탈전을 해 주도권 쟁탈전을 한다.

희주(喜州)에서는 고건축과 삼도차(三道茶), 전통 연이 유명하다. 공연과 함께 삼도차를 맛볼 수 있다. 대리의 저지대는 가을까지는 대부분 벼를 심는 논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이곳의 농토에는 차가 재배된다. 삼도차는 운남성의 녹차로 맛을 낸 차의 쓴맛에 녹차에 백설탕, 흑설탕, 크림, 치즈를 넣어 맛을 낸 단맛, 녹차에 생강, 꿀, 참깨, 흑설탕 등을 넣어 오묘한 맛을 낸 세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한다고 한다. 의미는 좋지만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지는 않다. 그래도 백족은 자신들의 음식 문화 중에서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하는 철학적인 차로 여기고 있다.

부부가 시내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백족 장샤오밍(여, 42)씨는 백족 마을에 전통 빵을 사먹으로 자주 들른다. “우리 역시 백족이고 이 맛을 잊지 못한다. 새콤달콤한 맛이 나며 빵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어 한번 이 맛을 알면 헤어내기 어렵다.”며 추억의 빵을 찾아 민속촌에 온다. 그녀가 생각하는 백족은 똑똑하고 손기술이 뛰어난 민족이다. 예로부터 상냥했고 여행을 좋아하며 예술을 사랑해왔으며 백족 마을의 분위기를 전했다.

## 사평

사평(沙坪)은 얼하이의 북쪽 연안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대리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큰 바자르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 바자르에는 주변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중심을 이루는데, 그들 특유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작은 마차에 물물교환할 공예품이나 특산물들을 가득 싣고 바자르 안을 가득 메운다. 바자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남(藍)빛으로 염색된 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공예품, 화려하게 장식된 신발, 민속의상을 입은 인형들을 사고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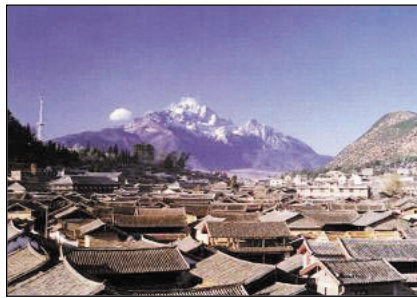
## 백족의 축제 - 싼웨지에

백족들은 일년에 한번씩 음력 3월 15일이 되면 약 5일 동안 그들의 축제를 연다. 원래는 종교행사였는데, 약간 변형되어 일종의 물자교역행사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신해혁명 이후에는 소수민족제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바이족들에게는 대단한 축제로 대리의 서쪽 광장에서 십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벌이는 대축제이다.

## 리장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곤명에서 리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신속한 하강에 내리기 전부





▲ 전망대에서 바라본 리장 고성의 전경.



▲ 리장에서 주민들이 주식으로 먹는 목 구이.

동이 심한 지역이다. 11세기에는 운남성에 진입하여 송말 원초에는 리장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초기 정착지인 바이사(白沙)를 비롯하여 수에충(雪崇), 수허(東河) 등지에 자리를 잡은 나시족은 분지 형태인 따옌전에 비교적 큰 성시를 이뤘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유명한 지리학자이자 여행객인 서하객(徐霞客)이 리장을 둘러보고, “민가가 촘촘히 군락을 이루고 멋진 기와집들이 풍요로움을 뽐냈다”고 <서하객여행기>에 남길 정도로 번성했다.

리장은 96년 2월에 발생한 진도 7의 초대형 지진으로 사망자 293명, 중상 3700여명에다 많은 건물을 붕괴시키는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그러나 쇠못을 사용하지 않은 수백년 된 목조 건축물들이 지진의 충격을 잘 흡수해 고성에 큰 무리는 없었다. 기둥과 대들보를 사개맞춤식으로 결합한 나시족의 전통 건축양식은 내진 설계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진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리장의 매력을 발견했다. 놀라움을 가져다 준 건축물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조성된 도시 계획이 그 가치를 주목받은 것이다.

세 갈래의 수로가 따옌전 3.8km<sup>2</sup> 전체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어느 집이든 문이나 창문을 열면 이 수로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친화적이다. 일부 외국인 배낭족과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간간히 찾던 리장은 1997년 12월에야 비로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대대적인 관광 개발의 바람이 불었다. 지진 이전에는 농경이나 목축 뿐이었는데, 지진으로 알려진 이후 기업이 여럿 들어왔고 특히 99년 꽃 엑스포 이후 매년 4백만 관광객이 들어왔다. 이후 관광수입은 한국 돈으로 8천억 정도, 작년에는 9천억에 달했다. 나시족의 가난했던 생활은 지진 이후 관광으로 부유해져 가고 있고 정부 보조금이 1인당 100만 위안에 달한다. 그 대신 거주지를 중국정부가 사용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성 인구 3만 중 대부분이 나시족이다. 지붕은 기와 흰색 계통이고 건물을 빌려주거나 민박이 생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있는 대학은 관광과가 주류가 됐다. 가옥마다 난방시설은 없고 화롯불로 살아간다. 도시전체가 문화유산이라 개보수는 반드시 정부허가가 있어야

터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리장을 둘러싸고 있는 우람한 산은 옥룡설산(玉龍雪山)이다. 산 위의 만년설과 구름이 어우러지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리장 고성의 아기자기하고 한편으로는 들쭉이는 풍경에 마음이 다 흥하다가도, 문득 그런 복잡한 거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고 싶다면 설산을 향해 떠나보라고 한다. 굽이굽이 아득한 산길을 아슬아슬하게 차가 넘어가다 보면, 지천으로 피어 있는 들꽃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눈이 시리게 푸르른 골짜기 호수를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눈을 들면 시린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산 꼭대기의 그 희디흰 만년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방에 만년설을 보면서 추위를 느끼지 않는 도시가 리장이다. 운남성 서북부 해발 2400m의 고원에 도시가 형성돼 있다. 사계절 내내 영하로 내려갈 때도 없고 더위도 25도를 넘지 않는 살기 좋은 도시이다. 그러나 일교차는 커서 하루에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다.

리장은 남으로 대리, 북으로 사천성, 서쪽으로 미얀마 북부를 접하는 지역, 운귀고원의 서쪽 끝으로 지각운





▲ 리장의 모수족 주점 아가씨의 모습.

만 한다.

리장 개발 덕분에 원주민이었던 나시족의 삶도 크게 변화했다. 일부는 관광산업에 뛰어들어, 일부는 장사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지인에게 살던 집을 팔아 돈을 벌고 새집으로 이사했다. 현재 리장의 상권을 잡고 있는 대부분은 외지에서 온 한족들이다. 현지 정부의 장례정책과 투자특혜를 받고 들어 온 한족들은 뛰어난 비즈니스 마인드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나시족을 쉽게 따돌렸다. 리장의 전통 기와집들을 놓고 먹고 즐기 좋은 식당, 카페, 술집, 상점 등으로 바꾼 이들은 바로 한족들

이다.

오늘날 나시족들은 외래문화에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의 폐해는 리장 곳곳에서 나타난다. 분야성을 이루는 리장의 유흥업소에는 나시족을 비롯한 젊은 소수민족 여성들이 한족이 대다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매매춘 영업에도 나서고 있다. 리장의 여러 마을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나시족, 티베트인, 바이족(白族) 등의 소수민족들이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모델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나시족 전통종교의 제사장인 동파(東巴)까지 외지인 출신의 한족 사장에게 고용되어 동파문자를 그려 팔고 있다. 소수민족의 전통 가옥과 복식은 그저 리장의 유용한 관광자원으로 변했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리장에서 4시간, 120km 떨어진 나시족의 몇 안 되는 원시부락인 바이마이(白麥). 1950년대 말 지도제작에 나선 한 중국 관리에 의해 발견된 바이마이는 5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오지 마을이다. 바이마이 주민들은 리장에서는 사라진 고대 나시족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고 있다. 집집마다 매일 식사 전 세 번씩 조상께 공양을 드리는 '휘탕'(火湯)이라 불리는 동파교의 종교의식도 행하고 있다. 이 오지 마을에서도 젊은이들은 돈벌이를 위해 주변 리장이나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

### 백사촌

백사촌의 불상은 홍위병이 파괴, 녹여서 매각했고 남은 것은 벽화 뿐이다. 나시족의 집 문턱은 매우 높은 편 정원에 나무나 분재를 많이 키웠는데 이는 왕이 목씨이기 때문이다. 여기의 벽화는 5-6백년 전 명나라 때 지워진 벽화, 광석을 가루로 만들어 색을 낸다. 위에는 라마교 승려, 다음은 도교, 대승불교, 동파 순으로 4개 종교가 같이 있으며 중앙에는 큰 석가모니가 있다. 4개 종교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목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벽화이다. 천장의 장식은 도교의 팔괘에 중앙은 태극대신 라마교 문양이다. 벽화는 한족 인물을 불러 만든 것이다.

백사촌은 종교에 관한 변화가 유명한 나시족 마을로 천여 년 전에 자신의 종이를 발명, 그 이전에는 나무에 금을 새기는 등으로 기록하다 종이 발명 때부터 상형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백사촌에 있는) 文昌宮 은 도교의 전당인데 안의 상 등은 홍위병이 파괴했다. 원래 나시족은 남조국, 그리고 대리국에 복속한 상태였는데 13세기 중기 몽골군 10만이 옥룡설산을 넘어왔다. 이는 송나라의 양자강 방어선을 우회하기 위해 대리를 정벌하는 과정이었고 나시족 족장은 이미 항복하여 몽골군의 길을 안내했다. 몽골군이 창산에 주둔하니 대리국이 크게 놀라 성문을 열고 항복했고 몽골군은 대리국을 없애고 다시 부활할까 두려워 그 수도를 대리에서 곤명으로 옮기고 나시족 족장에게 '토사'라는 관직을 주고 이 일대 우두머리로 삼고 이 지역 은으로 돈을 만들 권한도 줬다. 나시족 족장은 세력이 커지자 리장



▲ 옥룡설산의 전경.



▲ 옥룡설산은 마을의 어디에서도 보인다. 사계절 언제나 만년설을 볼 수 있다.

어 그곳에서 아이들과 먹고 잔다. 밤새 일해 옷들을 만들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옷을 팔아 생활한다. 이 부근은 교육열이 다른 곳에 비해 지나치게 센 편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또 한편에서는 한 할머니가 동파 그림을 만들어 팔고 있다. 무전종(여, 60세)씨는 노점을 하고 있지만 늘 즐겁다. 딸은 결혼하고 출가해 살지만 같은 동네에 살아 일을 분담하고 있다. 할머니는 “우리 집의 경우 남편은 일을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계를 여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백족과 왕래가 많아져 물물교류부터 문화교류까지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대부분 80~90세까지 산다. 할머니는 장수의 비결을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즐겨 늘 행복하기 때문이란다.

### 옥룡설산

적도와 가장 가까운 만년설로 덮인 설산이다. 점점 깊은 산 속으로 이어지는 길 너머로 설산의 발치만 보인다. 설산 위는 온통 짙은 안개다. 옥룡설산의 북쪽 끝으로 가면 마오니우핑이 있는 평원이 나타난다. 장족(藏族 티벳족)과 이족(彝族)이 주로 이곳에 사는데, 야크 목축이 생업이라고 한다. 마오니우(牦牛)는 야크를 뜻한다. 그러니 마오니우핑은 ‘야크가 사는 평원’이라는 말이다. 야크는 주로 티벳 지역처럼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사는 털이 많은 소다. 자연 경치가 아름다워, 봄이면 온갖 꽃들이 비단처럼 피어나고, 여름이면 초록의 풀들이 방석처럼 펼쳐지는 마오니우핑은 어느 계절에 가도 그 풍경이 그림 같은 곳이라고 한다. 마오니우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타야 한다. 해발 3500~3700 정도 되는 곳이라 일부는 휴대용 산소통을 들고 리프트를 탄다. 리프트 주변은 꼬치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눈 저 아래쪽은 너럭하게 평원이 펼쳐지고, 푸른 벌판이 싱그러운데, 내려가는 길 양쪽으로는 기념

고성을 만들었고 원이 망하고 주원장의 명이 세워지자 나시족 족장은 2만량의 황금과 수천 필의 말을 주원장에게 바쳤다. 이에 주원장이 자신의 성의 일부를 따서 목(木)씨 성을 했고 목씨는 백성들이 양가죽으로 두꺼운 등짐을 지고 샷갓을 쓰는 것을 보고 이의 모양을 본뜬 화(和)를 성으로 하사했다. 지금도 리장에는 목씨와 화씨가 많다. 목씨가 청나라 때까지 470년 동안 지역을 다스렸다. 청이 기존의 제도를 없애고 직접 만주족을 파견해 다스리게 했다. 목씨는 자신의 관직을 바치고 백성으로 돌아갔다. 지진으로 유적의 파괴가 심했는데 유네스코 등록 후 중국 정부가 300억 위안을 투자, 재건하고 있다.

백사촌 길가에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5년 전부터 동파문자가 그려진 옷을 팔고 있는 차이허메이(여, 40)씨는 7세와 4세 짜리 아이를 키우며 장사를 하고 있다. 2년 전 병에 걸려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혼자 아이 2명을 학교 보내다 보니 고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좀 더 보완해 줬으면 한다. 학교 교육비는 한 학기에 500위안정도 인데 정부 보조를 받아 200~300위안만 내면 되지만 그 밖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이를 돌 키우려면 어려운 현실이다.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이 있

품 가게와 음식점 천지다. 마오니우핑에는 있는 설화호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온다.

설화호 근처에 한 장족 소녀가 살고 있었다. 야크를 길러 젖을 짜고, 또 그 야크 털로 옷감을 지어 입고, 봄이면 들꽃에 묻혀 까르르 웃음을 짓던 그 소녀에게는 제 목숨보다도 아끼는 어린 야크가 한 마리 있었다. 사람이 귀하고, 나무나 풀, 구름이 동무였던 소녀에게 새끼 야크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소녀는 새끼 야크를 데리고 설화호 근처로 갔다. 호수 근처에 지천으로 깔린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서였다. 새끼 야크는 온갖 꽃들과 풀들을 보자 신이 나서 고개를 뒹굴 내저었다. 먹을 수 있는 풀이 무진장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새끼 야크를 호숫가에 풀어놓고 벌판에 누워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과 설산에 눈부시게 내려앉아 있는 눈을 바라보았다. 눈이 시려왔다. 저 푸른 하늘과 흰 구름, 흰 눈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생각을 하며 누워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가 지나 햇살이 너무 따가워 퍼뜩 눈을 뜬 소녀는 먼저 새끼 야크를 찾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새끼 야크는 보이지 않았다. 놀란 소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새끼 야크를 불렀다. 한참을 부르자 어디선가 슬픈 야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은 호수 속이었다. 자세히 보니,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새끼 야크는 호수에 빠져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소녀는 다급한 마음에 얼른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곤 죽어라 하고 헤엄을 쳐 새끼 야크에게 다가갔다. 겨우겨우 새끼 야크에게 다가간 소녀는 온 힘을 다해 새끼 야크를 호숫가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새끼 야크도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렇게 애를 쓴 후 마침내 새끼 야크는 호숫가 낮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새끼 야크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은 소녀는 그만 기진맥진해서 호수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호숫가로 나온 새끼 야크는 풀밭에서 오랫동안 소녀를 기다렸다. 자신을 자식처럼 길러 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새끼 야크의 마음 속에 가득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장족 소녀는 물 속에서 떠오르지 않았다. 야크는 저 물을 다 마셔버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소녀가 살아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호수에 다가가 물을 양껏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마셔도 호수의 물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 후부터, 소녀를 그리워한 야크들은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설화호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옥룡설산은 중국 서부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고산으로 길이 35km, 폭 12km에 이른다. 손오공이 갇혀 벌을 받았다는 전설도 있다. 1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눈이 쌓인 산봉우리의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용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하여 옥룡설산이라 불린다. 남단의 주봉 선자두는 해발 5596m이지만 산세가 험해 아직 처녀봉으로 남아있다. 해발 3000m까지 등산로가 이어져 있고 4500m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돼 있어 정상에 보이는 곳까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정상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리장 성 어디에서도 설산을 볼 수 있다.

해발 4천m까지도 두견화, 대나무 등이 자라고 붉은 팬더곰도 자란다. 설산 자체가 '삼도신'이라고 하여 나시족의 보호신. '삼도신'은 큰 흰돌을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설산의 화신이다. 이에 얽힌 전설은 사냥꾼이 산에 갔다가 큰 흰돌이 있는데 크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워 이를 들고 내려오다 중간에 내려놓고 쉬었는데 다시 들려하니 안 들리고 사람들과 소를 데려와 끌어도 안 움직였다. 이에 이 돌이 설산의 화신이라 해서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옥룡설산은 봉우리가 4개이며 5,596m 아직 정복된 적 없는 산이다. 주변엔 송이버섯, 고사리가 많아 원주민이 먹기 보다는 일본으로 수출한다. 해발도 높고 땅도 척박해 농사는 어려운 땅이다. 목축과 송이버섯 채취 및 동충하초 등의 약초 채집이 생업이다. 옥룡설산 기슭에서 중턱 쪽으로 케이블카를 통해 올라가면 푸른 원시림으로 둘러싸여 마치 오아시스 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난다. 일명 금수곡이라고도 불리는데, 푸른하늘과 만년설, 원시림과 어울려 환상적이고도 이국적인 풍취를 보여준다. 마치 알프스의 산자락에 오른 듯한 환상적인 주변 풍광이 펼쳐지는 이곳의 잔디에서는 나시족과 이족의 전통적인 놀이를 볼 수도 있고, 원시림에서 호쾌하게 말달리는 티벳족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말을 타볼 수도 있다. 운삼평은 '동양의 알프스'라고



**적도와 가장 가까운 만년설로 덮인 설산이다. 점점 깊은 산 속으로 이어지는 길 너머로 설산의 발치만 보인다. 설산 위는 온통 짙은 안개다.**

부를 정도로 뛰어난 풍치를 갖고 있지만 최근 4계절용스키장을 건설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자연을 훼손시킬까 걱정되기도 한다.

설산으로 빠지는 외곽도로 양쪽에는 이미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리장 특유의 기와 문양을 살린 5성급 호텔 3-4개를 신설 중이다. 7-8월 관광 성수기만 되면 3-4성급 호텔도 태부족이라 리장시 정부는 숙박시설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 덕에 2000년대 들어 매년 20%의 안팎의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리장에만 하루 평균 7000여명, 1년에 25만명 안팎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운남성에는 리장 이외에 곤명에서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180만명의 백족이 있는 대리와 히말라야 산중의 비경이자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의 무대인 샹그릴라가 대표적 관광지다. 이곳에서도 예외 없이 서부대개발의 불을 타고 공항과 호텔은 물론 위락시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매년 관광수입을 10%씩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골프장 온천 등 관광시설 건설에 총력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옥룡설산은 해발 4700m 지점까지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다. 해발 2000m 지점부터 설치된 케이블카로 4500m 지점까지 오르면 구름이 발 아래로 보이는 장관이 펼쳐진다. 이런 옥룡설산 기슭에 세계에서 가장 높다(2900m) '설산 골프장'이 지난 2001년 문을 열어 골퍼광들을 유혹하자 인근 지역에 새로운 골프장이 설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운남성 전체에 4개에 불과한 골프장을 5년 내에 10개로 확대하는 계획도 마련됐다고 전한다.

### 흑룡담 공원



▲ 흑룡담 공원 전경.

성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흑룡담 공원은 호수 가운데 옥룡설산이 그대로 비쳐 한폭의 그림이 된다. 호수 한쪽에는 끊임없이 물방울이 솟아 오르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옥룡설산의 눈 녹은 물이 땅속을 통해 흘러들어 호수에 분출시키는 현상이다. 이 호수의 물이 성 안을 흘러가게 된다. 이 물로 주민들은 1년 내내 물걱정 없이 살고 있다. 흑룡담 공원은 나시족이 기우를 위해 용왕에게 제사지내던 곳으로 지금은 운남성 일급 문화관. 나시의 '나'는 검은, '시'는 얼굴을 뜻한다.

공원 안에는 리장 동파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동파문과 나시족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동파는 상형문자를 아는 사람으로 '지혜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동파종이는 618년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수공업의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원료는 좁약을 만드는 약초로 알려졌다. 따라서 종이에 독성이 있어 벌레가 안 들며 천년을 갈 수 있는 종이다. 문화의 교류, 종교 접촉이 적은 편이라 동파문자가 거의 원형 그대로 원시적 상태로 보존돼 있다. 동파경은 1,2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으로 나시족 뿐 아니라 이족, 장족 등의 역사도 다루어져 귀중한 사료. 종이를 만드는 데에도 한 달이 소요되며, 장강의 자연유산에서 원재료인 나무를 가져오므로 공급이 제한됐다. 동파문자는 가장 오래된 상형문자의 하나이며 지금도 쓰이는 유일한 상형문자이다. 자연신과 용신을 가장 숭배하며 자연신은 개구리 모양이다. 동파도 문화 대혁명 때 강제 수용되어 감자농사를 강제



로 짓게했다. 그래서 맥이 끊겨 지금은 7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동파선생은 몇 안 남은데다 젊은이들이 동파문자를 안 배우려 하여 존속위기에 처해 중국정부가 문화관을 만들어 동파문화를 남기려고 노력 중이다.

## 리장고성



▲ 여강 고성에 나시족 전통 의상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

곳곳에 형성된 중심지로 밤에는 공연하는 장소이다. 낮에는 약속의 광장처럼 쓰인다. 사방가의 청소방법은 물의 흐름을 막아 넘치게 하여 그 물이 용머리 4개를 통해 광장으로 흘러보내 물청소를 하게 된다.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으며 1달에 2번 정도 새벽시간에 한다. 흐른 물은 다른 수로로 빠지게 된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했고 고성의 중심에 자리잡은 사방가는 방사선 길이 사방으로 열려 있고 바닥에 대리석이 깔려 있다. 사방가 광장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나시족들의 민속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이것은 특별 공연이라기보다는 시골 장터의 흥겨운 출판처럼 소박한 놀이마당이다. 밤하늘을 가르는 신선한 공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흥이 절로 나는 이 소박한 출판에 끼어들면 억눌렀던 엔돌핀이 샘솟는 듯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경꾼들은 모두 다 어느새 출판에 참여하여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색한 몸놀림의 피부색 하얀 외국인들도 출판에 가담하여 부담 없이 손을 맞잡고 서로 어울렸다. 집들은 나무로 된 기와지붕으로 돼 있고 3면이 방이며 한 면이 벽을 된 구조이다. 시 전체가 하나의 상권으로 특산물을 판매하고 호프집과 노래방도 있다. 성을 에워싸고 있는 산은 의상산, 사자산이다. 이 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서쪽에는 만년설에 덮인 옥룡설산이 있다. 이 성에는 수도시설이 없이 만년설이 녹은 물이 지하를 통해 성 곳곳으로 흘러들어 주민들이 물을 이용하게 돼 있다. 사방가 안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예전 그대로의 가구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빨라서 이러한 생활용수를 빠른 속도로 하류로 실어감으로써 중국 다른 지방에서와는 달리 어딜 가도 깨끗한 물들로 넘쳐흐른다.

골목골목 흐르는 수로사이에 수백개의 다리들이 걸쳐있는데 그 다리들은 자세히 쳐다보면 나무나 돌을 손으로 다듬어 지형에 맞게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론리플래닛'에서는 리장이 수많은 수로와 다리로 이루어졌다하여 '동양의 베니스'로 이름붙여 놓았다고 한다.

1년에 40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이 사방가를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정부가 보존가옥으로 지정하지 않은 모든 집들은 그들을 상대로 하는 기념품점, 인장점, 의류점, 식당, 호텔 등으로 개조했거나 개조중이라고 보면 된다. 사백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전통양식을 이어가던 나시족의 고성도 자본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침식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리장 고성은 일명 따옌전(大研鎮)이라고도 불리운다. 송나라 말, 원나라 초인 1253년, 대리국을 정벌하러 가던 후에리에라는 장수가 병영을 세운 것으로부터 이 고장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후 명나라 때에 성읍으로서의 규모를 갖춘 이후 현재까지 시간이 정지된 듯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도시는 위추안(玉泉)호수에서 흘러나온 위허(玉河)가 도시의 중심을 여러 갈래로 관통하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모습이다. 이름처럼 맑은 물빛은 도시를 청량한 모습으로 만들어낸다. 작은 시내가로는 카페가 있다. 사림과 상권의 중심에 형성되는 사방가(四方街)는 도시



▲ 여강 고성 길가에 늘어선 주점들.



▲ 리장고성의 골목골목에는 옥룡설산의 물이 흐르고 있다.



▲ 사쿠라 카페의 간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함은 분명 위기에 처한 문화 유산을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일 텐데, 요즘 상황으로 보아서는 세계적인 관광지 목록 지정으로 바뀐 듯하다. 리장 역시 밀려드는 사람들로 매일 곳곳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분명 손대기 어려운 문화재급 가옥임에도 상점과 객잔을 꾸미기 위해 함부로 개조를 하고 있다. 곳곳에서 밤새도록 술판이 벌어지는 것은 예사다.

1998년만 해도 적지않은 나시족들이 살던 따옌전고성은 더 이상 나시족 생활의 공간이 아니다. 2006년 현재 고성에서 신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빈자리에는 한족 주인이 차지하여 그들이 고용한 소수민족 종업원과 함께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운하 주변은 카페촌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운하 주변을 걷다 보면 진한 커피향과 풀내 섞인 전통차의 향내가 교묘히 섞여 은은하게 퍼져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카페촌의 밤 분위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현란한 모습을 자아낸다. 가게마다 수놓은 화려한 홍등 장식과 행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있기에 밤거리 문화는 더욱 빛을 발한다. 미각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 레스토랑들의 음식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여행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차이니스, 웨스턴, 이탈리아 등 메뉴도 다양하고 음식 맛도 일품이다.

카페나 레스토랑의 내부 역시 화려한 색상의 등불들로 장식되어 판타지의 무대를 연상시킬 만큼 조명과 장식이 요란하다. 문화적 욕구들이 꿈틀거릴 때면 DVD 영화를 상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 커피나 차를 마시며 감상하면 된다. PC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들도 많고, 다양한 외국 잡지나 영문 서적, 영자 신문 등을 구비해 놓은 곳들도 있어 여행자들이 넉넉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리장고성 거리에 자리잡은 벚꽃 마을(사쿠라) 카페는 리장에서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 음식에 일식에 중식, 서양 요리까지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다. '론리 플래닛'에 세계 5대 카페의 하나로 뽑혔다는 사쿠라 카페는 한국인 김명애 씨와 그의 중국인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리장 고성의 중심인 사방가를 마주하고 오른편 수로를 따라 조금 가면 그 카페가 있다. 외국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 있는 듯 아늑하고 따스하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리장 고성은 아름다운 곳이다. 영롱한 등불을 밝히며 어둠을 밀쳐내는 상가들이 있고, 그림처럼 곱고 다양한 문양의 동파문자 간판들이 있고, 술한 세월 사람들의 발길에 닳고 달아 밤이면 눈부시기까지 한 바닥돌이 있는 리장 고성에서는 저절로 마음이 아늑해진다.

소수민족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해 현대화에 적응해가고 있다. 밀려드는 개방의 압력 속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찾아내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거늘 이들은 아직까지 그들만의 정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6일간의 운남성 취재를 뒤로하며 이들의 미래가 우리네 미래와 닮아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활짝 웃으며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거다”라는 명제를 들으며 된다. 또 한번 우리만의 잣대로 이들을 평가하지는 않은 것인지 되돌아 본다. 아직은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순박한 삶을 들여다보며 가슴 가득 따뜻함이 번진다.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

## 현대정치학의 이해



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 주요목차**

-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3부/ 현대의 정치현상

**||| 교양사회** 조정남 편 / 값 20,000원





특별취재

운남성의 소수민족세계 - 麗江納西族마을

탐방

## 개발의 언덕에 서 있는 나시족사회



김희선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pisces307@naver.com



이 글은 2007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운남성 여강 나시족 자치주에서 실시한 현장 취재를 토대로 작성됐다. 여강 일대에서 만난 나시족과 한족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아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겨울이다. 대리보다 훨씬 차가운 바람이 여강의 첫걸음을 맞이했다. 여강은 횡단형 산맥지형이라 아침과 저녁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따뜻하다. 일교차가 심해 하루 동안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 여강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추위 고산지대의 기후를 그대로 보여준다. 해발 2000m에 도달했음을 실감하며 일행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곳 여강 지구에는 나시족 자치구가 마련돼 있다. 산간구릉 지대와 산간 저분지에 분포하는 나시족에게 최근 여강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강의 상업화 정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강은 온통 외국인이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규모는 대단하다. 겨울을 맞아 비교적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은 이들이 여강을 가득 메웠다.

나시족의 총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30만 8839명을 기록하고 있다. 스스로 나, 나시, 나루, 나환으로 칭하며, '나'는 검은색, '시'는 당신, '환'은 사람 또는 족을 의미한다. 민족 명칭인 '나시'는 자칭인 '나'에서 유래했다.

### 유목민족의 운남성 정착

나시족은 간쑤(甘肅)성과 칭하이(靑海)성 일대에 살던 유목민족이었다. 지금도 '남녀 모두 양가죽을 걸치는' (男女皆披羊皮) 유목민족의 복식문화가 남아 있다. 이들은 티베트인, 한족, 창(羌)족 등 강대한 주변 민족에 밀려 안전한 목축지를 찾아 온



남성과 사천(四川)성으로 내려왔고, 사천성을 거쳐 남하하여 운남성 낭랑현 용녕에 이른 후 진사강을 건너 여강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더욱 북상하여 증톈에 자리를 잡았다. 나시족은 이족과 나란히 캄고원에서 남하하여 운남에 거주한 오번계 자손으로 여겨진다. 나시족의 성씨는 지배계층 중에는 '무', 일반인들 중에는 '허' 씨가 많다. 지금까지도 이 두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한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유명한 지리학자이자 여행객인 서하객(徐霞客)이 여강을 둘러보고, "민가가 촘촘히 군락을 이루고 멋진 기와집들이 풍요로움을 뽐냈다"고 <서하객여행기>에 남길 정도로 번성했다. 파옌청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용천, 바이샤 일대에 나시족의 최초 주거지가 나타난다. 용천마을은 여강성의 북쪽, 보요우 길을 따라 설산 방향으로 대략 5km 정도 간 뒤 좌측으로 약 2km 정도 가다 보면 오래된 촌락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곳은 모피 무역의 중심지로 한때 명성을 날려 뛰어난 피혁공들이 많았다. 여강고성을 걷다보면 가죽제품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절 안의 연못 옆에 전통 사합원 양식으로 된 궁을 지어 조상인 피혁공들을 섬기고 있다.

### 고성에서 2007년을 사는 법



▲ 민속호 내 나시족의 생활모습.

여강 고성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마을 구조와 집들은 그 틀이 변화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오고 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 나시족은 끊임없는 보수와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겉은 고성이지만 그곳은 분명 2007년이다. 현대식 옷을 입고 가전제품을 들여놓은 이들의 삶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단지 이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전통을 지키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보류한 채 이들의 고성에 대해 탄식을 한번 더 지른다. 그리고 이러한 보존에 대한 깨달음을 간직한다.

### 한어의 습격 속, 동파문자 보존

나시어는 한·티벳어계, 티벳·미얀마어파, 이어에 속한다. 송대에는 주요 세력이 다시 남하하여 여강을 본거지로 삼게 되었다. 서부 방언구의 여강에서는 명대 이후 적극적으로 한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 조직에서부터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나시족 중에는 한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동시에 그들의 옛 언어는 점점 죽어가게 되었다. 중국의 한어 정책은 국가를 통합하는데는 기여했지만 소수민족 정책에 있어서는 그들의 정신 문화를 말살하는 결화를 초래했다.

현재 나시족은 나시어와 한어(보통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는 나시어를 통해 배우게 되며, 초등학교부터 한어로 된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된다.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나시어와 한어를 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대부분 한어를 모른다. 한어는 나시족 내에 세대의 골을 만들어 또 하나의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점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어 위



▲ 동파선생 그림.



**나시족에는 원래 두 종류의 문자가 있었다. 하나는 표의상형문자로 동파문(東巴文)이라 불리고 있으며 또 하나는 표음음절문자로 즈파문(𑄎巴文)으로 불리고 있다.**

주의 의사소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문자는 지식인에 의해서만 전승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유의 나시문자는 일반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나시족에는 원래 두 종류의 문자가 있었다. 하나는 표의상형문자로 동파문(東巴文)이라 불리고 있으며 또 하나는 표음음절문자로 즈파문(𑄎巴文)으로 불리고 있다. 1957년 로마자를 기초로 나시 표음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지역에서 언어는 진사강을 경계로 동, 서 방언으로 구별되어 서로 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문자는 서부 방언 구에 세로 10cm, 가로 30cm 정도 크기의 옆으로 철한 의례용 경전에 상형문자인 동파 문자와 표음문자인 구파 문자가 기록되어 전해지지만, 동부 방언구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1400여자의 동파 문자로 기록된 <동파경전>이 존재하나 그것을 완전히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나시족에는 원래 두 종류의

나시족의 상형문자는 약 2200개가 넘으며, 비교적 농후한 그림 문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음문자는 모두 2400여개의 부호가 있고, 반 이상이 중복된 이체자이고, 그 중 상용자는 500여개 정도이다. 한 글자에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림의 미묘함은 다른 미적 감각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으며, 매우 간단한 필획으로 사물 또는 사건의 윤곽을 표현하고 있다. 상형문자는 지극히 간단하고도 한 글자 마다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사한 모양을 흉내내고, 독특한 특성을 잡아내며, 본 형태를 맞추고, 소리와 사물을 근간으로 하는 수많은 글 만드는 방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형문자를 이용해 쓴 문장은 마치 한 편의 그림과도 같다. 상형문자는 읽는 방법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상형문자로 쓰여진 동파경서는 나시어로 말할 수 있고,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상형자로 나타낼 수 있지만, 경서의 내용은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단지 어려서부터 줄곧 배우고 익혀온 동파교도만이 겨우 그 경문을 보고,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자는 이미 약 1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나시족의 동파교도들은 이러한 상형문자를 이용하여 1500권이 넘는 경서를 썼는데, 이것들은 모두 나시 언어와 문자, 사회역사, 종교철학, 천문지리, 문학예술의 중요한 보배이다. 최근 학자들의 나시족 상형문자저술에 관한 연구 활동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60년대 <리강현문화관>과 근래에 설립된 <운남성사회과학원 동파문화연구실>에서 저명한 동파문화를 연구하고 또한 많은 분량의 동파경서가 번역되고 있다. 한자 생성에 기원하고 있는 상형문자는 지금도 계승 되고 있다.

### 중국 최고의 교육열

우리 조선족 다음으로 교육열이 강한 민족으로 나시족을 꼽을 수 있다. 나시족 자치구 일대에는 명문고가 많아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교육을 위해 이사를 올 정도이다. 곤명 등지의 재벌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이 일대의 학교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매년 6월 치러지는 대학입학시험에서 한 반을 이루고 있는 64명 중 60명 정도가 전국의 대학으로 진학한다. 1개 반에서 중국 최고의 북경대에 10명이 진학하고 청화대에 3명이 진학하는 등 그 실력 또한 전국 최고를 자랑한다.

예로부터 나시족은 인구는 적지만 총명하기로 유명했고 산악지대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정책이 잘 마련돼 있다. 고대 관리 등용 시험인 과거에서도 나시족이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던 점에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학습 의욕이 매우 왕성한 민족으로 현재도 한어 보급률이 70%



를 넘는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제이며 한어(보통어)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시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시골마을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본적인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34학년정도가 되면 집안 일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열은 다른 곳과 비교가 안된다. 비교적 큰 마을에 대부분 초등학교가 있다. 이전의 사당 등을 교사(校舎)로 사용하는 곳이 많으며, 사범학교(고등학교급)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 전설로만 남은 동파교



▲ 동파교의 동파상.

종교는 동파교가 동파라고 불리는 사면에 의해 전해지며, 동파가 춘제의 제천 등 전통 행사나 장례식을 주도한다. 동파는 동파 문자의 주요 전승자이기도 하다. '동파교(東巴教)'는 나시족의 생활, 풍속, 예의, 정신, 기질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소위 이들에게 형성된 동파문화였다. 동파교에서 산출된 다량의 종교경서는 나시족의 귀한 고문헌 자료이다.

동파교는 하늘을 숭배하며 3, 6, 11월 일년에 3번 제사를 지낸다. 1983년 경에 60여명의 동파가 있었지만, 1995년 현재에는 70세, 74세, 85세 세 명의 동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직계세습으로만 동파가 될 수 있는데, 현존하는 동파들의 자녀들이 이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아 실제로 동파교는 더 이상 나시족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더 이상 동파교를 이해하지 못하며, 믿지도 않는다고 한다.

### 영혼은 옥룡설산으로...

전통 장례 방식은 화장이며, 사자의 영혼이 옥룡설산으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현세에서 맺지 못한 남녀가 내세를 밋고 동반 자살하는 것이 일찍부터 유행하였으며, 그것을 애도한 민요 「요우베이」가 널리 불린다.

운남성 닝량 지방에서는 장기를 들어낸 후 사체를 고인의 나이에 따라 햇월에 말려서 화장한다. 여름에는 1~2일, 겨울에는 5~6일 정도 시신을 보관했다가 흰옷을 입혀 산에 묻는다.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 약 10년 전에는 동파가 장례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러한 의식들이 사라지거나 간소화 되었는데 간혹 동파가 불렀던 노래를 녹음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영웅신 산타를 제사하는 음력 2월 8일 베이웨먀오후이도 성행하며, 근래 민족의 축제일로 제정되었다.

### 동파교 자연신 제사

나시족의 신관념은 기본적으로 만물에는 영이 있다고 믿는 다신교적 신앙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나시족에게는 다양한 제사의식이 발달되어 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의식을 비롯해 제풍의식, 자연신 제사의식, 영가신의식, 조상신 제사의식, 축신 제사의식, 전쟁신 제사의식 등 아주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자연신 제사는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치러지는 제의라고 할 수 있다. 동파교의 우주관과 생명관에는 인간과 대자연이 합일 관계에 있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동파교에서는 인간과 대자연은 같은 아버지를 둔 배다른 형제라는 믿음



▲ 나시족은 다양한 제사의식이 성행되고 있다.

이 있다. '동파경'에서 보면 자연신은 인류의 선조와 이복형제지간이라고 되어 있다. 두 형제는 장성한 뒤에 분가해 인류의 선조는 종경지와 가옥, 가축, 등을 관장하게 되었고, 슈우는 산천협곡과 산림, 야생동식물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과 대자연 두 형제는 처음에는 화목하고 우호적인 관계였으며, 자연신은 인류에게 바람과 기온을 조절해주고 적정한 양의 비를 내려주는 등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인간들이 대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오래가지 않아 깨졌다. 인간들이 산 위의 나무들을

남벌하고, 야생동물들을 남획했으며, 하천과 강물을 크게 오염시켰다. 그러자 자연신은 크게 노하여 폭풍우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내려 인류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곧 인간의 잘못된 행동을 인해 자연신이 인간에게 등을 돌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을 내리면서 인간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내용이 정해진다.

이런 까닭에 나시족의 자연신 제의는 두 가지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신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성격이다. 이런 자연신에 대한 제의를 지냄으로써 자연신에 대한 경건함을 갖게 되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동파교 제사에서 신에게 소나 양, 수탉 등을 희생시켜 제를 올리는 양상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연신 제사에서 닭을 바치기는 하지만 희생을 시키지는 않고 놓아주게 된다. 인간이 닭을 풀어주는 행위를 통해 자연신과 형제 관계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풀어준 닭이 상징이 되어 계속해서 자연신에 대한 제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신은 원초적인 대자연을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정결한 신이라고 의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장도 깨끗한 샘가에 마련되는데, 이런 정결한 신에게 동물을 희생시키고 피를 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긴다. 둘째는 모든 제의가 그렇듯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다. 자연신은 풍수해나 우박 등과 같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갖가지 자연적 재해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때문에 이런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평온한 인간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의식도 내재되어 있다.

나시족의 전통적인 자연신 제의는 매년 음력 정월이나 2월의 용날, 뱀날을 잡아 거행하고, 보통 10여 명의 동파가 참여하여 3일 내지 5일 간에 걸쳐 치러진다. 이는 다소 약식화된 제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제장은 동파박물관 내의 샘물가에 자리잡고 있다. 자연신은 아주 청결한 신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근처의 물가나 우물가에 거처한다고 믿어진다. 제장에는 신단과 탑, 향을 피우는 곳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신단은 바위 앞에 자리잡고 있는데, 바위에는 '협'에 해당하는 동파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어 '물가'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신단은 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는 곳으로 나시말로 '지류'라고 불린다. 신단의 가운데에는 자연신을 상징하는 그림이 걸려있는데, 상체는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을 하고 하체는 뱀의 모습을 한 형상이다.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목패화에서 자연신의 형상은 인간과 동물의 결합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방위에 따라 동물 형상은 차이를 보인다. 동방지서신은 산양의 머리에 인간의 몸, 뱀의 꼬리를 한 형태이며, 남방지서신은 개의 머리에 인간의 몸, 뱀의 꼬리를 한 형상이다. 그리고 서방지서신은 사슴의 머리에 신의 몸, 뱀의 꼬리를 가진 형상이다. 북방지서신은 사람 머리에 신의 몸, 뱀의 꼬리를 가진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곧 제장 주변에 설치된 자연신의 제사에 필요한 목패화는 곧 신과 인간, 자연

의 호합을 상징화시킨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단 옆에는 보우슈에 불을 피우고 수유를 끓여서 그 연기가 하늘까지 이르도록 함으로써 그 제의가 신에게 바치는 것임을 알리도록 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제단의 우측 편으로는 2미터 정도 높이의 '슈타' 라고 불리는 탑을 세워두고 있다.

동파교의 자연신 제의는 인간으로 인해 무너져 버린 자연과 인간의 불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제의이다.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과 동물들에 대한 무차별적 포획, 자연에 대한 경건함을 잃어 버린 이 시대에 대자연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생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파교의 제사의식은 분명 오늘 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들만의 생존을 중요하게 여겨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경각시키고 자연과 인간이 형제였다는 본연의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의식의 발로에서 출발한 제의이기에 그 가치를 더 크게 인정받고 있다.

### 문화적 특수성이 담긴 정통음식



▲ 미관창과 리장빠빠.

귀뚜랑빠이는 우리의 도토리묵과 비슷한 것으로 양파와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을 첨가해서 약간 매운 맛이다. 리장빠빠는 감자분말로 만든 좀 두꺼운 빈대떡이다. 좀 텁텁하고 싱겁지만 양이 많아서 한끼 때우기엔 제격이다.

중국의 '카라반' 인 셈인 마방(馬幫)상인들은 말 20-30여 마리의 규모로 열악한 자연조건과 도적떼와의 싸움을 견뎌내고, 식사와 잠자리를 노숙으로 해결해가며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높은 열량을 가진 음식물의 섭취가 중요했을 것이다. '리장빠빠(麗江粑粑)' 는 이를 충족시키는 음식이었다. '빠빠(粑粑)' 란 일종의 발음하기 편한 지방 사투리로 호떡모양의 '빵' 을 의미한다.

리장빠빠(麗江粑粑)를 만드는 방법은 밀가루, 쌀, 옥수수, 메밀, 쌀보리 등의 가루에 요우자(油渣:돼지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호두기름, 후추, 파, 소금, 향료, 윈난햄 등을 넣고, 잘 반죽한 후 원형으로 얇게 펴서 여러 겹으로 겹쳐 약한 불에 굽거나 기름에 지져 먹는다. 그 맛은 바삭거리는 하지만 한입 베어 물면 느끼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 음식에서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기인한 요소들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쉽게 부패하지 않는 휴대가 용이한 건조식품으로의 장점이 있어 이곳을 거쳐가는 많은 마방(馬幫) 상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음식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원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열량이 필요한 이곳 사람들에게는 '리장빠빠(麗江粑粑)' 는 든든한 한끼가 됐을 것이다.

2000여년 전, 먼 여정에서 돌아온 마방(馬幫) 상인들도 아름다운 리장(麗江)의 풍경에서 위안을 얻고 휴식을 취했겠지만, 리장빠빠(麗江粑粑)로 다시 떠날 힘을 냈을 테니, 볼거리가 먹을거리에 치이는 셈이다.

비빔묵이라 부를 수 있는 지더우량편(鷄豆涼粉:일반적으로 '涼粉' 은 우리의 '묵' 종류를 말한다) 은 리장(麗江) 일대에서만 재배되는 콩인 지더우(鷄豆)로 만든 묵으로, 콩의 모양이 닭의 눈 같다 하여 이렇게 부른다. 우리의 도토리묵 만큼 담백한 이 음식은, 여름에는 갖은 양념과 버무려 시원하게, 겨울에는 노릇하게 구워 먹는다. 나시족(納西族)들도 맵고, 짜고, 새콤한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므로 음식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미관창(米灌腸: '灌腸'은 우리의 '순대' 형태의 음식을 말한다)은 돼지창자에 찹쌀과 갖은 양념 재료를 넣고 만든 그야말로 '순대' 이다. 삶아 먹거나, 말렸다가 구워





민족축제로는 설날(음력 1월 1일), 청명절(4월), 햇불축제(음력 6월 25일), 추석(음력 8월 15일) 등이 있다. 나시족의 가장 큰 전통축제는 햇불축제이다.

먹기도 하고, 국에 넣어 먹기도 한다. 들어간 양념에 맛이 조금 다를 뿐 속리산 한 골짜기의 '비빔묵'과 시장골목의 '할머니순대'였다.

또 하나, 우리 문화와의 유사함을 찾아보자면 음식 예절

을 들 수 있다. 식사를 할 때 연장자가 상석에 앉는다거나, 어른이 젓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랫사람들이 들 수 없다거나, 또는 부녀자들이 부엌 걸 다른 밥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점들이다. 이 음식들을 만드는 과정이나 모양, 맛이 우리의 그것들과 너무 닮아 있음에 문명의 '보편성'을 떠올리게 앞서, 중원(中原)이라는 중국의 주류문대에서 소외된 서남쪽 변방의 이민족들이 나름대로의 문화를 유지하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음식문화를 비롯한 '정체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문화가 '특수성'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민족

여강고성에 어둠이 내리면 광장에는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든다. 우리식의 강강수월래를 하는 사람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손에 손을 잡는다. 전통 나시족 의복을 입은 사람들과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흥겨운 잔치가 벌어진다. 이것이 나시족의 민속놀이이다. 본래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나시족은 여러 약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즐긴다.

이들의 민족축제로는 설날(음력 1월 1일), 청명절(4월), 햇불축제(음력 6월 25일), 추석(음력 8월 15일) 등이 있다. 나시족의 가장 큰 전통축제는 햇불축제이다. 이때 이들은 큰 햇불을 만들어 주위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불을 붙인다. 젊은 사람들은 작은 햇불을 만들어 돌리며 돌아다닌다.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에는 모두가 먹고 춤추며 노래한다.



▲ 축제날 저녁이되면 모든사람이 민속놀이를 즐기며 노래와 춤을 춘다.

### 배짱이 남편과 개미 부인

한 부부가 수레를 끄는데 부인이 끌고 남편이 뒤에 따라간다. 걸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자꾸 게으름을 부린다. 그래도 따라 나오면 다행이다. 대부분의 상점에는 아낙들만 장사를 한다. 남자들에게 천국인 곳이 바로 나시족 마을이다. 남편은 대부분의 생활을 나태하게 보내고 여자들은 바깥일도 집안일도 모두 도맡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많이 평등하게 일을 한다지만 이곳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사회보다 훨씬 더하다.

동부 방언구인 용닝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전까지 토사제도가 계속 되었다. 현재도 모계적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처처혼이 행해지고 각 집에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한 방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태어난 자녀는 모계에 귀속되고 어머니의 형제가 아버지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일부일처제 부계가정의 형식이다.

나시족의 결혼풍습은 혁명 이전에는 결혼 상대자를 부모가 정해서 짝지어 주었지만 혁명 후부터는 본인 스스로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또한 다른 종족과의 통혼도 증가했으나 대부분은 자기 종족과의 결혼을 원한다.

### 관광업이 나시족의 경제 담당



▲ 관광객을 위한 직물과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생업은 하천 계곡이나 분지에서는 봉전을 중심으로 논벼나 옥수수, 야채류를 재배하고, 산간의 바쁘에서는 감자, 옥수수 그리고 콩의 일종인 백운두를 재배하며 염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소수는 축산을 겸업하는 형태이다. 이들의 가구당 소득은 연평균 5,000위안 정도이며 적게는 500위안에서 많게는 10,000위안까지도 된다. 특히 여강은 나시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치가 빼어나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로 인한 관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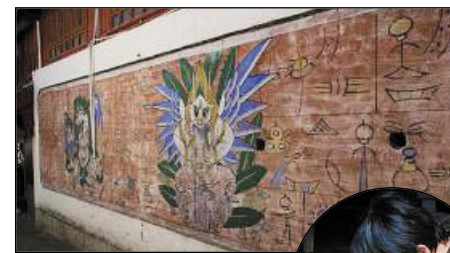
입도 소득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 이후 평균소득이 높아졌다. 다른 소수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나시족도 점점 한족화(漢族化)되어가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에 따라 빠르게 산업화, 도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해 그들 자신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계속될 것을 인정하고 있다.

### 예술을 만드는 손기술

건축과 조각 : 건축과 조각은 명대의 목씨인 토사 계층이 거주하던 왕실건축과 사유건축이 유명하다. 목씨의 궁전은 명대 중원 건축을 모방해 규모는 작았으나 품격을 유지했다. 조각은 사원과 궁실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문, 창문, 기둥, 대들보 등은 목조로 장식했고, 돌계단이나 비석들에서 석조의 형태를 볼 수 있다. 특히 목조 장식에 많은 문양을 새겨 넣어서 용, 봉황, 모란, 파도, 국화 등의 문양을 새겨 넣었다. 사원 건축은 티벳 건축 양식과 나시족 고유의 건축양식이 공존했다. 특히 여강 유역에는 5대 라마교 사원 건축이 유명하다. 남서고성은 나시족의 성으로 남송 말기에 건립되었다. 이 성은 특이하게 성벽 없이 가옥들만 늘어서 있는데 이는 나시족의 지배계층 중에는 목씨가 특히 많아서 만약 성벽을 두르면 성이 곤란할 손자의 형성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고성은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어 살아 있는 고성으로 불린다. 주민들은 주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나시족 전통 수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서 생활하고 있다.

회화 : 나시족은 특히 벽화를 많이 남겼다. 여강 유역에는 한족회화와 티벳회화의 양식을 융합한 형태의 종교성이 짙은 벽화가 남아있다. 벽화는 동파 회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공예 : 동기공예가 유명한데 홍색과 황색의 동기가 유물로 남아있으며 생활속에서 냄비, 바가지,



▲▶ 벽화와 섬세한 공예작업.



손가락, 자물쇠, 쟁반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여강 유역에는 모피 수공업이 유명한데, 특히 티벳족들이 신는 티벳 장화가 매우 유명하다. 자수공예는 치싱양피의 칠성과 허리띠, 신발을 주로 장식했는데 나시족 여성들 각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했다. 은공예로는 팔찌, 귀걸이, 가슴 앞에 늘어뜨리는 장식을 꽃, 용, 봉황 도안으로 장식했다. 이밖에 전지공예 역시 특징적인데, 불상이나 종교적인 물건을 장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목숨 수자를 다양하게 장식해서 나타내기도 하였다. 전지공예품은 가옥이나 벽, 장식물에 붙여서 장식했다.

### 모택동 모자와 전통 복식의 조화

동파 문화에 영향을 받은 나시족의 복식은 흑색을 숭배하여 고대로부터 검은색 의복을 입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태양과 달, 복두칠성을 뜻하는 원형의 장식이 있는 치싱양피라는 독특한 양식의 전통복식을 만들었다. 보온과 방한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사계절 모두 착용했다. 나시족 복식은 자연 환경에 부합되는 동시에 나시족 고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나시족은 중국의 여러 시기를 거치며 항상 외



▲ 나시족들이 모택동 모자와 전통 복식을 입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

래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복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대의 순수하고 우아한 품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나시족 복식의 이러한 특징을 통해 복식의 주된 목적이 '방한' 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기호로 문화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계승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시족 복식의 특징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다. 여러겹의 의복을 착용하고 허리에는 반구형의 띠를 착용한 후 그 위에 두터운 안감을 덧대 넓은 저양피엔을 착용했다. 한 벌의 전통 복식은 3.5~4kg이었다. 이러한 복식의 생성 원인은 전형적인 횡단형 산맥 지형에 살다보니 아침과 저녁에 춥고 오후에 햇볕이 내리쬐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추운 기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둔탁한 나시족의 의복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지 않아 민족 복식 발달의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됐다. 이에 정부 주도로 전통 복식의 개혁이 진행돼 면직물로 색채는 젊은 취향에 맞게 하여 가볍지만 방한의 기능을 충분하지 못하다.

여강형 복식을 살펴보면, 남자 복식은 머리에 중절모자를 쓰고 흰색 윗옷을 걸치며 검은색 조끼나 양피를 입는다. 농촌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가죽으로 된 상의를 입고 긴 바지를 입었다 긴 양말을 신으며 신발은 천으로 된 가늘고 평평한 신발을 신거나 황색 고무장화를 신는다. 여성 복식은 비교적 섬세하고 정교하며 모를 착용함에 있어 일정한 격식이 있다. 속옷으로 옷깃이 없는 적삼을 입었다. 노인들은 주로 옅은 청색을 입었으며 젊은 여인들은 주로 백색을 입었다. 소매의 길이는 팔뚝까지 내려왔고 소매 끝과 옷깃의 끝 부분에는 장식이 있다. 상의로는 옷깃이 없는 홀두루마기를 입고 오른쪽으로 옷깃을 여미었다. 상의의 앞부분은 짧고 뒷부분은 길게 내려온다. 나시족 사람들은 이를 나시어로 파나 커셔라고 불렀다. 옷깃이 여미어진 부분에 흑색 비단으로 선을 둘러 장식을 넣고 작고 가는 단추를 달았다. 허리 부분을 넓게 하고, 소매는 길게 내려오며 소매 겹으로 대략 10cm가량 접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나시족의 치싱양피는 태양과 달, 복두칠성을 뜻하는 원형의 장식이 있는 독특한 전통복식을 만들었다. 이것은 보온과 방한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사계절 모두 착용했다.

나시족의 복식은 자연환경에 부합되는 동시에 나시족 고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나시족은 중국의 여러 시기를 거치며 항상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복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대의 순수하고 우아한 품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 열기와 활기를 주는 룡후더우차

중국 서남부 윈난성 리장 자치현에는 인구 28만명의 나시족이 살고 있다. 해발 2,700m의 칭장고원엔 40여종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간 지고 또 핀다. 원시적인 무속신앙으로 '둥바' 라고 불리는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나시족은 차를 사랑한다. 이들은 룡후더우차(룡호투차)를 즐겨마신다. 용쟁호투를 연상시키는 이 차의 이름은 특이한 제조방법에서 비롯됐다. 먼저 차 주전자 속의 물을 펄펄 끓이는 동시에 조그만 도기 항아리에 찻잎을 적당히 넣고 불로 달군다. 이때 찻잎이 타지 않도록 항아리를 계속 흔들어준다. 찻잎에서 구수하게 볶이는 향기가 나면 항아리에 끓인 물을 부어 3~5분 삶는다. 이어 준비된 찻잔에 백주(고량주)를 반정도 따르고 곧바로 끓인 찻물을 찻잔에 따라 잔을 채운다. 이때 용(술)과 호랑이(차)가 서로 싸우며 '파아' 하는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클수록 길조로 여긴다. 소리가 난 뒤 차향이 사방으로 넘쳐난다. 어떤 시인은 "향은 십리 밖으로 날아가고, 맛은 찻잔 속에 맴도네"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찻물에 백주가 어우러진 차색은 비취의 신비로운 빛깔을 띤다. 나시족은 뜨거운 룡후더우차가 감기에 특효라고 생각한다. 한잔의 룡후더우차는 온몸에 열을 나게 해주고, 자기 전에 마시는 한잔은 깬 뒤에 정신을 맑게 해주고 활력이 넘치게 한다.



▲ 관광객들에게 글씨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장.

### 삶의 수단이 되어버린 전통문화

현재 나시족 지역사회는 여강을 중심으로 변창하고 있다. 화려한 고성과 시끌벅적한 거리에서 소수민족들은 점점더 부유한 삶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고성 거리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개혁개방 이후의 삶에 대해 만족하며 중국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지정 후에 점점 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나시족의 삶이 윤택해지기만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나시족의 전통성은 상품화됐고, 여강의 아름다운 자연은 개발의 탓에 걸린지 오래이다. 나시족의 동파는 제사장으로서는, 지식인으로서의 기능을 잃은지 오래이고, 단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전락해 관광객이 오는 시간에 맞춰 옷을 입고 글씨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고성의 전통가옥들은 앞다투어 가게를 열고있고 자신들의 전통가옥을 지키려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서부대개발의 기운을 타고 골프장과 유흥시설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1998년만 해도 적지않은 나시족들이 살던 따옌전고성은 더 이상 나시족 생활의 공간이 아니다.

2006년 현재 고성에서 신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빈자리에는 한족 주인이 차지하여 그들이 고용한 소수민족 종업원과 함께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상황속에서 나시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도 여강에 살고있는 나시족과 한족이 서로 어울려 여강의 경치를 즐기고 자신들의 생활에 항상 만족하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자기자기한 밝은 미래를 본다. 여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순수한 나시족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발길을 돌렸다.



특별취재

운남성의 소수민족세계 - 大理白族마을

탐방

## 자긍심과 자존심의 민족-“백족”사회

송종호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joist1894@naver.com



이 취재는 2007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운남성 대리 백족 자치주에서 실시했다. 백족의 식생활과 종교문화를 포함한 그들 생활모습과 사회 문화 연구를 위해 현지 조사를 했으며 백족의 풍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과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기록했다.

버스 바깥의 풍경은 한국의 어느 시골과 흡사하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아이들 한 무리가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따라온다. 하늘은 무척이나 짙게 내려앉으며 일행을 쫓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빗방울이 버스 창가에 맺히기 시작한다. 중국 소수민족 탐사를 시작한지 며칠 만에 만난 빗방울, 연일 날씨가 화창하더니, 백족 탐사에 나선 오늘 아침부터 스산한 바람과 함께 날씨가 심상치 않다. 백족민속마을 탐사에 낯다른 욕심을 냈던 필자는 심기마저 불편하다. 백족마을 입구에 도착했다는 안내원의 말과 함께 카메라를 챙겨든다. 빗방울은 보다 굵어졌고, 필자는 백족마을에 몸과 마음이 바쁜 상태로 발을 내딛었다.

백족. 흰백(白)을 쓰는 걸로 봐서 이들이 흰색과 상관관계가 있음은 미뤄 짐작이 가능했다. 백족 마을에 들어서면서 그 짐작은 검은 먹구름이 힘을 잃을 정도로 막강했다. 흰벽과 흰 옷, 흰색의 무늬와 흰색의 장신구. 만나는 모든 것이 흰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를 머금은 먹구름마저 흰색으로 보일 정도다. 이곳에 검은 색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백색의 힘은 비마저 멈추게 만들었다. 그렇게 쏟아붓던 비는 백족마을에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봄에 내리는 이슬비처럼 가늘어 졌다. 시장 안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상인들과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모습은, 필자가 어린시절 자란 시골의 장터를 연상케 한다. 얼핏 한족과 구분이 쉽지 않다. 식해를 파는 상인과 이야기를 시도해봤다. 상인은 처음에 부끄러운 듯 말을 피했으나, 보통의 손님처럼 가격을 흥정하자, 금세 상인의 기질을 나타낸다.



## 음식을 맛보며, 백족을 만나다



▲ 백족 마을에서 접한 백족의 일상식

뉘어져 있다. 평소에는 하루 세끼를 먹지만 농번기에는 하루 세끼 외에도 아침과 점심 사이에 우리의 참에 해당하는 간단한 식사를 더한다. 점심은 비교적 간단하게 먹는다고 하여 “니등(尼等)”이라 부르고 저녁밥은 “배(背)”라 부른다. 백족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평지에 해당하는 이해(洱海)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쌀로 만든 밥 또는 떡을 주식으로 하고, 소맥도 즐기는 반면, 창산(蒼山)기슭의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백족은 옥수수과 메밀을 주식으로 한다.

쌀을 이용한 음식은 밥과 떡(니엔까오)외에도 쯡즈, 미시엔과 빠빠, 얼쓰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밥은 쌀을 씻어 담가 뒀다가 나무로 만든 통에 담아 찌서 먹고 있었으며 떡은 우리의 백설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아침식사로 이용하고 있었다. 대나무 잎에 찹쌀과 함께 여러 가지 소를 넣어 말아서 찐 쯡즈는 원래 한족이 초(楚)나라의 시인 굴원(屈原)을 애도하는 의미로 단오절(端午節)에 먹는 절기 음식인데 백족은 단오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쯡즈를 즐기고 있었다. 미시엔은 쌀로 만든 국수로 삼국시대 제갈량이 운남을 평정할 때부터 생겨난 음식이다. 운남은 산세가 높고 수목이 울창하여 전쟁시 사병들이 먹을 쌀밥을 자루에 담아 말 안장에 싣고 장시간 달리는 동안 자루의 구멍사이로 국수 형태가 되어 나온 것을 “미시엔(米線)”이라하고, 자루안에 덩어리 형태로 남게 된 것을 “빠빠”라 했다. “미시엔”은 물에 삶아 먹는 음식이고 “빠빠”는 불에 굽는 것이므로 조리법이 간편해 전쟁시 생겨난 음식이라 했다. 고대에는 “빠빠”를 만드는 방법은 쌀을 물에 불려 시루에 찐 다음 절구에 넣고 찼어 덩어리로 만들어 대리석 기름판 위에 올려 놓고 찼어 덩어리로 만들어 대리석 기름 판 위에 올려 놓고 전병 모양으로 밀어서 석탄 위에서 굽는 조리법을 이용했다. “미시엔”과 “빠빠”는 먹지 않다가 문화혁명 시절 식량이 부족하자 다시 먹게 됐다.

시장 상인은 미시엔에 얽힌 전설하나를 들려준다.

“미시엔은 원래 윈난의 남동쪽지방인 ‘먼즈(蒙自)’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양시우차이(楊秀才)라는 사람이 매일 후신딩(湖心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의 부인이 집에서 좋은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후신딩으로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우차이가 공부에 열중하느라 밥먹는 것을 잊어

식해는 얼핏 보기에 한국의 젓갈과 다르지 않아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젓갈, 즉 식해는 청대(清代)말엽부터 사라진지 오래라 한다. 특히 한족들은 먹지 않는다.<sup>1)</sup> 이에 백족의 음식문화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다. 한족과 다른 백족의 독특한 음식문화의 특성이 있을까.

백족의 식사 형태는 주식과 부식으로 나

1) 식해는 재료를 소금에 절이는 방법으로 만드는 발효식품으로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독창적인 식품이다. 식해는 육상동물의 고기나 생선의 살을 기본 원료로 이용한다. 우선 고기를 가공해 얇은 편으로 썰어 소금에 절여 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용기에 한 켠 한 켠 담을 때마다 특수처리를 거친 쌀과 향료를 넣고 용기를 밀봉해 일정한 시간을 방치해 만든 것이다. 식해를 염장하는 과정 중에 쌀밥에 혼입된 유산균이 발효작용을 일으켜 육질의 변화가 생겨서 발효, 성숙되는 동시에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식품이 되며 생선과 가금류, 가축류 외에 채소류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고대에는 식해를 만드는 방법이 식품의 보존 기술로 큰 환영을 받았다. 漢代에서 明代에 이르는 1800년 간 사회 각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즐기던 음식이었다. 그러나 清代말엽부터 한족의 식사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단지 소수민족의 일부와 호남성에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로 미뤄봐 식해는 중국 내륙지방에서 저장용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났을 것으로 보며 일부 소수민족은 바로 백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백족, 흰백(白)을 쓰는 걸로 봐서 이들이 흰색과 상관관계가 있음은 미뤄 짐작이 가능했다. 백족 마을에 들어서면서 그 짐작은 흰떡과 흰옷, 흰장식 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버렸습니다. 곧 부인이 와서 식기들을 가지고 가려 하는데 다른 음식들은 다 식었는데 돌냄비에 든 닭고기탕(鷄湯)은 여전히 열이 남아있었다. 원래 닭탕에는 기름이 많고, 돌냄비가 열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 것이

죠. 그래서 이후에 이 같은 방법으로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가져다줬고 이를 이 지방사람들이 다 본받아 미시엔(쌀국수)을 넣어서 먹게 됐습니다”

미시엔의 가격을 물었더니, 10위엔, 20위엔, 40위엔, 60위엔짜리 등 다양하다. 아래는 20위엔 미시엔이다. 이 밖에 백족만이 간직한 독특한 음식문화는 루산과 성피와 산간을 꼽을 수 있다. 루산은 발효과정을 거친 우유를 가공해 만든 음식이다. 루산은 유백색으로 반투명하며 윤이 나고 부채처럼 생긴 단맛이 나는 바삭바삭한 음식이다.

루산은 한 사람이 요구르트를 솥에 넣어 끓이다가 실수로 우유를 떨어트려 우유가 응고해 햇빛에 얇게 퍼서 말려 봤다가 우연히 발견한 음식으로 부채처럼 생겨서 루산이라 부른다. 루산은 솥에 요구르트를 부은 다음 뜨거운 우유를 넣고 가열하면서 젓가락으로 젓는다. 우유가 응고될 때 건져내어 다른 용기에 담고 주무른 다음 무거운 것으로 눌러 얇게 만들어 건조한 대나무 발에 올려서 말린다. 우유는 본래 한족의 거주지에서는 아주 희귀하여 그 맛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정도였다 또한 황하유역의 중핵지대에서도 집약적인 농업으로 인해 방목하는 가축도 드물었고 유제품도 희귀했다. 그러나 백족은 당 남

조국(唐南詔國)시기에 이미 소를 키워 우유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마르코폴로가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운남성 동쪽에 있는 그 주민들을 元의 타르타르 황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고 하고, 1252년 元의 현종이 병사를 이끌고 운남성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가축의 고기와 곡식을 먹고 생활하며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 사실로 미뤄보아 백족이 우유를 가공해 루산을 먹게 된 것은 몽고 유목민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들로부터 유가공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서북지역 유목민족들도 모두 우유를 가공해서 먹을 줄은 알았지만, 루산과 같은 독특한 음식은 다른 소수민족에게서는 볼 수 없었으므로 몽고족의 영향을 받아 백족이 창조해낸 독특한 유가공품으로 여겨진다.

	20위엔짜리 한 세트를 시키면 옆 사진처럼 여러 종류의 해물과 메추리알 두 개 등이 나온다.
	이어 닭고기 튀김과 야채, 파인애플이나 과일 한 종류 등과 접시바닥에 깔린 생선이 같이 나온다. 육수를 담은 돌냄비가 나오는데는 1~2분 정도 더 걸린다.
	돌냄비에 담은 육수가 나오면 이들 갖은 재료들을 모두 넣어서 익힌다. 냄비가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2~3분이면 된다.
	앞의 재료들을 넣은 사진이다. 아직 쌀국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
	국수가 나왔다. 금방 삶은 국수를 냄비에 넣으면 미시엔이 된다.
	들쭉 담은 닭고기와 탕이 뚝배기가 이어 나온다. 닭고기탕 역시 따뜻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용기에 담는 것으로 보인다. 이 탕을 냄비에 부으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 백족의 상점은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루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상인은 성피와 산간에 대해 이야기 하더니, 필자에게 권한다. 백족은 계절에 상관없이 손님을 초대하거나 설을 지낼 때 첫 번째 요리를 새콤하고, 매콤한 냉채를 낸다. 냉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돼지고기로 돼지를 잡은 다음에 불에 그을려 털을 없애고 껍질이나 고기를 종이 장처럼 아주 얇게 썰어 고추, 산초, 파, 마늘, 식초, 간장 등의 양념으로 무쳐먹는데 이것이 성피(生皮)다. 백족의 또 하나의 요리는 산간(酸肝)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을 깨끗하게 씻어 2.5cm되는 대나무 통에 밀어 넣고 양념을 넣은 뒤 양끝을 막아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약 한달 동안 두었다가 다시 씻어 물에 넣어 익혀 얇게 썰어 접시에 담고 고추, 파, 기름, 간장, 식초에 찍어 먹는다.<sup>2)</sup> 사실 중국의 음식은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의 고유음식들이 교류한 결과로 오늘에 이른다. 하지만 백족의 음식문화는 뚜렷하게 자기들만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보존 전승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가운데 또한 특이한 것은 독특한 차문화였다. 백족 민속공연이 있는 장소로 자리를 옮겼을 때 백족 여성이 권한 차는 독특하게도 찻잔이 세개였다. 이것이 삼도차(三道茶)다. 삼도차는 토팔완(土八碗)과 더불어 손님을 맞이하는 백족의 전통이기도 하다. 여덟 접시에 팔괘를 상징하는 음식들을 담아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토팔완이라면, 세 가지 차를 차례대로 내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삼도차다. 이 가운데 토팔완은 대리의 땅을 함께 향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도차는 대리 사람의 인생역정을 함께 나누자는 뜻을 담고 있다. 즉 토팔완은 대리 사람의 공간이요, 삼도차는 대리 사람의 시간이라 해도 그리 틀림은 없다. 손님을 맞이할 때 백족은 먼저 볶은 찻잎을 우려서 만든 이른바 고차(茶)를 내놓는데, 이 맛은 꽤 쓰다. 한편으로 이 차는 손님의 위(胃)를 편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 손님에게 삶의 쓴맛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꿀과 발효우유 등을 배합한 단맛의 차를 내놓는데, 이것은 손님의 심장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임과 아울러 삶의 단맛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초열매와 계피 등을 배합한 복잡한 맛(回味)의 차를 내놓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감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임과 아울러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섞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 삼도차는 인생의 세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쓴맛과 단맛 그리고 복잡한 맛이다.

때마침 백족은 공연을 하고 있었다. 본시 삼도차를 손님에게 대접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공연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보통 '아다요' (어서 오세요)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뜻은 '밝으신 님이여' 이다. 물론 요즘은 대리를 상징하다시피 된 유명한 근대민가인 '대리의 삼월, 그 아름다운 풍경' (大理三月好风光)을 부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달타령' (月調)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그 습성의 근본에는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또 손님이 즐겁게 차를 마시면 '나워이니' 라는 인사를 거듭하는데, 이는 '오, 태양과도 같이 고마운 이여' 라는 뜻이며, 이는 고마움을 표하는 백족의 대표적인 인

2)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13세기경에 운남 지방을 통과했을 당시에 이곳 주민들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양고기, 쇠고기, 물소 및 가금류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을 보았고, 특히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가서 생간이 짐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자마자 그것을 들고와서는 잘게 썰어서 마늘소스에 찍어 즉석에서 먹는 것을 보았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원시적인 생식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생충에 쉽게 감염될 염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생식을 금하고 있다.





▲ 대리 고성은 백족의 찬란한 대리국시절을 보여준다.



▲ 대리 고성의 성곽에 오른 모습.



▲ 고성의 성곽 멀리 창산이 보인다.

사말이란다.

###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백족

4계절이 모두 봄인 운남성이지만, 봄 가운데 지금은 겨울 봄이란다. 그래서 그런지 비는 그쳤지만 찬기운이 몸 안에 들어온다. 삼도차를 즐겨보고 싶지만, 일정이 녹록치않아, 다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백족의 사람들을 만난다. 먹거리를 지나쳐 이제 백족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일까. 마음이 괜히 설렌다.

대리는 해발 고도 1976m로 한라산 정상보다도 약간 높은 고도에 위치한 도시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리석(大理石)의 고향이다. 이곳의 주인인 백족은 당나라 시절 남조국(南詔國), 송나라 시대에 대리국(大理國)으로 나름의 국가를 형성했다. 하지만 13세기 중엽 세계를 정복한 몽고의 쿠빌라이 칸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이것이 중원에 지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금도 중국은 몇해 전부터 동북공정, 백두산공정과 더불어 소수민족 역사왜곡과 동화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에서 마지막 남은 오지지역인 티베트까지 칭짱철도가 개통돼 한족 관광객과 중국 문화가 소수민족 거주지에 물밀듯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중국정부의 치밀한 민족동화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원의 지배에 백족은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었다. 운남민족촌에서 만난 다양한 민족들과 나시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들이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상품화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백족은 이것으로부터 초연해 보였다.

백족, 즉 바이족(白族)은 중국의 서남부 특히 운남성(雲南省)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총인구 약 160만 명(1990년 인구통계)중 80% 이상이 운남성 대리 백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는 꾸이조우성(貴州省)의 뻬지에 지역과 사천성(四川省)량산이족 자치주 및 후안성 상즈현 등지에도 분포하고 있다. 백족은 과거 한 장어계 장면어족에 속하는 고유어인 바이어와 함께 한어문을 통용해, 소위 '한자 백독(漢字白讀)'의 북문-백문을 사용했으며, 현재는 지방 방언과 표준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백족 지역은 신 중국 건립과정에서 1949년 공산화됐으며, 1956년 백족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바이족'으로 정식 명명됐다.

백족은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비교적 인구가 많고 분포지역이 넓으며, 근면 성실한 민족성과 유구한 역사, 빛나는 문화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이다. 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한족, 다이족, 나시족 등 주변 여러 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이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으나, 그 가운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민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존심을 확인하는 것은 과거 모습이 남아 있는 고성 지역에서 시작하면 된다. 대리의 시가지인 샤관(下關)에서 고성까지는 8km



▲ 백족의상을 한 여성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있는 대리 고성거리.

정도. 오른쪽에는 251㎡에 이르는 거대한 담수호인 얼하이(洱海)가 있다. 거대한 호수를 보고, 이들은 상상 속에 있는 바다로 이름을 붙였다. 한때 그 땅의 넓이와 나라의 힘이 대륙의 당나라와 견주어 모자람이 없었던 '대리'(大理),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던 종족이었던 백족은 역시 오늘날 현대화라는 거센 물결에도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문화를 바탕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 백색 숭상의 전통



▲ 모든 주택의 벽면이 흰색이다.

백족의 여러 문화적 전통 중 가장 뚜렷한 특징을 갖는 것은 백색 숭상 풍습이다. 백족은 지금까지도 전통 의복이나 건축 등에서 백색을 애용함은 물론이요, 꿈속에서까지 백색을 보면 길조라 생각할 정도로 백색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백족이라는 민족명 역시 이 백색숭상과 선호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리고성은 물론이거니와 백족민속마을에서 만난 백족 사람들은 흰색과 파랑색을 주요 옷차림의 색상으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붕과 주택의 벽은 온통 흰색이다. 아래는 백족의 백색 숭상이 잘 나타나는 주택들을 보여준다.



▲ 집안의 가구마저도 흰색이다.

백족의 선조들은 운남성 얼하이지방의 토착민들이 주를 이뤘다. 중국 고대문헌의 기재에 의하면 백족의 조상은 복인(僕人)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선진(先秦)시대를 거쳐 서한(西漢)시대 초까지도 계속해 복인으로 불리웠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수단의 미발달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세력이 서남부 변방에까지는 완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백족과 중국 중앙왕조의 교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漢)왕조에 이르러 비로소 조정에서 얼하이 지역 익주군의 엽유(葉榆)<sup>3)</sup>사룡(邪龍)<sup>4)</sup> 운남, 비소 지역에 4현을 설치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백족 지구는 직접적인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 백색과 배색이 좋은 청색을 쓴다.

당나라 초기에는 운남 지역에 강대한 찬씨(爨氏)세력집단이 등장하는데, 당대의 사료에 의하면 그 주요 통치 지역을 동과 서로 나누어 동찬(東爨)과 서찬(西爨)세력이 병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이에 대해 만서(蠻書)에는 서찬백만(西爨白蠻)·동찬오만(東爨烏蠻)·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서찬-백만은 백색을 숭상하는 오늘날의 백족을, 그리고 오찬오만은 흑색을 숭상하는 오늘날의 이족을 말한다는 것은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 일반적인 항아리와 그릇도 흰색이 주를 이룬다.

3) 현재의 대리.  
4) 현재의 웨이산.



당대 이후 대리 지역에는 씨족 세력이 집결된 몇 개의 커다란 부락집단 세력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詔)다. 당시 대리지역의 여러 조들은 치열한 세력다툼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남조(南詔)가 여섯 개의 조를 합병하고 일하이 지역을 평정하여, 백만과 오만이 주체가 되는 남조노예정권을 수립하게 됐으며, 당 조정에서는 그 지도자를 운남왕(雲南王)에 봉했다. 이후 서기 937년 대리 지역 백족 단사평을 중심으로 하는 단씨(段氏)세력이 주체가 되어, 대리국을 건립했으며, 이 시기부터 백족은 스스로를 백자(白子)라고 부르게 됐다.

이들 백자들은 흰색옷을 즐겨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의 그림과 같이 청색의 색감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다. 이는 복장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백색 벽에는 청색을 사용한 벽화들이 즐비하다.

단순히 백색을 선호한다하여 문화라고 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진의 벽화처럼 그들의 예술적 감각이 백족을 단순히 취급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중앙에 송왕조가 등장하면서 대리국은 송과 군신의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상호간에 대대적인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이뤄지게 된다. 이후 백족과 중앙간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백족은 이때부터 원, 명, 청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백자, 백니, 백인 등의 명칭으로 칭해지며, 중앙이 각 민족들과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교류를 맺게 됐다. 그리고 1840년 이후 중국이 반식민 반봉건사회로 진입하면서 백족 역시 제국주의 열강과 봉건주의의 2중의 압박을 받다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과 함께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 백족의 종교와 전통사상

백족의 역사와 전통은 앞서 살펴본 삼도차와 흡사하다. 적과 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함께 혼용하며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섞겠다는 그들의 심성은 종교와 전통사상에서도 발견된다. 대리 고성의 넓직한 길을 따라 바쁘게 취재를 하던 차에 법당과 비슷한 건물을 발견했다. 백족의 종교문화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입구에 들어갔을 때 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천주교 성당이였다. 다행히 극성스러운 개신교의 빨간 네온사인의 십자가는 없었지만, 분명 그곳은 성모와 천주를 모시는 예배당이였다. 공산국가에서 천주교 성당도 어색하지만, 이곳은 고대 대리국의 문명을 최후로 간직한 백족의 전통마을이였다. 이곳에 천주교성당이라는 것이 어색할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폭력으로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백족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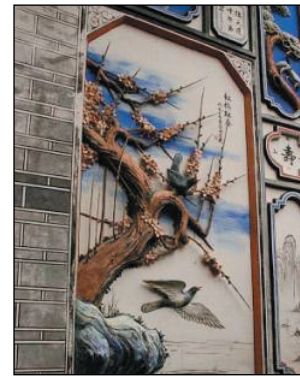
백족은 다양한 전통문화를 영위해 왔으며, 특히 종교 사상 방면에 있어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백족은 그 분포지역이 넓고 분파가 다양해 각기 처한 사회경제와 역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존재의 의식형태의 하나인 백족 종교 신앙 역시 그 형식이 다양할 뿐 아니라 내용 또한 매우 복잡했다. 불교, 유교, 도교, 토착신앙 등이 한데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백족의 민족 고유신앙인 본주(本主) 숭배와 외래종교인 불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경제발전이 낙후된 일부 지



▲ 백족은 흰색옷과 함께 청색옷을 즐겨입는다.



▲ 청색 인민복을 입은 백족 노인.



▲ 자칫 밋밋할 백색의 벽은 이처럼 청색을 이용해 벽화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 대리고성에서 보게 된 백족의 천주교성당.<sup>5)</sup>



▲ 백족의 동경고악. 이 음악은 유교, 불교, 도교 음악이 결합돼 있다.

역에서는 현재까지도 귀신숭배와 원시종교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미신이 존재하는 곳도 적지 않다. 또한 이곳처럼 외부와의 접촉이 잦은 곳은 서구 종교의 영향까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종교문화 중에서도 현재까지 백족 주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본주신앙과 불교사상이다. 본주신앙은 일종의 백족 토착종교로, 중국공산화 이전에는 거의 모든 백족 촌락마을 이었다 본주묘(本主廟)가 있어서 주민들이 본주신을 모셔왔고 불교는 외래종교이자만 남조(南詔)시기에 열하이 지역에 전래된 이래 지금까지도 백족 주민들의 사상과 생활 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주는 원시종교와 민간종교의 특징을 모두 융합해 가지고 있는 백족의 고유종교이다. 본주라는 말은 원래 본경지주(本境之主)본경토주(本境土主)의 준말로, 백족 어로는 무증(武增)이라 불리는데 이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본주는 백족 촌락에서 모시는 신의 총칭인 동시에 각 촌락의 보호신이기도 한데, 크게 자연신, 조상신, 영웅신의 3가지로 구분된다. 자연신은 대부분이 농업생산과 관련된 신으로, 태양본주, 암석 본주, 하신(河神)본주, 용왕본주, 우(牛)본주 등이 있으며, 영웅신은 전설 속에 등

장하는 영웅들로 해를 끼치는 괴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준 영웅인물이 많다. 영웅신은 특히 남조와 대리국시대의 인물이 많아서, 예를 들어 물난리를 일으킨 이무기를 죽인 대리국시대의 단적성(段赤城), 한발(旱魃)과 황충(蝗蟲)을 퇴치해 백족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준 남조시대의 장소삼(張小二)등이 그 대표적 영웅신이다. 또 조상신은 남조와 대리국 시기의 현존인물들이 절대 다수로, 국왕이 아닌 장상(將相)의 선조로 남조의 대장군이었으며, 대리 북문의 본주인 정회원(鄭回原)은 본래 한족으로 당의 관리였으나 전쟁 중에 남조에 억류됐는데 남조왕이 그의 재능을 높이 사, 청평관(淸平官)에 임명한 인물로 중원의 선진문화를 남조에 전파하고 당왕조와 남조간의 관계회복과 남조문화 변영에 이바지한 인물이었다.

본주 숭배는 원시사회에서 태동해 남조, 대리국 시기에 모습을 완전히 갖추어 원, 명, 청대에까지 발전하고 흥성했다. 백족 주민들은 본주를 섬기기 위해 그 형상을 새긴 조각들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인류에 회자되는 수많은 본주 설화를 만들었다. 따라서 본주 숭배의 생성과 발전은 백족 원시 종교 신앙과 각종 예술의 발전과정과 함께 백족의 사유방식이 구상적 사유에서 추상적 사유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본주 숭배와 연관된 색채를 통해 백색 숭배에 관한 면모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도 본주는 촌락 사회의 최고신으로, 천신(天神), 성모(聖母), 용왕(龍王), 황제(皇帝), 제모(帝母), 태자(太子), 부인(夫人), 주인어른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대개 사당을 짓거나 위패를 모시거나

5) 이 성당은 1927년에 개축된 성당이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완전히 보존돼있다. 대리고성의 남쪽문을 걷다보면 사거리 좌측에 중국 공상은행이 있으며 은행 우측 입구에 성당 간판이 있다. 북문 조금 못미치는 곳에는 교회도 있다.



**백족은 민족 고유신앙인 본주(本主) 숭배와 외래종교인 불교가 중요한 종교적 위치를 차지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잦은 곳은 서구 종교의 영향까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신상을 조각해 모시고 있다. 백족은 인간의 생사와 길흉화복, 그리고 의식주, 곡물과 가축 등이 모두 본주의 관할 하에 있어 그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다.

본주 신앙과 함께 백족 사상에 영향을 미친 종교인 불교는 남조 때에 이르러 백족 지역에 전래됐는데, 최초로 전래된 것이 바라문과 요가 밀종이었으며, 밀종의 승려를 아스리 혹은 아츠리로 불렀기 때문에 아츠리교로 불리기도 했다. 현존하는 신화나 전설 중에는 불교의 최초 전래 당시, 불교가 기존의 무교(巫敎), 도교(道敎)와 매우 격렬한 대립과 투쟁을 거쳐야 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당 말기(8~10세기)에 이르러 얼하이 지구에 성행하게 됐으며 단씨 왕조가 대리국



▲ 대리 창산을 올라가다보면 중화사를 볼 수 있다. 중화사는 백족이 불교와 도교, 그리고 그들의 본주교의 문화를 융합한 대표적인 사찰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 이해에서 볼 수 있었던 본주.

을 통치하던 300여년 동안 밀종은 국교로 신봉됐다. 그런데 원대(元代)이전에 백족들의 불교인 아츠리교는 당시 백족 지역 서북구에 위치한 토반 연맹(현재의 티베트 지역)을 거쳐 전래된 것으로, 불교의 전래를 즈음해 티베트의 각종 문화가 밀종과 함께 백족 지역에 수입됐으며, 이 때 티베트의 색채 문화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수입되게 되고, 이 역시 백족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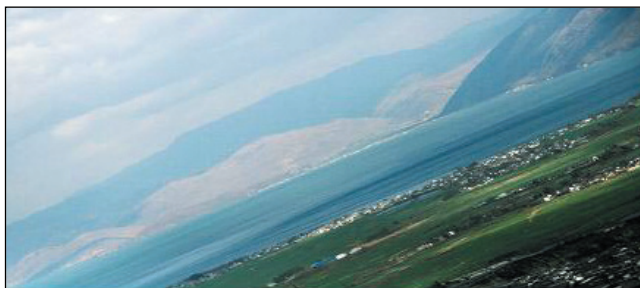
원대 이후 백족 불교 신앙은 중앙으로부터 전래된 선종(禪宗)이 주를 이루게 된다. 원, 명 시기를 거쳐 역대 백족 통치 계급은 불교를 높이 숭상해 불교사원이 도처에 건립돼 얼위엔 지역과 대리 지역은 일찍이 고묘향국(古妙香國)불국(佛國)등의 이름을 얻기도 했다. 불교가 백족 문화와 생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커서, 현재까지도 불교 사원에 참배하는 풍습 외에, 관음보살을 기념하는 관음절이 매년 성대히 개최되고 있는데 관음절은 고유명절인 화파절(火把節)과 함께 백족

의 2대 명절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듯 불교는 백족의 문화와 가치관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6)</sup>

### 백족의 자연환경과 풍습

대리에서 창산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앞서 본 중화사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관을 이루는 창산과 그 아래 보이는 이해의 모습은 이곳의 자연환경이 신이 주신 축복의 땅임을 확신





▲ 창산에서 바라본 이해. 이와 같은 백족이 주거하는 곳은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케 한다. 그리고 이들 민족의 심성이 백색의 선함을 갖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축복받은 자연환경에 근거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백족의 생활과 삶을 봤다면, 창산에 올라서는 보다 큰 시야를 갖고 백족의 풍습을 만날 수 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아름다운 백족 지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 바로 백색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맑은 공기와 높고 푸른 산, 맑은 물과 함께 살아온 민족이 백색이 아닌 다른 색을 선호한다면 이상할 것이다.



▲ 백족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

백족이 머무르는 지역은 우리의 한라산보다 높은 고해발 지역이다. 때문에 필자는 자칫 떨미를 한다는 느낌으로 역한 기운이 돌았다. 사실 이곳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이 지역에서도 고산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기후는 저위도 고원 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온도는 15°C 정도로 사계절이 봄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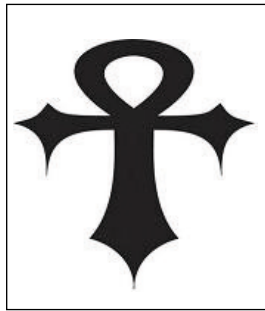
그러므로 백족의 복식은 비교적 간결하고 명쾌하며 복식이 두껍지 않다. 또 백족은 흰색을 숭상하기 때문에 의복의 재료는 대부분 흰색 옷감을 사용하고, 흰색을 주요 바탕색으로 해 다른 색상과 배합한다. 이해(洱海) 지역의 백족 여인들은 산뜻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이 옷이 일반적인 백족 여인의 복식을 대표한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족의 여성들이 입는 옷은 그만큼 가벼웠다. 이곳보다 온도가 낮은 여강 나시족의 경우 옷의 두께가 그만큼 두꺼워진다. 마치 우리네 봄, 가을 한복과 같은 느낌이다. 화사한 옷때문인지, 필자의 개인적인 백족에 대한 호감때문인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백족의 여성들이 보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백족 여인의 복식과 치장은 나이와 결혼여부 등의 상황을 판별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남자의 복장은 한족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아서, 흰색의 가운데 여임 옷을 입고 겹에는 목 없는 마고자를 입으며, 아래에는 흰색이나 남색의 긴 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술 달린 허리띠를 묶어 늘어뜨린 뒤, 머리에는 흰색이나 남색의 두건을 둘둘 감는다. 현재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민속 복장을 입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들의 복식만이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잦은 전쟁과 외부로의 유출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던 탓일게다. 그만큼 다른 민족과의 교류가 많았고, 동화되기에 더 쉬운 까닭이리라. 자기의 터전을 지키고 문화를 고수해내는 것은 역시 여성들이다.

백족에게서 발견되는 특이한 사항은 문신에 있다. 저마다 문신은 자기 고유의 상징을 나타내지만 여타의 소수민족에서는 문신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았다. 나시족이 자신들의 문자를 상품화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이 역시 문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백족의 문신은 역사가 오래됐다. 가장 이른 문헌상의 기록은 『후한서 서남이열전(後漢書 西南夷列傳)』에 “애뢰이(哀牢夷) 종족 사람들은 모두 그 몸에 새기고 그리는데, 용과 같은 무늬이다. 옷은 모두 꼬

6) 김양희, 소황옥, “중국 백족 백색숭상 요인 연구”, 『비교민속학』 20



▲ 백족의 고유 문신.

리를 드러낸다.”고 적고 있다. 백족의 문신은 대부분 남성이 하는데, 문신을 하는 부위는 대개 손목, 팔꿈치, 가슴 등이다. 도안에는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동물 도안으로 용, 호랑이, 표범, 사자, 고라니, 말 등이다. 두 번째는 기하학 도안으로 쌍갈 무늬, 매화 무늬, 바둑판무늬 등이다. 세 번째는 문자인데 수(壽)·품(品)·육(六)·충(忠)·정(正) 등의 글자들이다. 네 번째는 검은 점으로 일반적으로 3~5개의 점을 손목에 새기는데, 이 문신은 대리 고성 안 일대에는 비교적 많이 한다. 백족의 문신은 어떤 의식 없이 일반적으로 7살에서 15살 사이에 행해지고, 민간에서 전해오는 방법을 사용해 침이나 선인장의 딱딱한 가시를 가지고 피부를 찌른 뒤 먹물로 검게 물들인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문신은 처음에는 씨족 부락의 토tem 숭배로서 재앙을 없애고 장수하면 일년 내내 평안하기를 기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비가 올듯한 하늘을 바라보며 버스 안에서 눈여겨 봤던 것이 바로 백족 마을의 주거형태였다. 도로가에 길게 늘어져있는 백족 마을은 한눈에 봐도 이들이 자신들만의 주거형태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족은 마을 단위로 거주하는데, 대부분 산과 강을 끼고 형성돼 있다. 평원 지역의 마을은 규모가 몇 십 가구에서 몇 천 가구까지 다양하고, 주로 광장·무대·본주 사당·정기 시장 등이 설치돼 있으며, 민가는 길을 따라 짓고 서로 인접해 거주한다. 마을 입구에는 풍수비보 벽이 세워져 있고, 가지와 잎이 무성한 대용수(大榕樹)<sup>7)</sup> 몇 그루 심어져 있으며, 마을마다 우물이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한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집집마다 우물을 두고 있다.

백족의 거주지는 이해(洱海) 지역 외에는 비교적 춥고 외진 산지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어서, 생활환경·생활수준·경제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건축 구조·재료·가옥의 배치 등도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민가의 형식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해(洱海) 지역의 백족들은 흙과 나무 또는 돌과 나무로 구성된 정원식 기와집이 주류를 이루는데, 속칭 ‘도장’ 식 사합원 민가 건축이라 한다. 두 번째는 이해(洱海), 운룡(雲龍), 난평(蘭坪), 유서(維西) 등 지세가 높고 추운 산지를 대대로 하는 통나무집이다. 세 번째는 늑목인이라고도 부르는 노장의 백족을 대표로 하는 대나무집과 초가집이다. 이 역시 이곳의 따뜻한 기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석림으로 가는 길에 이족의 결혼식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다. 그 경험담인지 백족마을을 둘러보며 혹시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만나지는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다. 하지만 백족의 결혼식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백족에게서만 발견되는 결혼 풍습은 무엇일까? 길에서 만난 백족 노인은 아이를 업은 채 지난날 자신



▲ 평원지역에 있는 주거민들.



▲ 강을 안고 모여사는 백족마을.

7)風水樹라고도 하며, 마을 사람들의 번성과 생활의 부유 및 안녕을 예시한다.



의 신혼시절을 떠올린다. 백족은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가능하며, 보통 일부일처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역사상의 유적과 문헌을 보면, 백족의 혼인제도도 혈연혼·집단혼인·중혼에서 일부일처제로 발전과정을 거쳤다.

혈연혼의 풍습은 형제자매가 결혼해서 대를 있는다고 백족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신화 속에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현실 생활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집단혼인 풍습도 이미 사라졌지만, 백족의 전통 기념일인 '다오싼링' 풍속에 그 풍습이 남아있다. 중혼은 1950년 초까지 이원(彝源)현 서산(西山)의 백족 사회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가 부모의 결정에 의해 부모로 맺어진 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연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결혼 방식이다.

아이를 얻은 노인은 백족 사회의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부다처제도 백족 사회에서 보이는데, 여기에는 주로 네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서른이 되어도 자식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해 아내를 더 얻었다. 둘째, 돈 있는 지주나 관료, 부유한 상인은 첩을 들었다. 셋째, 부부간의 감정이 좋지 않으면 후처를 들었다. 넷째, 일부 지역에서 있었던 방 바꾸기 풍속으로 생겨났다. 1949년 이후에 정부에서 일부다처제와 매매결혼을 법령으로 금지했다.” 평범한 노인의 직관과 함께 그들의 교육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이처럼 논리정연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비교가 된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백족 일반적으로 자유연애를 한다. 남녀가 서로를 원하게 되면 혼담이 오고 가고 정혼을 하게 된다. 정혼의 과정은 남자 집에서 매파를 통해 여자 집에 혼담을 건네고 여자의 사주팔자를 받은 뒤, 남녀의 궁합을 보고 나서 여자의 집에서 붉은 쪽지에 딸의 사주팔자를 적어서 혼약의 증표로 남자 쪽에 주면, 남자 집에서는 여자 집에 닭, 술, 설탕, 차, 무명 등의 예물을 보내고 아들의 사주단자를 여자 쪽에 전한다. 혼례는 삼일 동안 치러지는데 첫째날은 가설무대를 만들어 혼인을 주관하는 신을 맞으며, 돼지와 양을 잡아 분주께 바치고 홀과 창고를 꾸미고 신방을 장식하며 주련을 붙인다. 이날은 신부와 신랑의 부모님께 이별을 고하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신방에 병과 재난이 없는 남자 아이 한 쌍을 불러 신혼부부의 침대에서 자게 하는데 이것을 '신혼부부의 침상을 진정 시킨다' 라고 한다. 둘째 날이 진정한 결혼식이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신부맞이' 행렬은 붉은 비단을 몸에 두르고 징과 북을 두드린다. 여자 집에 도착하면 문을 지키는 신부들러리가 글재주와 지혜겨루기 등으로 신랑측을 괴롭히는 문 여는 의식을 한다. 의식이 끝나면 문을 열어 신랑을 장인 장모께 데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신부를 태워 신랑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우선 경사를 주관하는 신계 제사를 지내야지 비로써 천치, 조상, 부모님께 절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다. 이모든 것이 끝난 뒤에 '싼다오차' 를 마셔서, 이후의 생활이 우선 쓰고 달고 깊이 음미할만한 하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저녁에는 젊



**백족은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자신의 문화를 상품화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존심을 지키는 민족이다.**



▲ 꽃가마를 타고 가는 백족 신부측 행렬.



▲ 불교 밀종의 영향으로 화장을 행하는 장례풍습.

은이들이 신혼방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신방의 문미 위에 화살이나 거울을 매달아서 요사한 기운을 막고 방안에 숯불 한 대야를 피워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날은 가설무대를 치우고 신혼부부가 함께 밥을 먹으며 손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다. 처갓집에 인사 가는 것은 보통 결혼한 뒤 2-7일 사이에 하는데 부부가 모두 예물을 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날 아침 신부의 머리 모양을 땀은 머리에서 틀어 올려 높게 쪽을 지은 것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혼례가 비로소 완전히 끝난다.

노인에게 안될 말이지만, 죽음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고고학과 유물에 따르면 백족은 일찍이 토장을 행하다가 당대 남조 이후로 불교 밀종의 영향을 받아 화장으로 바뀌었다. 명대에 중앙 왕조가 '오랑캐 풍속'을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다시 토장으로 바뀌어, 화장 풍속을 명 말에 사라지고 청대 이래로 계속 토장을 행하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이 백족의 장례풍습에 대한 언급을 이어간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기 전에 죽은 자의 입에 씨를 뺀 대추를 물리는데 대추 안에는 부스리기 은전과 찻잎 몇 조각 그리고 소금을 넣어 둡니다. 그것은 저승길 노잣돈인데, 대추의 중국어 음이 조(早)와 같아서 죽은 사람이 죽은 뒤에 빨리 환생하게 하려는 뜻을 가지지요"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계속해서 노인은 장례풍습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다. "노잣돈을 준 뒤에 그런 뒤에 죽은 자의 몸을 닦고 옷을 입히며 마지막으로 붉은 천으로 온몸을 감쌉니다. 출상 전까지는 영구를 잠시 안치하는 기간은 보통 3일이지만, 날씨의 길흉에 따라 임시 안치 기간을 결정하며, 그 기간 동안 친지나 이웃이 와서 조문을 하게 되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도사나 승려를 모시고 경을 읽어 망령을 위로하고 죽은 사람이 생전에 쓰던 물건을 태워서 죽은 자가 저승길에 쓰도록 도와줍니다."

백족은 묘지의 안치 방향과 산의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풍수가 좋으면 자손들이 번창하기 때문에 묘지는 풍수에 따라 선택하고 무덤 안에는 '풍수관'을 넣어둔다. 돌로 무덤을 만들고 무덤 머리에는 석비를 상감하는데 석비에는 고인의 이름, 신분, 생년월일, 비석을 세운 자손의 이름과 묘지명 등을 새긴다. 안장한 다음날과 일곱 번 제날, 49일, 백일, 청명절, 백중, 1주년이 되는 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백족의 명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참 말도 많고 꿈도 많고 소녀들이 한 무리 지나간다. 그들은 필자의 카메라를 매우 의식한다. 그만큼 꿈이 많은 까닭일터. 그 소녀들에게 가장 손 꼽아지는 명절을 물었다. 사실 백족의 명절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절은 춘절, 정월대보름, 청명절, 단오절, 충추절 등 한족의 명절이다. 하지만 일부의 명절은 백족의 만의 전통에서 기인했다.



▲ 애니미즘의 풍습과 관습으로 경을 읽고 제사를 행하고 있는 백족.

이러한 명절에는 싼위에제(三月街), 라오싼링(繞三靈), 검천의 석보산 노래 모임(石寶山歌會) 등이 있다.

소녀들은 싼위에제를 제일로 꼽았다. “제관음가(祭觀音街) 라고도 불리는데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리성 서창산 중화봉 아래에서 거행되죠.” 싼위에제는 처음에 불교의 불경 강연회였는데, 훗날 점차 물자 교류모임으로 바뀌었다. 삼월가의 형성은 이미 천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금도 싼위에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물자무역의 기능을 따르고 있으며, 경마, 활쏘기, 가무 공연 등의 전통적인 문화체육활동도 거행하고 있다.

그밖에 라오싼링은 요(繞)산(山)림(林), 요상림(繞桑林)이라고도 쓰고 기우회(祈雨會)라고도 하며, 백족어로는 ‘관상남(觀上南)’이라고 한다. 전설과 사적 속의 기록을 보면 라오싼링은 백족의 오래된 전통명절로 매년 음력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대리 지역에서 거행되었는데, 그 내용과 활동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내용과 활동 형식으로 발전했다. 일부 학자들은 라오싼링의 기원이 원시 사회의 남녀 사교활동에서 발전되어 오다가 본주승배와 불교 및 도교 신앙 그리고 기우제 등의 내용을 받아 들여 가무 오락 남녀의 사교활동, 본주 참배, 불경을 읽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 소규모 장사,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는 등의 성대한 명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검천의 석보산 노래 모임은 노래를 주고받는 백족의 성대한 모임이다. 매년 음력 7월 27일부터 8월 초하루까지 검천현 석보산에서 거행된다. 부르는 노래는 주로 연가이고, 부귀를 겨루거나 재능을 겨루는 것과 생활의 행복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한 노래도 있다. 만약 노래의 대가끼리 만나면 며칠 밤낮을 노래하게 되는데, 그중의 어떤 사람들은 이로 인해 좋은 감정이 생겨나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도 한다.

### 백족의 오늘과 미래



▲ 백족을 나타내는 우표.

운남성 대리에서 만난 백족의 삶은 우리네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특히 그들의 삶은 다른 소수 민족과 달리 과거의 문화와 영광을 상품으로 팔지 않았다. 자존심을 지키는 민족임에 분명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나름의 문자와 언어를 구사했고, 독특한 음식문화와 종교 문화는 오늘의 백족의 삶이 자존감 갖는 민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힘이 됐다.

본 취재가 이뤄진 2007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운남성 대리 백족 자치주에서 만난 백족에게 감사를 표한다.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시간과 능력의 부족으로 백족의 유구한 역사와 삶의 다양함을 담아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중화민족

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백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르포가 됐기를 희망한다.

색채는 일종의 기호이며 상징인 문화적 코드다. 자신들의 최고 색으로 백색을 주저하지 않고 꼽았던 백족의 시람들은 그만큼 특색있는 색채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백족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 몇 줄의 글보다 백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색채관을 통해 백족의 민족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르포를 통해 정리된 다음 몇가지는 백족의 특성을 백색이라는 색채의 특성으로 요약한 것이다. △ 백족의 관념 속에서 백색은 아름다움과 선량함의 상징이다. △역사 속의 명칭이 모두 백(白)과 관련돼 있다. △ 원시 종교의 대다수 숭배대상이 백색이거나 백색을 띤다. △복식 등 일상생활 중에 백색을 애용해 왔다.

한편, 백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써 수 천 년 동안 다른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용해 더 훌륭한 문화로 승화시켜왔으며 이렇게 이루어진 백족의 문화는 또 다른 많은 민족들의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백족은 특히 자신들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에 불교와 유교의 문화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여 민족 정체성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봐서 우리나라와도 흡사한 면이 있다. 소수민족들은 대다수 그들의 고립된 장소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그들의 문화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백족은 외부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그들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의 것으로 흡수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정체성만은 잃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민족의 우수한 점이나 우수한 문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 백족 자신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 문화를 발전시켜서 중국에서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의 독특한 문화를 유구해나가길 바라며 백족 마을을 뒤로 한다.

#### 〈참고문헌〉

- 공봉진, “중국 민족식별과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연구」제7집1호  
 김양희, 송황옥, “중국 백족 백생승상 요인 연구” 「비교민속학20집」  
 신계숙, “중국 운남성 백족의 음식문화”, 「한국음식문화」2000.6  
 오타, “중국 현대 복식에 나타난 소수민족 복식의 특징” 「복식문화연구」14권 6호  
 조여란, “중국소수민족 종교문화의 성격”, 「민족과 문화」1997  
 뚜원홍, 채수민, “중국 바이족의 삶과 문화” 「생활문물」(제13호)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china-cart.com>  
<http://memo.cnair.com/folk/baizu>  
<http://www.gzypzl.com/ly/mshfg/baizu/baizu.html>





특별취재

운남성의 소수민족세계 - 石林彝族마을

탐방

# 운남성 최다 소수민족, 이족(彝族)사회

김재원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kjjw0028@hanmail.net



이족의 분포도

· <<http://www.yizuren.com/article.asp?articleid=268>>

필자는 2007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운남성 이족지역을 탐방하였다. 방문한 지역은 운남성의 성도인 곤명시(昆明市) 부근의 이족 거주지이다. 이 지역은 예전에 로남(路南) 이족 자치현으로 불리던 지역으로, 1998년에 현재의 유명한 관광지인 석림(石林)의 이름을 따서 석림 이족 자치현으로 이름이 바뀐 이족의 자치현이다. 이 지역의 이족은 자신을 '싸니(撒尼, Sani)'라고 부르는 부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부족 간의 이질성이 매우 심한 이족의 특성상 이 싸니 이족을 둘러본 것만으로 이족의 특성이 이리이러하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많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필자가 직접 보고 느낀 이족의 모습을 언급하되, 여러 서적과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족에 대한 여러 포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족과 이족사회를 살펴보려 한다.

## 운남성에만 470만 명 거주

이족(彝族)은 중국에 776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에도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사천성·운남성·귀주성과 광서 좡족 자치구에 살고 있다. 사천성의 이족은 량산(凉山) 이족 자치구를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다. 이 량산 이족 자치구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이족의 단



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량산은 운남성과 사천성의 경계지역에 있어 사천성에 속하는 량산 일대를 '대량산(大凉山)', 운남성에 속하는 일대를 '소량산(小凉山)'이라고 한다.

운남성에는 470만 이상의 이족이 살고 있으며 운남성의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소수 민족이다. 초웅(楚雄) 이족 자치주, 홍하(紅河) 하니족이족 자치주에 특히 많은 수의 이족이 거주하고 있다. 귀주성에도 수십만의 이족이 살고 있으며 광서 좡족 자치구에도 수천 명의 이족이 살고 있다. 대부분의 이족은 산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고지대의 한랭한 기후에서 살고 있는 이족도 있으며 비교적 저지대인 계곡이나 평지에 살고 있는 이족도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후와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족 간의 이질성 심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천성의 량산 지역은 교통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운 고립지역이라 다른 지역의 이족들과의 이질성이 더욱 심하다. 이처럼 이족은 지역 간, 부족 간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인 특성이나 정체성을 가진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진 여러 이질적인 부족들의 총체라고 인식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족들은 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자신이 '이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한족(漢族)에 대한 저항과 동화(同化)의 역사

우선 간략하게 이족의 역사를 훑어보자. 이들의 역사를 보면 이족 부족들 간의 이질성이 생긴 원인과 그 전개 과정이 어떠한지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이 한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족과 한족의 기록을 보면 이족은 백족, 나시족, 라후족, 이수족과 함께 중국 서쪽에 있던 고대의 강(羌)족의 후손으로 묘사되어 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이족의 선조 집단이 남하하여 사천과 운남성 부근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여러 부족이 섞인 혼합집단이었

〈표 1〉 지역과 자칭에 따라 분류한 이족의 부족들

Southern Yi		Southeastern Yi		Central Yi	
Nisu, Jianshui	370,200	Poluo	227,000	Lolopo	344,600
Nisu, Yuanyang	204,200	Sani	103,000	Lipo, Western	148,000
Nisu, Xinning	197,300	Axi	76,200	Niesu, Central	28,000
Nasu, Southern	104,800	Azhe	57,700	Enipu	16,000
Muji	53,300	Lolo, Southeastern	39,500	Popei	1,000
A Che	36,200	Jiasou	30,000	Totals:	537,600
Gaisu, Southern	35,900	Puwa	29,000		
Pula	20,300	Awu	24,300		
Boka	16,920	Digao	22,300		
Lesu	15,170	Meng	18,200		
Adu	7,080	Xiqi	13,300		
Chesu	6,670	Ati	12,600		
Laowu	6,450	Daizhan	11,400		
Alu	5,640	Asahei	8,400		
Azong	1,020	Laba	6,400		
Xiuba	1,000	Zuoke	6,300		
Totals:	1,082,120	Ani	3,000		
		Minglang	1,500		
		Long	1,300		
		Totals:	691,400		

출처: <http://yi.peoples.org/learn/profiles/index.htm> (검색일 2007년 2월 2일)

Northern Yi		Western Yi		Eastern Yi	
Nosu, Shengba	1,024,400	Laluo, Mishaba	579,400	Nasu, Eastern	413,500
Nosu, Yinnuo	512,200	Lolo, Western	193,300	Nasu, Panxian	290,100
Nosu, Xiaoliangshan	439,400	Xiangtang	82,400	Nasu, Wusa	248,500
Nosu, Butuo	210,200	Lalu, Xinning	38,950	Nosu, Shuixi	234,800
Suodi	189,200	Lalu, Yangliu	97,900	Lipo, Wuding	90,200
Nosu, Tianba	84,080	Tusu	31,750	Nosu, Mangbu	66,800
Naruo	12,200	Laluo, Jiantou	30,750	Gepo, Eastern	64,000
Naru	11,790	Gaiji	30,750	Naisu	49,200
Talu	7,150	Xijima	30,700	Naluo	37,600
Mixisu	5,120	Limi	29,700	Michi (Miqie)	29,700
Liwu	4,300	Mili	23,750	Samei	28,200
Awu, Northern	3,590	Lawu	19,950	Sanie	25,900
Tagu	3,590	Qiangyi	10,250	Bai Yi	22,500
Liude	1,430	Samadu, Western	7,650	Guopo	16,920
Naza	1,330	Gepo, Western	6,650	Gese	12,300
Tanglang	1,040	Lalu, Xuzhang	4,100	Neisu, Xiaohei	7,580
Ta'er	1,025	Eka	2,560	Neisu, Dahei	6,450
Totals:	2,512,045	Gaisu, Western	1,020	Depo	6,275
		Micha	1,020	Laka	6,150
		Suan	255	Lagou	6,150
		Pengzi	255	Aling	5,740
		Tushu	5,120	Tushu	5,120
		Totals:	1,163,060	Gouzou	4,100
				Wopo	3,070
				Samadu, Eastern	615
				Duopo	615
				Totals:	1,704,635

으며, 이들은 이미 그 곳에 정착하고 있던 선주민들과 결합하였다. 한나라 초기에 이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으나 통치에 어려움을 느껴 이족의 족장을 회유하여 그에게 왕의 직함을 하사하고 그 인장까지 만들어 주었다. 226년에 제갈량의 남정을 겪는 등 한족의 토벌과 지배를 받기도 했으나 이족을 비롯한 이 지역의 소수민족은 한족의 지배에 저항하였다. 이들 집단은 당나라시대에 오번(烏蕃)과 백번(白蕃)으로 분화가 이루어졌다. '오번'은 이족의 귀족계층 노릇을 한 흑이(黑彝)의 조상이 되는 쪽으로, '오만(烏蠻)'이라고도 불렸다. '백번'은 이족사회에서 평민 혹은 노예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백이(白彝)'의 조상이 되는 그룹이다. 오번과 백번의 거주 지역은 오늘날의 운남성·귀주성·사천성과 광서 좡족자치구에 걸쳐 있었으며, 오늘날의 이족 거주지역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족을 비롯한 남방의 소수민족들은 6세기경에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 등 한족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다가 738년에는 당나라의 쇠퇴를 틈타 오번의 일부 세력이 다른 부족을 병합하여 '남조(南詔)국'이라는 노예제 국가를 만들었다. 937년에는 백(白)족인 단사평(段思平)이 세운 대리(大理)국이 건국되어 남조국의 세력을 능가하는 세력으로 그 힘을 자랑하게 되었고 남조국은 노예와 농민의 반란으로 붕괴되었다. 무역로인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중개지로서 번영을 자랑하던 대리국도 1253년 몽골족에 의해 정복되었다. 이후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와 그 뒤를 이은 명나라는 이 지역의 유지에게 세습직의 관직을 주고 토사(土司)·토관(土官)으로 삼아 지방관으로 활용하였다. 원·명의 통치는 직접통치가 아닌 간접통치의 형태였으므로 토사와 토관을 중심으로 이족을 비롯한 이 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사실상의 자치를 해왔다. 이런 간접통치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이 청나라의 '개토귀류(改土歸流)' 정책이었다. 청나라는 기존의 토사·토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까지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는 제도인 개토귀류(改土歸流)를 채택하였는데, 이로써 이족 지역은 중국 중앙정부의 직접통치의 강한 영



**이족은 지역 간, 부족 간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민족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진 여러 이질적인 부족들의 총체라고 인식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향력 아래에 들어가 변화가 촉진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천성 량산 지역의 이족 사회 등 지형이 험준한 지역은 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자치를 유지하였다. 이 폐쇄성이 사천성의 이족사회와 운남

성 등 다른 지역의 이족 사회 간의 이질성의 심화에 한 원인이 되었다.

중화민국 시대에 이르자 사천성 량산 지역의 이족을 제외한 이족은 국민당 정부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만 국공내전의 시기는 이족 사회에 있어 그동안 받았던 차별과 압박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홍군이 자신들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소수민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홍군은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정책을 마련하였고 가난한 이족과 한족은 형제라고 선언하였다. 이족이 국민당군보다 홍군에게 호의를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홍군의 여러 노력의 결과 상당수의 이족 젊은이가 홍군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공산 혁명의 성공 후 이족은 소수민족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彝)족'으로 민족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오번이라 불리던 집단 중 한 부족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되는 '뤄뤄(羅羅)'라는 명칭이 원나라 시대 이후 이족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중화민국 시대까지 쓰이고 있었다. 이 '뤄뤄'라는 말이 차츰 이족들에게 있어 자신들을 무시하는 칭호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청동기의 기물을 의미하는 말인 '이(彝)'를 민족 명칭으로 하게 해달라고 공산 정부에 요청하여 이 말이 공식적인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다양한 생활양식 가꾸어 온 전통

중국 공산화 전의 이족들은 옥수수나 감자를 삶아 먹거나 식물의 잎을 절여 먹기도 하였고, 메밀로 떡을 만들어 먹거나, 티베트 족처럼 쌀보리의 일종인 청과맥(靑顆麥)가루를 볶아 물로 반죽한 음식인 참파를 만들어 먹었다. 쌀은 생산량이 적어 잘 먹지 않았다. 산악 지형인데다 노예사회의 부작용으로 인해 생산량이 떨어지는 량산의 이족 사회의 경우는 앞에 나열한 음식들도 형편이 좋은 이족들만 먹는 것이었으며, 빈농은 도토리, 바나나 뿌리, 꽃 등 야생식물로 연명하였다. 량산에서는 소금이 매우 귀해



▲ 담배도 이족이 즐기는 것 중의 하나이다. 필자가 운남의 석림에서 본 이족의 담배 피우는 모습. 대나무 통으로 담배를 즐기고 있다.



▲ 량산이족의 식기.

식품의 저장도 어려웠으며 조리할 때도 소금은 거의 쓰지 않았다. 소금을 친 고기는 축제 때만, 그것도 노예주 계급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오늘날의 이족은 량산 등 산간에서 메밀·귀리·보리·옥수수·감자 등으로 재배하고 염소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며, 무덥고 비옥한 계곡지대에서는 주로 벼농사를 한다. 이외 담배와 차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메밀·옥수수·감자가 주식이고 평지의 이족 중에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돼지·양·닭고기를 즐겨 먹으며, 고기나 간을 날로 먹는 관습이 있다. 개고기·말고기·곰고기는 토테미즘의 영향으로 먹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나무를 깎아서 통·접시·그릇·컵 등을 만들어 썼는데, 특히 량산 지방에서는 이 용기들에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의 세 가지 색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칠하여 사용하였다. 이 칠을 한 용기는 지금도 량산 지방의 특산물로서 유명하다. 주로 그리는 문양은 구름, 물결, 소의 눈, 말의 이빨 등의 모양이었다. 술잔은 동물의 뿔이나 발굽으로 만들었다.

식사할 때는 연장자 순으로 앉아서 먹으며 남녀는 따로 앉아서 먹는다. 여자는 손님과 함께 식사할 때 식사자리에 끼지 못하여 남성중심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상석은 연장자나 손님을 위해 비워 놓으며 연장자나 손님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나 술을 먹게 한다. 술은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데 맥주처럼 도수가 낮은 술이며, 이족에게 있어 술은 한족의 차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다. 술은 결혼식·장례식·제사 등에도 빠질 수 없는 물건이다. 주도(酒道)는 매우 중요하여 어른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도 못한다. 반면, 그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기호품인 담배는 우리와는 달리 어른 앞에서 피우는 것도 문제 삼지 않는 자유로운 문화여서, 이번 여행 중에도 대나무 통에 담뱃잎을 넣고 담배를 즐기는 이족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족의 옷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량산 지역과 귀주의 서부 지방에서는 남자가 소매의 통이 좁고 앞단추가 왼쪽으로 경사진 검은 상의와 주름지고 통이 좁은 바지를 입는데, 운남 등 다른 지역의 남자는 전통적으로 통이 넓은 바지를 입는 경우다. 량산의 노예주 계급의 후손인 흑이(黑彝)의 남성은 전통적으로 상투와 비슷한 '천보살'이란 모양의 머리를 하는데, 이는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천보살을 푸른색이나 검은색 터번으로 감싼다. 또한 흑이의 남성과 여성들은 외출할 때 '차와루와'라고 하는 검은 색 망토를 입는데 이 망토는 무릎까지 오는 긴 술이 달려 있으며 양모로 만들어진다. 이 차와루와의 색깔이 검은 색인 것이 '흑이(黑彝)'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이유라는 주장도 있다.<sup>1)</sup> 량산 지역의 여자들은 치마를 즐겨 입는데 특히 흑이의 여성들은 땅에까지 닿을 정도로 긴 치마를 입으며 다른 계층의 여성들은 무릎까지만 닿는 치마를 입는다. 운남성 등 다른 지역의 이족 여성들은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는 것이 전통이다. 이족 여성은 옷에 수놓기를 좋아하는데, 수놓기로써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며, 또한 특이하고 화려한 모자와 장신구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한다.



▲ 이족 남성의 전통복.



▲ 전통옷을 입은 소량산 이족 여성들.

1) 다바타히사오(田畑久夫)의 저, 원정식·이연주 역, 『중국소수민족 입문』, (현학사, 2006), p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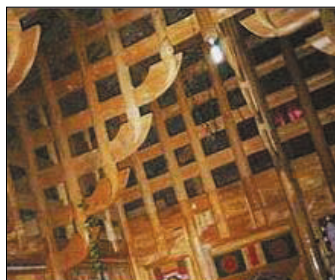


▲ 필자가 운남 석림에서 본 싸니 이족 여성들의 복장.



▲ 모자의 장식을 모두 세워 미혼임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가 찾은 석림에서는, 석림 자치현에서 가장 많은 부족인 싸니(撒尼) 이족의 전통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싸니 이족의 여성은 평평한 모자를 쓰는데, 나비 모양처럼 보이는 삼각형 장식 이 모자 양 옆에 달려 있다. 이 장식으로 기혼과 미혼 여부를 나타낸다. 두 장식이 모두 세워져 있으면 처녀, 한 쪽이 눕혀져 있으면 약혼한 상태, 둘 모두 누워 있거나 떼어져 있으면 기혼을 나타낸



▲ 이족의 주택 내부 장식.

다고 한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역의 이족들은 우리의 보쌈 비슷하게, 축제날 같은 때에 남자들이 처녀를 업고 가서 혼인을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이때 반드시 모자의 장식을 확인해야 하는데, 장식이 둘 다 서 있는 여성을 업고 가야지 만약 기혼이나 약혼인 여성을 업고 가면 그 남자는 큰 곤경을 겪고 사죄의 의미로 여성의 집에서 장기간 동안 무료로 일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이족의 집은 나무와 진흙으로 만드는데 창문이 없어 어둡고 습하다. 집의 형태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작은 널빤지들로 2겹의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못을 박지 않고 돌을 올려놓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집인데 이런 집을 '와반(瓦板)' 이라고 한다. 지붕에 나무 널빤지가 아니라 넓적한 돌을 깔아 놓는 집도 있다. 초웅(楚雄) 이족자치주와 남부지역인 아산(峨山), 신평(新平), 원강(元江), 신평(金平) 일대 등 운남의 중부 및 동남부는 지붕을 흙으로 만드는 토방(土房) 형식이다. 토방으로 지은 집은 천장이 편평해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지붕 위를 걸어도 된다. 2층으로 집을 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때 1층은 가축을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한다. 이족은 보통 3개의 방을 둔다. 3개 방 중에서 중앙은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한다. 집의 내부 장식은 매우 단순하며 가구 등도 거의 없고 3개의 돌로 둘러싸서 만든 화로인 과장(鍋莊)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장은 손님을 맞는 곳, 가족이 식사를 하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므로 그 가정에 있어서 신성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화로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며, 화로에 발을 올리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것은 모욕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문과 처마를 장식해 놓기도 하는데, 태양·달·새·동물 등을 조각해 놓는다.

### 원시성을 기반으로한 종교생활

신목(神木)을 숭배하는 신수 신앙 등 애니미즘에 토대한 자연숭배와 조상 숭배가 이족들의 종교의 중심이다. 이족은 어디나 신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중 가장 숭상하는 것은 산신이다. 이는 목축·농업 등 그들의 생활공간이 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수 신앙은 주로 '걸러' 라고 부르는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태초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이족의 조상이 되는 남매가 나무상자를 타고 표류하다가 이 나무가 이들이 물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 목숨을 건지게 되자 이 나무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





▲ 량산 이족 사회 비모의 모습.

들 남매가 조상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설화에서 유래한다.

이족의 무당 신분은 '비모'와 강신무(降神巫),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비모의 '비'는 책을 읽는다는 뜻이고 '모'는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말이다. 비모는 남자만 될 수 있는 세습직으로 이들은 종교의식을 주최할 뿐 아니라 여러 지식을 습득한 지식인 계층이며 귀족층이다. 오늘날의 운남성에는 '비모연구소'란 것이 있어 비모에 대한 연구와 이족문자의 연구, 이족 경서의 편찬 작업을 하고 있다. 운남에서는 강신무인 남자를 '스파'라고 하고 여자를 '스

마'라고 한다. 량산의 이족사회는 강신무를 '수니'라고 부르는데 남자수니는 '빠네', 여자수니는 '모네'라고 부른다. 강신무는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더 많다. 보통 나쁜 일이 있으면 먼저 강신무에게 물어봐서 그 원인을 찾은 후에 비모의 굿을 받는다. 비모가 없어도 강신무는 굿을 할 수 있지만 강신무가 없으면 비모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굿을 할 수가 없다.<sup>2)</sup>

토테미즘의 모습도 보이는데, 자신들의 조상이 동물 혹은 식물이라고 생각하여 호랑이·매·용·표주박·소나무·대나무 등을 섬기는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어 운남성 초웅(楚雄)의 이족은 호랑이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보고 제사를 지낸다. 각 집안의 족보를 보면 1대 조상의 이름들이 대부분 동물이나 식물, 혹은 자연현상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2대부터 그 집안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이족들은 특히 호랑이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아 '후(虎)'라는 말이 포함된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으며,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산·호수·마을 이름에 '후'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뤄뤄(羅羅)'라고 하는 예전 이족의 명칭 중 하나에도 '호랑이'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한다.

조상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은 모두 영혼이 깃들었다고 보며 귀중하게 다룬다. 그 물건들을 '지뤄(吉羅)'라고 부르는데 이는 '복'이라는 뜻이다. 또한 각 가정 조상의 지뤄와는 별개로 부락마다 상징적인 지뤄를 두는데 낚은 보습, 한 쌍의 기러기, 돈 무늬가 있는 뱀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불교는 당나라 초기에 본격적으로 이족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조국과 대리국도 불교를 신봉하여 절이 많았고 청나라 시대에는 400개가 넘는 절이 있을 정도였으나 중국 공산화 이후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도교도 한족의 영향으로 이족 사회에 들어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도교의 행사는 보기 드물고 불교와 더불어 이족의 민간신앙 속에 흡수되어 그 영향력을 유지할 뿐이다.

19세기 말에 들어오기 시작한 기독교도 어느 정도 전파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이족 중 기독교인은 1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특히 초웅(楚雄) 이족 자치주의 초웅(楚雄), 무정(武定), 록풍(禄豊), 원모(元謀) 등의 현에 기독교인이 많아 2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홍하(紅河) 하니족이족 자치주의 개구(个旧), 몽자(蒙自)현 등에도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다. 1988년 중국 정부에 의해 이족을 위한 신약성경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 부계 중심의 가족제

이족은 성인식이 따로 없으며, 결혼식이 곧 성인식의 역할도 하였다. 이족의 남녀는 축제 기간 등에 노래와 춤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1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진 후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한다. 운남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처녀를 등쳐 업고 와서 신부로 삼는 풍습이 있다. 이때는 이미 결혼을 약속

2) 김선풍·김인희·타오리판 공저, 「한국민속과 중국 서남민족의 민속비교」, (박이정, 2003), p.133.

한 집안끼리 서로 짜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랑 측의 가족이 약혼 이전에 신부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처녀를 잡아오는데, 처녀는 울며 도움을 청하고 신부의 가족들은 남치자를 쫓는 시늉만 한다. 또는 신랑 측의 사람들이 신부를 납치하려고 할 때 신부 측의 가족들이 이들에게 물이나 재를 뿌리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이들을 공격하는 척 하기도 한다. 이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술과 고기로 납치자들을 대접하고 신부를 말 등에 태워 데려가게 한다.



▲ 운남성에서 본 이족의 결혼식. 한족과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사자춤 등 한족의 결혼풍습이 들어 있다.

이족의 결혼식은 보통 3일 동안 한다. 결혼 첫날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친구들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신랑은 친구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한다. 둘째 날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때는 보통 말 6필을 준비해서 북과 쟁기를 두드리며 신부 집으로 가서 먼저 여자 집의 조상에게 인사를 올리고 예물을 신부 측에게 보여준다. 그 후 신부 부모가 신랑의 오른 손에 빨간 끈을 매어준다. 셋째 날에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는 연회를 가지는데, 이 날에야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동침할 수 있게 된다.

운남성 여행 중 운쑹계 이족의 결혼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족의 결혼식이라는 가이드의 말과는 달리 그들의 결혼 모습은 사자춤, 중국식 복장을 한 여인들의 축복 등 한족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가이드는 오늘날 이족이 한족 등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결혼식 역시 아마 한족과 이족 사이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한족의 결혼 풍습의 모습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족이 한족과 결혼한다면, 그들의 자녀는 한족일까 이족일까?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이족과 한족의 통혼은 차츰 그들을 동화시켜 결국 하나의 민족성을 가지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족 남성은 양친의 형제자매의 아이 중의 이성(異姓)을 가진 여성, 즉 외사촌 누이를 아내 후보로 맞는 관습이 있다. 이를 '교차 사촌혼(交叉四寸婚)'이라고 한다. 부계중심 사회이므로 모계 친척은 일가가 아닌 타인으로 인식되는데다가, '우리 집에서 딸을 쫓으니 너희 집에서도 딸을 하나 쫓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아버지와 동성(同姓)의 형제자매 사이의 평행 사촌혼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이런 교차 사촌혼이 모계사회의 잔재라는 시각도 있다.

가이드가 자신이 도시에서 만난 젊은 이족 여성들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반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니 그게 싫어 억지로라도 도시에 남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이족 여성들의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에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가족과 친척이 집안의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 있는 이족의 관습도 차츰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량산 지역의 이족 사회는 가부장적·일부일처제 사회이다. 남자가 결혼할 때면 그는 부모의 재산의 일부를 받으면서 독립한다. 막내아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데, 그가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첩을 둘 수도 있는데 첩의 자식은 유산 상속에 있어 차별을 받아 부모의 재산은 본처의 자식에게만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족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일부를 아들의 이름에 사용하는 부자연명제(父子連名制)가 있다. 아버지의 이름에서 마지막 음절 하나 혹은 둘을 아들의 이름에 덧붙이게 되는데, 이로써 그 집안의 가계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여자는 재산 상속권이 없는 종속적인 위치이나 모계사회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삼촌이 이족 사회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를 들 수 있는데, 외삼촌은 조카, 특히 조카딸의 혼인에 있어 커다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족은 죽은 사람은 영혼이 3개 있다고 믿는다. 죽은 후에 영혼 하나는 무덤이나 화장터에 남고, 하나는 조상들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하나는 집안에 남는다고 생각한다. 조상의 영혼이 후손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면 조상이 흡족해져서 살아 있는 그의 후손들을 보호해주고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이족들은 믿는다. 영혼 중 하나가 가는 '영혼의 나라'는 그들의 선조들이 대대로 함께 모여 사는 낙원으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불멸의 세계이며 언젠가는 자신도 가서 행복을 누릴 곳으로 생각한다.

조상의 덕을 보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족은 장례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량산 지역의 이족은 화장이 전통으로 산에서 시신을 태운 후 그 재를 땅 속이나 동굴에 모셨다. 다만,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이나 이도 안 난 상태에서 죽은 아이는 토장을 하였다. 장례의식을 반드시 비모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초혼의식은 반드시 그가 주관한다. 타다 남은 뼈는 흰색 천에 싸서 대나무 숲에 뿌린다. 화장은 산상에서 태우고 비정상적으로 죽은 이는 산골짜기에서 태운다. 고인의 신주 격으로, 대나무 줄기를 하얀 양모로 묶은 후 붉은 실을 달고 막내아들의 집에서 보관하는데, 3년 후에 이 기념물을 불태우거나 이런 조상의 기념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동굴에 모시게 된다.

운남의 이족은 명과 청, 특히 청나라 시대 때 중앙정부의 강요로 토장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상여가 나갈 때 고인의 옷을 태우는 형태로 화장의 모습이 남아 있다. 예전에는 화장을 한 후 남은 뼈를 나무상자에 담아 바위틈에 모셨는데 오늘날에는 집안에 고인의 옷 조각을 모시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 옷 조각을 대나무조각이나 잎이 달린 나뭇가지와 함께 모시는데 평소에 항상 술을 부어 놓아 조상을 기린다. 운남의 이족은 장례식 때 원숭이·호랑이 등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추어 모두를 즐겁게 하여 위로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피리를 불고 뚱뚱하고 건강한 어른이 나팔을 불면서 흥을 돋운다.

### 머리를 만져서는 안된다

이족은 머리를 만지는 것을 가장 금하고 있는데, 특히 정수리의 머리카락에는 영혼이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남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신도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기른다.<sup>3)</sup> 만일 이 머리카락을 만지면 최대의 모욕으로 여기므로 반드시 사과해야 하며, 가축을 잡아 대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분이 그 이족보다 낮은 자가 만졌다면 손을 잘리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각오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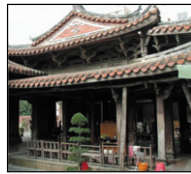


▲ 플피리를 부는 이족여성들과 썬시엔을 연주하는 이족 남성 ▲ 이족의 복을 든 노인

한다. 또한 이족은 손님이 오면 술로 대접하는 것을 예의로 여기는데 만약 손님이 주인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주인을 무시한다고 여기므로 억지로라도 마셔야 한다. 이족, 특히 양산의 이족들은 사진을 찍는 것을 기피하는데, 이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외 미신

3) 김선풍·김인희·타오리판 공저, (박이정, 2003), p 163.





**신목(神木)을 숭배하는 신수 신앙 등 애니미즘에 토대한 자연숭배와 조상 숭배가 이족들의 종교의 중심이다. 이 족은 어디나 신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 중 가장 숭상하는 것은 산신이다.**

에 가까운 터부가 여럿 있는데 발로 부뚜막을 밟거나 가로타는 것은 불길하고 집주인을 멸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까마귀나 부엉이를 불길하게 여기고 죽은 개를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꺼린다. 운남의 이족들 역시 머리카락에 대한 터부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필자가 감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진 찍히는 것에 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관광지에서 만난 이족의 경우는 사진을 찍히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어, 그들의 터부 양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다채로운 민족문화 개발 전승



▲ 이족의 전통악기 에르후(二胡)와 싰시엔(三弦).

‘창세기(創世記)’, ‘대홍수 이야기(洪水泛濫史)’, ‘인간의 기원(人類的起源)’ 등은 고대 이족 언어로 쓰인 작품으로 이족의 창세신화를 담고 있다. 이족은 이런 작품들뿐 아니라 철학·전쟁·예술·종교 등에 대한 기록을 종이나 비단, 양가죽, 염소가죽, 소가죽에 붓이나 대나무 조각을 이용해 썼으며, 대나무나 동물의 뼈에 칼로 새겨서 남기기도 했다. 대부분 손으로 썼고 인쇄기술은 발달하지 않았다.

‘아시마(阿詩瑪)’, ‘엄마의 딸(媽媽的女兒)’, ‘나의 어린 사촌누이(我的表妹)’, ‘달콤한 꿀이 있는 곳으로의 도망(逃到甜蜜的地方)’ 등의 장편 서사시도 널리 읽히는 작품들이다. 특히 ‘아시마’는 십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읽히고 있다. 이 외에도 이족은 고대 이족의 문자와 한문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문답형식으로 자연관을 서술한 ‘우주인문론(宇宙人文論)’, 운남성의 장편 서사시인 ‘아씨인의 노래(阿細人的歌)’, 이족의 삶을 다룬 문학인 ‘매이거(梅葛)’ 등이 대표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이족의 작품들 중 구전으로 전승되는 것, 고대 이족 언어로 기록된 것을 한문으로 번역해 옮겨지는 보존 작업이 시작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족의 악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축제에 흥을 돋우는데 쓰인다. 대표적인 악기로는 보름달 모양의 상자에 네 개의 줄이 달려 있는 예킨(月琴), 3개의 줄이 달린 싰시엔(三弦)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2개의 줄이 달린 활 모양의 현악기로 그 끝부분은 뱀가죽으로 만든 작은 북이 부착된 악기인 ‘에르후(二胡)’, 4-7개의 대나무로 만든 ‘루성(蘆笙)’, 대나무피리, 동고(銅鼓), 나뭇잎으로 만들어 부는 풀피리 등의 악기를 사용해 흥을 돋운다. 악기라고 하기



▲ 운남 록춘(綠春)현 이족의 신고(神鼓)를 각색한 공연의 한 장면.

엔 조잡하지만 담배상자 같은 것도 두드리면서 반주를 하는 악기가 된다.

이족의 춤은 악기의 반주로 이뤄지는데 북, 담배상자, 삼현, 월금, 대나무피리 등이 춤의 반주에 자주 이용된다. 이족의 춤 중에서, 아시(Axi) 부족의 월광(月光) 춤, 북소리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운남 록춘(綠春)현 이족의 신고(神鼓), 동물의 동작을 모방한 '떠우양(斗羊)', '후무(虎舞)', 전쟁을 표현한 '따우우(刀舞)' 등이 유명하다.

여행 둘째 밤에 감상했던 운남성 소수민족의 전통무용 공연은 비록 그들 본연의 모습이 아닌 예술적 각색이 섞인 모습이 다소 아쉬웠지만 색다르고도 풍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이 공연의 입장료는 250위안(우리 돈으로 약 3만원) 정도로 중국에서 쓴 금액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였으나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야성적인 미를 강조하는 신고(神鼓), 여성미를 강조하는 월광(月光), 타이족 여성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추는 공작춤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 공연을 보면서 왜 중국이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존하는데 그토록 열심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문화의 다양성은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며, 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은 그 소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족에게는 고대에도 달력이 있었는데, 이 달력은 1년을 10달로 나누고 각 1달이 36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10달은 오행과 음양으로 나누어 각각 명칭이 주어졌는데, 한족과는 달리 금(金) 대신 동(銅)이나 철(鐵)이 오행의 일부로 들어갔다고 한다. 후에 한족의 음력달력의 영향을 받아 이것이 변화되어 1년은 12달로 되었고, 12간지 동물로 년도월일을 세계 되었다.

이족의 신년 축제는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음력 11월과 12월 사이에 거행되는데 이때 소와 양, 돼지 등을 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 오늘날의 운남과 귀주의 이족은 한족의 영향으로 한족의 춘절을 기념하지만 량산의 이족은 단오나 추석 같은 명절이 없으며 한족의 명절인 춘절을 기념하지도 않는다.

음력 6월 24일에 하는 햇불절은 이족의 보편적인 축제이다. 그 유래에 대한 전설은 지역마다 다른데, 마을 사람들이 햇불을 들고 모여 하늘이 내린 대재앙인 메뚜기 떼를 쫓아낸 것을 기리기 위해 한다고 하는 곳도 있고, 과거 폭군이 노예주를 치치하기 위해 이족들이 집단 봉기하면서 첩통같은 노예주의 요새를 햇불을 던져 무너뜨렸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축제날에 이족들은 집집마다 햇불을 들고 나와 주거지와 농지 주변을 돈 후 논두렁에 햇불을 던지며 해충이 곡식에 안 들기를 기원한다. 이 후에는 큰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악기를 연주하며 밤새워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풍작을 기원한다. 지역에 따라 말달리기, 소싸움, 활쏘기, 씨름 등을 하는 곳도 있다. 필자의 여행지인 석림 지역의 이족 중에는 씨름 대회에서 우승한 장사에게 아가씨들 중 한 명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상으로 주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음력 2월 8일이 되면 이족은 대문과 집안 곳곳을 꽃으로 장식한다. 논두렁과 가축의 뿔에도 꽃을



▲ 운남성 이족의 햇불축제의 모습

걸어 장식한다. 화려한 민족복장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등에는 술과 먹을 것을 메고 넓은 들판에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춘다. 젊은 남녀 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꽃을 꽂아 주어 애정을 표현한다. 꽃이 필 무렵에 하는 이 행사는 꽃이 화사하게 잘 피는 것처럼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전설도 있다. 한 청년이 이리의 습격을 받은 처녀를 구해줬는데, 처녀가 감사의 뜻으로 진달래꽃을 꽂아주자 청년 역시 답례로 그녀의 머리에 꽃을 꽂아 주었다. 이후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지방의 포악한 관리가 아



름다운 처녀들을 강제로 모아서 자신의 하렘을 만들자 그 이족 처녀는 이에 분노하여 독이 있는 꽃을 꺾어 자기 머리에 꽂고 그 하렘에 들어가 몰래 그 관리의 술잔에 독이 있는 꽃을 넣는다.

그래서 악덕 관리는 죽었지만 그 처녀도 죽임을 당한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이 죽은 처녀의 시신을 안고 슬퍼했는데, 그가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이 처녀와 청년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런 꽃 축제가 만들어졌다는 전설이다.

운남성의 싸니(撒尼) 이족에게는 '미즈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시기는 마을마다 차이가 크다. 대체로 그 기원은 과거에 산림에서 수렵을 하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곳도 있고 1주일 동안 진행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남자들끼리만 숲으로 가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밥을 해 먹는다. 이때 서로 육을 계속 주고받는데, 미즈절 기간에는 아무리 심한 육을 해도 문제 삼지 않으며 어른에게도 육을 할 수 있다. 단, 말로 욕할 뿐이지 때릴 수는 없다. 이럼으로써 마을 구성원끼리 평소 쌓인 감정을 모두 풀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남자들끼리 모여 성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젊은 세대에 성교육을 하는 역할도 한다. 운남의 이족은 남녀 내외가 심하여 아버지라도 딸에게 성적 농담은 물론 남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데, 이 기간에는 남자들만이 모이므로 성적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족은 씨름을 즐기는 민족으로 유명하며 다른 민족의 사람과도 씨름하는 것을 좋아한다. 마을에 풍년이 들면 씨름 대회를 개최하는데, 씨름 대회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규모로 개최하는가가 그 마을의 부유함의 척도가 될 정도이다. 예전에는 씨름대회 한 달 전에 나무 막대기에 붉은 천을 단 것발을 달고 다니면서 씨름대회가 있는 것을 알렸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홍보하는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씨름은 보통 오후에 시작하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운남 이족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보다는 레슬링과 비슷하여 상대의 두 어깨를 모두 땅에 붙이면 이기는 것이다. 사천 이족의 씨름은 운남의 것과 다소 달라, 허리를 잡고 하는 씨름으로 우리의 씨름과 다소 유사하다고 한다. 운남성에서는 지역에 따라, 마을에서 주최하는 씨름 대회에서 일부러 외지인이 우승하게 만들어, 그 외지인에게 상금을 주면서 상금과 함께 마을의 재액이 그 우승자와 함께 마을을 멀리 떠나도록 한다고 한다. 씨름이 운동경기 뿐 아니라 일종의 액땜 의식의 기능도 하는 것이다.

### 량산(凉山) 이족의 노예제 계급사회

필자의 여행지는 아니지만 서천성과 운남성의 량산 지역의 이족 사회는 1950년대까지 노예제 사회를 유지해온 독특한 때문에 사회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들의 노예제 사회의 특성은 어떠한지 정리해 보았다. 운남·귀주·광서의 이족 사회는 노예제에서 벗어나 봉건제의 지주사회로 발전하였으며 청 말기에는 운남과 베트남을 잇는 철도 등 교통의 발달로 자본주의적 요소도 발달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지리적으로 고립된 사천성 량산(凉山) 지역과 운남성 소량산(小凉山) 지역의 이족 사회에서는 노예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운남·귀주·광서의 이족들은 농업,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면서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여 그 수준이 한족의 지역 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지만 산악지역의 이족 사회의 생산력은 무척 낮은 수준이었다.

사천성 량산지역과 운남성 소량산 지역의 이족사회는 '흑이(黑彝)'라고 불리는 노예주 계급이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며 나머지 계급 위에 군림하였다. 지주인 노예주 계급의 토지는 빈농이 가진 토지보다 10배 이상이었고 빈농은 이들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작료는 수확량의 60~70%가 보통이었다. 이런 노예제는 서천과 운남의 소량산 지역의 낮은 생산 수준의 원인이 되었다. 량산에서도

농업이 주된 생업이었으나 농업 기술의 미발달로 화전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고 관개시설은 열악했으며 토지도 매우 척박하여 노예제 철폐 이전에는 곡식 생산량은 1헥타르의 농지에서 1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목축업에서는 양이 주된 가축이었는데 이도 그다지 번창하진 못하고 있었다. 또한 상업도 발전하지 못해 물물교환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나마도 물물교환의 주된 상품은 가축과 곡식 정도였고 소금·옷·바늘 등의 일용품은 한족과 이족이 같이 사는 지역까지 나가야 구할 수 있었다. 한족 상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일도 있었지만 상품을 강탈당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잡혀 이 지역의 노예로 되는 등 위험이 매우 높았다. 위험도가 높아 상품의 유입이 적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매우 높아서 바늘 한 개가 닭 한 마리와 바뀌지거나 소금 한 줌에 양 가축 하나가 거래되는 일도 흔한 일이었다.

공산화 이전 랑산 지역의 이족 사회는 크게 4계급으로 나누어졌다. '뉘(諾, 혹은 뉘쑤, 諾蘇)', '취뉘(曲諾)', '아자(阿加)', '샤시(哱西)'가 그것이었는데, 이들의 계급은 혈연으로 결정되는 영구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지배계급인 뉘로의 상승 이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뉘'는 '흑이(黑彝)'를 의미하는데, 노예주 계급으로 이 지역 인구의 5~10%에 불과했는데도 전체 농지의 60~70%를 차지하였으며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육체노동을 경멸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도한 소작료를 매기는 등 다른 계급을 착취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또한 노예의 혼인은 이들 노예주가 결정하였다. 노예주는 더 많은 노예를 얻기 위해 노예에게 원치 않는 혼인을 강요하였다.

'취뉘'는 '백이(白彝)'라고 불리는 피지배계급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었고 인구의 50%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집과 가정을 소유할 권리와 농경지와 농기구의 소유권을 가지는 등 비교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아자와 샤시를 노예로 부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흑이 노예주 계급이 지배하는 지역에 함께 거주하였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는 없었고 노예주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재산권도 완전하지 못해 노예주에 의해 제한 당했다. 예를 들어,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때조차 노예주에게 돈을 바쳐야만 했다. 흑이 노예주는 마음대로 이들 취뉘를 죽이거나 사고팔 수는 없었으나, 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흑이 간에 서로 양도하거나 선물로 주거나 살인 등에 대한 벌금 대신으로 줄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계급은 노예는 아니지만 자유는 없는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아자'는 인구의 30%가 조금 넘었는데 흑이나 취뉘에게 소유되어 사고 팔리거나 그들의 기분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샤시'와는 달리 가내 노예가 아니었으며 노예주의 관내에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었다. '샤시'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인구의 10% 정도였다. 재산권이나 자유는 전혀 없었고 도구나 가축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주인집에서 거주하였는데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였으며 옷은 너털너털한 양가죽을 걸쳤고 풀뿌리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였다. 노예주가 반항적인 샤시에게 쇠사슬이나 나무로 만든 차꼬를 채워 도망 못 가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자와 샤시 계급에는 백이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과 사로잡은 한족 등 이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많이 섞여 있었다. 이들 백이 계급은 흑이 계급으로의 계급이동은 할 수 없었으나 취뉘·아자·샤시 간에는 자유를 사거나 파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계급 간 이동이 가능했다.

노예주 계급은 취뉘와 아자에게 자신의 농지의 농사일을 돕도록 동원할 권리가 있었다. 이때 취뉘와 아자는 노예주의 가축과 도구를 쓸 수 없었고 반드시 자신의 가축과 도구를 가져와서 해야 했다. 취뉘는 자신 대신 자신의 노예를 보내어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다. 취뉘에게 있어 이런 부역은 1년에 5~6번, 심하면 10번 이상도 시행되었다. 특히 아자에게는 이런 부역일이 1년 중 노동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심하여 자신의 농지의 농사일을 제대로 못 돌보는 경우도 많았다. 부역을 많이 한다



**서천성과 운남성의 량산 지역 이족사회는 1950년대까지 노예제 사회를 유지해 온 독특함 때문에 사회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고 해서 소작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사회였으므로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농업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백이 계급은 태업을 하거나 노예주 계급의 재산을 알게 모르게 파괴하는 일을 일삼았다. 심

하면 노예주의 집을 불태우거나 자신도 죽을 각오로 노예주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백이들의 저항은 집단적인 무장봉기로까지도 발전하기도 하였다.

흑이 계급은 대략 7만 명으로 씨족의 수는 100개 정도가 있었는데, 남자가 1천명 이상이 되는 씨족은 10개가 채 안 되었다. 각 씨족의 영지는 산맥, 강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그 경계는 엄격히 준수되었다. 씨족에는 공식적인 행정조직은 없었지만 족장이 흑이 노예주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족장이라고 해서 보통의 씨족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세습제도 아니었다. 반목을 중재하거나 반항적인 노예를 처벌하거나 하는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족장들의 회의나 씨족 사람들의 총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노예계급이 반란을 일으키면, 흑이의 씨족은 집단행동으로 대응했고, 경우에 따라 여러 씨족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노예계급의 이족은 이들 씨족의 강한 통제를 받아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흑이 집단은 더 많은 노예와 농지를 위해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취급과 일부 능력 있는 아자 계급 사이에 성립된 백이 씨족 집단들은 흑이의 씨족 집단과 유사하면서도, 백이 씨족의 독립적인 지역을 형성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흑이 집단에 예속된 씨족 집단이었다. 이들은 때로는 흑이 집단에 대항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투쟁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흑이 집단에 예속된 집단으로서 노예계급을 억누르는 도구로 활용되는 보조적인 집단에 불과하였다. 이들 백이집단의 우두머리는 소작료를 모으는 등 흑이 집단의 대리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량산의 이족 사회에서 성문법은 없었지만 흑이 집단의 사람을 공격하거나 재산을 가로채거나 계급 내의 결혼 체제를 위반하거나 흑이의 특권을 무시한 사람을 범죄자로 여기고 엄히 처벌하는 관습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량산 지역 이족 사회의 노예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 정부가 이의 폐지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노예제가 철폐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흑이와 백이 출신 간의 결혼식은 집안의 반대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중흥을 위해 꿈틀대는 이족사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게 큰 변화를 주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이라는 잠재력을 가진 이 지역의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1952~1980년 사이에 서천성에 량산(涼山) 이족 자치주, 운남성의 초웅(楚雄) 이족 자치주, 홍하(紅河) 하니족이족 자치주가 설치되었으며, 이족과 이족 및 다른 소수민족을 위한 자치현들이 설치되었다. 1956년에는 중국 정부의 결정으로 운남성과 사천성의 이족들 사이에 유지되던 노예제의 폐지가 시작되어 1958년에는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노예주들의 재산은 압류되어 노예들과 빈민들에게 분배되었다. 대략 69만 정도의 이족 노예가 해방되었다. 정부는 또한 이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해방된 노예와 빈민에게



▲ 석림 이족 자치현에 있는 석림(石林). 관광산업 개발로 이족들의 수입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석림 입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이족 아주머니들.

농기구·곡식·옷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주택 건설을 원조하였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이족들은 현재의 중국 정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이족이 전국 평균에 비해 소득수준도 교육수준도 낮지만, 중국정부가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족과는 달리 2명의 자녀를 가지게 허락해 주는 등 특혜를 베푸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이드는 말했다.

노예제도 철폐는 지역에 활기를 주어 량산 일대의 농업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외 운남성의 초웅 이족 자치주에서는 삼·담배·목화·땅콩 등 환금작물의 생산이 증가되었다. 홍하 이족 자치주 같은 곳에서는 저수지 건설 사업을 시작하여 농업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이족의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다. 사천성과 운남성을 흐르는 금사강(金沙江)은 수량이 매우 풍부하며 이족의 지역에는 석탄·철 등이 풍부하다. 귀주성은 주석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대량산과 소량산 지역과 귀주성 서부, 운남성의 동부와 남부 등 여러 이족 거주 지역은 금·은·보크사이트·망간·안티몬·아연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이족의 지역에는 잣나무·가문비나무 등 경제성 높은 목재도 풍부하다. 잘 발달한 삼림은 야생동물과 식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족의 지역의 광공업은 귀주성의 주석 광산과 수공업과 석공예, 목공업 정도였는데 오늘날의 량산·초웅·홍하 이족 자치주 지역은 농기계·비료·시멘트 공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구리·철·석탄 채굴도 활발해 지고 있다. 풍부한 금사강의 수량을 이용한 수력발전도 소규모이지만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과 축산업 위주였던 이족의 산업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족 사회에서 상업의 발달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차츰 자신들의 수공업품 등의 상품을 가지고 곤명(昆明) 등의 대도시나 석림(石林) 등의 관광지로 가지고 나와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관광지에서 여러 물건을 파는 이족의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그들의 “한국 돈 천원, 한국 돈 천원”이란 한국말에는 오히려 신물이 날 지경일 정도로 그들은 장사에 열심이었다. 안사겠다고 해도 버스에까지 쫓아와서 강매 공세를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말이 이미 남아버린 정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이 지역의 교통을 발전시키려는 사업이 많이 전개되었다. 1952년에는 서천성과 운남성 서부를 잇는 고속도로가 뚫렸다. 1957년에는 대량산·소량산 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가 역사상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1961년에는 량산 자치주의 거의 전역에 도로가 개통되었다. 또한 성도와 곤명 사이에 337km 길이의 철도도 개통되었다. 그러나 이족들에게 교통수단이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나귀나 말을 타고 가거나 이들에게 땀감 등을 싣고 가는 이족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운남성이다 보니 구석구석까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이족 촌락에는 대부분 초등학교가 개설되었고 1950년대 후반에는 중학교도 개설되기 시작하여 해방된 노예나 빈민의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미미한 편이어서, 1982년 자료에 따르면 6세 이상의 이족 어린이 중 27%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에 불과했다. 그나마 교사들이 받은 교육기간은 몇 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고, 교사 과정 교육을 받은 교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초등학교 진학률이 50%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중등학교로의 진학률은 1982년에 2%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등학교가 주로 도시에 있어 이족들의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교육비용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등학교로의 진학이 드물었다. 오늘날에도 이족의 중등학교 진학률은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교로의 진학률 역시 매우 낮아, 1982년에는 이족 총인구 5백만 중 단지 3,157명만 대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조사되었다.<sup>4)</sup> 이족에게도 다른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등 고등 교육에 할당제의 혜택이 주어졌었지만 이족의 교육수준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고 한다.

전기시설도 많이 확충되었다.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구석진 시골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온다고 한다. 이족의 마을에도 대부분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급되는 전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어서, 방 하나에 전구 하나를 켤 정도의 전기밖에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많다. 전기로 요리를 하거나 난방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연료도 아직 나무에 의존하고 있어 장작을 모아서 패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석탄이나 석유는 그다지 보편적이지 못하다.

#### 〈참고도서〉

- 다바타히사오(田畑久夫) 외 저, 원정식·이연주 역, “중국소수민족 입문”, (현학사, 2006)
- 김선풍·김인희·타오리판 공저, “한국민속과 중국 서남민족의 민속비교”, (박이정, 2003)
- 권태효, “중국 운남 소수민족의 제의와 신화”, (민속원, 2004)

#### 〈참고사이트〉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Yunnan#Ethnicity>
- 차이나 게이트 <http://www.chinagate.com.cn/english/1007.htm>
- 이족 선교 사이트 <http://yi.peoples.org/>
- 이족인 사이트 <http://www.yizuren.com/gaikuang.asp>
- 이족 악기 참조 <http://www.conncoll.edu/events/yunnan/instrument.html>





**개괄**

운남성(雲南省)은 중국 서남 내륙지역의 운귀고원(雲貴高原)에 위치한 성이다. 동쪽으로 광서 좡족자치구와 귀주성이 있고 북쪽으로는 사천성과 서장 자치구, 서쪽과 남쪽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운남성의 인구는 약 4천만 명 정도인데, 그중 소수민족들이 1천 4백만이 넘는 정도로 소수민족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sup>1)</sup> 중국에는 한족을 제외하면 55개의 공식적인 소수민족이 있는데, 운남성에 51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이중 15개 민족은 운남성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은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것으로, 각 소수민족의 하부 민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집단들도 독자적인 민족으로 봐야할 만큼 개성이 강한 경우도 많고, 하부 민족끼리의 이질성이 매우 심한 경우도 많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나시족의 일파로 분류되면서도 그들과 다른 모계중심사회를 가지고 있는 모수(摩梭)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는 하부민족 간에 언어가 매우 다른 민족들인 야오족·티베트족·먀오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 개 성에서 5천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성에서는 공식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운남성에서 가이드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은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운남성에서는 공식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운남성의 소수민족 현황**

운남성에서는 5천명 이상의 인구를 가져 공식적인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소수민족이 25개 있다.

1) 권태효, 「중국 운남 소수민족의 제의와 신화」, (민속원, 2004), p 12.

〈표 1〉 운남성 소수민족과 인구수

민족(한문, 영어식 발음)	2000년 운남성 소수민족 구성비 (성내 인구 5천 이상 민족만 고려)	2000년 운남성 내 인구	2000년 중국 내 인구
이족(彝, Yi)	32.61%	470만 5,658	776만 2,272
바이족(白, Bai)	10.43%	150만 5,644	185만 8,063
좡족(壯, Zhuang)	10.01%	144만 4,021	1,617만 8,811
하니족(哈尼, Hani)	9.87%	142만 4,990	143만 9,673
타이족(傣, Dai)	7.91%	114만 2,139	115만 8,989
먀오족(苗, Maio)	7.23%	104만 3,535	894만 116
회족(回, Hui)	4.46%	64만 3,238	981만 6,805
리수족(傈僳, Lisu)	4.23%	60만 9,768	63만 4,912
라후족(拉祜, Lahu)	3.10%	44만 7,631	45만 3,705
와족(佤, Va)	2.65%	38만 3,023	39만 6,610
나시족(納西, Naxi)	2.05%	29만 5,464	30만 8,839
야오족(瑤, Yao)	1.32%	19만 610	263만 7421
징포족(景頗, Jingpo)	0.90%	13만 212	13만 2,143
티베트족(혹은 장족, 藏, Tibetan)	0.89%	12만 8,432	541만 6,021
부랑족(布朗, Blang)	0.63%	9만 388	9만 1,882
부이족(布依, Bouyei)	0.38%	5만 4,695	297만 1,460
아창족(阿昌, Achang)	0.23%	3만 3,519	3만 3,936
푸미족(普米, Pumi)	0.23%	3만 2,923	3만 3,600
누족(怒, Nu)	0.19%	2만 7,738	2만 8,759
몽골족(蒙古, Mongolian)	0.19%	2만 8,110	581만 3,947
지노족(基諾, Jino)	0.14%	2만 685	2만 899
더양족(德昂, De ang)	0.12%	1만 7,804	1만 7,935
수이족(水, Shui)	0.09%	1만 2,533	40만 6,902
만주족(滿, Manchu)	0.08%	1만 2,187	1,068만 2,262
두룽족(獨龍, Derung)	0.04%	5,884	7,426
총합	100.00%	1,443	7,724만 3,388

출처: 운남성 인민 정부 홈페이지. <http://www.mw.yn.gov.cn/InfoList.aspx?classid=20> (검색일: 2007년 1월 11일).

그 명칭과 수는 위와 같다.

이족(彝), 바이족(白), 좡족(壯), 하니족(哈尼), 타이족(傣), 먀오족(苗), 회족(回), 리수족(傈僳), 라후족(拉祜), 와족(佤), 나시족(納西), 야오족(瑤), 징포족(景頗), 티베트족(藏), 부랑족(布朗), 부이족(布依), 아창족(阿昌), 푸미족(普米), 누족(怒), 몽골족(蒙古), 지노족(基諾), 더양족(德昂), 수이족(水), 만주족(滿), 두룽족(獨龍)의 25개 민족이 운남성의 공식적인 소수민족들이다. 이 중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이족으로 470만 5,658명이 운남성에 살고 있으며 가장 숫자가 적은 두룽족은 5,884명이 운남성에 거주하고 있다.(2000년 인구조사 기준) 이들의 민족 명칭은 중국 정부가 각 민족의 자칭을 존중해주거나 모욕적인 의미가 없으면 기존의 중국인들이 부르던 명칭을 공식적인 것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기존의 국제적 명칭과 다른 경우도 있다. 징포족(景頗)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미얀마에서는 카친족이라고 불려 국제적으로는 '카친족'이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이다. 하니족 역시 미얀마나 타이북부에서는 '아카족'이라고 불린다.

이들이 모여 사는 정도와 그 인구 비중에 따라 자치주 또는 자치현을 만들어 이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있는데, 더양족·수이족처럼 수가 적거나 몽골족·만주족처럼 집단거주하지 않고 분산되어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아 한 개 주나 현에 일정 인구 이상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주나 자치현을 만들지 못한다.

〈표 2〉 운남성 소수민족들의 자치주·자치현 현황

이족	초웅(楚雄)이족자치주 홍하(紅河)하니족이족자치주 곤명(昆明)시 룽궈(祿勳)이족마오족자치현 석림(石林)이족자치현 곡정(曲靖)지구 심전(尋甸)회족이족자치현 옥계(玉溪)지구 원강(元江)하니족이족타이족자치현 신평(新平)이족타이족자치현 아산(峨山)이족자치현 사모(思茅)지구 진원(鎮沅)이족하니족라후족자치현 푸이(普洱)하니족이족자치현 경동(景東)이족자치현 경곡(景谷)타이족이족자치현 강성(江城)하니족이족자치현 려강(麗江)지구 념량(寧蒗)이족자치현 대리(大理)지구 양비(漾濞)이족자치현 위산(巍山)이족회족자치현 남간(南澗)이족자치현
바이족	대리(大理)바이족자치주 노강(怒江)지구 란평(蘭坪)바이족푸미족자치현
좡족	문산(文山)좡족마오족자치주
하니족	홍하(紅河)하니족이족자치주 옥계(玉溪)지구 원강(元江)하니족이족타이족자치현 사모(思茅)지구 진원(鎮沅)이족하니족라후족자치현 푸이(普洱)하니족이족자치현 묵강(墨江)하니족자치현(구련진) 강성(江城)하니족이족자치현
타이족	시수양반나(西樞版納)타이족자치주 덕굉(德宏)타이족징포족자치주 옥계(玉溪)지구 원강(元江)하니족이족타이족자치현 신평(新平)이족타이족자치현 사모(思茅)지구 경곡(景谷)타이족이족자치현 맹련(孟連)타이족라후족자치현 림창(臨滄)지구 쌍강(雙江)라후족와족부랑족타이족자치현 경마(耿馬)타이족와족자치현 홍하(紅河)지구 금평(金平)마오족야오족타이족자치현
마오족	문산(文山)장족마오족자치주 곤명(昆明)시 룽궈(祿勳)이족마오족자치현 홍하(紅河)지구 금평(金平)마오족야오족타이족자치현 병변(屏邊)마오족자치현
회족	곡정(曲靖)지구 심전(尋甸)회족이족자치현 대리(大理)지구 위산(巍山)이족회족자치현
리수족	노강(怒江)리수족자치주 적경(迪慶)지구 유서(維西)리수족자치현
라후족	사모(思茅)지구 란창(瀾滄)라후족자치현 맹련(孟連)타이족라후족와족자치현 진원(鎮沅)이족하니족라후족자치현 림창(臨滄)지구 쌍강(雙江)라후족와족부랑족타이족자치현
와족	사모(思茅)지구 서맹(西盟)와족자치현 맹련(孟連)타이족라후족와족자치현 림창(臨滄)지구 창원(滄源)와족자치현 쌍강(雙江)라후족와족부랑족타이족자치현 경마(耿馬)타이족와족자치현
나시족	려강(麗江)지구 려강(麗江)나시족자치현
야오족	홍하(紅河)지구 금평(金平)마오족야오족타이족자치현 하구(河口)야오족자치현
징포족	덕굉(德宏)타이족징포족자치주
티베트족	적경(迪慶)장족자치주
부랑족	림창(臨滄)지구 쌍강(雙江)라후족와족부랑족타이족자치현
부이족	
아창족	
푸미족	노강(怒江)지구 란평(蘭坪)바이족푸미족자치현
누족	
몽골족	
지노족	
더양족	
수이족	
만주족	
두룽족	노강(怒江)지구 공산(貢山)두룽족자치현

〈표 3〉 언어학적으로 본 운남성 소수민족 분류

어족	어군	민족
알타이 어족	몽골어군	몽골족
	통구스어군	만주족
한(漢)·장(藏)어족	티베트·미얀마어군	한(漢)어군
		회족
		이족
		바이족
		하니족
		리수족
		라후족
		나시족
		징포족
		티베트족
		아창족
		푸미족
		누족
	지노족	
	두룽족	
	먀오·야오어군	먀오족
		야오족
캄·타이어군	짱족	
	타이족	
	부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몬·크메르어군	수이족
		와족
		부랑족
		더양족

언어학적으로 본 운남성의 소수민족

운남성의 소수민족들을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알타이 어족 몽골어군으로 몽골족이 있고, 통구스어군으로 만주족이 존재한다. 한(漢)·장(藏)어족, 즉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는 민족이 가장 많은데, 한(漢)어군에 속하는 것이 회족이며, 티베트·미얀마어군에 속하는 것이 이족, 바이족, 하니족, 리수족, 라후족, 나시족, 징포족, 티베트족, 아창족, 푸미족, 누족, 지노족, 두룽족이며, 먀오·야오어군에 속하는 것이 먀오족과 야오족이다. 캄·타이어군에 속하는 것에는 짱족, 타이족, 부이족, 수이족이 있다. 오스트로아시아어족에 속하는 몬·크메르어군의 민족이 와족, 부랑족, 더양족이다.

티베트·미얀마어군에서도 특히 이족·바이족·하니족·리수족·라후족·나시족·아창족·지노족·징포족 등은 언어가 유사점이 많아 이어계의 집단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이들이 고대 유목민족으로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강(羌)족이 남하하면서 나누어진,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으로서 운남성 일대를 지배하던 남조왕국(737-902)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sup>2)</sup>

푸미족도 운남성에 들어온 시기가 13세기 정도로 이들보다는 많이 느린 편이지만 역시 티베트 지방에서 온 강족의 후예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3)</sup> 누족과 두룽족 역시 티베트계 민족으로 유사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먀오족과 야오족은 학자에 따라 오스트로아시아어족의 몬·크메르어군에 넣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이들 어족에 속하는 민족과 유사성이 많은데, 오랜 세월 한·장어족 집단과 생활하여 이들과의 유사성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먀오족과 야오족은 선조가 같은 민족으로 간주되고 있다. 후한 시대에 등장하는 '무릉만'이라는 집단의 후예로, 수나라·당나라의 세력이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한족에 동화된 집단이 야오족이고 도망하여 남쪽으로 간 집단이 먀오족이라는 것이다.<sup>4)</sup>

캄·타이어군에 속하는 민족들은 장강 이남에 거주하던 고대 '백월(白越)'이라는 집단의 후예라고 하는데 대체로 고대 중국 남부의 연해 지역에 거주하던 집단이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중 중국령에 거주하는 민족 집단은 모두 몬·크메르어족에 속한다. 와족·부랑족·더양족 외에도 인구가 5천명이 안 되어 공식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쿤인'도 이 어족에 속한다. 이들은 운남성과 인접한 라오스·타이 북부·미얀마 동부의 선주민족이었던

2) 다바타히사오(田畑久夫) 외 저, 원정식·이연주 역, 「중국소수민족 입문」, (현학사, 2006), p 157.

3) 다바타히사오 외 (2006), p 182.

4) 다바타히사오 외 (2006), pp 219-222.

데, 타이족의 통치를 겪어 감 · 타이 어군의 민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운남성의 민족들

### 1. 이족(彝族, Yi)



이족(彝族)은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중국에서는 2000년 인구조사에서 776만 2,272명으로 6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한 민족이다. 운남성의 초웅(楚雄) 이족 자치주, 홍하(紅河) 하니족 이족 자치주, 서천성의 량산(涼山) 이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귀주성, 호남성 등에 넓게 분포하며 미얀마,

베트남 북부, 타이 북부 등에도 산다. 특히 운남성과 서천성의 이족이 주류이며 운남의 이족은 타민족과 섞여 산데 비해 서천의 이족은 산악지대에서 폐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남의 이족 여성은 바지를 입는데 서천의 이족 여성은 치마를 입는 등 특히 복식에서 차이가 크다. 이족은 지역에 따라 스스로를 수십 개의 다른 명칭으로 불렀고, 한족에게는 '오랑캐'를 의미하는 라라(羅羅), 이런(夷人), 이자(夷家) 등 경멸하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이를 이(彝)로 고쳐 민족명칭으로 하였다. 운남성의 이족은 2000년 조사에서 이족의 운남성 인구는 470만 5,65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족의 언어는 한 · 장 어족의 티베트 · 미얀마 어군에 속하며, 여섯 가지 방언이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천 년 전에 독자적인 음절문자인 찬문(爨文)이 만들어졌으며 '비모(Bimaw)'라는 무당에 의해 량산 자치주 등에서 찬문이 전승되고 있다. 이족의 선조의 발상지는 황하 상류 유역이었지만 점차 남하하여 운남성에까지 이르렀다. 이족은 한나라 때의 서남이(西南夷), 삼국시대 제갈량이 남정하여 맹획을 사로잡던 남만(南蠻)이라고 총칭되던 집단의 주요 세력이었다.

당나라 때 운남성 동부의 오번(烏蕡)이라는 집단과 서부의 백번(白蠻)이라는 집단으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 오번의 일부가 세운 것이 남조 왕국이다. 남조 왕국의 지배 세력인 오번은 오늘날 흑이(黑彝)의 선조가 되고 백번은 백이(白彝)가 선조가 되는데, 흑이가 백이 및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는 노예 사회를 만들어 유지하였다. 특히 사천성의 이족은 중국 공산화 이전까지도 노예제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신분제를 가졌다. 이 지역에서 백이 집단은 취너(초고), 아자, 샨시 세 집단으로 구분되어, 최상층인 '취너'는 이동의 자유가 없지만 자신의 집과 가정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경지와 농기구도 가질 수 있었고, '아자'는 노예주의 관내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샨시' 계층은 가내 노예로 신체의 자유가 전혀 없었다. 노예제 사회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흑이와 백이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산간에서 메밀, 귀리, 보리, 옥수수, 감자 등으로 재배하고 염소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한다. 무덥고 비옥한 계곡지대에서는 주로 벼농사를 한다. 주식은 티베트족과 비슷한 참파를 먹는다. 담배와 차를 생산하는 이들도 많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석림군(石林群)으로서 관광지로 꼽히는 스톤(石林)도 운남성 루난(路南) 이족 자치현 내에 있어 이 지역 이족에게 수입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족의 집은 목조이며 방은 토방형식이다. 방에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다.

신목(神木)을 숭배하는 신수 신앙 등 애니미즘에 토대한 자연숭배와 조상 숭배가 이족들의 종교의 중심이다. 이족은 어디나 신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중 가장 숭상하는 것은 산신이다. 이는 목축 · 농업





**운남성의 인구는 약 4천만 명 정도인데, 그중 소수민족들이 1천 4백만여 명을 정도로 소수민족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

등 그들의 생활공간이 산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높은 산은 신성한 존재이며 산신은 마을의 수호신이다. 조상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은 모두 영혼이 깃들었다고 보면서 그 물건들을 '지뤄(吉羅)' 라고 부르는데 이

는 '복'이라는 뜻이다. 또한 부락마다 상징으로서의 '지뤄' 를 두는데 낡은 보습, 한 쌍의 기러기, 돈 무늬가 있는 뱀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운남성의 이족들은 한인의 영향으로 불교와 도교를 많이 받아들였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어느 정도 전파되어 있다.

결혼제도가 독특한데, 이족 남성은 양친의 형제자매의 아이 중의 이성(異姓)을 가진 여성을 아내 후보로 맞는 관습이 있다. 즉, 외사촌누이와 결혼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를 '교차 사촌혼' 이라고 한다. 이족 사회에는 부계중심인데다, 같은 씨족끼리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 어머니의 형제는 반드시 다른 씨족에 속하게 되므로 외사촌은 일족이 아닌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친상간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아버지와 동성(同姓)의 형제자매 사이의 평행 사촌혼은 금지되어 있다.

장례는 화장이 전통적인 의식이었으나 명·청나라 때 한족의 영향을 받아 운남 이족의 전통에서는 토장이 더 일반적이다. 다만 상여가 나갈 때 죽은 사람의 옷을 태우는 형태로 화장의 전통이 남아 있다. 원래는 화장을 한 조상의 뼈를 나무상자에 담아 바위틈에 모셨는데 이후 영혼을 상징하는 옷 조각으로 대신해 조상의 영혼을 집 안의 선반에 모신다.

이족은 씨름을 즐기는 민족으로 유명하며 다른 민족의 사람과도 씨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들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보다는 레슬링과 비슷하며 상대의 두 어깨를 모두 땅에 붙이면 이기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발로 부딪막을 밟거나 가로타는 것은 불길하고 집주인을 멸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며, 머리카락이 영혼 또는 영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므로 함부로 만지지 못하며 이를 어긴 사람은 술상을 차려 사과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축을 잡아서 용서를 빌거나 손을 잘라야 한다.

## 2. 바이족(白, Bai)



바이족(白族)은 2000년 인구조사에서 185만 8,063 명을 기록한 소수민족이다. 운남성 대리(大理) 바이족 자치주에 약 80%가 거주하고 있다. 곤명(昆明)과 려강(麗江)지역, 란핑(蘭坪)지역과 서천성(四川省)의 경계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스스로도 자신을 바이라고 부르며 이는 '하얀 사람(白人)' 을 의미하는데 그

들이 흰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이들은 송나라 시대 대리국(937~1252)의 중핵을 이룬 민족이다. 운남성의 바이족은 2000년 150만 5,644명으로 조사되었다.

바이어는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인데, 오랫동안 한족과 접촉이 있어 그 어휘의 상당수가 한어에서 온 것이며, 바이족 다수가 한어를 말할 줄 안다. 고유문자는 없으며 일찍부터 한자를 사용하였다. 10세기에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하여 만든 '바이원(白文)' 이라는 바이 문자를 사용하였지만

명나라 시대 이후 쇠퇴해버렸다. 현재 백족은 서남민족 가운데 가장 한화(漢化)가 이루어진 민족 중 하나라고 한다. 이들의 거주지는 운남성과 귀주성의 평야지대인데다 강을 끼고 있고 기후도 온화하여 1년에 이모작을 하고 있다. 벼농사를 주로 하며 밀, 콩, 기장, 목화, 사탕수수, 담배 등도 재배한다. 또한 삼림이 잘 발달되어 있어 목재와 약초 등도 풍부하다. 또한 염색 기술이 우수하여 염색제품이 특산품이며 지역의 질 좋은 대리석을 이용한 대리석 가공품도 생산한다. 손님이 왔을 때는 여덟 접시에 팔괘를 상징하는 음식들을 담아서 만드는 토팔완(土八碗)과 쓴 맛·단 맛·복잡한 맛(回味)으로 세 잔의 차를 대접하는 삼도차(三道茶)를 내어 환대한다. 마지막 차는 꿀·생강 등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다. 이 삼도차는 운남성의 또 다른 특산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이족의 집은 대문을 약간 비틀어지게 만드는데, 이는 이 지방의 바람이 강하여 그 압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집의 동·서·남쪽은 다 방들이 있고 북쪽은 하얀 칠을 한 조벽(照壁)이 있어 남쪽의 햇빛을 반사해 집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벽의 맞은편 방에 집안 어른이 산다.

종교에서는 민족 고유의 '본주(本主)' 신앙과 불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애니미즘도 많이 남아있다. 한족의 영향으로 도교가 널리 보급되고, 근대 이후 기독교도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주'는 바이족들의 부락신 비슷한 것으로 마을의 수호신이다. 여러 부류가 있으며 지역마다 차이가 보인다. 남조국이나 대리국 등 옛날 이 지역에 있던 왕국의 왕이나 관료들을 본주신으로 모시거나 효자·열녀, 또한 한화의 영향으로 한(漢)족 관리나 장군을 본주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본주신을 모시기 위해 마을마다 신당을 세우고 흙이나 나무로 본주상을 만들어 모셔두고 본주신의 시종들과 자손들의 상도 만들어 놓는다. 평소에는 본주신에게 보호를 받고 정기적으로 본주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본주신앙과 관련하여, 귀신숭배도 보편적으로, 바이족은 해와 달, 나무, 바위 등 모든 사물에 귀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긴다. 이들 귀신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릴 것을 빌기 위하여 여러 제사를 지낸다. 또한 불교와 도교가 성행하며 특히 바이족은 전통적으로 불교를 많이 믿어, 불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식에는 반드시 대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 빨간 칠을 한 후 사용하는데, 빨간 색깔이 부유와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혼식에는 신부를 꼬집으면서 축복을 하는데 강하게 꼬집을수록 더 큰 축복을 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객은 신부를 인정사정없이 꼬집으며 신부는 아무리 아파도 웃음으로 이를 받아준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가서 베개 쟁탈전을 하는데, 베개를 차지한 사람이 나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 먼저 뛰어 들어가 베개를 차지하려고 한다. 일부일처제가 보통이지만 드물게 일부다처제도 용인되고 있다. 남성만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결혼도 부모가 결정하는 등의 관습은 중국 혁명 이후 사라지고 있다. 장례는 매장을 하는데, 풍수지리설을 믿어 조상의 묘지 자리가 자손의 길흉화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부모가 돌아가시면 풍수가를 불러 좋은 자리를 선택하려고 애를 쓴다.

매년 3월 달에 하는 '3월가'라는 축제는 주요 무역로인 차마고도인 대리의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축제이다. 이 축제 기간에 대리 지역에서는 큰 장이 서고 말타기 경주를 하는 등의 축제를 가진다.

### 3. 좡족(壯族, Zhuang)

좡족은 중국 최대 소수민족으로 2000년 인구 조사에서 1,617만 8,811명을 기록하였다. '좡'이라는 호칭은 그들의 조상이 스스로를 부르던 이름 중의 하나였다. 이들은 한족, 야오족, 마오족 등 다른 민족과 섞여 살고 있는데, 운남성, 광둥성, 귀주성, 호남성 등에도 거주하고 있지만 그 인구의 90%가 광시 좡



족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 운남성에서는 주로 문산(文山) 좡족야오족자치주에 많고 그 외에도 소통(昭通) 곡청(曲靖) 초웅(楚雄) 홍하(紅河), 대리(大理) 등지에 살고 있으며, 2000년에 144만 4021명을 기록하였다.

좡족은 송나라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명 말기 이후 한족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좡어는 한·장어족의 캄·타이 어군에 속하는데, 북부방언과 남부 방언으로 크게 구분된다. 당·송나라 때 한자를 차용하여 ‘방괴송자(方塊宋字)’라는 문자를 만들었지만 사용이 불편해서 종교 교본이나 노래책 정도에만 쓰였다.

좡족은 일찍부터 수리 관개를 이용한 벼농사를 하였고 재배 기술도 뛰어나다. 찹쌀을 좋아하고, 3월 3일의 조상 제사 등에는 찹쌀을 ‘크람’이라는 나뭇잎으로 싸서 붉은색 물을 들이게 하여 붉은 밥을 짓는 관습이 있다. 예로부터 금속기술, 은세공, 목공, 방직공예 등이 뛰어났으며 특히 좡족의 여성이 목화실과 오색의 비단실로 짠 좡진(壯錦)<sup>5)</sup>이 유명하다. 산가(山歌)와 연극이 성행하며, 동고(銅鼓)<sup>5)</sup>를 연주하며 춤추는 풍습도 있다.

전통적인 가옥은 2층집으로 위층은 생활공간, 아래층은 외양간과 저장고로 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족과 같은 1층집에 사는 좡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통이 넓은 바지에 수놓은 허리띠와 신을 신는 등 전통적인 복장이 있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입고 평소에는 한족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 좡족 여성이 빈랑(betel)<sup>6)</sup> 열매를 씹는 풍습이 광서 지방의 서남쪽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손님 접대를 위해 내놓기도 한다.

좡족은 15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받아 연애 혹은 결혼을 할 수 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면 부모로부터 붉은 색 끈을 얻어 그 여자의 어깨에 걸쳐 놓는데,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면 그 끈을 잡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끈을 버리고 가버린다. 결혼식 날이면 신랑은 남자 2명, 여자 2명을 거느리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이들 일행이 신부 집 대문으로 들어가면 하객들이 이들에게 물을 뿌려 주며 행복을 빌어준다. 좡족의 사회는 일부일처제 사회인데, 결혼 후에 아내가 남편 집에 머물지 않고 결혼 다음날 부모에게 돌아와 함께 살며 명절이나 농번기에만 남편에게 찾아가는 특이한 관습이 있다. 좡족 아내는 결혼 후 2~3년이 지나야 남편과 함께 계속 살 수 있다. 그러나 공산화 및 현대화와 함께 이 관습도 사라져가고 있다.

좡족의 종교는 조상숭배와 자연숭배를 기초로 하며, 대승불교와 도교도 받아들였다. 가장 숭배하는 것은 부락신과 토지신이다. 마을마다 이들을 위한 신당이 만들어져 있고 마을 어귀의 나무아래에는 돌 두 개를 놓아 부락신의 우상으로 삼고 있다. 음력설달 그믐날에 부락신을 위한 제사를 하는데, 이날 저녁 제물로 썼던 고기와 죽을, 아이가 있는 며느리 방 앞에 놓아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한 죽을 가족에게 먹여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

5) 동고는 구리로 만든 북인데 우리의 징과 매우 유사한 악기이다. 수이족, 푸이족, 좡족, 와족, 야오족, 먀오족 등이 사용하고 있다.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동고의 사용법이 다른데, 장례식에만 사용하는 곳도 있고 새로 집을 짓거나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날, 아이를 낳을 때 등 기쁜 날에도 치는 곳도 있다. 이들에게 있어 동고는 신성한 악기로서, 매우 귀중하게 다루어진다.

-김인희, 『흰바지야오족 사회와 신앙』, (경인문화사, 2004), pp 119~126.

6) 베렐 혹은 페낭(pinang)이나 아레카(Areca)라고도 하는데, 원산지는 말레이시아라고 여겨지며, 남아시아와 대만 등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중독성이 있으며 씹는 습관을 들이면 이를 검게 물들여 벌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검게 물들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고 여겨 씹는 민족 집단도 있다.

용제사도 좡족들이 공통적으로 지내는 제사의식이다. 해마다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 풍작과 건강을 기원한다. '화왕성모(花王聖母)'라는 우리의 삼신할매와 유사한 노파신은 아이들의 수호신인데, 좡족 여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침대 머리 쪽 벽에 들에서 꺾어온 꽃뭉음을 걸어 놓아 이 신의 신주로 삼는다. 아이는 자란 뒤 해마다 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 꽃뭉음에 절한다.

사람이 죽으면 몸을 씻어주고 관에 넣을 때 손, 눈, 혀 밑 등에 돈을 놓아 저승길 노자로 쓰게 한다. 묘지에는 상징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사망자가 쓰던 도구들을 순장품으로 놓아둔다. 한족의 영향으로 집집마다 대청 가운데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명절 때마다 향을 올리며, 성씨를 단위로 사당을 세워 사당 안에 역대 조상들의 신주들을 모셔 조상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 운남에 사는 좡족은 가까운 조상 3대만 집에 신주로 모시고 그 외에는 밭에 모셔 곡식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불교와 도교도 좡족의 고유신앙과 결합하여 관제묘, 대왕묘, 대신묘 등 이와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다. 무당은 자신들의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한문이나 좡족의 옛 문자로 쓴 것이며 좡족의 신화전설이 그 내용이다. 무당이 좡족의 민간신앙과 문화의 전승자 역할을 한다. 19세기에 기독교도 들어왔지만 도시 지역에 영향을 끼쳤을 뿐 그다지 전파되지는 못했다.

#### 4. 하니족(哈尼, Hani)



하니(哈尼)족은 중국·베트남 및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90% 이상이 운남성에 거주한다. 이들은 주로 애뢰(哀牢)산과 무량(無量)산 사이의 계곡 지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 운남성 홍하(紅河) 하니족 이족 자치주의 홍하현, 원양(元陽)현, 록춘(綠春)현 등 애뢰산 일대에 많이 거주하며, 사모(思茅)지

구 푸이(普洱)현, 목강(墨江)현, 진원(鎮沅)현, 강성(江城)현 옥계(玉溪)지구 원강(元江)현 등에도 많이 거주하여 자치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내 총인구는 143만 9,673명(2000년 조사)이다. 운남성의 하니족은 2000년 142만 4,990명이었다.

하니족의 언어는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이다. 하니어에는 세 가지 방언과 약간의 토착어가 있다. 원래는 문자가 없었지만 중국정부가 이들을 위해 1957년 라틴어를 본 따서 문자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화전 경작으로 옥수수나 콩 등을 재배했지만 현재는 산비탈에 밭을 만들어 벼농사와 차농사를 하고 있다. 하니족 거주지의 기후는 아열대이며 땅이 비옥해 쌀·기장·목화·땅콩·인디고·차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이중 이들의 주식은 쌀인데, 붉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운남성의 특산물로 유명한 푸얼(普洱)차도 시수양반나의 하니족 거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하니족 거주 지역은 주석, 구리, 철, 니켈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삼림자원도 풍부하다.

하니족의 집은 언덕 경사진 곳에 주로 건축되는데 대나무, 진흙, 돌, 나무 등으로 2~3층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집에 화로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집안에 피워놓은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며 화로도 고기를 굽는 곳, 밥을 짓는 곳 등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한다. 전통적인 옷은 어두운 푸른색 직물로 만들고 남자는 짧은 재킷과 통이 넓은 바지를 입으며 회거나 검은 터번을 걸친다. 여자의 옷은 그들이 속한 부족에 따라 달라진다.

하니족은 물소를 매우 아끼는데, 이는 하늘의 신이 하니족의 힘든 생활을 보고 불쌍히 여겨 물소를 내려 보내 하니족의 농사일을 돕도록 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 대한



관심이 친자식에 대한 관심에 버금가며 날씨가 추우면 자신의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주기도 한다. 새끼를 낳은 지 3일이 되는 날에 찹쌀로 밥을 지어 그 밥으로 집안 식구와 물소가 함께 나누어 먹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하니족은 다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조상을 숭배한다. 홍하의 하니족은 여신인 '아오마'를 천신으로 모시고, '용수아마아차'라는 나무를 신령한 나무로 생각하여 집집마다 이 나무를 심어 수호신으로 숭배한다. 촌락입구에는 '룽바면(龍巴門)'이라는 마을의 대문을 세운다. 이 대문은 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귀중하게 다루어져 1년에 2번 있는 룽바면 교체 때도 반드시 제사를 지내면서 바꾸어야 한다. 대문의 왼쪽에는 일남일녀의 나체상을 세워 인구의 번성을 기원하고 오른쪽에는 대장장이 상을 세워 대장장이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이는 하니족의 생활에서 수공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불교도 유입되었고 근대에 와서 기독교도 들어왔지만 믿는 사람은 적다.

중국 혁명 이전의 하니족 사회는 일부다처제 사회로 남편은 아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비록 아내를 버리고 재혼할 수는 없었지만 첩을 들일 수 있었으며 결혼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었다. 결혼식 날에 신부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복을 받는다고 믿어 신부는 속으로 행복하다고 여기든 불행하다고 여기든 시집을 갈 때 아주 서럽게 대성통곡을 한다. 결혼식 2-3일 후 아내는 부모 집으로 돌아와 같이 살며 모내기할 때 남편에게 다시 돌아갔다. 하니족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의 마지막 부분을 아들 이름의 첫 부분으로 삼는 부자연명제의 관습이 있다.

가정에서 무당을 청하여 굿을 하거나, 마을 밖에서 들짐승을 보았거나, 나뭇가지가 몸에 떨어졌을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룽' 행사를 해야 한다. 쌍둥이나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 6개인 아기를 낳는 것을 마을에 큰 재난을 가져올 불길한 것으로 여겨 이런 경우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일하러 나가 않고 집에서 '룽' 행사를 한다. 촌장의 명령이 있다면 그 아이를 죽이고 부모를 마을에서 내쫓고 그 집을 불사른 후 룽바면을 새로 세운다. 이 외에도 애를 낳은 집에 다른 사람이 찾아 온다거나 집 안에 피워놓은 불에 옷이나 신발을 말리면 안 되는 등의 금기가 있다.

## 5. 타이족(傣, Dai)



타이족은 주로 운남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 조사에서 그 전체 수가 115만 8,989명으로 기록되었다. 그들은 시수양반나(西樞版納) 타이족 자치주, 덕굉(德宏) 타이족징포족 자치주, 립창지구 경마(耿馬) 현, 맹련(孟連)현, 립창(臨滄)현 등 30여 개의 현에 거주하고 있다. 운남성의 타이족 수는 2000년 조사에서

114만 2,139명을 기록하였다.

지역에 따라, 시수양반나 타이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타이루, 덕굉 타이족징포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타이타우, 립창 지구의 경마 타이족 자치현이나 사모 지구 경곡현 등에 거주하는 타이누, 사모 지구 맹련현에 거주하는 타이푼, 윈강 하니족 이족 자치현과 신픽현에 거주하는 타이야 등의 하부민족이 있다. 이중 타이루는 13세기 이후 시수양반나 분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왕국을 세웠던 민족이다. '반나'는 '천마지기 땅'이란 뜻이고 '시수양'은 열둘이란 뜻으로 이는 16세기 말 미얀마왕에게 바치는 공물을 모으기 위해 설치된 행정단위가 모두 12개의 반나였던 것에서 기원한 말이라고 한다.<sup>7)</sup> 이외에, 옛날에 타이족이 땅을 열두 개로 나누어 농사를 짓던 제도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8)</sup>

타이어는 한·장 어족의 캄·타이 어군에 속하는데 세 가지 방언이 있다. 인도의 바리문(巴利文)을 본뜬 표음문자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1954년에 개정하여 현재는 시수양반나와 덕굉의 두 가지 종류로 통일시켰다.

타이족은 예로부터 분지나 하천·계곡의 평야에서 벼농사를 해왔다. 특히 타이족의 주요 거주지역인 시수양반나 지역은 아열대에 강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지이다. 쌀·사탕수수·커피·고무·삼·장뇌 등을 많이 재배하며 과일도 많이 재배한다. 시수양반나 지역은 푸얼차의 본고장이기도 하며 부근의 삼림은 목재와 약초를 풍부하게 제공해준다. 또한 영주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장인들의 덕분으로 타이루는 방직·제지·도자기 제조 등의 생산 기술이 예로부터 우수하다.

쌀이 주식으로, 덕굉 쪽의 타이족은 푸석푸석한 쌀을 즐겨먹고 시수양반나의 타이족은 끈기 있는 쌀을 즐겨먹는다. 맵고 신 음식을 매우 즐기며 소고기·닭고기·오리고기·생선·새우·배추·당근·죽순·콩을 좋아한다. 술과 빈랑 열매도 좋아한다. 남자가 11세에서 12세가 되면 몸통이나 다리에 문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은 대나무로 짓는 것이 보통이다.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2층집의 경우 아래층은 가축을 위한 공간이고 위층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타이족에게 있어 집은 부유함의 상징으로, 나무 기둥이 많을수록 그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족 가족은 칸막이도 없이 한 개의 침실에서 함께 자는데, 자신들의 침실을 타인이 들여다보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하므로 매우 싫어한다. 운남성에서 이들이 주로 사는 곳은 아열대 지방이므로 모기나 파리 등을 막기 위해 잠자리에 모기장을 쳐 놓는데, 가족 구성원의 등급에 따라 모기장의 색깔이 다르다. 연장자들은 검은색, 그 다음 어른들은 빨간색, 어린 아이들의 모기장은 하얀색이다.

타이족은 보편적으로 소승불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조상신, 농농사 귀신, 밭귀신, 대장장이 귀신, 술귀신 등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타이족은 '듀라만'이라는 부락신을 모시는데, '듀라'는 '신(神)'이라는 의미이고 '만'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듀라만은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과 이들에게 죽은 원수가 있는데 각각 부락을 보호하는 역할과 마을의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듀라만을 모시는 당집이 마을 중심에 있는데 이 당집은 물론 주위의 나무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이다. 또한 집안에서는 조상신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모신다. 타이족은 옛날 유적에서 나온 구리도끼와 돌도끼를 주워 집에 두는데, 이렇게 하면 벼락을 맞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한 아이들과 노인들은 구리조각 또는 알루미늄 몇 개를 실이나 나뭇잎으로 감아 목걸이나 손목걸이로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귀신과 부정을 막는 부적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병에 걸리면 혼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생각해 제물을 마련하고 병자의 옷을 삶아 절구에 찌면서 혼을 부르는 주문을 한다.

14세기 이래 소승 불교가 전해져 타이족은 거의 소승불교를 신봉하며 이를 통해 미얀마나 라오스에 거주하는 타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수양반나 지역에서는 절이 학교같은 역할을 하여, 읽는 법, 쓰는 법 그리고 불경을 공부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절에 들여보내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타이족 사람들은 절의 생계를 부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장례방법은 매장인데 높은 지위의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묘자리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으며, 승려의 경우는 화장을 하고 그 재를 항아리에 담아 절 뒤에 묻는다.

타이족은 독자적인 달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달력은 계절을 여름, 겨울, 봄의 셋으로 나누는데, 신년은 타이력 6월 1일이고, 이는 서력으로 4월 15일 정도에 해당한다. 신년인 6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7) 다바타히사오 외 (2006), p 256.

8) 김선풍·김인희·타오리판 공저, 「한국민속과 중국 서남민족의 민속비교」, (박이정, 2003) p 22.

한 달 동안 물 뿌리기 축제를 한다. 이 행사는 원래 하천에서 길러온 물로 불상을 씻으면서 사람에게도 뿌리는 것으로, 이 물을 맞으면 행운이 온다고 한다.

타이족의 결혼은 반드시 사회적·경제적으로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끼리만 이루어지도록 제한된다. 일부다처제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에는 매우 흔한 일이며 평범한 타이족은 일부일처의 가부장 가정을 꾸린다. 결혼 후 남편이 처가에 들어와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 6. 먀오족(苗族, Miao)



먀오족(苗族)의 먀오(苗)는 먀오족 자신이 아닌 중국인이 쓰던 호칭이다. 2000년 조사에서 그 인구가 894만 116명으로 집계되었다. 먀오족은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광서 좡족 자치구 등 중국 남부에 주로 거주하며, 특히 귀주성에 인구의 50%가 거주한다. 또한 많은 먀오족들이 중국 국경을 건너 베

트남·라오스·미얀마·타이 등에 살고 있다. 운남성의 먀오족 수는 2000년 조사에서 104만 3,535명을 기록하였다. 먀오족은 운남성 전체에 두루 분포하며, 문산(文山)지구의 광남(廣南)현, 마관(馬關)현, 홍하(紅河)지구의 금평(金平)현, 병변(屏邊)현에 특히 많아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등 문산지구와 홍하지구에 특히 많이 거주한다. 이들은 옛날 황하의 중하류에 거주한 동이족의 후예라는 설이 있으며, 먀오족은 그들의 조상신으로 '치우'를 숭배한다고 한다.<sup>9)</sup> 먀오족의 언어는 한장(漢藏)어족의 먀오·야오 어군에 속한다. 먀오어는 호남서부방언, 귀주동부방언, 사천·귀주·운남 방언 등 여러 방언 갈래가 있으며 다른 방언구역에 속한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한편 다른 민족과 섞여 사는 경우가 많아 다른 민족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주로 농업을 하며 이전에는 산비탈의 화전농업을 주로 했지만 현재는 산비탈을 개간하거나 평지에다 하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평지에서는 논을 이용해 잉어 등을 양식하기도 하며, 산비탈에서는 옥수수·밭벼 등을 주로 수확한다.

집은 나무로 만들며 2층이 보통이다. 산비탈에는 다리를 세운 가옥이라는 뜻인 '다오자오러우'라는 가옥을 짓기도 하는데, 아래쪽에는 긴 기둥으로 받치고 위쪽은 짧은 기둥으로 받쳐 집의 바닥을 수평상태로 만들게 집을 지어, 밑쪽의 남는 공간이 1층이 되는 2층집의 구조가 된다. '다오자오러우'는 먀오족 뿐 아니라 부이족 등 다른 민족에게서도 발견된다.

먀오족 사회는 하나의 촌락이나 촌락 두셋을 묶어 소관(小款), 수십 호나 수백 호를 묶어 대관(大款)이라고 하여 각각 통합된 사회를 형성하여 향규(鄉規)라고 불리는 자치규약을 가지고 있었다. 먀오족의 우두머리는 치안, 전쟁, 제례 등을 통솔하였는데, 향규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의 종교는 자연숭배, 귀신숭배, 조상숭배가 주가 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한족의 종교를 믿는 자도, 기독교를 믿는 자들도 있다. 혼의 존재를 믿어 병에 걸리는 것은 혼이 귀신에게 잡혀갔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혼 불멸을 믿어 사람이 죽으면 혼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믿는다. 사람 뿐 아니라 세상만물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 큰 바위, 큰 나무, 동굴 등을 신으로 숭배한다. 특히 단풍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단풍나무 뿐 아니라 그 주위의 나무까지 함부로 베지 못하고 단풍나무를 베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sup>10)</sup> 이들에게 있어 무당은 자기민족의 역사와 신화, 구전 가요를 섭렵한

9) 김선봉·김인희·타오리판 공저, (2003), p.200.

지식인과 가수를 겸한다. 종교 행사를 주최하고 병 치료, 복 빌기 등을 하며 어떤 무당은 한약으로 병 치료를 할 줄도 안다. 무당은 마오족 사회에서 특권계층은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사회적 위망이 높다. 조상숭배는



**운남성에 회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몽골족이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회족을 관원이나 병사로서 파견하여 운남성을 지키게 하면서부터이다.**

어느 지역에 사는 마오족이든 공통적인 것이다. 그들은 평상시 식사 때도 먼저 조상에게 올리는데, 특히 술과 고기를 먹을 때는 꼭 밥, 고기, 술 등을 땅에 조금씩 흘려놓아 조상이 먼저 맛보게 한다. 조상의 신주는 부뚜막 끝에 모시는데 간혹 한족의 영향으로 집 가운데 신주를 모시는 집도 있다.

마오족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이고 일부일처제이며 나이든 부모는 막내아들에 의해 부양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혼 자녀는 연애할 자유가 있어 명절 같이 특별한 날에 서로 만나고 사랑의 증표를 나눌 수 있다.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상대방과 교류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면 양산을 씌워주며,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면 노래를 함께 부르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양산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듯 연애는 자유이지만, 결혼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이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약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자를 납치해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여 여자의 동의를 얻으면 축하연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여자가 거절하면 놓아주는 우리의 보쌈과 비슷한 풍습도 있다. 이 경우 보통은 서로 짜고 잡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손님이 오면 남자가 대문까지 가서 손님을 맞고 여자들은 마오족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손님을 접대한다. 손님을 위해 닭 · 오리 · 거위 등을 잡아서 대접하는데, 제일 맛있다고 여기는 내장 부위는 모두 손님에게 내어 준다. 손님에게 있어서는, 마오족 집에서 화로를 가로타서 지나거나 발로 차면 집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집안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도 실례이다. 길을 가는 부부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면 실례가 된다. 또한, 마오족은 개를 먹지 않으며 개를 때리지 않고 욕도 하지 않는다.

## 7. 회족(回, Hui)



회족은 회회족(回回族)의 줄임말이다. 회족은 13세기 이후 중국 영내로 이주해 온 투르크 · 이란 · 아랍 등 이슬람교를 믿는 외래 민족의 후손으로 한족 · 몽골족 · 위구르 족 등과 오랫동안 함께 살며 융합하여 형성된 민족이다.<sup>10)</sup> 회교라는 말의 기원이 된 위구르족은 회족과는 약간의 혈연적 연관성은 있기는 하지만 전혀 별개의 민족인데, 위구르족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며 알타이어족 투르크 어군의 언어를 사용하는 투르크계 민족인데 비해 회족은 중국 각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한족과의 혼혈이 많고 문화적 · 언어적으로 한화(漢化)가 된 민족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다만,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남아있다. 중국 내 인구는 2000년 인구조사에서 981만 6,805명을 기록하였다. 이들의 거주지는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어, 녕하, 감숙, 하남, 신강, 청해, 운남, 산둥, 허북, 요녕, 안휘 등 여

10) 김선봉 · 김인희 · 타오리판, (2003), p 209.

11) 담광광(覃光廣) 편저, 허휘훈 · 신현규 역, 「중국소수민족종교신앙」, (태학사, 1997), pp 103~104.

러 성에 살고 있다. 3분의 1은 도시에 살고 나머지는 농촌에 살고 있다. 회족은 크게 서북쪽에 사는 서북회민, 동쪽에 사는 내지 회민으로 나눌 수 있다. 내지 회민 쪽이 한화(漢化)된 정도가 크며 특히 운남성의 회족의 경우 일부는 이슬람교를 버리고 돼지고기를 먹기도 한다.

운남성에서는 2000년에 64만 3,238명을 기록하였는데, 곡정(曲靖)지구 심전(尋甸)현과 대리(大理)지구 위산(巍山)현에 자치현을 형성하고 있으며 운남 전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회족이 중국에 들어 오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이슬람문명권과 접촉을 시작한 당나라 시대부터인데, 운남성에 회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몽골족이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회족을 관원이나 병사로서 파견하여 운남성을 지키게 하면서부터이다.

운남성의 회족은 명나라 영락제 때 대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항해한 정화(鄭和) 같은 유능한 인재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19세기 중반 회족은 태평천국의 난을 틈타서 '두문수(杜文秀)' 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청나라에 반란을 일으켜 대리에 수도를 둔 평남국(平南國)을 세워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거의 20년이나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두문수가 '술탄 술라이만(Sultan Suleiman)' 이라고 자칭하며 평남국의 공문서를 아랍어로 쓰기도 하는 등 이 나라는 중국에 세워진 회족의 이슬람 국가였다.<sup>12)</sup>

회족은 일상회화로 한(漢)어를 쓰며 용모도 한족과 거의 구별할 수 없다. 이슬람교를 일관되게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 때문에 돼지고기를 즐기는 한족과 마찰이 있기도 하다. '청진사(清真寺)'가 이들의 거주 중심지에 있는데, 이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말이다. 청진사는 종교적 역할 외에도, 회족에게 있어 서로 모여 의논을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우상숭배를 금지하므로 청진사에 도교나 불교처럼 신의 우상을 만들어두지 않으며 다만 몸을 정결히 하기 위한 목욕실을 두고 있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짐승의 피, 이미 죽은 시체 및 술을 먹지 않고 남성 대부분이 백색이나 흑색의 테 없는 모자를 쓰고 있다. '청진(清真)'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식당은 회족들의 식당으로 이 식당에서는 돼지·닭·오리·말·당나귀 등의 고기를 내놓지 않으며 소고기와 양고기를 위주로 요리를 내놓는다. 종교지도자인 이맘이 의식이나 종교비용 징수를 주관하는데, 이들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높은 지대를 받아 민중을 착취하는 일도 있었다. 명대와 청대에는 이들이 회족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자기의 지위를 세습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회족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해왔는데, 특히 운남성에서는 1975년 이슬람 명절의 회복을 요구하는 무슬림 1,600명을 민족반란의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대량 학살한 샤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공산화 이전에는 일부다처제였지만 이후는 중국의 결혼법을 준수하여 일부일처제가 대부분이다. 결혼은 보통 겨울에 많이 하는데, 회족 어린이들이 신부를 꼬집어주어 축복을 해주고 그 대가로 신랑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는다.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집에서는 대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막는데, 신랑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온갖 칭찬과 아부를 해야 문을 열어준다. 말을 잘 하지 못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8. 리수족(傣僳, Lisu)

리수족은 중국을 비롯해 미얀마, 타이,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에 살고 있는 민족이다. '리수'는 리수족 자신의 호칭으로서 '리'는 고귀함을 뜻하고 '수'는 사람 또는 일족을 의

12) 한겨레 21, 2004년 5월 6일자 제 508호, "이슬람과 중국, 공존의 코드가 있다(박노자의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미한다. 중국의 리수족 인구는 2000년에 63만 4,912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대다수가 운남성 노강(怒江) 리수족 자치주의 벽강(碧江), 복공(福貢), 공산(貢山) 로수(瀘水) 등의 현과 적경(迪慶)지구 유서(維西)현에 살고 있다. 이외 여강(麗江), 보산(保山) 등의 지역과 사천성의 서창(西昌), 염변(鹽邊) 등지에 살고 있다.

운남성에 거주하는 리수족의 수는 2000년 조사에서 60만 9,768명이었다.

그들의 언어는 한·장어족의 티베트·미얀마 어군인데, 오랜 세월 동안 중국, 태국 등 다른 언어·문화의 영향을 받아 리수족 사이에서도 서로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들의 역사는 노래의 형태를 빌린 구전으로 전수되며 오늘날에는 이런 노래가 매우 길어 한번 부르는데 1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한다.

리수족에게는 두 가지 문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500자 정도의 음절 문자로 일부지역에서만 사용된 것이고, 둘째는 기독교 선교사인 프레이저(James O. Fraser)가 라틴문자를 바탕으로 만든 프레이저 문자인데 이 문자는 완전히 보급되지는 않았으며, 1957년에 중국 정부가 라틴 문자를 기초로 한 리수 문자를 새로 만들어주어 이가 보급되었다. 리수족의 거주지는 산악지대와 계곡지대로 기후가 선선하며 매년 강수량이 2,500mm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들의 땅은 그다지 농사에 유리한 입지가 아닌데다가 지진이나 전쟁이 잦은 지역이어서 그들은 수렵이나 교역에 의존했으며 운송인·상단 호위 등의 일을 하는 이도 많았다.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사냥으로 고기를 얻었는데 이들은 뛰어난 사냥꾼으로 유명했으며 활 쏘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들의 활쏘기 경쟁 방법이 과녁에 활을 쏘는 평범한 것이 아니고, 칼을 땅에 꽂아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활을 쏘아 그 칼의 칼날 부분에 화살이 반으로 갈라지면 이기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할 정도였다. 교역과 더불어 19세기의 아편 유입도 그들에게 수입원이 되었으며 지금도 아편 거래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는 옥수수·쌀·메밀·밀·콩·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환금작물로서 옷·모시·사탕수수 등도 재배한다. 현재 이들의 주식은 옥수수와 메밀이다. 한편, 리수족은 소·개·말·고양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들의 전통가옥은 두 종류가 있는데, 목재를 이용해 정방형으로 짓고 널빤지로 천장을 올린 집과 목재로 짓되 대나무로 벽을 만드는 집이 있다. 집의 중앙에는 큰 화로를 설치한다. 이들의 종교는 샤머니즘적인 것이 주로, 종교 직능자인 '니파'가 귀신에게 비는 의식을 주도한다. 또한 각 씨족들은 호랑이, 곰, 원숭이, 물고기, 유자나무, 참대 등 20여 종의 토템을 가지고 이들을 자신들의 선조로 여기고 신비화하는 토템신앙이 있다. 이들 토템의 이름으로 자기 씨족의 이름을 삼아 혈연관계를 구분하기도 한다. 20세기 초부터 스코틀랜드의 프레이저(James O. Fraser) 등 서구의 선교사들이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노력하여 상당수의 리수족을 개종시켰으며 특히 미얀마에 거주하는 리수족을 많이 개종시켰다. 오늘날에는 중국 내에서 약 30만 명의 리수족이 카톨릭을 비롯한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한다.<sup>13)</sup> 일부다처제 사회이며 자녀는 결혼하면 반드시 부모를 떠나 독립하되, 막내아들이나 독자라면 부모를 돌보기 위해 남으며 후일 재산을 상속받는다. 딸은 상속권이 없지만 남편을 부모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여 상속할 수는 있다. 결혼은 부모가 결정한다.

장례는 매장으로 하며 매장할 때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다. 노인이 죽으면 2~3일 동안 온 마을이 일을 쉬면서 술과 고기 등을 가지고 가서 애도를 표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 제사를 지내준다.

리수족은 정직을 중요하게 여겨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꼭 소리를 질러서 주인을



찾아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간다. 이들에게 있어 집의 앞이나 뒤쪽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집안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실례이며, 저녁에 출입할 때는 꼭 문을 닫아줘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 다리를 가로타고 지나거나 화로를 가로타고 지나거나 제사를 지낼 때 함부로 들여다보면 실례가 된다. 일생에 두 번 이름을 짓는데, 태어날 때와 결혼할 때가 그것이다. 태어날 때 지은 이름은 혼의 이름이라고 여겨 어른이 된 뒤에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죽은 후 무당이 제사에서만 부를 수 있다.

### 9. 라후족(拉祜, Lahu)



라후족은 중국 내에 45만 3,705명이 살고 있으며 (2000년), 운남성에 거의 대부분인 약 45만이 살고 있으며 미얀마에도 15만 정도가 살고 있다. 태국에서도 6대 고산 민족 중 하나로 10만 정도가 살고 있다. 라오스에도 만 명 정도가 있으며 베트남에도 산다. 운남성에서는 2000년에 44만 7,631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운

남성의 란창(瀾滄) 라후족 자치현과 맹련(孟連) 타이족라후족와족 자치현 진원(鎮沅)이족하니족라후족자치현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라후나' (拉祜納, 검은 라후), '라후시' (拉祜西, 황색 라후), '쿠쑹' (苦總, 산의 백성) 모두 세 가지 하부민족집단이 있다. '라' 는 호랑이를 뜻하며, '라후' 는 호랑이를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정도로 '용감한 사람들' 이라는 의미이다. 언어는 한 · 장 어족 티베트 · 미얀마 어군에 속한다. 란창(瀾滄)강을 경계로 서부의 라후나와 동부의 라후시 두 방언으로 구분되는데, 인구의 70%가 라후나를 사용한다. 타이어나 한어를 말할 수 있는 인구도 많다. 문자는 고유문자가 없고 단지 나무에 칼자국을 내거나 대나무 조각을 묶어 소식을 전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라후 문자는 라틴 문자를 기초로 1957년에 만들어졌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타이족의 세력 하에 놓여 있으며 타이족의 지배하에 화전 경작과 수렵으로 생업을 하며 '문' (사냥꾼)이라고도 불렸다. 라후족이 거주하는 땅은 란창 강을 끼고 있는 데다 기름진 땅이라 벼농사 외에도 옥수수 · 메밀 · 차 · 담배 등도 많이 재배하며 울창한 삼림도 있어 목재와 약초가 풍부하다. 또한 그들의 거주 지역 부근에는 철 · 구리 · 납 · 알루미늄 · 석탄 · 은 · 텅스텐 · 운모 등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들의 가옥은 타이족의 가옥과 유사하다.

종교는 다신교적 형태로, 천신으로 '어샤(Exia)' 를 최고신으로 모시며 촌락의 신, 가정의 신 등에게 제사를 지낸다. 일이 있을 때는 무당인 모바(魔巴)를 불러 귀신을 쫓는 의식을 맡긴다. 불교가 17세기 후반에 한족과 바이족을 통해 소개되어 널리 퍼졌고 19세기부터 미얀마를 통해 들어온 기독교도 전파되어 오늘날 3만 5천에서 5만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한다.

라후족의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나무뿌리로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어 여자에게 선물을 하는데, 여자도 그가 마음에 든다면 오색 허리띠를 만들어 선물로 준다. 약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 집에 약혼식을 하러 3번을 찾아 가야 한다. 첫 번째는 차 한 봉지, 담배 한 묶음, 술 한 병을, 두 번째는 차를 끓이는 다기(茶器) 2세트와 담배 두 묶음, 술 12 병, 세 번째는 손으로 짠 천 한 필과 곡식, 푸른 천 한 자를 예물로 가지고 가야 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라후족의 결혼식은 잔칫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모닥불을 피워놓고 마을사람들이 와서 그 모닥

13) <http://www.joshuaproject.net/peopctry.php> 여호수아 프로젝트 리수족

불을 돌면서 춤추고 노래를 하는 형식으로 한다. 모닥불을 돌면서 복을 빌어주면 두 사람이 불같은 열정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후족 사회는 일부일처제가 전통이다. 지역에 따라 결혼에 있어 부모의 결정권 없이 본인들 자유의사로 하는 지역도 있고 모계 중심 사회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장례 방식은 전통적으로 화장인데 지역에 따라 돌무덤에 매장하는 전통을 가진 곳도 있다. 장례식에는 죽은 이가 생전에 쓰던 물건을 가지고 가는 여성에 의해 진행된다.

## 10. 와족(佯, Va)



와족은 운남성의 서남부에 주로 거주하며 미얀마에도 산다. 중국 내에서 그들의 인구는 2000년 조사 기준으로 39만 6,610명이다. 미얀마에는 약 33만 명이 산다고 알려져 있다. 운남성에서는 2000년 조사에서 38만 3,023명을 기록하였다. 사모(思茅)지구의 서맹(西盟) 와족 자치현과 립창(臨滄) 지구의 창원(滄源)현, 쌍강(雙江)현, 경마(耿馬)현 등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을 지배하던 타이족이 이들을 '가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노예, 예속민을 뜻한다. 사는 지역에 따라 자신을 '부라오'나 '바라오', 또는 '아와', '라' 등 다르게 칭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와족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켜 부른다.

언어는 오스트로아시아 어족 몬·크메르 어군에 속하며 4가지 방언이 있다. 문자는 원래 없었지만 1957년부터 중국 정부가 만들어 주어 이를 쓰고 있다. 그 이전에는 강냉이 알의 개수나 매듭, 칼자국 등으로 숫자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아열대 기후와 비옥한 토지에 강우량도 많아 벼·옥수수·기장·메밀·감자·목화·삼·담배·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아열대 식물인 바나나·파인애플·망고·파파야·오렌지 등도 재배한다. 또 빈랑 열매를 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와족은 검은색 옷을 위주로 하고 붉은 색으로 장식을 한다. 남녀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는데,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몸에 걸치는 것을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귀에 구멍을 뚫은 후 대나무를 찢어 넣어 점점 그 구멍을 크게 만들어 큰 귀걸이를 달고 다닌다. 남녀 모두 술과 담배를 좋아한다. 특히 손님이 오면 술을 대접하는 것이 예의인데, 술잔이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 통에 술을 담아 와서 주인과 손님이 나누어 마신다.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주인은 대나무 통 하나로 대접을 하고 통을 돌릴 때는 반드시 손으로 자신의 입이 닿았던 부분을 닦고 건네준다.

와족의 촌락은 언덕 꼭대기나 경사에 만들어진다. 한 가정의 새 집을 짓는다면 다른 이웃들이 와서 일손을 제공해주고 목재나 짚 등을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어 보통 집짓기는 하루 만에 끝난다. 기둥을 세운 후 거기에 집을 짓되 가축을 둘 만한 공간을 충분히 남겨두며 짓는다. 와족 중에서도 서맹 와족 자치현과 립창 지구의 와족이 큰 줄기를 이루는데, 서맹의 와족은 화전농업 위주로 벼나 옥수수를 재배하며 종교는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 신앙을 가진다. 립창 지구의 와족은 화전 농업을 점차 안 하고 있으며 산비탈에 경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와족 특히 서맹의 와족은 촌락 내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목고(木鼓)를 가지는데, 중요한 축제 때 두드린다. 씨 뿌리기 전에 소를 잡아 신에게 제사하고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루며, 이때 목고가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무당이 이를 진행한다. 또한 소승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 불교 사원도 많이 있다. 근대 이후 기독교도 들어왔으며

선교사들이 문자까지 만들어 내어 그것을 성경 번역에 이용해 선교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7만 5천의 외족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장례식을 특히 중시하여 혼을 부르는 무속행사가 성행한다. 외족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사람을 보호해준다고 여겨 죽은 사람을 위해 명당자리를 선택해 주고 제사를 지내며 죽은 후에도 생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가 쓰던 도구와 장신구를 무덤에 넣어준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첫 한 달 동안 참대관을 사망자의 입에 꽂아 놓고 매일 음식을 흘려 넣어 그 영혼이 먹도록 하는 곳도 있다.

외족의 사회는 일부일처제이다. 부계 중심이고 재산의 상속은 막내아들에게 하며 딸들은 상속권이 없다. 남자가 16세가 되면 여자 집을 찾아다녀도 되며 딸이 있는 외족들은 오히려 젊은 남자들이 자기 집을 자주 들락거리면 딸이 인기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한다. 남자가 찾아오면 설렁 늦은 밤이라도 부모가 자리를 피해줄 정도로 자유연애 분위기인 민족이다. 혼인 전 성관계도 자유로운 편으로, 빈랑 열매나 담배 잎 같은 것을 정표로 준 이후라면 동침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연애의 자유는 결혼이후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결혼식은 부모들이 주관한다. 단,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는 결혼을 할 수 없다. 또한 외족에게는 이족과 비슷한 교차 사촌혼이 남아있다. 이혼은 거의 없는데, 악몽을 꾸고 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호랑이 꿈, 다리가 무너지는 꿈, 나무가 부러지는 꿈, 남자가 새 옷을 입는 꿈은 흉조라고 하며 둘의 이혼 사유가 된다. 단, 삼림·바나나 나무·강물·과일을 먹는 꿈은 길조라고 생각한다. 외족의 앞에서 자신의 머리나 귀를 만진다거나 그 집 딸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청혼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므로 정말로 마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 11. 나시족(納西, Naxi)



나시족은 2000년 조사에서 30만 8,839명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주로 운남성의 러강(麗江) 나시족 자치현과 그 주변에 살고 있으며 서천성의 염원(鹽源), 염변(鹽邊), 목리(木里) 등의 현과 티베트의 망강현(茫康縣)에도 살고 있다. 이들은 평균 해발 2,700m가 넘는 고산 지대나 계곡에 주로 산다. 민족명칭인 '나시'는

민족자칭으로 '나(納)'는 '검은색'을 의미하며 '시(西)'는 '당신'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외의 자칭 중 하나로 '나환(納桓)'이 있는데 이는 '검은 사람', 또는 '검은 부족'이란 뜻이다. 이는 이 지역의 햇볕이 강해 그들의 피부가 검게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남성의 나시족 인구는 2000년 조사에서 29만 5,464명을 기록하였다.

나시족은 이족과 마찬가지로 오번(烏蕃)계 자손으로 보이며, 목(木)씨 토사(土司)의 지배아래 한문화를 받아들여 그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지배 계층의 성인 목씨도 명나라 주원장이 하사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허(和)씨가 많은데 이는 목씨 지배계층이 지어준 것이다.

나시어는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에 속하는데, 진사(金沙)강을 경계로 동서 방언으로 구별되며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문자는 의례용 경전인 '동파경전(東巴經典)'에 쓰이는 상형문자인 동파문자와 표음문자인 구파(哥巴)문자가 전해지지만, 이는 서부 방언지역에만 있는 것들이지 동부 방언지역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문자들은 무당들만 사용하였으며, 특히 1200~1300자 정도의 동파문자로 기록된 '동파경전'을 완전히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나시족들은 한족과 오랫동안 접촉하여 그 영향을 받아 한문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어 보급률이 70%를 넘

을 정도로 한어에 능통하다. 고대 중국에서 나시족은 과거에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하는 등 학구열이 높은 민족으로 유명하였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나시족은 학구열과 그 성취도가 높은 민족으로 이름나 있다.



**나시족은 목(木)씨 토사(土司)의 지배 아래 한문화를 받아들였다. 지배 계층의 성인 목씨도 명나라 주원장이 하사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허(和)씨가 많은데 이는 목씨 지배계층이 지어준 것이다.**

농업은 나시족에 있어 주요 생업이다. 하천 계곡이나 분지에서는 벼나 옥수수·재배하고, 산간 지역에서는 감자·옥수수, 그리고 콩의 일종인 백운두(白雲豆)를 재배하며 염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한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금·은·구리·알루미늄·망간 등 비철 금속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수자원도 풍부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한 여강현의 수공업은 수준이 높아 철·구리·목공·도금·섬유·제지·건축 등에 뛰어나다. 특히 구리 공예와 가죽 제품이 유명하다. 또한 여강현은 중국과 인도의 무역에 있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최근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

종교는 '동파'라 불리며 동파문자의 주요 전승자이기도 한 샤먼에 의해 전해지는 동파교가 있다. 동파교는 나시족의 원시종교로 동파의 지위는 원시종교에서의 무당과 거의 완전히 같으며 세습적으로 이어진다. 동파는 평소에는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종교 활동에 의해 약간의 소득을 얻을 뿐 특권을 통해 횡포를 부리는 일은 없으며 동파들 간의 계층도 없이 평등하다. 동파교의 내용은 애니미즘, 영혼불멸, 조상숭배가 주가 된다. 이 외에도 불교, 도교, 티베트 불교 등이 들어왔으며, 특히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이 커서 그 내용이 동파교에도 받아들여졌다.

나시족은 영혼불멸을 믿는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쌀, 채소 잎, 돈 등을 시신의 입에 넣어주며 땅위에 지옥과 극락세계가 그려진 수 십 자나 되는 그림을 펴놓고 동파를 불러다가 굿을 하며 사망자의 영혼이 천당에 오르도록 인도하게 한다. 화장이 전통적인 장례 방법이었으나 명·청 이후 토장이 많아졌다. 이들은 죽은 가족의 영혼이 가정의 수호신이 된다고 믿어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평상시 식사 때마다 조상에게 간단히 제사를 지내고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다. 자유연애가 보통이고, 남자 집에서 차 2통, 설탕 4-6통 등을 여자 집에 예물로 쥐야 약혼을 할 수 있다. 결혼식 때 신랑 측이 가면 신부 측은 대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때 신랑은 붉은 종이에다 돈을 써서 집 안으로 던진다. 그래도 문을 알려면 대문을 밀어서 열어 버리고 들어가서 가지고 온 예물을 펼쳐 보인다. 이 예물을 신부 측에서 본 후에야 그 신부를 데려갈 수 있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신랑 측에서 동파를 모셔 와서 집안 제일 가운데 앉혀 놓고 신랑신부가 같이 절을 하면서 동파가 나시족 언어로 불러주는 축복의 노래를 듣는다.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제 가족 구조이며 아내의 발언권은 약하고 상속권도 없는 남편 중심의 가정이다. 단, 려강(麗江)지구 녕량(寧蒗)이족 자치현에 집단 거주하는 모수(摩梭)족의 경우는 나시족의 일파로 분류되면서도 이들과 구분되는 모계 중심 사회를 가지고 있다. 모수족의 전통에서는 아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며, 태어난 자녀는 모계에 귀속되고 있다. 한편 나시족에게 있어 말을 타고 문 앞까지 오는 것, 집 안의 화로에 발을 올려놓거나 재를 뒤집는 행위, 집 문턱에 앉는 행위, 집 문턱에 물건을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욕으로 여기며, 집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싫어하고 개고기를 먹지 않는 등의 금기가 있다.



## 12. 야오족(瑶, Yao)



야오족은 중국 남부와 서남부의 산악 지대에 거주한다. 2000년 인구조사에서는 263만 7,421명이 중국에 거주한다고 조사되었고, 베트남에도 47만 정도가 살고 있으며 라오스 북부와 미얀마에도 거주하고 태국 북부에도 6만 정도가 살고 있다. 중국에서는 광서 좡족 자치구, 호남성, 운남성, 광둥성, 귀주성 등에 거주하며 특히 광서 좡족 자치구에 인구의 67%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해남도에도 6만 1천 정도의 야오족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마오족이라고 보고 중국정부도 이들을 마오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운남성의 야오족은 2000년 19만 610명을 기록하였다. 운남성 야오족의 88%가 부녕(富寧), 금평(金平), 하구(河口), 마리파(麻栗坡), 광남(廣南), 멩라(勐腊), 원양(元陽) 록춘(綠春) 등의 현에 거주하며, 이외에도 문산지구의 구북(丘北), 연산(砚山), 서도(西畴), 마관(馬關), 홍하지구의 병변(屏邊), 홍하(紅河), 사모지구의 묵강(墨江), 강성(江城), 경동(景東) 등의 현에도 야오족이 살고 있다.

야오어는 한·장어족 마오·야오 어군에 속하는 것인데, 야오족이 야오어만 쓰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야오어계, 마오어계, 한어, 캄수이어계 등 여러 말을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984년에 중국정부가 라틴 알파벳을 기초로 이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주었으며 그 이전에는 독자적인 문자가 없었고 다만 나무에 금을 새겨 일을 기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화전농업과 수렵을 생업으로 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경지나 수렵장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해왔는데, 현재는 마오족과 마찬가지로 정주하며 밭이나 산비탈을 일구어 농업을 하고 있다. 정주하는 과정에 향 인민 정부가 이들의 정주를 돕기 위해 농업 기술이 우수한 동족(侗族)이나 부이족 등 다른 민족을 투입하여 이들의 농업이나 촌락 운영을 지도하도록 했기 때문에 야오족 촌락 내에 다른 민족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야오족은 주로 논벼·옥수수·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콩·호박·고추 등의 채소도 많이 재배한다. 식용유를 얻을 수 있는 유동(油桐)나무와 염료의 원료인 쪽을 재배하는 경우도 많다. 손님이 왔을 때는 차 잎을 기름으로 볶아 쌀·콩·땅콩을 넣어 만든 유오차(油茶)를 내놓는 관습이 있다. 이들은 식사에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며 거북이·뱀·개고기·뱀장어를 절대 먹지 않는다.

야오족의 주택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나무와 대나무로 짓는다. 보통 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방마다 구석에 조그만 화구가 있어 요리를 할 수 있다. 언덕 경사에 집을 지을 때는 2층 집으로 지어 2층은 생활공간, 1층은 외양간, 헛간으로 쓴다. 마을의 중요한 일은 마을 장로회인 '야오라오(瑶老)'가 결정하는데, 이들은 최고 책임자인 '텐장공(天長公)'과 그 보좌인 '터우무공(頭目公)', 군사지도자인 '관스터우(管事頭)'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는 애니미즘과 조상 숭배를 하며, 도교를 믿는 사람도 많으며 불교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다. 제례나 의례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점이 공통점이다. 영혼불멸을 믿어 죽은 후에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거나 신으로 변한다고 여긴다.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윤회와 비슷한 관념이 있고 바람, 구름, 비, 우레를 관할하는 신들을 위한 신당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야오족들이 믿는 신은 매우 많아서, 적으면 100가지에서 많으면 500가지에 달하는데, 그 중에는 야오족의 민족신 외에 한족의 신인 신농씨 등도 있다. 신당에 모신 신은 하나에서 10가지 정도이고, 신상은 많으면 수십 개씩이나



있으며 돌이나 나무로 만든다. 이외에도 기암괴석, 큰 나무도 신앙의 대상이다. 미신도 많아 큰 돌이 밧으로 굴러 떨어지거나 암탉이 울거나 껍질 없는 달걀을 낳는 것, 뱀이 집에 들어오거나 쥐가 사람을 무는 것을 매우 불길하게 여긴다. 이런 일들이 있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내게 한다. 야오족 무당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 세속생활에서도 지도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무당은 종교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경전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야오족들이 오래전부터 한문을 써왔기 때문이다.

야오족은 조상을 잘 모시지 않으면 조상이 그 후손을 보호해 주지 않아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성묘를 가는 것은 야오족의 보편적인 조상숭배 활동이다. 이 외에도 7월에는 조상신을 위해 가정마다 제사를 지낸다. 이때 지전을 태워 조상에게 쓸 돈을 바치고 좋은 옷을 태워 입을 것을 보내줌으로써 존경을 표시한다. 매일 식사 전에도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조상신에게 먼저 음식을 권한 뒤 먹음으로써 조상에게 존경을 표시한다.

여자는 15~16세가 되면 머리에 빨간 수건을 돌려 매어 자신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남자는 17세가 되면 동네의 가장 연세 많은 어른의 교훈이 담긴 노래를 듣는 것으로 성인식을 치른다. 젊은이들이 연애는 자유로운 편이지만 결혼에는 양가 부모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만 한다. 남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할 때는 서로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입으로 물어 약혼의 증거물로 삼는다. 중매쟁이를 통해 보내는 약혼식의 청탁물은 담배 한 봉지인데 동의하지 않으면 담배를 그대로 돌려보낸다.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지 않고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데, 신부의 발이 물에 젖으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하므로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랑 측의 사람이 신부를 업고 건너야 한다. 남자 집에 도착을 하면 대나무로 간단히 대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랑신부를 통과하게 하는데 이로써 잡귀신을 쫓아낸다고 여긴다. 한편 신랑 측은 신부 집에 거액의 예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랑이 이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신부 집에서 팔시를 받으며 살면서 일을 해 줘야 한다.

야오족의 옛 전통에서는 외삼촌이 가정의 중요한 일에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결혼에 있어 외삼촌의 발언권이 매우 커서 그 가정의 딸이 외삼촌의 아들과 결혼하거나 그와 결혼하지 않으려면 거액의 배상금을 외삼촌에게 지불해야만 하는 지역도 있다. 이는 한 집안의 딸을 다른 집안에 주면 다른 집안이 다시 딸을 줘서 갚아야 한다는 사고에서 기인한 것인데, 모계 사회의 잔재라는 시각도 있다. 야오족은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하며, 집 주위에 침을 뱉지 않고 문앞에다 속옷을 말리는 것을 교양 없는 짓으로 여긴다. 손님이 다른 집을 찾아가면 먼저 그 집 아주머니에게 알리고 집주인을 찾아야지, 바로 집 주인을 찾으면 실례가 된다.

### 13. 징포족(景頗, Jingpo)



2000년 조사에서, 징포(景頗)족의 총 인구는 중국에서 13만 2,143명이 살며, 미얀마의 카친, 샴 2개 주와 인도의 아삼지방에서도 살고 있는데, 미얀마에서만도 62만 6천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운남성 덕평 타이족 징포족 자치주의 량하(梁河), 영강(盈江), 룡천(龍川), 로서(潞西) 등의 현의 산간 지역에서 다른 소수민족이나 한족과 섞여 살고 있다. 운남성의 징포족 인구는 2000년 13만 212명으로 조사되었다.

징포족은 5개의 방언 집단이 있다. 그 중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 징포 어계에 속하는 징포어를 쓰는 집단은,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 미얀마 어계에 속하는 다른 네 개의 방언과 차이가 매우 크다. 중국에서는 네 개의 방언 중 하나인 짜이와(載瓦, Tsaiwa)어계의 사람들이 8만 명, 징포어를 쓰는 집단이 4만 명 정도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문자는 징포 문자와 짜이와(載瓦)문자가 있다. 징포문자는 19세기 말에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1957년에 중국 정부에 의해 개정되었고 짜이와 문자는 1957년에 만들어졌는데 둘 다 라틴 문자를 기초로 한 표음문자이다. 그 이전에는 새김이나 매듭으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한족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어와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한족을 통해 모내기과 소를 이용한 농경법을 배웠으나 화전농업이 여전히 남아있고, 식량이 부족하여 채집도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다. 이후 중국 당국이 징포족의 농업 생산력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삼림을 개간하여 농장과 과수원을 만들었고 저수지 및 발전소 등을 건설하였으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공업도 발전시켰다. 오늘날 징포족은 고무·차·커피·목화·동유(桐油)·셀락 등을 많이 재배하며 그들의 지역은 철·구리·납·석탄·금·은·보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목재와 약초가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징포족의 거주 지역은 미얀마와의 국경무역 통로이므로 미얀마와도 관계가 깊다. 집은 주로 깊은 숲속이나 대나무 숲 안에 짓는데 목재나 대나무로 지으며 2층집이 일반적이다. 1층은 식품저장고와 축사로 쓰이고 2층은 생활공간이다. 다만 족장 등 높은 사람은 벽돌이나 기와로 된 집을 짓고 살았다. 방마다 중앙에 화로를 설치해 놓는다. 7~8년마다 집을 새로 짓는데 이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통 며칠이면 작업이 끝난다.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가옥 대신 벽돌집이 증가하고 있다. 남자들은 하얀색이나 검은색 옷을 즐겨 입고 여자들은 붉은색이나 검은색 옷을 많이 입는다. 머리를 터번으로 감싸는 관습이 있는데, 어린 사람은 흰색 터번은, 성인은 검은 터번을 착용한다. 징포족 여자들은 은장식을 몸에 걸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은장식품이 많을수록 부유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여긴다.

촌장을 두인(頭人)이라고 칭하며, 몇몇 촌락이 연합한 연합체를 '문'이라고 칭한다. '문'의 장은 세습되었으며 과거에는 군사권과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어, 과거 한족은 이들을 '산관(山官)'이라 부르며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지역 통치에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징포족은 애니미즘 성향이 커서 행운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정령이 어디에든 있다고 믿으며 모든 생물체가 영혼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혼이 있고 영혼은 죽지 않기에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저승으로 가서 귀신이 된다고 여기며 만약 혼백이 떠나가지 않으면 남아서 집 귀신이 된다고 생각한다. 징포족의 일부는 불교와 기독교를 믿기도 한다.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이 포교에 활용하기 위해 비록 불안정하여 1957년에 중국 정부가 제정한 징포 문자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로마자식 징포 문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노인이 죽은 경우 가족이 바로 총을 쓰는 등의 행위로 이웃친척에게 소식을 알려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장례식은 무당이 점을 쳐서 정한 날짜에 치른다. 장례식은 무당이 주체하고 가족을 잡아 제물로 한다.

마을 옆에 지붕만 있는 초막으로 신당을 짓는데 이 신당에서 음력 34월에 제사를 지낸다. 음력 8,9월에 곡식이 익었을 때도 행사를 하는데 이때는 짐승을 잡지 않고 무당이 굿을 하여 귀신에게 감사드리고 집집마다 서로 청하여 햇곡식을 대접하고 노인들에게 가정과 부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곡식에도 혼이 있다고 믿어 탈곡할 때도 무당을 청해 제사를 지낸다.

징포족의 가정은 일부일처제의 소규모 가정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은 일부다처로 사는 경우가 많다. 부계중심 사회이며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다. 외동딸인 경우에는 사위가 함께 살 수 있으나 사위가 아내 집안의 성으로 자신의 성을 바꾸는 일은 없다. 자녀가 없다면 양자를 들여 보

살핌을 받거나 친척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게 된다. 재산의 상속은 막내아들에게 주어지며 막내아들이 부모님을 공양하며 형제들 중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이들에게 있어 남의 머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는 깔보는 것을 나타내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또 술과 담배는 손님에게 꼭 접대하는데 이를 거절할 때는 반드시 공손하게 거절해야 하며 집안에 들어가 앉을 때도 주인이 앉으라는 곳에 앉아야 하며 집 안에서 휘파람을 불거나 턱을 받치고 앉는 것도 집주인에게 불경한 행위가 된다. 술과 담배를 받을 때 반드시 두 손으로 받아야 하며 닭고기가 나오면 닭 머리는 가장 어른이 되는 분이 먹는 부분이고 발족은 어린 아이들이 먹는 부분이므로 머리와 발 부분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징포족들은 개가 곡식의 종자를 그들에게 전해줬다고 믿어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명절 때 공중을 향해 총을 쏘며 복을 비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에 3발을 쏘면 집에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이므로 총을 쏠 때 반드시 3발 이상을 쏜다.

#### 14. 티베트족(혹은 장족, 藏, Tibetan)



중국 영내의 티베트족은 2000년 인구 조사에서는 541만 6,021명을 기로하고 있다. 티베트 어는 한·장어족의 티베트·버마 어군의 티베트어 갈래에 속한다. 티베트족의 90%는 티베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지만 티베트족이 사는 지역은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넓기 때문에 방언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토번(吐蕃)왕국(633-842)은 티베트족이 건국한 국가인데, 그 왕인 송첸감포(松贊干布)에게 당나라 태종이 딸을 시집보내어 달렐 정도로 토번은 강대국이었다고 한다. 운남성에는 토번 왕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티베트족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운남성에 거주하는 티베트족은 2000년 조사에서 12만 8,432명을 기록하였는데, 비록 사용 어휘의 3분의 1 정도가 티베트어의 차용어이긴 하지만 대부분 티베트어가 아닌 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다. 운남성의 티베트족은 적경(迪庆)에 자치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칭짱(靑藏)고원(티베트고원) 동남부에 접해 있다. 중국 소수민족의 문자 중에서 7세기경에 창제되었다고 알려진 티베트 문자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1300년경의 문자 기록이 현존하는 티베트 문자 기록 중 최고(最古)이다. 티베트 문자는 불교 경전 번역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외에도 각종 학문을 포괄하는 저작을 기술하여 티베트어로 기록된 문헌은 양과 질에 있어서 한문에 이어 2위이다. 티베트족이라는 명칭은 한족이 부르던 호칭이고, 스스로는 '파', 또는 '포에' 라고 칭한다. 오늘날의 한족은 티베트족을 '짱족', 티베트 지방을 '시짱' 이라고 부른다.

농업과 방목을 함께 하며 특히 티베트족 지역의 초원 목장은 중국 전체 목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초원지대에서는 야크·티베트 면양·티베트 염소·말 등을 기르며 소고기와 양고기가 주식이다. 초원지대의 티베트 여성들은 버터를 피부에 연고처럼 바르는데 쓰며, 라마승도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농경지대의 티베트족은 두 마리의 야크로 밭을 가는 방법으로 쌀보리를 주로 경작하며, 쌀보리를 볶아서 가루로 만든 찹파를 주식으로 한다. 찹파에 물이나 차를 섞어 손으로 반죽하여 미숫가루처럼 해서 먹는다.

티베트족들은 차를 좋아해 주로 차에 소금과 버터를 넣어 마시는 버터차를 즐긴다. 그래서 운남성의 차잎이 운남성 티베트족은 물론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족에게까지 판매된다. 이것이 고대의 주요



**티베트 족의 90%는 티베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지만 티베트 족이 사는 지역은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넓기 때문에 방언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무역 루트 중 하나였던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융성 이유 중 하나였다.

농경지대에 사는 사람은 돌로 만든 집에서 살며 초원지대의 가옥은 천막이다. 티베트인의 집은 천장이 편평하고 창문

이 많고 구조와 색깔이 단순한 것이 특징이며 공통적으로 집을 남향으로 짓는다.

종교는 티베트 불교가 지배적이다. '라마'라는 말은 티베트어로 고승을 의미하는 말로 자신들은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로 부르지는 않는다. 불교가 수입되기 이전에는 '본교(本教)'라는 다신숭배적인 원시종교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본교는 원시적 평등 관념이 있고 모든 씨족 부락이 천신의 후손이며 한 형제라고 주장해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왕실(당시에는 토번)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왕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은 불교의 유입은 기존의 지방귀족세력을 자극하여 불교 세력과 반불교적인 보수 세력이 수백 년간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교는 본교의 신들과 종교의식을 받아들여 타협해갔다.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족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곡식을 심거나 수확하는 날도 라마가 정하는 길일에만 할 수 있고, 해충도 불교의 규율에 따라 죽이지 않고 내버려둔다고 한다. 형편이 좋은 티베트 족은 집에 경당을 세워 불상을 걸고 보살을 모신다. 절간, 불탑, 그리고 우리의 서낭당 비슷한 돌무더기에 불교깃발을 세운 '마니두이'를 지나게 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왼쪽으로 돌아간다. 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벗어야 하며,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불상을 가리킬 때는 다섯 손가락을 모아서 가리켜야지 손가락질을 하면 모욕으로 여기며, 절 주위의 나무에 옷을 걸거나 절 주위의 물에 옷을 빨아서도 안 된다. 절 안에서는 반드시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하며,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면 안 된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도 라마가 주최하며 혼례도 약혼 전에 라마를 청해 궁합을 보게 하고 궁합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남녀가 서로 좋아하다고 혼인할 수 없다. 티베트 족의 명절은 거의 모두 종교적인 행사로 티베트 역법으로 설날, 정월보름날 등에 불교 행사를 한다.

티베트의 가정은 남성 중심이며 일부일처제가 대부분이다. 남자가 가정의 통제권과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 복종한다. 매우 소수지만 일부다처가 허락되기도 한다. 일부다처는 주로 아내의 여동생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난한 집에서는 장남이 여자 한 명과 결혼하고 그 밑의 남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일처다부도 있었다고 한다. 계급 내의 결혼만 허락되고 계급 간의 결혼은 엄금된다. 지역에 따라 사촌 간 결혼이 허락되는 곳도 금지되는 곳도 있어 친척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

티베트족은 성씨가 없으며 혈연관계를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 또한 조상숭배의 풍습도 별로 없어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도 첫해 제사를 드린 뒤로 따로 하는 일이 없다. 친척이 아닌 사람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사생아라는 이유로 무시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티베트족에게는 시신을 산중턱에 위치한 천장터로 옮겨 시신을 칼로 자르고 뼈는 잘게 부수어 독수리의 먹이로 주는 '천장(天葬, sky burial)'이라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의 영혼이 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마승들은 화장을 한다.



## 15. 부랑족(布朗, Blang)

부랑족은 중국 운남성에 대부분이 살고 미얀마와 태국에도 약간 거주한다. 2000년 조사에서 9만



1,882명을 기록하였다. 주로 시수양반나 타이족 자치주 멩해(勐海)현, 립창 지구의 쌍강(雙江) 라후족와족 부랑족타이족 자치현, 진강(鎮康)현, 운(雲)현, 경마(耿馬) 타이족와족 자치현 등에 살고 있다. 지역마다 이름이 부랑, 우, 운곤 등으로 달랐지만 현재는 부랑족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 민족의상이 타이족

과 비슷한데, 여성이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운남성의 부랑족은 2000년 조사에서 9만 388명을 기록하였다.

언어는 오스트로아시아 어족 몬·크메르 어군에 속한다. 상당수가 부랑어 외에도 중국어나 타이어, 와어 등을 구사할 수 있다. 독자적인 문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 부랑족의 거주 지역은 온화한 기후에 풍부한 강수량, 기름진 토양을 가지고 있어 농사에 적합하다. 주요 작물은 쌀·목화·사탕수수·차 등을 재배하는데 푸얼(普洱)차도 많이 재배한다. 삼림도 잘 발달 되어 목재와 약초가 풍부하며 구리·철·유황·수정도 많이 매장되어 있다.

부랑족은 쌀·옥수수·콩을 주로 먹으며 시거나 매운 음식을 즐긴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즐긴다. 부랑족의 여성은 빈랑(betel) 열매를 씹어서 이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있는데 빈랑의 검은 물이 들면 아름답게 보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집은 대나무로 주로 만들며 보통 2층집을 만든다. 1층은 식량과 가축을 기르는 축사로 쓰이고 2층은 가족의 생활공간이 된다. 굴뚝은 집의 중앙에 위치한다. 죽은 사람은 매장하며 그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로 죽었을 때는 화장을 한다. 종교는 다신숭배와 조상숭배가 주이고 시수양반나 등지의 부랑족은 소승 불교를 많이 믿는다. 란창, 목강에 사는 일부 부랑족들은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조상 숭배와의 문제로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수양반나의 부랑족은 타이족역법으로 10월에 부락신 제사를 지낸다. 부락신 제사는 7일간 지속되고 첫날이 가장 중요하여 외인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돼지 한 마리를 벌금으로 바쳐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 마을사람들은 밖에 나가 물 길는 것, 일하는 것, 대변보는 것, 높은 소리로 떠는 것을 엄금 당한다. 목강의 부랑족의 부락신 제사는 3년에 한번 음력 2월에 행한다. 행사는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에서 진행하며 휘파람이나 악기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들은 부락신 제사가 끝나도 사흘 간 제사 장소로 쓴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며 일하러 나가지도 못하며 타지인의 출입도 엄금한다.

부랑족은 일부다처제의 가정이다. 성씨는 없는데 보통 어머니의 이름을 비슷하게 따라 지어 모계 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남자가 15세가 되면 남자는 이에 검은 물을 들이고 여자는 큰 귀걸이를 거는데 이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이며 이때부터 자유연애를 할 수 있다. 단, 같은 씨족의 사람끼리는 연애를 할 수 없다. 여자 집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오면 부모가 자리를 비워주면서 놀다가라고 할 정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이다. 물론, 불한당 같은 자가 딸을 찾아오면 몽둥이질로 쫓아내는 것은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이다. 약혼의 증거물로 남자는 여자에게 은 귀걸이·목걸이·팔찌 등을 선물로 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수놓은 가방을 준다. 여자가 남자의 얼굴에 검은 재를 바르는 것은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이므로 남자도 여자가 마음에 들면 부모를 졸라 중매쟁이를 보내 청혼을 한다. 여자는 부끄



러운 듯이 몽둥이로 중매쟁이의 발 주위의 땅을 때리며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중매쟁이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결혼날짜를 잡아 준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신랑이 영원히 신부 집에서 처가살이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동안만 있다가 남자 집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다.

## 16. 부이족(布依, Bouyei)



부이족은 중국 남부와 베트남 등에 살며 중국에서는 2000년 조사에서 297만 1,460명으로, 56개 민족 중 11번째로 많다. 중국에서는 귀주성과 운남성 사천성의 아열대 고원 삼림지대에서 산다. 운남성의 부이족 인구는 2000년에 5만 4,695명을 기록하였다. 운남성에서 부이족의 주요거주지는 곡정(曲靖)지구의 라

평(罗平), 사종(师宗), 부원(富源), 문산(文山)지구의 광남(广南), 구북(丘北), 연산(砚山), 부녕(富宁), 홍하지구의 몽자(蒙自), 호서(泸西)현 등이다. 남성은 씨름을 좋아하기로 유명한데, 부이족의 씨름은 두 명이 머리와 머리를 부딪치는 것으로, 소싸움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부이어는 한·장 어족에서 캄·타이 어군에 속하며 좡족과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민족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일 정도로 언어가 좡족과 비슷하나 좡족은 검은색 옷을 즐겨 입는데, 부이족은 검은 바탕에 청백의 격자무늬를 한 터번을 머리에 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구별이 어렵지 않다. 1956년에 라틴 알파벳을 기초로 문자를 만들었다. 부이족은 주로 홍수이(紅水) 강변의 평야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전통적으로 찹쌀을 재배한다. 이외에도 밀·기장·메밀·감자·콩을 많이 재배하며 목화·모시·담배·사탕수수·동유·차, 그리고 그 기름을 짜 차에 첨가하는데 쓰는 동백나무도 많이 심는다. 부이족은 예술과 수공업에도 뛰어나다. 특히 그들이 만드는 남염<sup>14)</sup> 기술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일부 일처제 사회이며 연애는 자유로운 편이다. 축제기간 등에 남녀가 서로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면 비단실로 만든 공을 남자에게 던져 구애하며 남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서로 사귀게 된다. 하지만 연애의 자유는 공산혁명 이후의 일로 과거에는 부모가 결혼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결혼식의 풍습이 독특한데, 신랑 측이 선물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면, 신부 측에서 긴 대나무로 신부 집 어귀쯤에서 길을 막고 신랑 측의 사람들에게 술을 한잔 씩 주는데, 신랑 측에서는 준비해 온 선물을 그들 각자에게 하나씩 쥐여 그 대나무를 통과할 수 있다. 신부 집에 도착해서 신랑이 신부 집 조상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 사이 신부 측은 신랑의 선물을 모두 슬쩍해서 감추어 놓는데, 인사가 끝난 후 이 선물들을 다시 신랑 측에 판매를 한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남녀들이 긴 상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며 밤을 보낸다. 이튿날 아침에 남자는 다시 신부 집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린 후 밥상의 젓가락을 쥐어서 뒤로 던진다. 이 젓가락을 던지는 행위는 빨리 귀한 자식을 낳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한편, 부이족 여자는 결혼한 후에 다시 자기 집에 와서 1년 반에서 5년 후에야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종교는 애니미즘과 조상숭배 중심이며 한족과의 접촉으로 불교, 도교의 영향도 받았고 청나라 말기부터 기독교도 들어왔으나 매우 소수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가서 귀신이 된다고 믿는데, 특히 조상의 영혼이 자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기며 숭배한다. 악한 귀신이 질병과 재앙

14) Batik 혹은 paraffin dye. 꿀벌이 만드는 물질은 밀랍의 방염작용을 이용하여 무늬를 염색하는 기술. 바탕색을 밀랍으로 덮고 흠을 파는 식으로 그림을 그린 후 염색하는 방법, 밀랍으로 원하는 모양을 그린 후 그 위에 염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을 일으킨다고 여겨 일이 생기면 무당을 청해 각종 제사의식을 치른다.

부이족의 집단적 제사의식이 3월 3일과 6월 6일에 있는데 이때 마을마다 돼지나 소를 잡아 산신, 부락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런 제사를 지낼 때는 외인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역에 따라 3월 3일에 제사 대신 성묘를 하는 곳도 있고 자운락하(紫云洛河) 일대에서는 6월 6일에 제사 대신 6월 장을 열어 주위 사람들이 모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개가 지붕에 올라가거나 혜성이 나타났을 때도 불길하게 여겨 무당을 청해 행사를 한다.

부이족은 개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강아지를 데리고 5곡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청년이, 5곡을 다 찾은 후에 너무 지쳐서 길에서 죽게 되자 강아지에게 그 곡식들의 전달을 부탁했는데 강아지가 끝내 마을에 돌아가 그 5곡의 종자를 전달했다고 한다. 강아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5곡을 심어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하여 부이족은 가장 큰 명절인 구정 때 제일 맛있는 음식을 강아지에게 맨 처음 준다고 한다. 부이족의 금기는, 산신제를 지낼 때 말을 하면 안 되고, 가을에 문을 뚫으면 안 되고, 객사한 사람의 시신을 집에 들이지 않으며 첫 우레가 올면 며칠 동안 밭에 나가지 않으며 특히 혼인날에 우레가 치면 이를 취소한다.

## 17. 아창족(阿昌, Achang)



아창족은 스스로를 '멍짜' 나 '한짜' 등으로 부르는데, '아창'은 한족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다. 중국과 미얀마에 살고 있다. 중국 내에는 3만 3,936명이 살고 있는데(2000년), 특히 운남성의 덕굉(德宏) 타이족 징포족 자치주에 중국 내의 대부분인 27,600명이 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룡천(龍川)현의 후싸·라짜 지

구와 량하(梁河)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후싸 지역에 사는 후싸 아창족은 한화(漢化)의 정도가 매우 크며, 스스로를 아창족과는 별개의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운남성의 아창족 인구는 2000년 3만 3,519명을 기록하였다. 언어는 한·장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에 속하며 양하, 호살 두 가지 방언이 있다. 문자는 없어 한문을 쓰고 있다. 한족이나 타이족과 함께 거주한 지 오래되어 한어나 타이어 등 다른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기후가 온화하고 농사에 적합한 땅이 많아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하천 계곡에서는 벼농사를, 산간에서는 옥수수나 메밀 농사를 한다. 주식은 쌀이며 신 음식을 즐긴다. 또한 철을 잘 다루어 철제 농구로 농사를 짓는다. 특히 이들이 만드는 칼은 유명하여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일부러 아창족의 촌락까지 찾아와 칼을 사갈 정도다. 대표적인 칼로 후싸 아창족의 후싸다오(戶撒刀)가 유명하다. 또한 이들의 지역에는 석탄·철·구리·납·운모·흑연 등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집은 벽돌이나 돌로 짓고 나무기둥으로 이를 떠받친다. 집 가운데에 큰 거실이 있는데 거실 가운데에 화로를 설치해놓는다.

그들의 전통복은 촌락마다 다른데, 미혼여성은 두 개의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으며, 기혼여성은 긴 치마를 입고 미혼여성은 바지를 입는다. 미혼남성은 흰색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기혼남성은 푸른색 천으로 감싼다. 타이족의 영향으로 후싸지역을 중심으로 소승불교를 믿는 이가 많으며 4월의 '문닫기절', 12월의 '문열기절', 5월의 '물치기절', 선날 열나흘의 '흰장작 태우기' 등 종교 명절을 가져 이 행사 때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절간에 재물을 바치며 부처의 보호를 빈다. 그러나 다신숭배와 조상숭배 같은 원시종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세상만물에 신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착한 신의 보호를 받고

나쁜 신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마을마다 신당을 세우는데, 신당에는 손이 여섯 개 달린 땅귀신을 모신다. 이 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보고 일 년에 세 번 2월 말일, 5월 28일, 6월 25일 제사를 지낸다. 이 외에도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방'이라는 신과 곡식창고를 지키는 눈먼 여인의 혼인 '구치'라는 신 등이 있다. 방의 상징물은 참매 막대기나 강냉이대로 이를 조상신주 옆에 모시며, 구치의 상징물은 대들보 위에 놓는 작은 광주리이다. 아창족은 인간에게 영혼이 세 개 있어 인간이 죽으면 그중 하나는 무덤으로, 하나는 집에 남고, 하나는 신당에 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당을 청해 복잡한 장례의식을 행하여 세 가지 영혼을 각각 다르게 보내는 의식을 치른다. 집에 남는 혼을 위해 한족들처럼 집에 신주를 만들어 모시고 설, 7월 10일, 8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집에 모신 신주는 집 식구 외에는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후싸지역의 아창족은 절도 등의 사건이 생기면 기름 한 가마를 끓이고 쌍방이 동시에 가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손을 데인 사람이 진 것으로 하는 재판을 하거나 맹세를 하게 한 후 그 맹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따라 재판에 이기고 진 것을 결정하는 풍습이 있다.

아창족의 사회는 부계제의 일부일처제이고 부모의 재산은 막내아들이 상속받는다. 1949년 이전에는 부모가 결혼을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결혼 상대를 자신이 고를 자유가 있는 문화가 되었다. 남자는 밤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집 앞에 가서 피리를 부는데, 피리 소리를 들은 부모는 두 사람의 장소를 마련해주고 잠이 든다. 이후 여자가 남자를 들여보내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은으로 장식이 가득되어 있는 옷을 주는 행위가 결혼할 의향을 전달하는 것이며 이때 여자 측은 결혼날짜를 잡아서 전달해 준다. 날짜를 받으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의 밤에 남자는 남녀 친구 한 명씩을 데리고 여자 집으로 가서 몰래 여자를 데리고 나온다. 가는 도중에 다리를 건널 때마다 남자 측은 담배와 동전을 다리 머리에 올려놓아 자신이 데리고 간다는 표시를 해 둔다. 남자 동네에 도착하면 바로 남자의 집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친구 집에 가서 하루 밤을 잔 후에 다음날에 남자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때 신부가 신랑 집 우물의 물을 길어와 신랑에게 전달하고 신랑이 이 물을 주방까지 들고 가면 결혼식이 끝나고 정식으로 부부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 다음날 신랑 측에서 예물을 들고 신부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베푼다.

남의 집을 갈 때 자신의 물건을 아무 곳이나 놓으면 안 되고 특히 총이나 칼을 들고 가는 것은 결례가 된다. 모닥불을 가로타고 넘거나 모닥불에 침을 뱉거나 밟아버리면 집주인은 모욕감을 느낀다. 또한 주인이 권하는 술·차·담배는 아무리 싫어도 일단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 정월 초하룻날 짐승을 잡는 것을 불길하다며 꺼리고 형제가 결혼한 후에는 서로 상대방의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들이 다락 위에 거처하지 못하며 남자들이 치마를 걸어 말리는 곳을 지나면 안 되는 등 여러 금기가 있다.

## 18. 푸미족(普米, Pumi)



푸미족은 대부분 운남성과 사천성의 해발 2천~3천미터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2000년 조사에서 3만 3,600명을 기록하였다. 푸미족은 스스로를 '푸임미', '푸르미', '페이미' 등으로 불렀는데, 이는 모두 '백인(白人)'이란 뜻이다. 1960년부터 푸미족이라는 명칭이 통틀어 쓰이기 시작했다. 운남성의 푸미족 인구는 2000년에 3만 2,923명으로 조사되었다. 노강(怒江)리수족 자치주의 란평(蘭坪) 바이족푸미족 자치

현에 약 43%가 거주하고 있으며 려강(麗江) 지구의 녕량(寧蒗) 이족 자치현과 려강(麗江) 나시족 자치현에 약 45%가 거주하고 있다. 일부는 서천성에 거주하기도 하고 티베트 자치구에 살기도 한다.

푸미어는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에 속한다. 과거에는 종교적 목적으로 티베트 문자를 사용하거나 ‘한규문(韓規文)’이라는 장족문자와 비슷한 자모문자도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한문을 주로 쓰고 있다. 푸미족은 원래 티베트 고원에 사는 유목민이었는데, 따뜻한 지역을 찾아 기원전 4세기 경 이주를 시작하여 7세기에 사천성으로 이주해왔고 13세기에 몽골군을 따라 운남성으로 이주해왔다. 이주한 후에는 많은 숫자가 농경으로 전환하였는데 명대 이후에 나시족 토사 아래 예속되어 푸미족의 독자적인 사회나 문화를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들의 주식은 옥수수이며 옥수수 외에도 쌀·밀·보리 등을 많이 재배하며 채소는 배추·당근·멜론 등을 많이 심는다. 소금과 향료에 절인 돼지고기를 난로 위쪽 연기가 빠지는 통풍구에 매달아 놓아 말린 ‘피파(papa)’라는 전통 음식을 즐기며 술과 담배, 차를 좋아한다.

푸미족의 집은 완만한 산 경사에 2층집으로 지으며 재료는 목재를 사용한다. 1층은 동물을 위한 공간이고 2층은 사람의 생활공간이다. 2층의 거실 가운데 화로를 설치하고 가족들이 모여 불을 쬐다. 문화적으로 티베트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여성들은 머리를 비단 끈이나 야크(yak) 꼬리털로 묶고 천으로 감싼다. 남성은 티베트식 모자를 많이 쓴다. 사냥꾼이나 전사는 티베트식 칼과 사슴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메고 다닌다.

티베트의 영향으로 불교를 받아들였고 애니미즘과 조상숭배도 강하다. 신령이 깃든 물건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어 집집마다 소나무나 밤나무를 자기 집의 산신으로 삼고 큰 밤나무를 골라 마을의 산신으로 삼는다. 또한 자신들이 마시는 샘물도 신이 깃들었다고 여기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조상 숭배가 매우 극진하여 부뚜막 위에 3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날마다 차 마시거나 술을 마실 때 부뚜막 쪽을 향하여 절하여 조상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푸미족들은 사람이 병나면 귀신의 장난으로 여겨 중을 청해 귀신 쫓는 행사를 하거나 중을 청해 다루는 이웃을 화해시키기도 하였다. 결혼식을 할 때도 중을 청해 염불을 외우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어 액을 막았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 앞에 등잔을 켜 놓고 향을 피우며 절하며 문 밖에 여러 가지 색깔의 베로 만든 깃발을 걸어 상가집이라는 표시를 한다. 매장일이나 제삿날에도 중을 청해 염불을 하게 한다. 라마교를 믿는 푸미족은 부뚜막에 모두 보살상을 모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등잔을 켜고 기도를 한다. 이 장소는 신성한 곳으로 보살을 모신 곳에 앉으면 안 되고 부엌에 있는 재에 구멍을 내면 집주인더러 죽으라고 저주하는 뜻이 된다.

푸미족은 남녀 모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 이때 소와 돼지를 잡아 축하를 하는데 땅에다 돼지고기와 곡식을 놓고 오른발로 돼지고기를 한번 밟고 왼발로 곡식을 한번 밟고 난 후 부엌의 가마를 향해서 절을 세 번한다. 이는 하늘과 땅과 화로신에게 인사를 올린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 후 마을의 어른들에게 절을 하면서 좋은 말씀을 들으며 성인식이 끝난다. 이후 이들은 사회활동과 연애·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푸미족들은 정월 초하루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청하여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 만약 손님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산에 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집에 가져다 놓아 정월 초하루 손님을 모시지 못한 액땀을 한다.

부계사회이며 일부일처제 사회이나 일부다처제도 용인된다. 아들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대대로 살아온 집은 막내아들에게 물려준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상대를 고르며 사촌 간의 결혼을 선호한다. 여자는 15세 정도에, 남자는 18세 정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은 보통 음력 12월에 한다. 두 사람이 약혼 뒤에 서로 돼지의 심장을 교환하면 결혼식을 하자는 뜻이라고 한다. 결혼식은 다소 독특하다. 결혼하는 날에 신부의 부모가 신부에게 산이나 논에서 일을 하라고 시킨다. 신랑 측에서





누족의 언어는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에 속하지만, 현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독자적인 문자는 없고 지금은 한문을 통용한다.

는 신부와 생일이 같은 총각을 보내어 일을 하고 있는 신부를 납치해 오게 한다. 이때 납치범 역할을 맡은 총각은 큰 소리로 신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외치는데,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

은 여자 집에 모여서 결혼을 축하한다. 결혼식을 올린 후 저녁이 되면 신부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며, 임신 혹은 출산 때까지 계속 친정집에서 지내게 된다. 결혼 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꼭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을 가야하며, 친형제가 없으면 사촌형제들에게 시집을 가야한다. 사촌형제도 없다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

### 19. 누족(怒, Nu)



누족은 2000년 조사에서 2만 8,759명을 기록하였으며, 주로 운남성에 있는 노강 리수족 자치주의 복공(福貢), 공산(貢山)이나 벽강(碧江), 란핑(蘭坪) 등에 거주한다. 누족의 이름은 그들이 노강(怒江)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 명칭이 나온 것이다. 운남성의 누족 인구는 2000년 조사에서 2만 7,738명을 기록하였다.

누족의 언어는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에 속하지만, 현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공산현에서는 두롱어를, 푸공현에서는 아농어, 비장현에서는 이어계의 누스어, 란핑현에서는 루오로와어를 각각 사용하며 함께 거주하는 리수족의 언어도 대부분 할 줄 안다. 그들의 독자적인 문자는 없고 지금은 한문을 통용한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고 옥수수·보리·감자·메밀·참마·콩 등을 재배하며 채소는 그다지 재배하지 않는다. 주식은 옥수수와 메밀이다. 중국 공산 정부가 개산 노력을 기울이기 이전에는 비료도 쓰지 않고 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조잡한 농업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소출이 낮아 부족한 식량을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충당하고는 했다. 가내수공업으로 아마포, 대나무·목공예품, 술 등을 만들어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삼림이 잘 발달되어 목재와 약초가 풍부한 지역이며 강수량이 많이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다.

누족의 집은 대나무나 목재로 만든 집에서 산다. 집은 2층으로 1층은 곳간·축사·저장소로 쓰이고 2층은 생활공간이다. 2층도 안쪽의 방들과 바깥쪽의 방들로 나뉘는데, 안쪽의 방들은 침실과 저장고로 쓰이고 바깥쪽 방들은 부엌과 사랑방으로 쓰인다. 아마포로 만든 옷을 주로 입으며 여자는 색깔 있는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하기도 하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구리 귀걸이를 끼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왼쪽 귀에 산호로 만든 귀걸이를 하며 왼쪽 허리에 단도를 찬다.

누족에게 있어 소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다. 경작용으로 매우 중요하며 부의 상징이기도 하여 토지 매매나 아내를 데려온 대가로도 쓰인다. 정월 초하루에 가장 먼저 인사를 올리는 대상도 바로 소이다. 또한 정월 초하루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강아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옛날 하늘의 신이 온갖 과일이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누족에게 내렸는데, 큰 소낙비가 내려도



자기 집의 곡식만 챙기고 아무도 이 나무를 돌보지 않아 이 나무가 썩어 버리자 노여워한 신이 이들에게 이 나무를 다시 내려 보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누족들이 양식이 부족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를 본 강아지가 하늘에 대고 매일 같이 서럽게 울어대니 이를 딱하게 여긴 신이 새로운 나무를 내려 주어 누족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누족들은 강아지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다. 누족의 남녀는 연애에 있어 말이 필요 없다. 각자 악기를 연주하여 서로의 감정을 교감하므로 어떤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서로 말 한마디 안 나눈 경우도 있다고 한다.

종교는 티베트 불교와 애니미즘이 주류이다. 소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다. 지역에 따라 그 신앙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북부의 누족에게는 라마교가 주류이고 남부의 누족에게는 기독교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 대부분의 남부와 중부의 누족은 애니미즘을 믿는다. 벌 · 뱀 · 말사슴 · 고라니 · 호랑이 등 고유의 동식물을 숭배하며, 그것을 집단의 명칭으로 삼는 토LEM 신앙 집단도 있다. 무당은 종교의식을 주최하고 점을 보며 의원과 지식인도 겸한다. 이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 이를 전승하는 역할을 하고 지위가 높은 무당은 씨족이나 마을의 우두머리를 겸한다. 그러나 누족 무당들은 종교 활동에서 얻는 수입도 적고 농업생산에 계속 종사한다. 기독교의 유입은 누족의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병이 났을 때 대량으로 짐승을 잡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따른 낭비가 줄었고 외국 선교사에 의해 위생지식을 알게 되어 사망률이 감소되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고 소 몇 마리를 여자 집에 바쳐야 했는데, 교회에서 혼인자유를 주장하고 예물도 소 한 마리로 규정하여 풍속에 변화가 있었다.

누족들은 영혼불멸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장례식을 중하게 여긴다. 남성 노인이 죽으면 이를 마을에 알리고 사망자의 혼에게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참대 나팔을 부는데, 사망자의 신분과 나이에 따라 나팔의 수가 달라진다. 미혼자면 하나, 자녀가 있으면 둘, 우두머리나 무당이면 6~7개를 분다. 나팔소리를 들으면 씨족이나 마을 전체가 사흘 동안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을 중지하는데, 이는 귀신을 만나 병들거나 곡식에 병이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조문객은 술 한 병씩 들고 와서 사망자와 함께 이별주를 마시며 무당이 그의 술을 한잔 부어 시신 앞에 흘려 놓는다. 발인할 때 앞선 자가 칼을 휘두르며 길을 인도하고, 묻은 뒤 저승에서도 쓸 수 있도록 무덤 앞에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놓아둔다. 그러나 누족은 조상숭배의 풍속이 없어 집에 조상의 신주를 두지 않으며, 장례식 후 일 년 만에 찾아가서 성묘한 후 그 이후에는 성묘하지 않는다.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며 부유한 자나 지역의 우두머리에게는 일부다처가 허용된다. 만약 형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과 결혼하거나 동생이 죽으면 계수가 형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지위가 낮아도 일부다처인 경우도 있다. 동일 씨족 간의 혼인은 금지되고 있는데, 결혼 후의 남자는 분가하며 막내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며 부모와 함께 산다. 여성의 지위가 낮아 집안일과 밭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권리는 거의 없다.

## 20. 몽골족(蒙古, Mongolian)



몽골족 581만 3,947명(2000년)으로 소수민족 중 8 번째 규모이다. 주로 내몽골 자치구에 모여 있으며 요녕, 길림, 흑룡강, 신강, 칭해, 감숙 등의 성과 자치구 내에 몽골족 자치주, 자치현을 이뤄서 살고 있으며, 념하, 하북, 하남, 사천, 운남, 북경 등에도 몽골족들이 모여서 혹은 흩어져서 살고 있다. 1252년 몽케칸의 남

송정벌 과정에서 그의 장수로 있던 쿠빌라이가 남송의 방위선을 우회·협공하기 위해서 티베트와 대리국을 정벌하고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족이 운남성으로 유입되었다. 운남성의 몽골족은 2000년 조사에서 2만 8,110명을 기록하였다. 옥계지구 통해(通海)현에 비교적 밀집해서 거주하며 전 성에 분산되어 살고 있다. 몽골어는 알타이 어족의 몽골 어군에 속하며, 내몽고, 바르후부라이트, 위라트 등 세 가지 방언이 있다. 13세기 초에 고대 이슬람 문자인 '회홀(回紇)' 문자를 기초로 몽골 문자가 만들어 졌으며 14세기 초에 오늘날 통용되는 몽골 문자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몽골족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며 유목민들도 있다. 초원시대에서의 주식은 고기, 낙농업 관련 식품이고 농사를 짓는 몽골족은 곡물을 주식으로 하며 차를 매우 즐겨 먹는다. 말린 소똥은 몽골족의 보편적인 조리용 연료가 된다. 운남성의 몽골족은 이들 내외몽골의 몽골족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원나라 멸망 후 명나라 군대에 쫓기게 되자 몽골족이 통해현 주위의 호수에 모여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이후 주로 수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중국 공산화 이후로는 농업으로 점차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몽골 유목민의 집은 유르트(yurt, 몽고포)라는 이동식 가옥으로, 우산 모양의 집인데 비나 눈이 올 때를 제외하면 언제나 집의 꼭대기 부분이 하늘이 보이게 열려 있어 환기에 유리하다. 오늘날에는 유목민이 정착생활로 전향하는 일이 많아져 유르트 대신 유르트 모양의 진흙과 나무로 만든 1층짜리 집을 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운남성의 몽골족의 주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조상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세운 기념물로서의 주택은 있다고 한다. 몽골족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제였으며 중국 혁명 이전에도 귀족과 평민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지 않고 있었다. 결혼은 부모가 결정하는데, 초원의 서쪽 지역은 지역 우두머리인 영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결혼하면 아들은 분가한다. 샤머니즘을 깊이 믿었으나 13세기 중엽 이후 티베트 불교가 전해져 몽골족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티베트 불교는 곧 샤머니즘에 기원을 둔 몽골의 본교를 대체하면서 몽골족의 공통 신앙이 되었다. 이 외에도 기독교 신도도 있고 감속성과 내몽고 서부지역의 몽골족들은 이슬람교를 신봉하기도 한다. 운남성의 몽골족은 한족식 불교를 신봉하면서 부역을 맡는 신인 조왕신을 각별히 숭상하며 조왕신이 가정의 길흉화복을 맡아보는 신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빗기 전에는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또한 통해현 주위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서 풍어를 위해 호수에 산다고 믿는 용에게 제사를 지내며 용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외 그들의 마을에서 관음신당, 관운장 신당, 용왕 신당, 제부신 신당, 토지신 신당 등도 많이 볼 수 있다.

## 21. 지노족(基諾, Jino)



지노족은 2만 899명(2000년) 인구 중 대부분이 운남성에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92%가 넘는 1만 9,250명이 시수양반나(西樞版納) 타이족 자치주에 살며, 특히 경홍(景洪)현 지노산과 부위안산 일대에 많이 산다. 56개의 민족 중 가장 늦은 1979년에 국가로부터 민족 집단으로 공인되어 자칭인 지노를 민족 명칭

으로 삼았다. 운남성의 지노족은 2000년에 2만 68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언어는 한·장 어족 티베트·미얀마 어군에 속하며, 대부분의 지노족은 타이어나 한어를 구사할 줄 안다. 독자적인 문자는 없고 이전에는 강냉이 알을 세거나 나무에 자국을 내는 것으로 기록

을 남겼다 한다. 산비탈에 화전으로 벼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화전 경작 시에는 여러 가지 의례를 가지는데, 벌목할 때나 씨 부린 후 또는 제초 전에 개를 산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며, 씨 뿌릴 때는 소를 잡아 곡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7월에는 큰 용과 작은 용을 위한 제사를 지내 좋은 날씨를 기원하며, 수확 때에는 햅쌀을 먹는 하오시자오(好希早)를 행한다. 하니족 거주 지역처럼 이들의 거주 지역은 운남성의 특산물인 푸얼(普洱)차의 산지이다.

지노족의 가옥은 언덕 위에 목재나 대나무로 만들어 진다. 부계 성씨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건물에서 함께 사는 관습이 아직 남아 있어, 함께 불을 쬐 수 있는 큰 거실과 작은 모닥불이 있는 각자의 작은 방으로 집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남자는 목깃이 없는 옷을 입으며 공산혁명 전에는 머리를 세 갈래로 묶는 풍습이 있었다. 여자는 다색상의 목깃 없는 옷을 입으며 검은 치마를 입는다. 지노족은 예부터 신발 없이 맨발로 살았고 꺾불에 구멍을 뚫어 대나무나 나무 막대를 꽂는 풍습이 있다. 꺾불에 구멍이 클수록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구멍이 작으면 용기가 적고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지노족 사회는 일부일처제이다. 결혼 이전에도 결혼할 상대라면 성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며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가진 아이를 낳더라도 그 여자와 아이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며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마을에 따라 미혼 남녀가 함께 밤을 보낼 특별한 집을 지어놓는 곳도 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정조를 지켜야하며 지노족에게 있어 이혼은 드문 일이다. 또한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가운데 일부분을 물려받는다는 '부자연명제(父子連名制)'가 있다. 보통 여자는 15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아 단벌 치마에서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치마를 입게 되고 머리카락을 한 갈래로 매게 된다. 남자들은 16세가 되면 모자 대신 천으로 머리를 둘러야 하며, 그의 아버지는 성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 손수건을 준다. 이 뒤로도 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아끼는 법을 교육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자유연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전에는 절대 연애를 못하며 남들이 연애를 하는 장소도 다니지 못한다. 연애를 할 때, 서로 나뭇잎을 주는 것으로서 연애의 의사를 전달하고,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목탄을 섞은 물로 자신의 이를 검게 물들인 다음에 노래로서 사랑을 표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혼 전에도 남녀가 동침할 수 있는데 부모는 설령 이 사실을 알더라도 웬만하면 상관하지 않는다. 단,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는 연애를 할 수 없다. 여자가 애를 낳으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은 3일 동안 한다. 결혼식 때 신부는 이를 검게 물들이고 입술을 붉게 칠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면 신랑 집의 가장 높은 어른이 신부 손에 계란을 하나 쥐어주면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촌장은 여자도 될 수 있으며 나이 많은 사람은 존경을 받고 귀나 눈에 이상이 있더라도 장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촌락의 장로 중 가장 높은 이를 '조바'라고 하여 그의 집에는 소가죽을 덮어 만든 목고(木鼓)가 매달려 있다. 조바는 목고를 가지고 있어 촌락의 영혼과 교류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사냥으로 얻은 고기는 마을의 모든 어른과 어린이를 위해 배분하는데, 매우 작은 사냥물이라도 조그마한 조각까지 나누어 아기를 포함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종교는 애니미즘과 조상숭배가 주이며 주변 다른 민족들의 종교적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다. 산에다 화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산신이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무당은 생산 활동을 계속하면서 종교 활동을 행한다. 병이 들면 무당이 가서 경을 외워 귀신을 쫓는다.

이들은 죽은 사람도 그 영혼은 죽지 않으므로 귀신으로 현세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 매우 두려워한다. 사람이 죽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큰 나무를 베어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어 절반으로 쪼갠 뒤 가운데를 파서 관을 만든다. 염습할 때 시신의 입에 은전 하나를 넣어주고 생전에 쓰던 물품들을 관에 넣

어준다. 조상은 친구들도 기념품을 넣어 사망자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 발인은 반드시 해가 저물 때 하는데 상주가 문에 칼자국 몇 개를 내고 큰소리를 몇 번 지른다. 시신을 묻은 곳에 참대로 자그마한 초막을 짓는데, 참대의 뿌리가 위로 가게 만들어 산 사람의 집과 구별한다. 또 죽은 이의 영혼이 따라올까 두려워 반드시 풀 한 단을 끌고 오면서 자기 발자국을 없애고 집앞에 와서도 두 패로 나뉘어 집을 한 바퀴 돈 후에야 집에 들어간다. 지노족의 공동묘지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남녀나 상하의 구분이 없다.

## 22. 더양족(德昂, De'ang)



더양족의 인구는 2000년 조사에서 1만 7,935명이다. 이 중 대부분이 운남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운남성의 더양족은 2000년 조사에서 1만 7,804명을 기록하였다. 운남성 덕평(德宏) 타이족장포족 자치주에 70%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 립창(臨滄)지구의 진강(鎮康)현, 경마(耿馬) 타이족와족 자치현 등에도

거주하고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이십 여종의 자칭이 있는데, 한족은 그들을 병룡(崩龍)이라고 불렀으며 공산혁명 이후 중국 정부가 이들의 명칭을 병룡족이라고 호칭했지만, 1986년 9월 더양족의 신청에 따라 정식 명칭이 더양족으로 개칭되었다. 더양족의 언어는 오스트로아시아 어족 몬·크메르 어군의 와·병어 갈래에 속한다. 부레이, 루마이, 뤼진 등 세 가지 방언이 있는데 민족 문자는 없다.

더양족은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오랫동안 한족, 타이족, 징포족, 와족 등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아 완전한 민족사회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그 덕분에 이들의 말도 할 줄 아는 더양족이 많다는 면도 있다. 더양족 거주지역의 기후는 아열대고 토양이 비옥하고 비가 많으며 삼림이 잘 발달되어 있고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특히 진강현 지역의 대나무는 지름이 10~13cm까지 자라는 것으로 유명하다. 더양족은 고대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쌀·옥수수·메밀·호두·황마 등을 재배하며 차·목화·커피·고무 등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재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바나나·망고·파파야·배 등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차를 매우 좋아해서 생활에서 차가 빠지는 곳이 드물 정도다. 더양족은 문신을 하는 관습이 있으며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를 밀어버리고 천으로 머리를 싸매고 다니는 관습이 있다. 대부분의 더양족의 집은 목재로 골격을 갖춘 후 대나무로 지으며 문은 언제나 동쪽으로 만든다. 2층집이 보통이며 1층은 곳간과 축사로 쓰이고 2층은 생활공간으로 쓰인다. 거실 가운데 불상과 조상의 위패를 놓는데 집안사람 외에는 이를 만지지 못한다. 집안에서 침을 뱉거나 화로의 불을 밝아도 큰 실례이다.

종교는 애니미즘이 주류이고 타이족의 영향으로 소승불교를 믿는 사람이 매우 많아 거의 마을마다 절이 있다. 더양족은 저승과 인간 세상 사이에 큰 강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으면 이 강을 건너는 배 샅으로 은전을 입에 넣어주고 강을 잘 건너기 위해 관을 배 모양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닦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 염습하며 붉은 실로 사망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매놓아 그 영혼이 집에 돌아와 식구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는다. 병이나 난산으로 죽은 여자는 몸 안의 마귀를 태워 죽이기 위해 화장을 한다. 무덤에 순장품을 넣어주는 풍습은 없다. 더양족은 뱀을 숭배하여 뱀을 잡거나 쫓지 못한다.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를 신수(神樹)라고 하여 매년 그 나무에 제사를 지낸다.

소승불교 승려들의 일상생활 비용은 세속인들이 대어준다. 마을사람들이 돌아가며 식량과 의복을 절에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많은 시주를 한다. 타이족과 마찬가지로 불교적 명절인 물치기, 문단기,



문열기, 흰장작 태우기 등을 갖는다.

일부일처제 사회이며 같은 씨족 사람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 젊은이는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남성은 여성의 창문 밖에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 구애하고 여성은 이를 무시하거나 작은 담요를 그에게 건너 허락의 뜻을 보인다. 그 후에 문을 열어 그를 들어오게 하는데 이때 남자는 자신의 얼굴을 담요로 가리고 들어온다. 부모는 어지간하면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랑이 무르익으면 남성이 목걸이나 허리끈을 정표를 주는데, 이런 정표가 많은 것이 여성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여성은 그 대신 남성에게 귀걸이를 선물로 준다. 좋은 차 한 봉지씩을 교환하여 정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때 선물 받은 차를 자기 방 책상 위에 두어 부모가 이를 보고 결혼 준비를 하게끔 한다. 사이가 더욱 진전되면 남성이 여성의 집에 차 두 봉지 정도의 선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 구혼한다. 여성의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여성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 남성과 함께 살 수 있다.

결혼식은 술과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하객들은 색깔이 다른 3가지 꽃을 신부가 들어올 때 뿌려준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신부는 마을의 가장 연세 많은 어른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들께 절을 올린다. 그런데 결혼 후 3일 동안 동침을 못하고 신부는 친구하고 잠을 잔다. 3일 후에야 동침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집 온 신부는 10일 동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발을 씻어줘야 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 장례는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하되 오랜 병이나 고통으로 죽은 사람은 화장을 한다.

### 23. 수이족(水, Shui)



수이족은 중국의 귀주성 광서성, 운남성 등 남서부에 살고 베트남에도 거주한다. 인구는 2000년 조사에서 40만 6,902명이다. 이들은 자신을 '아이·수이'로 자칭하는데 이는 '물가의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수이족'은 한족이 부르는 명칭이다. 운남성에서는 2000년 조사에서 1만 2,533명을 기록하였다. 곡정

(曲靖) 지구의 부원(富源)현에 많이 살고 있다.

수이족의 언어는 한·장 어족의 캄·타이 어군에 속한다. '루·수이'라는 문자체계가 존재했지만, 무당들만 아는 것이었으며 300여 개의 적은 어휘로만 이루어져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았고 종교활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수이족은 한문을 자신들의 문자로 쓰고 있다. 주요 산업은 하천과 계곡에서의 벼농사이며 일부 논에서는 잉어 양식도 한다. 이외에도 밀·모시·유채 및 감귤을 비롯한 과일도 많이 재배한다. 수이족의 식사는 주로 쌀·생선이 주이고 이외 옥수수·보리·밀·고구마도 즐겨 먹는다. 쌀로 술을 담아 조상 제사에 올리거나 손님을 대접한다. 검은 색이나 푸른색의 옷을 즐겨 입으며 남자는 머리에 검은색 터번을 쓴다. 여자는 항상 머리를 묶어 쪽을 지어 놓는다. 여자가 과부가 되면 3년 동안 흰색의 천으로 머리를 덮는 관습이 있다. 수이족의 촌락은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동성만으로 구성되며 집은 보통 1층이며 2층짜리 집도 있다. 2층짜리 집이라면 2층은 생활공간, 1층은 가축을 두는 곳이나 식료품 창고로 쓰인다.

종교는 다종교적 경향이 강하며 조상을 숭배한다. 애니미즘과 도교가 그들 종교의 중심을 이룬다. 류이공(六一公), 혹은 류자공(六甲公)이라고 불리는 루수이의 발명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기독교 개종자도 소수 있다.

수이족들은 신당도 신의 우상도 만들지 않지만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귀신의 형태로 간주하고 숭



배한다. 주로 밭신, 문신, 토지신, 문턱신, 관음보살 등을 숭배한다. 병이 나면 귀신을 쫓기 위해 무당을 부르고, 사람이 죽으면 2~3명의 무당을 청해 하루 또는 사흘간 주문을 외우게 하고 이때 소 한 마리를 잡아 소피가 흥건하게 흐르게 한다. 소를 잡고 피를 흐르게 함으로써 죽은 자가 저승에서 부릴 소가 생기고 농사지를 물이 생긴다고 믿는 것이다. 중국 혁명 이후에는 소를 잡는 지나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장례문화가 많이 변화되었다.

일부일처제 사회이며 남자가 모든 일을 경정하고 여자의 지위는 낮은 편이다. 결혼상대는 부모가 정해주는 문화이다. 보통 14~15세에 약혼을 하고 16~17세에 결혼을 한다. 결혼식 날에 신랑이 직접 신부를 데리러 가지 않고 신랑 집에서 보낸 친척이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남자 집까지 걸어간다.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신부는 당일 혹은 결혼 다음날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반년 정도 있다가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공산혁명 이후 차츰 자유연애의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수이족의 급기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레를 꺼리는 것으로 첫 우레가 올면 충을 가진 집은 오랫동안 충을 쓴다. 우레 소리를 들으면 그날은 밖에 나가지 않는다. 곡식의 해충도 하늘에서 보낸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우물이나 도랑을 파는 것도 용맥을 끊어놓는다며 꺼린다. 뱀과 개미가 집에 들어오거나 말벌이 집에 동지를 트는 것, 외출 시에 까마귀가 우는 것, 새똥에 맞는 것 등을 불길하다고 여긴다.

#### 24. 만주족(滿, Manchu)



만주족은 소수민족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이다. 2000년 조사에서는 1,068만 2,262명으로 집계되었다.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이 원래의 거주 지역인 동북지방에서 전국 각지로 흩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족 문화의 영향으로 강하게 한화(漢化)되어 버렸고 유목 중심의 생업도 농업 중심으로

변했다. 운남성에 만주족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이 지방을 통치하던 오삼계(吳三桂)가 일으킨 삼변의 난(1673~1681)을 평정하는 정벌군을 보내면서부터이며, 청나라 정부가 '개토위류(改土爲流)'를 실시하면서 만주족이 지방관과 그의 수행원 및 병사로서 운남성에 계속 유입되었다. '개토위류'란 조정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직접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토위류 이전에는 운남성 지방호족에게 벼슬을 주어 중앙정부가 직접통치가 아닌 간접통치력을 행사하던 토사(土司)·토관(土官)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현재 운남성에 거주하는 만주족은 소수로, 2000년에는 1만 2,187명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거주지는 곤명(昆明), 보산(保山), 사모(思茅), 덕굉(德宏), 곡정(曲靖), 홍하(紅河), 초웅(曲靖), 립창(臨滄) 등 여러 지구에 분산되어 살고 있다.

고유 언어인 만주어는 알타이 어족의 통구스 어군에 속하는데, 흑룡강(黑龍江)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완전히 사라졌으며 대신 한어가 사용되고 있다. 문자는 16세기 말에 몽고문자를 본떠 만든 '만문(滿文)'을 만들어 썼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한족과의 접촉 및 동화로, 만족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서 한족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다. 흑룡강성의 만주족 정도만 그들의 전통과 복식 및 언어를 다소 유지하고 있다.

만주족의 70% 이상은 농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주요 곡물은 콩·옥수수·사탕수수·기장·담배·과일 등이고 양잠도 겸업하는 사람이 많다. 산악지대에 사는 만주족은 인삼·버섯 채취 등에 종사하고 도시에 사는 교육받은 만족은 공업이나 현대적인 산업에 종사한다. 이들의 주식은 찌

기장이나 기장으로 만든 떡이다. 만주족의 집은 3공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운데의 공간은 부엌으로 쓰이고 양옆은 침실과 거실로 쓰인다. 침실은 벽돌로 만든 만주족식 침대인 '강(kang)'이 세 개 갖추어져 있는데 반드시 서쪽 북쪽 남쪽의 벽에 위치시키고 손님은 왼쪽 벽의 '강'을 이용하게 하며 연장자는 북쪽, 젊은이는 남쪽 벽의 것을 사용한다.

종교신앙은 샤머니즘적 성향이 강하다. 제사를 맡아보는 무당은 각 성씨 문중에 한 사람씩 있는데, 가을걷이가 끝났을 때 하는 조상제와 조상제를 지낸 다음날에 하는 하늘제를 주관한다. 제물은 수탉지를 쓴다. 제물로 쓴 돼지는 사흘 안에 다 먹어야 하며 남은 것은 피, 뼈, 돼지 똥을 포함해 다 땅에 묻어야 한다. 병자는 남쪽 온돌에서만 죽는 것이 허용되어 임종 시에는 병자를 남쪽온돌로 옮긴다.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얼굴을 가리어 주며, 문은 산 사람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영구는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으로 내가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마당 서쪽에 장대를 세우고 붉은 천과 검은 천으로 만든 깃발을 단다. 일부일처제 사회이며 부모의 뜻에 따라 자녀는 16세나 17세가 되면 혼인을 한다.

## 25. 두룽족(獨龍, 独龙, Derung)



두룽족은 2000년 조사에서 총인구가 7,426명으로 기록되었다. 주로 라오스 국경에 접한 운남성 서북부의 노강(怒江) 리수족 자치주 공산(貢山) 두룽족 누족 자치현에 집중 거주하며, 특히 현 서부 두룽강 양안의 해발 1,000~2,000m 산악지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라오스에도 2~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운남성의 두

룽족은 2000년에 5,884명으로 조사되었다. 두룽어는 한·장 어족의 티베트·미얀마 어군에 속하며, 두룽강과 누강의 두 방언으로 크게 구분된다. 독자적인 문자는 없고 과거에는 나무 줄기에 눈금을 새겨 기록을 남기거나 전령을 보냈다고 한다.

중국 혁명 이전의 두룽족은 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 15개의 부족이 있었다고 한다. 촌락은 족장의 지휘 아래 공동으로 화전 경작을 하여 옥수수나 감자 등을 재배하며 식량이나 토지는 공유한다. 또한 집단적으로 수렵·채집·어로를 행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전통은 서서히 무너져 가족 단위의 사적 소유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두룽족 내에서도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유층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계절노동자로 계급 분화가 생기고 있다. 대나무나 등나무를 이용한 수공업과 아마포를 짜는 일도 하고 있으나 물물교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룽'이란 말은 동굴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오늘날의 두룽족은 물론 동굴에서 살지는 않는다. 북쪽에 거주하는 두룽족은 목재로 집을 짓고 남쪽의 두룽족은 대나무로 짓는 경우가 많다. 한 촌락에 거주하는 두룽족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집에 같이 산다. 이 경우의 집은 촌락공동체의 회합을 위한 거실 같은 공간인 길고 큰 방과 각 가족들이 사는 공간인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방들은 그 중앙에 화로가 설치되어 있다. 대다수는 애니미즘을 믿으며 기독교로의 개종자도 소수 있다. 모든 생물체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여러 제물을 바쳐 악령을 진정시키고자 한다. 재해나 병을 귀신 때문이라고 하여 무사(巫師)가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때 술 두 병 닭 두 마리를 밖의 나무에 걸어 놓아 제물로 바치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돼지나 소 등의 족발 등으로 더 많은 제물을 올린다. 두룽족의 무당은 평상시 생산 활동에 참여하며 종교 활동으로 얻는 소득도 적다.

음력 12월에 '카최와'라는 설 명절이 있는데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축제 기간이 달라진

다. 이때 가장 중요한 행사로 소를 잡는 행사가 있는데 젊은 여성이 소발에 구슬을 걸어주고 소등에 천을 덮으며, 이후 빙 둘러선 사람들이 징을 울리고 칼과 활 등을 휘두르며 춤을 추는 가운데 젊은이 한 사람이 예리한 죽창으로 소를 찌른다. 마을에 따라 메밀로 동물 모형을 만들고 참대에 각종 천을 걸어놓아 이를 대신하는 곳도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변한다고 믿으며 이들 귀신을 노엽게 하면 화를 당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식량·달걀·술 등을 가지고 와서 조문한다. 시신은 매장을 하며 심하게 병을 앓다가 죽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시신을 화장하거나 강에다 버린다. 발인할 때 관이 대문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뒷벽 등 다른 곳에 문을 내고 나가야 하며, 앞에서 노인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귀신을 쫓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믿는다. 시신을 묻는 날에는 온 마을이 일을 중지한다. 그러나 두룽족은 조상숭배 관념이 없어 신주를 모시지도 않고 묻은 뒤 성묘도 가지 않는다. 두룽족은 도독질을 가장 저열한 짓으로 여겨 도적질한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하는데, 그 방법은 큰 가마에 기름이나 물을 넣어 끓게 만든 후 돌맹이와 은을 그 안에 넣어 혐의가 있는 사람이 이를 건지게 하여 손을 떼면 도독질한 것이라고 여기고 아니면 무죄라고 여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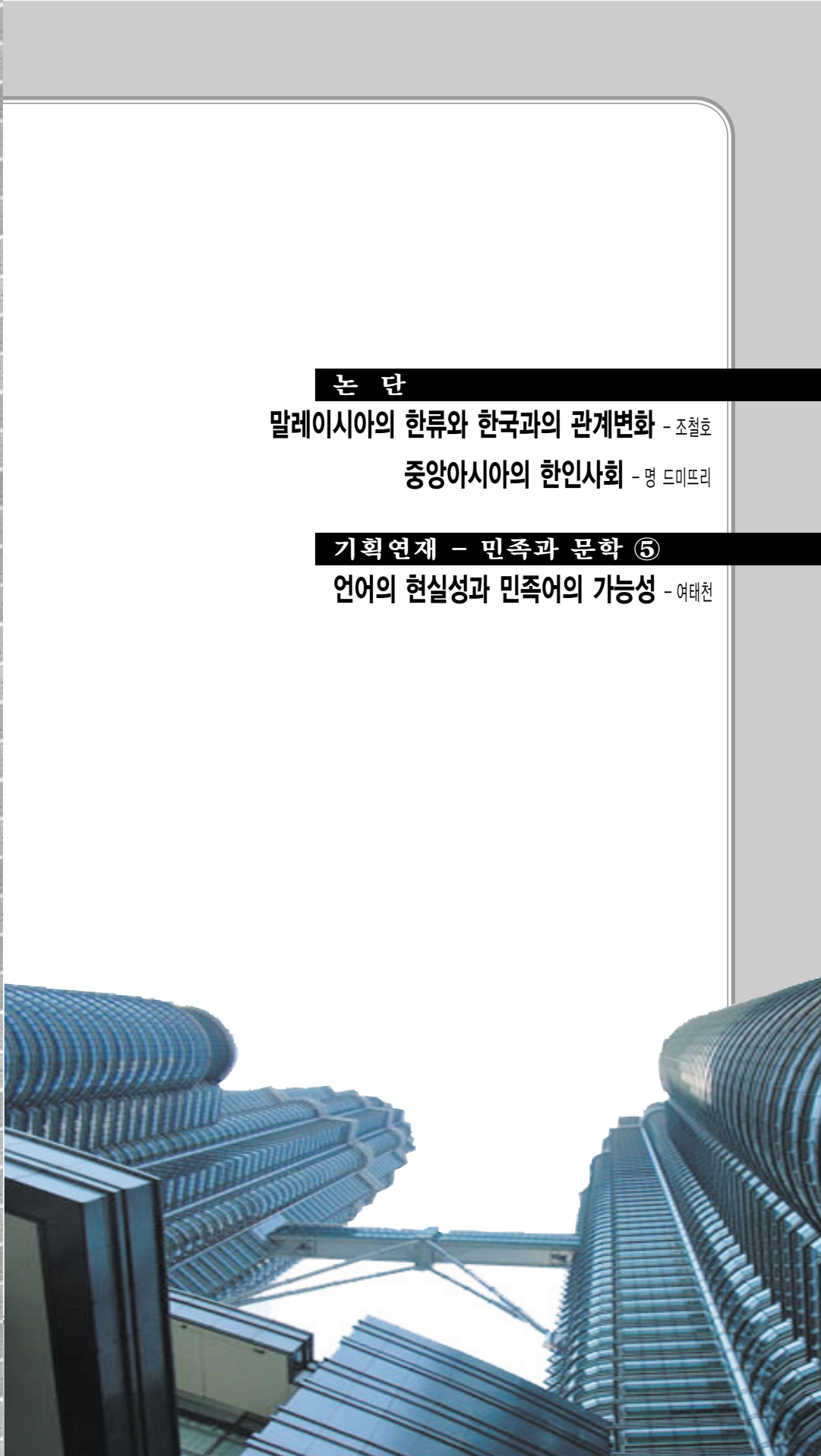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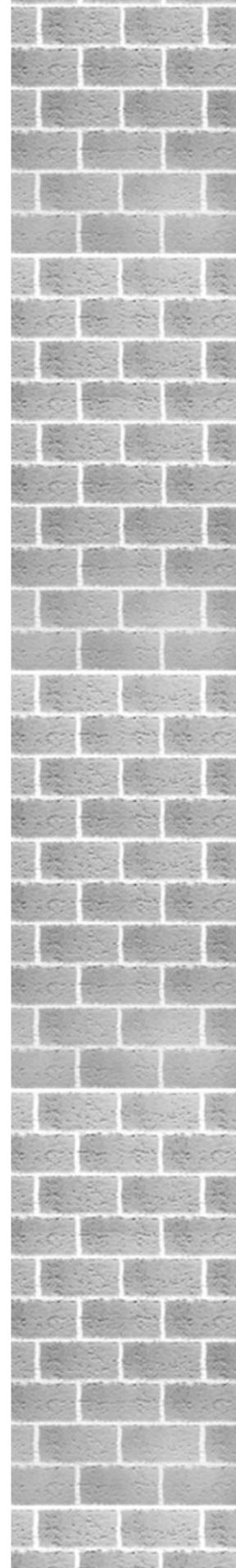
같은 씨족 간의 결혼은 금지되고 일부일처제가 현재는 규칙처럼 되어 있지만 과거의 일부다처제가 아직 남아있고 여러 자매들이 한 남자와 결혼하는 관습도 남아있다. 또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는 경우도 많고 만약 뒤로 남자 형제가 없다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아내로 맞는 경우마저 있다. 두룽족에게 있어 여자의 지위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한다. 두룽족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으며 딸의 경우는 어머니의 이름 중 일부분을 함께 물려받는 경우도 있다. 공산화 이전에는 여자들이 12세나 13세가 되면 얼굴에 문신을 해 넣었다. 이 문신 모양은 나비 모양인데 이는 죽은 자의 혼이 나비로 환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신하는 방법은 솥을 얼굴에 바른 다음 나뭇가지로 금을 그어서 도안을 만든 다음 바늘로 얼굴을 찌른 후 거기에 먹물을 뿌렸다고 한다. 이런 전통은 잔인하다고 하여 공산화 이후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게 되었다.

### 〈참고도서〉

- 다바타히사오(田畑久夫) 외 저, 원정식·이연주 역, “중국소수민족 입문”, (현학사, 2006)
- 김선풍·김인희·타오리판 공저, “한국민속과 중국 서남민족의 민속비교”, (박이정, 2003)
- 담광광(覃光廣) 편저, 허휘훈·신현규 역, “중국소수민족종교신앙”, (태학사, 1997)
- 홍희·정상홍·김덕삼·권인호·최준·유승중 공저 “현대중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집변”, (심포지움, 2006)
- 권태효, “중국 운남 소수민족의 제의와 신화”, (민속원, 2004)
- 김인희, “원바지야오족 사회와 신앙”, (경인문화사, 2004)

### 〈참고사이트〉

- 사진참조 [http://www.asia-photo.net/yunnan/minzu/costume\\_e.html](http://www.asia-photo.net/yunnan/minzu/costume_e.html)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Yunnan#Ethnicity>
- 여호수아 프로젝트 <http://www.joshuaproject.net/peopctry.php>
- 차이나게이트 <http://www.chinagate.com.cn/english/1007.htm>
- 차이나 <http://china.org.cn/english/index.htm>
- 운남성 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mw.yn.gov.cn/Info.aspx?inford=654>



**논 단**

말레이시아의 한류와 한국과의 관계변화 - 조철호

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 - 명 드미뜨리

**기획연재 - 민족과 문화 ⑤**

언어의 현실성과 민족어의 가능성 - 여태천



# 말레이시아의 한류와 한국과의 관계변화\*



조 철 호

말라야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한국학 파견교수

joedan@unitel.co.kr



## 동남아 힘의 중심부로서의 말레이시아

본 연구는 밀레리엄 시대인 21세기에 들어서는 ‘한·말관계(Korea-Malaysia relations)가 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간 수준에서도 강화되고 긴밀하게 되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Korean wave)<sup>1)</sup>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세기 한·말관계와 달리 21세기 한·말관계는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한류가 형성되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러한 한류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어떠한 한·말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함의를 파악하고 한·말관계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20세기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에서 한·말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집약적 경제정책에 의해서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의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반해 21세기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간 수준에서 그 유대가 강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문화적 물결(Malaysian cultural wave)’ 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은퇴 프로그램(twin educational programme, second home programme)등에 의하여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현재 약 3,000 여명의 한국학

\* 본 논문은 한국방송위원회와 말라야대학교가 주최한 International Malaysia Korea Seminar on Broadcasting (P. J. Hilton Hotel, 2006년 7월 10일)에서 발표한 논문 "Korean Wave in Malaysia and Changes of the Korea Malaysia Relations"를 기초로 보완한 논문임.

1) 여기서의 한류는 “중국, 동남아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생들이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을 와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은퇴 후 제2의 고향으로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겨울연가(Winter Sonata), 대장금(A Jewel in the Palace) 등과 같은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에 의해 형성된 한국의 문화적 조류에 의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말레이시아인이 한국관광을 다녀왔으며, 이와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IT 산업 등 각 관련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21

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한류 연구는 중국에서의 한류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효과와 같은 국내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up>4)</sup>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몽고 등에서 한류는 검토되었으나,<sup>5)</sup> 아직까지 말레이시아의 한류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 있다. 한류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변화가 한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본 연구는 국가적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국제관계 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의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켰고 21세기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간 수준에서 그 유대가 강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기 한·말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말레이시아 문화적 조류와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가 이러한 한·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말관계의 변화를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와 관계만을 분석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힘의 중심부(a center of gravity)<sup>2)</sup>인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를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sup>3)</sup> 한·말관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국제관계연구라는 의의를 갖고 있

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말레이시아의 한류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말관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역으로 바람직한 미래의 한말관계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한류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특성과 국제적 위상과 관련하여 한류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얼마나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2) Clausewitz, On War.

3) Ha Bongjoon, "Research Framework and Scales for Korean Wave's Effects: Survey Results in Malaysia." 하봉준 교수는 2000년 6월 1-14일 기간에 말레이시아 수도 쿨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quota sampling(sex/ages/religion/area)에 기초하여 말레이시아 한류에 대한 실증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와 활용을 허락한 하봉준 교수에 감사드린다.

4) 이민자, "중국 개혁기 청소년문화 분석: 한류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42호, 2002년, pp. 35-58; 이은숙,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가을/겨울, 2002년, pp. 31-59; 이치한·허진, "한류 현상과 한·중 문화교류", 『중국연구』, 제30권, pp. 499-513; 허진, "중국의 한류 현상과 한국 TV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1, 2002년, pp. 496-529; 이준용, "한류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중국인의 한국 문화상품 이용이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2003년, pp. 5-35; 조혜영,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인식과 한·중 청소년 교류 전망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3년, pp. 223-247; 김재은·박길순, "한류 현상이 중국 신세대 패션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제28권 1호, 2004년, pp. 154-164; 박길순,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한류현상 분석", 『한국생활과학지』, 제13권 6호, 2004년, pp. 967-983; 박대환, "한류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관광정보연구』, 제18호, 2004년, pp. 129-148; 서용건·서용구, "한류가 한국의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28권 제3호, 2004년, pp. 47-64; 장양래·박정욱, "한류가 한국관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적·정서적 평가", 『관광경영학연구』, 제8권 제1호, 2004년, pp. 319-336.

5) 김상, "싱가포르에 한류가 존재하는가", 『동아연구』, 제42집, 2002년, pp. 114-136; 김선호, "몽골 한류의 특성과 전망", 『동아연구』, 제42집, 2002년, pp. 59-72; 신윤환, "동아시아의 한류 현상: 비교 분석과 평가", 『동아연구』, 제42집, 2002년, pp. 5-34; 이한우, "베트남에서의 한류, 그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효과", 『동아연구』, 제24호, 2002년, pp. 93-113; 전선홍, "대만에서의 한류: 현황과 전망", 『동아연구』, 제42호, 2002년, pp. 73-92.

비교하자면, 먼저 차이점으로 한국은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다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양국 공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이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는 사회적 특성상 다민족국가(multi-racial nation), 다문화혼합사회(multi-cultural society), 무슬림 국가(muslim state)라고 할 수 있다.<sup>6)</sup>

### 다인종 · 혼합문화사회와 한류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58%, 중국계 25%, 인도계 7%, 외국인 체류자 및 기타 10%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며, 또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영어, 중국어가 널리 통용되는 다문화혼합사회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한류를 수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한류의 지속성과 보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한류는 외국에서 극히 일부 계층 특히 일탈적인 집단만이 향유하는 사치품이고 단기간에 사라질 일시적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sup>7)</sup> 한류가 성별, 연령별, 인종별, 종교별 특정계층만이 선호할 경우 한류는 보편성을 잃고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말레이사회 · 무슬림 국가와 한류

말레이시아는 국민의 58%를 차지하는 말레

이계가 믿고 있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57개 이슬람국가, 13억 이슬람인을 대변하는 이슬람회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의장국(2003-2007)으로,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이집트-중동-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이슬람 문화권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수용 여부는 한류가 유교적 가치, 아시아 가치에 한정되지 않고 공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한류는 가부장적 가족관계, 개인보다 가족 단위의 중시, 효,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적 가치관의 공유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sup>9)</sup> 말레이시아의 한류의 수용 여부는 유교적 가치, 아시아적 가치를 넘어서서 세계주의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동남아 힘의 중심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 · 경제적으로 지도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에서의 힘의 중심부(a center of gravity)<sup>10)</sup>라고 부를 수 있다.

먼저 정치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대외적으로는 ASEAN 협력의 기본틀 하에 지역협력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아세안자유무역지대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여 왔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비동맹회의(NAM)의장국(2003-2006), 이슬람회의기구(OIC)의장국(2003-2007)으로서의 지위와 ASEAN에서의 주도적인

6) 양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인종간 종교간 갈등과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음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선진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인종간 종교간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7) "초점: 한류는 대도시 청소년 주축 '오빠부대' 불과", 주간조선(2001. 9. 5); "한류열풍 거품도 있다", 문화일보(2001. 8. 29).

8) 이슬람회의기구(OIC)는 마하티르 수상이 2003년 10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를 결의한 이후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의 이슬람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슬람 국가의 대동단결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OhmyNews』(2003. 10. 19).

9) 김상(2002), pp. 125-128.

10) a center of gravity의 개념은 Carl von Clausewitz의 개념은 "작은 것은 언제나 큰 것에 의존하며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에, 우연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경제적으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with Introductory Essays by Peter Paret, Michael Howard, and Bernard Brodie and a Commentary by Bernard Brodi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역할(2005~2006의장국)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국제관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에 경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전총리가 1991년 2월 제창한 장기적인 국가개발 청사진으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가 실현된 이상적인 선진국가상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비전 2020”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2004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7.1%, 경상GNP(국민총생산) 1,178억\$, 1인당 국민소득 4,352\$로 동남아시아에서 선진국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슬람지역에서의 성공적인 발전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의 한류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한류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말관계의 과거와 현재

한국은 1960년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말레이시아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sup>11)</sup>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상호 중요한 무역국으로 자리잡고 있다.<sup>12)</sup>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와 한·말관계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드라마 ‘윈터 소나타’ 방영되기 시작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20세기와 21세기로 구분하여 한·말관계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 20세기 한·말관계: 국가 수준에서의 전개

20세기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에서 한·말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

통령의 수출집약적 경제정책에 의해서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의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동방정책은 영국 등록금의 인상과 말레이시아의 Guthrie 인수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1982년에 마하티르 총리에 의해 주창되었다. 동방정책의 목적은 동아시아 경제 선진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희생정신 등 정신적 요소들을 본받음으로써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경쟁력과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다.<sup>13)</sup> 즉 이러한 동방정책은 서구식 발전모델 대신 한국과 일본식의 발전모델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방정책에 의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한국의 호응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제관계가 급속되어 양국의 교역규모가 1983년에 들어 10억\$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진 기술 및 한일 양국 근로자들의 근면성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수의 말레이시아 학생과 기술자, 경영인, 공무원들이 한국과 일본으로 파견되어 인적교류도 확대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협의 하에 (1) 산업 및 기술훈련, (2) 말레이시아 정부 중견 관리 단기교육, (3) 대학교육 및 기술교육, (4)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간 상호유대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동방정책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기술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일본어와 한국어 어학 강습 프로그램이 UM(University Malaya), UKM(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ITM(Institute Teknologi Mara) 등 국립대학에 개설되었다.<sup>14)</sup> 이러한 동방정책은 1980년대 이후 한국과의 관계강

11) 북한은 한국보다 늦은 197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Park, Jae Kyu, "Korean and the Third World," pp. 219-261, Koo, Young Rok and Sung Joo Han, eds.,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12) 2003년의 경우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19.8%), 싱가포르(15.0%), 일본(10.1%), 중국(6.7%), 홍콩(5.9%), 태국(4.8%), 한국(3.5%), 대만(3.3%), 호주(3.3%), 네델란드(3.3%)으로 한국은 제7위의 수출대상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가는 일본(15.9%), 미국(14.5%), 싱가포르(11.1%), 중국(9.8%), 태국(5.5%), 대만(5.4%), 한국(5.0%)으로, 한국은 제7위의 수입대상국을 차지하고 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mymy/ek\\_a03/ek\\_b10/1173199\\_9349.html](http://www.mofat.go.kr/ek/ek_a001/ek_mymy/ek_a03/ek_b10/1173199_9349.html)

13) Lee, Kyungchan, "East Look Policy", pp. 110-113, So, Byung Kuk, et al., Malaysia: East Look Policy and Vision 2020, Hankuk University for Foreign Studies Press, 1998).

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15)</sup> 이를 통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형성 이전 20세기의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에 의해 위로 부터 시작되는 인위적 관계증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1세기 한·말관계: 민간 수준으로의 확장

21세기 한·말관계는 20세기 한·말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에서 한·말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6차례의 양국의 정상회담과 많은 장관급 방문을 보여주고 있는 21세기 전후 한·말 양국의 주요인사 상호방문현황을 살펴보면 명확히 나타난다.<sup>16)</sup>

노대통령·압둘라 총리 정상회담(2004. 8. 23)에서는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연구 추진을 검토하고, ‘아세안+3’ 체제 내에서 양국간 협력을 보다 확대키로 합의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IT 등 최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키로 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동방정책’이 양국관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sup>17)</sup>

노무현 대통령·압둘라 총리 정상회담(2005. 12. 9)에서 경제,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두 나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방위산업과 IT, BT 등 과학기술 분야와 함께 에너지, 자동차-

철도 등 제반 산업분야에서 보다 호혜적인 실질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2004년 교역 규모가 백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두 나라 관계가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협력약정과 석유공동개발 협력약정, 신재생에너지 협력약정 등 7개 분야의 경제·자원 협력 약정체결로 실질협력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18)</sup> 이처럼 21세기에 들어 이루어진 한·말 양국의 정상회담은 남북한 관계, 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 양국간 경제, 과학 분야의 협력 등을 주로 논의하였고, 기존에 형성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 방송, 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고 협의회를 통해 실무적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에서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12월, MIMOS(Malaysian Institute For Micro Electronic System)과 한국의 산업정책연구원과의 지식 컨설팅 협약의 체결.<sup>19)</sup>

2005년 5월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C)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문화콘텐츠 사업 관련 양해각서 체결.<sup>20)</sup>

2005년 5월 한국방송위원회와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와의 양국 간 방송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의 채택<sup>21)</sup>

2002년에 겨울연가(Winter Sonata)라는 한국

14) Lee, Kyungchan (1998), pp. 113-117.

15) 이러한 점은 양국가에 의해 체결된 협정현황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동방정책 실시 이전에는 무역협정(62.12), 문화협정(65.12), 항공협정(67.7)에 불과하였으나, 동방정책 실시 이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83.9), 사증면제협정(83.9), 과학기술협력협정(85.7), 투자보장협정(88.4), 해운협정(88.7), 자원협력MOU(95.11) 등으로 내용면에서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my/my/ek\\_a03/ek\\_b10/1173199\\_9349.html](http://www.mofat.go.kr/ek/ek_a001/ek_my/my/ek_a03/ek_b10/1173199_9349.html)

16) [http://www.mofat.go.kr/ek/ek\\_a001/ek\\_my/my/ek\\_a03/ek\\_b10/1173199\\_9349.html](http://www.mofat.go.kr/ek/ek_a001/ek_my/my/ek_a03/ek_b10/1173199_9349.html)

17) 중앙일보(2004. 8. 23).

18) New Strait Times, December 9, 2006. 한·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중소기업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그동안 중단 상태에 있던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위원회가 15년 만에 재개되어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자신문 [www.hellomalaysia.net](http://www.hellomalaysia.net)

19) inews(2004. 12. 10)

20) Korea Press (92006. 1. 26).

TV 드라마 방영으로 시작된 말레이시아 한류에 의하여 21세기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간 수준에서 그 유대가 강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겨울연가(Winter Sonata)와 대장금(A Jewel in the Palace) 등과 같은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에 의해 형성된 한국의 문화적 조류에 의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말레이시아인이 한국관광을 다녀왔으며, 이와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IT 산업 등 각 관련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조류라고 볼릴 수 있는 교육 및 은퇴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현재 약 3,000 여명의 한국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에 와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은퇴 후 제2의 고향으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sup>21)</sup>

21세기 한·말관계에서는 민간 수준의 경제협력, 기술협력, 산업활동, 문화활동 등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민간 수준의 경제협력으로 먼저 세계 해외 한인 무역협회(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World OKTA) 말레이시아지회 창립을 들 수 있다.<sup>22)</sup> 2006년 4월 14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경제인들의 우호

증진과 기업정보 교환을 통해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물론,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모으고자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말레이시아지회가 설립되었다.<sup>24)</sup>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정보통신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는 말레이시아 기술대학교(UTM)와 멀티미디어대학교(MMU)와 양 대학 간 공동연구, 학생 및 교직원 교류에 관한 기본 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sup>25)</sup> 한국의 텔레매틱스 산업 기술을 말레이시아 내의 현지 업체 및 현지 진출 다국적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최신 텔레매틱스 기술 및 사업 동향 분석, 말레이시아 현지 관련 업계 및 업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등 텔레매틱스 산업과 관련하여 양국의 사업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한국 내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수출을 유도하는 텔레매틱스 로드쇼(Telematics Road Show)가 2004년 5월에 개최되기도 하였다.<sup>26)</sup> 이외에도 대한항공, 말레이시아 항공과 공동운항(2004년 11월), 기아자동차, 말레이시아 공장설립(2003년 10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말 양국간 민간 수준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형성 이후 21세기의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간 수준에서도 그 유대가 강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아래로부터의 자연적인 관계증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및 CyberJaya 등 IT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IT를 통한 국가경제의 성장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MIMOS는 말레이시아 최대의 정보통신분야 연구기관으로서 반도체, 차세대 네트워킹, 사이버 시큐어리티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R&D정책, 기획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Korea Press(2005. 5. 19).

22)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2004년의 경우 약 5,920명이었으나, 2006년 현재 약 1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점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제마한인회 이광선 회장은 이에 대하여 "미주나 호주 등에 비해 학비나 생활비가 저렴하다 보니 한국 중산층 부모들이 말레이시아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광선,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Dongpro News, June 22, 2006. The proportion of those over the age of 65 to the total population, which stood at 5.1% in 1990, is predicted to reach 7.1 percent in 2000 and 19.3% in 2030. Lee Hyun-seung, "Korea's Aging Population," Korea Journal, 38(3), 1999. 이처럼 한국의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My Second-Home Programme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여 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23) World OKTA는 산업자원부의 국고지원과 KOTRA의 협력을 지원 받는 산하단체 기관으로, 6백만 해외동포사회에서 중추적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인들의 우호증진과 기업정보 교환은 물론, 향후 교류를 통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1981년에 설립되었다. 전 세계 36개국에 57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24) Korea Press(2006. 4. 14).

25) Korea Press(2004. 12. 30).

26)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운송수단의 이동 중에 정보가 제공되는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지칭하고 있다. Korea Press(2005-04-29)



##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역사와 현황

최근 2007년 1월 27일 부킷 자릴 푸트라 인도 어 스타디움에서 2006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비가 '레인 월드 투어 2007-라이브 인 쿠알라룸푸르(RAIN World Tour 2007-Live In Kuala Lumpur)' 콘서트를 가짐으로써 말레이시아의 한류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sup>27)</sup> 하지만 정작 「한류」의 근원지는 TV 드라마라 할 수 있다.<sup>28)</sup> 말레이시아에서 현재까지 방영한 한국드라마는 '겨울연가', '가을동화', '명랑소녀 성공기', '내 사랑 팔쥐', '이브의 모든 것', '의가형제', '상도', '울인', '다모', '천국의 계단', '파리의 연인', '대장금' 등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중파 민영방송 TV2에서 드라마 '토지'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한국 드라마로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을 들 수 있다.

윈터 소나타가 2002년 방영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본격적인 한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겨울연가'는 이후 지금까지 3번이나 방영됐는데도 변함없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윤사마 배용준은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의 간판스타로 대접받고 있다. '겨울연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풍경을 배경으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한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가족 중심이고, 감성이 풍부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종 및 종교와 상관없이 말레이계와 중국계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의 가슴속에 긴 여운을 남겼다. 말레이시아 유력 일간지 Star紙에 실린 한국 드라마의 성공조건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2002년 말레이시아에서 방영한 '겨울연가'는 평균 150만 명 이상 고정 시

청자를 확보할 만큼 대 히트를 기록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9)</sup>

가을동화는 2002년에 윈터 소나타에 이어 방영되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를 이어갔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가을동화'의 인기는 같은 회교권 국가인 이집트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었다.<sup>30)</sup> 드라마 '가을동화'에 나온 배우 송승헌에 마음을 뺏긴 여자 친구를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동남아 가요계의 화제가 되어 한국 드라마에 이어 한국 가요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만들기도 하였다.<sup>31)</sup>

대장금은 한국 음식을 소재로 하는 한국 드라마로, 황금시간대에 배정돼 있어 화교, 이슬람 구분 없이 사랑받아 왔다.<sup>32)</sup> 또한 말레이시아 여자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대장금 드라마로 인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말레이시아 현지의 한국식당에서 김치와 불고기를 찾는 현지인이 크게 늘어나게 만들었다. 특히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는 「여자 윤사마」로 불리며 배용준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이영애를 주인공으로 하는 또는 대장금을 소재로 TV광고가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 영화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영화 '쉬리'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공포영화 '폰'으로 이어지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원빈과 이정재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이후 '올드 보이', '친구', '태극기 휘날리며' '엽기적인 그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어린신부' 등 수십여편이 말레이시아에 소개되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말레이시아 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전쟁, 폭력과 같은 극단적 소재를 다룬 심각한 한국 영화보다 남녀간의 사랑을 코믹하게

27) Hannah Press, 2007년 2월 6일.

28) 연합뉴스(2005.05.17).

29) The Star, August 1, 2003.

30) 같은 회교권 국가인 이집트의 경우, 지난해 「가을동화」에 이어 올해 초 「겨울연가」의 방송으로 중동 지역에서 한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윤재식, 「국가별 한류 현황과 전망」.

31) 문화마당2(2005. 12. 20).

32) Hannah Press(2006-03-28).

다른 한국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 및 한국영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와 함께 열성팬을 확보한 한류 스타로 윈터 소나타의 배용준, 최지우, 대장금의 이영애 외에도 안재욱과 장동건, 원빈, 이병헌 등이 여성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권상우는 공중파 채널인 『8TV』를 통해 2004년말 『천국의 계단』이 방영되면서 알려져 차세대 한류 스타로 각광받고 있다.<sup>33)</sup> 젊은 남성들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여배우로는 송혜교와 김희선이 있다.<sup>34)</sup> 말레이시아에서 공중파를 타지는 못하였지만 드라마 ‘풀하우스’로 엄청난 사랑을

말레이시아 스타지에서 기사화할 정도로 높았다.<sup>35)</sup>

비의 경우 아리랑TV가 2004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교민을 포함한 해외 네티즌 4만 356명을 대상으로 ‘올해 최고의 한국가수’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에서 1위를,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는 2위를, 태국에서는 3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른 인기를 얻었다.<sup>36)</sup>

베이비 복스는 2005년 9월 22일에 아세안 대화상대국이 된지 15주년 기념 문화교환 행사 프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형성 이후 21세기의 한·말관계는 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간 수준에서도 그 유대가 강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아래로부터의 자연적인 관계증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받고 있는 송혜교가 차태현과 함께 2006년 3월 23일 개봉하는 영화 ‘파랑주의보(My Girl & I)’를 위해 차태현과 함께 방문한 것을 현지 말레이시아 차이니스 신문인 <신췌 신문>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한국 드라마 및 한국영화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중에서도 장나라, 비, 보아, 베이비 복스, 동방신기 등과 같은 가수의 활약이 말레이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내 사랑 팔쥐’와 영화 ‘오! 해피데이’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장나라는 사바에 있는 늑막 소망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공연을 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첫번째 공연을 한 한국연예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에서 장나라의 인기는

그럼의 일환으로 열린 ‘한류스타 아세안 국가 순회 프로그램’의 첫 주자로 임명받은 탤런트 김재원, 그리고 댄스팀 와와, 록 듀오 더 클로스 함께 성황리에 공연을 가졌다.<sup>37)</sup>

동방신기의 경우 “동방신기가 출연했던 한국의 LG휴대전화 광고가 말레이시아에서 방영되면서 동방신기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결국 현지 공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2006년 7월 14일에 2만여석 규모의 푸트라 인도어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단독공연(Rising Sun 1st Asia Tour 2006 Live In Malaysia)을 하였다.<sup>38)</sup> 이 외에도 난타 공연이 2005년 11월 18일에서 27일 동안 겐팅 국제공연장(Genting International Showroom)에서 공연되어 현대화된 사물놀이를 말레이시아에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음악의 경우 전체적으로 음악 자체보다는 가수 개개인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

33) 말레이시아의 위성방송사 아스트로(Astro)는 권상우가 주연한 『말죽거리 잔혹사』와 『일단 뛰어』 등의 영화를 2005년 수입,배급할 예정이며 2005년 하반기에 관련 홍보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Daily Sports(2005.5.7)

34) The Star, 16 May, 2005.

35) The Star, March 24, 2004.

36) Yonhap News(2004.12.23).

37) Hannah Press, September 29, 2005.

38) No Cut News, June 22, 2006.

로 나타났다. 가수의 외모, 안무 등에서 3개국 모두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곡 자체의 경쟁력에서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음악이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9)</sup>

이러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가 보여주는 특징을 기초를 바탕으로 1) 한류의 세계화 가능성, 2) 이슬람 문화로의 한류의 전파 가능성, 3) 한류의 장기적 지속의 가능성 등과 같이 한류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 한류의 세계화 가능성

조화와 균형 속에서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다민족국가(multi-racial nation) 및 다문화혼합사회(multi-cultural society)인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수용은 한류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성공적인 수용은 한류가 단순히 한국적 민족주의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 보편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국가(multi-racial nation)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계 58%, 중국계 25%, 인도계 7%, 외국인 체류자 및 기타 10%로 구성된 다양한 인종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다문화혼합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어를 국가 공용어로 삼고 있으나, 영어, 중국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통하여 한류가 성공적으로 수용되었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말레이시아 무역관인 류종현 관장의 현지 한류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한국 TV 드라마가 말레이시아 시청자들 속에 파고 들어 중국계는 물론 비중국 말레이계 주민들 사이에도 열성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황금시간대인 저녁 6~8시에 주로 방영되던 홍콩이나 대만 프로그램들에 식상한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의 눈길을 한국 TV 드라마들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한류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2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독특한 한국적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한국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성별, 인종,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간의 본연적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주의이다. 이러한 입장을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 수용에 적용하여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볼 수 없는 눈썹인 겨울풍경, 단풍진 가을풍경, 한복, 한국음식 등을 비롯하여 가족 공동체, 예절 등 독특한 한국적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인들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성별, 인종,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간의 본연적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

한류의 선발대격인 겨울연가를 본 후 한국 TV 드라마의 열성팬이 된 펠리시아 탄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러브 스토리들은 매우 순수하고 영원한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은 한국 드라마들은 가끔 구성상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한국 드라마들은 아시아의 삶에서 급속히 사라져 가는 가치들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

39) Herald Economics, 31 Dec. 2005.

40) 말레이시아 여자 회원인 테니 티(22)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촬영지에 직접 가보고 싶어 4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다면 서 동남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눈썹인 한국의 겨울풍경은 이곳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말레이시아 여자 작가 놀리어나 카말루딘(22)는 한국의 드라마는 그 동안 서양작품에서 보던 러브스토리와는 달리, 수줍고 부끄러운 듯한 감정이 있으면서도 뒷사람을 공경하는 모습 등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Segye Daily, 1, Feb 2006.

여 동아시아의 한류 전문가인 다이아나 리(Dianna Lee)는 “윈터 소나타가 1) 순수한 사랑, 2) 첫사랑, 3) 소유적인 사랑, 4) 실패한 사랑, 5) 부모의 사랑, 6) 진실한 사랑 등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점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어느 누구든 이와 같은 사랑을 한 두 번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1)</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통하여 한류가 성공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은 한류가 독특한 한국적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성별, 인종,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간의 본연적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슬람 문화권으로의 한류의 전파 가능성

국민의 58%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계가 믿고 있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수용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슬람 문화권으로의 한류의 전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KOI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서정학 부관장은 “2500만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60%나 되는 말레이시아에서 한류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이슬람 문화권 젊은이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열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류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sup>42)</sup>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집트-중동-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회교 문화권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 「한류 벨트」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코트라는 기대하고 있다.<sup>43)</sup>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인정받은 드라마는 중동 이슬람 국가로 퍼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미 『가을동화』는 말레이시아 시장 검증 뒤 2004년 이집트 국영방송 채널에서 방송된 적이 있다. 말레이시아인이 무척 좋아해 세 번 이상 방송됐던 『대장금』도 2006년 2월부터 이집트에서 방영되고 있다.<sup>44)</sup>

대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57개 이슬람국가, 13억 이슬람인을 대변하는 이슬람회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의장국(2003-2007)으로,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수용은 한류가 유교적 가치를 넘어서 이슬람적 가치를 포괄하고, 또한 아시아 가치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다.

### 한류의 장기적 지속의 가능성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 수용의 강도와 속도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하는 단기간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늦게 일어난 지역 중 하나이지만, 한류 수용의 강도와 속도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05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국민 1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류확산을 위한 동남아 한국문화상품 소비자 및 정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 드라마 접촉율’ 44.3%, ‘한국 영화 접촉율’ 19.2%, ‘한국 가요 접촉율’ 4.7%로 나타났다.<sup>45)</sup> 아직 1년이 지나진 않은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쿨

41) Diana Lee, “Why is Winter Sonata a Big Hit in Asia?” <http://www.koreanfilm.org/tvdramas/wintersonata.html>

42) 세계일보 (2006. 02. 10)

43) 연합뉴스(2005.05.07)

44) 연합뉴스(2005.05.07)

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 500명 (Malay 50%, Non Malay 50%)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봉준의 설문조사<sup>46)</sup>에 의하면, 한국 드라마의 접촉율(1개월) 59.7%, 한국영화 접촉율(6개월) 57.3%이며, 한국가요접촉율(1개월) 34.2%를 보여주고 있다.<sup>47)</sup> 이러한 접촉자 중에서 한국 드라마의 경우 70.3%가, 한국 영화의 경우 68.9%가 한국 가요의 경우 56.7%가 평균이상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48)</sup> 실제로 한국 드라마의 경우 윈터 소나타, 대장금, 등은 3번 이상 재방영되었고 현재 파리의 연인이 3번째 재방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하는 단기간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를 한류 저확산지역이 아닌 적어도 한류 중확산지역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sup>49)</sup>

###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와 사회경제적 변화

2002년 윈터 소나타로 시작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한류 이전과 다른 사회문화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사회문화적 변화로 1)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의 증대, 2)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한국어 및 한국학 3) 말레이시아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변화로 1) 한국음식의 선호 증대, 2) 한국관광의 증가, 3) 한국상품의 구매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 사회문화적 변화

####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의 증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 의해 발생된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말레이시아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한국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 하봉주 교수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Korea is an advanced country(3.19), I have a good feeling of Korea(3.11), Korea is an open country(3.08)<sup>50)</sup> 이를 통해 볼 때 말레이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를 평가하는 하봉주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문화의 부정적 이미지인 disgusting(2.52), violent(2.57), sexual(2.73) westernized(2.85)에 대하여 평균 이하의 scale을 보이고 있고, 한국문화의 긍정적 이미지인 fresh(3.09), advanced(3.14), romantic(3.16), traditional(3.26)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scale을 보이고 있다.<sup>51)</sup> 한류 이전에 말레이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부재한 관계로, 이러한 2006년도 말레이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영향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sup>52)</sup>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 수용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

45) Herald Economics, 2 Dec. 2005.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 드라마 접촉율` 59.43%, 한국 영화 접촉율` 35.8%, `한국 가요 접촉율` 10.9%로 나타났으며, 태국의 경우 `한국 드라마 접촉율` 40.03%, 한국 영화 접촉율` 21.08%, `한국 가요 접촉율` 8.9%로 나타났다. 이에 싱가포르에서는 한류가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성장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6) Ha, Bongjoon, "Malaysian's Contact Experiences and Attitudes on the Korean Mass Culture" (June 2006).

47) 이 중 1개월간 10회 이상의 한국 드라마 접촉율은 10.7%, 6개월간 10회 이상의 한국영화 접촉율은 6.9%, 1개월간 10회 이상의 한국가요 접촉율 2.8%를 차지하고 있다. Ha, Bongjoon(2006).

48) Ha, Bongjoon(2006).

49) 윤재식, "국가별 한류 현황과 전망," 윤재식은 한류의 확산 정도에 따라 한류 확산지역(중국, 베트남, 일본), 한류 중확산지역(대만, 홍콩), 한류 저확산지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류 시작지역(터키, 이집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50) 그러나 I like Korea(3.05), I like Koreans(2.97)에서 알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인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선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에 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51) Ha, Bongjoon(2006).



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한국어 및 한국학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 의해 발생된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쿨알라룸푸르 암팡지역에 있는 무궁화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각종 문화 관련 행사를 유치하는 등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다.<sup>53)</sup>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하봉주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I like Korean culture(3.07), I like to experience more Korean culture(3.15), I am interested in Korea(2.92), I want to know Korea better(3.14). 이러한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학습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현재 한국어 교육은 UM, UKM, UPM, UITM, SNU 등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각 대학별로 200~300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수강학생 신청학생에 비하여 교수진의 부족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사설민간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을 개설하는 추세에 있다. 말레이시아의 한국어 교육은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하여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동남아국가에서는 한국어 학습이 취업과 같은 경제적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한국어 학습의 열기와 학습자의 숫자가 높은 편이지만, 말레이시아는 다른 동남아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어 학습이 경제적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한국어 학습의 열기와 학습자의 숫자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문화적 관심과 지적 호기심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한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학 교육은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말라야대학교(UM: University of Malaya)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학과 안에 한국학(Korean Studies Programme)이 개설되면서 한국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수립후 초기에는 한국학 전공학생이 3~4명 정도 되었으나, 2002/2003 학기, 2003/2004 학기의 경우 약 2년 동안 한국학 전공학생이 없었던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2004/2005 학기에는 10명, 2005/2006 학기에는 8명, 2006/2007년에는 11명이 한국학 전공을 선택함에 따라 현재 한국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와 한국학 지원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상관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sup>55)</sup>

이처럼 현재 및 미래의 한말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더 많은 전문가와 말레이어 및 말레이시아학에 대한 더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국어 및 한국학의 발전을 위하여 동시에 말레이어 및 말레이시아학의 성장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말레이시아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 의해 발생된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

52) 역사적으로 1982년부터 추진된 East Look Policy 때문에 말레이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는 기존에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53) 무궁화문화원은 2006년 1월 한국신미술협회 전시회를 가진 이래로 2006년 7월 한국 전통문화예술 진흥협회 주최의 '아시아태평양미술전시회(Asia Pacific Ocean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2006년 11월 '한국 현대미술작가 초대전 2006', 박홍식 개인전 'Motherland, Korea' 등 한국미술전시회를 활발히 유치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54) Ha, Bongjoon(2006), I like Korean culture(3.07), I like to experience more Korean culture(3.15).

55) 한국학의 과목 중 "한국의 사회문화"의 경우 한국학을 전공학생 외에도 일반학생들이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문화의 수강학생의 수가 2004/2005 학기에는 21명, 2005/2006 학기에는 2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식을 접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한국 드라마 및 한국 영화 관련 연예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동아리의 결성을 들 수 있다.<sup>56)</sup>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가져온 테오치화(Teoh Chit Hwa)가 사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게 된 동기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들었다고 한다.<sup>57)</sup> 한국 드라마 및 한국 영화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공동체 의식, 근면성, 예절 등과 같은 좋은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시민사회 수준에서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동방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위에는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이라는 양면성이 있듯이, 한류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고, 긍정적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경제적 변화

### 한국음식의 선호 증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 의해 발생된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한국인의 전통과 한국음식을 접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인으로 하여금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를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음식을 다루는 한국 TV 드라마 대장금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장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식당

5개가 KL에 생겼다. 또한 드라마 ‘대장금’ 등 한류 열풍으로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말레이시아에 대한 김치 수출이 150% 늘었다고 한다.<sup>58)</sup> 그러나 하봉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KL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 30.6%가 한국음식을 접해 본 후 평균 이하의 만족도(2.96), 구매욕(2.88)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에 비해 만족도 및 구매욕이 평균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말레이시아인에 맞는 한국음식의 개발에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관광의 증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 의해 발생된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접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인의 한국관광을 대대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과 관련하여 하봉주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I like to experience more Korean culture(3.15), I want to visit Korea(3.51). 실제로 한국을 찾는 말레이시아 관광객도 2001년 5만 5,848명, 2002년 8만 2,720명, 2003년 9만 623명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왔다.<sup>59)</sup> 최근 말레이시아 최대 생명보험사인 ‘Great Eastern’ 과 ‘Elken Group’ 인센티브 단체 2,700여명의 한국방문 유치에 성공과 관련하여, 쿠알라룸푸르 한국관광공사 함경준 지사장은 드라마 『대장금』과 연계한 한국 전통음식(삼계탕), 『난타』공연, 스키 등과 같은 관광소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0)</sup> 이러한 점에서 말레이시아의 한류와 한국관광과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6) 쿠알라룸푸르 중심가 페트로나스트윈타워(KLCC) 광장에는 두둥을 둘러싼 20 ~ 30대 여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류 스타들의 사진과 “반갑습니다”라며 서둘러 쓴 한글 구호가 적힌 브로마이드를 들고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연예인과 가수를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 팬클럽” 회원들로서 최근 한국 드라마를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나눠먹고 각기 가지고 온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Segae Daily, Feb. 1, 2006.

57) Health Ministry parliamentary secretary Datuk Lee Kah Choon said superstitious beliefs had been hampering efforts to get people to donate their organs. When the media highlighted Chit Hwa's noble act, it had created a lot of public awareness on organ donation, he told a press conference yesterday. It was reported that the 19-year-old college student, who died of brain tumour, had donated his tissues and organs to at least 35 people. The Star, "Memorial service for organ donor," Jan. 5, 2006.

58) 중앙일보, Nov. 10, 2005.

59)한겨레신문, Feb. 22, 2005.

60) 중앙일보, Feb. 28, 2006.

다만 말레이시아인의 한국관광과 관련하여 음식, 언어 소통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어,<sup>61)</sup> 현재 주요 관광지에 무슬림식당이 생겨나고 말레이시아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조류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가 반작용으로 한국에서의 말레이시아 문화적 조류를 초래하고 상호결합하여 한·말관계의 유대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다. 또 휴대전화도 같은 기간에 5%가량 성장한 2억 4129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MP3P는 2005년 11월 현재 26만달러를 돌파해 전년보다 무려 70%가량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sup>62)</sup>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류 지속과 기업의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의 확산단계를 대중문화 유행→파생상품(콘텐츠, 관광, 화장품) 구매→한국 상품 구매→한국 선호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sup>63)</sup> 이를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에 적용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국어 및 한국학의 발전을 위하여 동시에 말레이어 및 말레이시아학의 성장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상품의 구매 촉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 의해 발생된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접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인으로 하여금 한국산 상품을 구입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 상품과 관련하여 하봉주 설문조사에 의하면, KL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 약 30.6%가 한국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Korean Mobile Phone (만족도 3.17, purchasing intention 3.15), Korean white goods (만족도 3.06, purchasing intention 3.13) 순으로 상품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드라마의 인기는 비디오와 음반 등은 물론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 등 정보기술(IT) 관련 판매에도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퍼져가고 있다. 대형 쇼핑몰의 음반가게마다 “한국 드라마 OST 코너”를 따로 마련하고 있고, 한국 관련 음악 CD와 DVD, 한국 연예인의 사진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이 같은 한류에 힘입어 이 지역에서 한국 IT제품들도 서서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PC)는 지난해 11월 현재 2004년 370만 달러보다 10%

하면 말레이시아는 파생상품 구매에서 한국상품 구매단계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미래

본 연구는 밀레리엄 시대인 21세기에 들어서서는 ‘한·말관계가 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간 수준에서도 강화되고 긴밀하게 되었는데’를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 2002년에 윈터 소나타의 방영으로 시작된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국가 수준을 넘어서 민간 수준에서 한·말관계의 유대강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지도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동남아의 힘의 중심부인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수용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한류의 세계화 가능성

- 1) 조화와 균형 속에서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

61) Mar. 29, 2006.  
62) Segae Daily, Feb. 1, 2006.  
63) 중앙일보, Jul. 7, 2005.

활양식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다민족국가 및 다문화혼합사회인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수용은 한류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슬람 문화권으로의 한류의 전파 가능성  
국민의 58%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계가 믿고 있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수용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슬람 문화권으로의 한류의 전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한류의 장기적 지속의 가능성(time)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 수용의 속도가 빠르고 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속도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하는 단기간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가 가지고 있는 함의에 기초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수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말레이시아의 한류가 한·말관계의 유대는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미래의 한·말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 및 은퇴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에서 일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조류와 한·말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가 주는 현실적 함의를 이야기하자면, 한·말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는 한국 전문가를, 한국은 말레이시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말 양국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하여 동시에 한국에서 말레이어와 말레이시아학의 성장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2002), “싱가포르에 한류가 존재하는가”, 『동아연구』, 제42집, 114-136.  
김선호(2002), “몽골 한류의 특성과 전망”,

- 『동아연구』, 제42집, 59-72.  
김정수(2002), “한류 현상의 문화산업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학보』, 제11권 4호, 1-21.  
김재은·박길순(2004), “한류 현상이 중국 신세대 패션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제28권 1호, 154-164.  
김홍길·김홍렬(2005), “한류 현상이 한국관광에 대한 이미지와 관광동기에 미치는 영향”,  
박길순(2004),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한류현상 분석”, 『한국생활과학지』, 제13권 6호, 967-983.  
박대한(2004), “한류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관광정보연구』, 제18호, 129-148.  
서용진·서용구(2004), “한류가 한국의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28권 제3호, 47-64.  
손병우·양은경(2003), “한국 대중문화의 현주소와 글로벌화 방안: 한류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7-171.  
신윤환(2002), “동아시아의 한류 현상: 비교 분석과 평가”, 『동아연구』, 제42집, 5-34.  
신현준(2001), “자유로운 표현이 예술도 되고 산업도 될 순 없나”, 『저널리즘비평』, 제32호, 78-81.  
이민자(2002), “중국 개혁기 청소년문화 분석: 한류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42호, 35-58.  
이은숙(2002),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가을/겨울, 31-59.  
이준웅(2003), “한류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중국인의 한국 문화상품 이용이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5-35.  
이치한·허진(2002), “한류 현상과 한·중 문화교류”, 『중국연구』, 제30권, 499-513.  
이한우(2002), “베트남에서의 한류, 그 형성 과정과 사회경제적 효과”, 『동아연구』, 제24호, 93-113.  
장양례·박정옥(2004), 한류가 한국관광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적·정서적 평가”, 『관광경영학연구』, 제8권 제1호, 319-336.

전선홍(2002), “대만에서의 한류: 현황과 전망”, 『동아연구』, 제42호, 73-92

조혜영(2003),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인식과 한·중 청소년 교류 전망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223-247.

허진(2002), “중국의 한류 현상과 한국 TV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1, 496-529.

Clausewitz, Carl von.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with Introductory Essays by Peter Paret, Michael Howard, and Bernard Brodie and a Commentary by Bernard Brodi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Ha Bongjoon, “Malaysian’s Contact Experiences and Attitudes on the Korean Mass Culture” (June 2006).

Lee Kyungchan, East Look Policy, So, Byung Kuk, et al., Malaysia: East Look Policy and Vision 2020 (Hankuk University for Foreign Studies Press, 1998).

Lee, Diana. Why is Winter Sonata a Big Hit in Asia?

<http://www.koreanfilm.org/tvdramas/wintersonata.html>

Park Jae Kyu, “Korean and the Third World,” Koo, Young Rok and Sung Joo Han, eds.,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The Star, Memorial service for organ donor, Jan. 5, 2006.

도서안내

#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





## 논 단

카자흐스탄 고려인정주 70주년에 즈음하여

# 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



명 드미프리

카자흐스탄  
알마티국립대학  
정치사회학 교수

stas@tandem-  
translations.com



## 서론

처음은 소련, 다음 CIS 그리고 결국에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의 역사적 경과를 이해하며 정당히 평가하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전체주의 시기인 70년 전 1937년에 소련의 원동에 살던 고려인들이 어린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사건이다. 그 당시 사변의 직접적 참가자들의 이야기와 고문서 문헌들에 의하여 소수민족의 대대적인 비극적 숙청의 범위와 상세한 부분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 비극의 심도와 그것이 스탈린탄압의 멧돌에 들어간 고려인들에게 가져온 구체적인 피해는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sup>1)</sup>

인류의 기억에 잔인한 두 세계대전을 남겨놓았으며 수억 명의 희생을 가져온 20세기는 소련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나라”에 살던 민족들의 대대적 강제이주로 인해 문명의 역사에서 비참한 시대였다. 이 추악한 실험의 쓰라림을 처음 겪게 된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이었다. 그들을 뒤이어 뽀월시예의 독일인들, 체첸인들, 인구스인들, 까라차예브인들, 발까르인들, 깔미끼야인들, 꾸르드인들, 크림따르인들 기타 많은 민족들이 그런 운명을 겪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혹독한 강제이주를 맨 먼저 당하게 되었다. 이제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한민족의 지위가 특별이주당한

1) 『1937년. 러시아의 고려인들: 뿌리모리에-중앙아시아-스탈린그라드(강제이주)』, (모스크바, 2004년), p25.

민족의 지위로 변형된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일제의 위협으로 인한 역사적 필요성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고려인들은 1930년대 원동으로부터의 강제 이주부터 시작하여 스탈린 정권의 비극적인 시대, 소련붕괴 이후 민주주의적 사회개조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발전의 길을 겪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정책에 의하여 부득이 카자흐스탄에 오게되었다. 카자흐스탄은 고려인들을 받아들여 가능한대로 집도 주고 먹을것도 주었다. 고려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과 사귀지 말라는 공식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에게 따듯이 대하여 준 카자흐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있다.

### 소련붕괴 전까지의 고려인들의 사회정치 지위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자리잡는 것은 “이주 과정, 그후 여러 번에 거친 재배치, 계획변동 등 단

경제적 및 정신적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또 하고있다”<sup>3)</sup>

사회주의의 급격한 발전시기에 고려인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 문화, 과학, 교육, 기술, 스포츠 및 기타 영역에서 성실하게 일하였다. 강제이주의 첫 몇년 간에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힘든 육체적 노동만 하였으나, 지금은 세계 문명의 모든 유산을 소화하고있다.

고려인들은 함께 거주하는 민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상 관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왔다. 우선 카자흐인들과 러시아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랬었다. 스탈린이 사망한 후에 사태가 바뀌어 고려인들은 나라의 다른 공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며 공부할수 있게 되었다.

농업에서 달성한 막대한 성과에 대하여 67명의 고려인들이 사회주의노력영웅이란 칭호를 받았고 공업, 교육, 보건, 문화, 농업, 스포츠 분야에서는 200여 명이 공훈일군칭호를 받았다. 소련시대에 리 레오니드 빠블로위츠에게 야금공업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학원원사의 칭호, 김영광에게



고려인들은 1930년대 원동으로부터의 강제이주부터 시작하여 스탈린 정권의 비극적인 시대, 소련붕괴 이후 민주주의적 사회개조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발전의 길을 겪게 되었다.

순한 일이 아니었다. 고려인들이 실려온 지역들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물질적 토대가 약했다. 그것은 중앙에서 이 조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sup>

그 당시 자신도 변변치 못하게 사는 카자흐인들은 불행한 고려인들을 모든 면으로 도와주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수십년동안 거주하면서 “고려인들은 그 어느 한때 말했듯이 백여 민족과 준민족들 속에서 역사의 먼지로 되지 않았고 동화되지 않았으며 자기의 민족풍습과 전통을 보존하고 많은 면에서는 풍부화시키면서 공화국의 사회

는 수학에서 카자흐공화국 과학원 후보원사의 명칭이 수여되었다.

소련시대에 또한 뮌헨과 멕시코 올림픽대회에서 체조선수 김 넬리가 챔피언으로 되었다. 그는 또한 수차 세계, 유럽, 소련, 카자흐스탄 챔피언으로도 되었다. 음악가-가수 최 워포르(크슬-오르다), 대극장 오페라 가수 남 류드밀라(우스포베), 가수-음악가 박 알레리(침겐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 김 아나톨리(우스포베), 소련의 첫 권투투트레이너 최유리(따라스)가 바로 카자흐스탄에서 창작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소련영웅 민

2). 강 계. 웨. 카자흐스탄고려인들의 역사, (알마타, 1995년), p 78.  
3). 「러시아의 고려인들」 pp 25-26.

알렉산드르도 카자흐스탄 출신이다. 이와 같이 공화국에서 고려인들의 활동무대가 점차적으로 넓어져 갔다. 현재 고려인들이 일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근면성은 고려인들의 생활양식의 불가분한 부분으로 되었다.

인민들의 의식 속에는 고려인들과 카자흐인들이 서로 다른 문명의 민족에 속한다는 신념이 깊이 뿌리를 박았다. 실지에 있어 전통적인 차이가 종교, 언어, 문화, 특히 일상생활, 사회적 심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서로다른 두 민족을 문명간 합성의 적극적 주관자들로 만든 관대성,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은 자기의 영웅심과 근면성으로 일본간첩이란 잘못된 죄명의 무근거성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헌신성, 사업에 대한 충실성과 좋은 행동으로 자기의 민족적 및 공민적인 명예를 회복하였다. 스탈린시대의 혹독한 살인정책과 국가테러를 겪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자주 공화국의 완전한 권리를 가진 공민으로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과거에 겪은 것을 회상하면 마음 속에 모욕감은 남았지만 악의는 없다. 어제의 “일본간첩”들의 손자들이 오늘 국회에 있으며 장관의 직위를 차지하며 장령이란 높은 군청을 받으며 구 소련과 현재 카자흐스탄의 국가상을 받고있으며 주도적 과학연구소 사업을 지도하고 종합대학들에서 교수들로 일하며 비즈니스의 중요한 영역에서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그들 중에는 공훈배우, 인민배우들도 있다. 고등 지식 수준으로 보아 고려인들은 소련시대나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우선적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수백만 명의 고려인 소수민족이 사는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우리 공화국에서처럼 사회발전분야에서 대 성과를 달성한 사실이 없다.

역사는 대중적인 강제적 이주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공인된 국제규범이 없으며 국가의 내부법규 문제로 되며 국제기구가 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정권이 진다. 고려인들은 운명의 비운을 대담하게 이겨내고 민족

으로서 살아 남았으며 공화국 민족들사이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소련시대에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는 전체주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품성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이 정권보다 강한 전인류적 가치의 승리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고려인들은 그동안 살면서 민족적 자체보존과 자체의식의 기운이 얼마나 강하며 그것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화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역사는 다민족 나라에 사는 인민들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거기에는 어두운 페이지도 있었고 밝은 페이지도 있었다. 그러나 매 페이지가 소수그루뵈,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민의 유산으로 된다. 역사의 그 어느 한 사변도, 그 어느 한 사실도 시대나 그 어떤 힘이 지워버리지 못한다. 역사에는 무관심한 직관이나 우연한 경우가 없다. 어쨌든 거기에 참가하게 되며 그것을 변경하게 된다.

역사적 전환기인 20세기에 의지가 강하고 애국심이 발전된 민족만이 잠재적으로 살아남으며 발전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중에서 고려인들이 바로 그런 민족들중 하나이다.

## 시장관계의 조건에서 고려인들의 적응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2007년은 구 소련의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해이다. 고려인들은 “눈물젖은”이 날을 명절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소를 끌고 카자흐스탄 땅을 개간하던 그 지난 과거에 대한 추억으로 기념할 것이다. 이것은 그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한 훈시이다. 이것은 인류의 생활에서 인종살육이 영영 근절된데 대한 추억이다. 이는 카자흐인들의 옛 땅에 거주한 지난 기간을 총정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70년이 지났다. 인간의 한 일생에서는 긴 세월이다. 그 때로부터 새로운 몇 세대가 자라났다. 우리가 그 당시의 비극적 사변에서 멀어질수록 목격자들이 더 적게 남지만 그 잊을 수 없는 날

들이 고려인들의 의식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전 체주의 체제는 인민의 의식을 없애며 개성이 없는 “소비에트인민” 속에 동화시켜버리려 온갖 애를 썼다. 스탈린체제는 인민에게서 민족적인 것을 없애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소련이 붕괴되자 앞으로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것은 당연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그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역사의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 카자흐인민은 수 세기를 내려오면서 독립과 자주권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결국에 그들은 원하던 것을 달성하였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은 이 위대한 나라에서 모든 권리를 가진 공민으로 되며 이 나라의 일부분으로 된다.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법과 사고로 살고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살고있는 고려인들의 70%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다. 그러기에 그들이 태어난 곳 즉 카자흐스탄이 그들의 조국이다. 사람은 한 번, 한 곳에서 태어난다. 첫 조국, 둘째 조국이 없다. 때문에 고려인들도 공화국의 모든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가정의 식구들이며 기타 인민들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필자는 고려인들이 집합되어 거주하는 곳(알마티, 우스토펬)에서 몇 년전에 사회여론조사를 하였다. 앙케이트에 기록된 질문들 중 하나가 “역사적인 조국으로 가서 살 생각이 있습니까?”였다. 대다수가 부정적 대답을 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황제정부가 처벌받은 사람들을 보냈으며 소비에트시대에는 스탈린체제가 “인민의 반역자들과 원수들”(사상이 다르다고 하여)을 보내던 알지르, 굴라그, 등 죽음의 수용소들이 있던 유형지가 아니다. 오늘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모든 지표로 보아 고도로 발전된 국가로, 가까운 장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50개국에 확실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공화국, 그의 성취에 긍지감을 느끼고있으며 공화국의 융성발전에 자기의 노력을 기여하였고 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현명한 정책으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한 엔. 아. 나사르바예브대통령을 자랑하며 카자흐스탄이 고려인들에게 문명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 것을 자랑하며 이 아름다운 다 민족, 다 종교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을 자랑한다.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에서는 경제발전이 소수민족의 생활에 관계되는 법 기초의 정비도 동반되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국가 민족정책 개념” 채택과 동시에 민족간 관계에 관한 일련의 법규와 지침서가 채택되었다. 그런 관계의 형태들 중 하나가 민족 사회단체의 활동이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고려인 운동에서 이 시기는 서로 다른 민족협회와 사회단체 형성의 시기였다. 카자흐스탄은 다민족국가이며 거기에서 10만명의 고려인을 비롯한 근 130여 민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독립을 쟁취함에 따라 각 민족이 자아 의식을 지향하였다.

모국어, 문화, 독창성을 살리려는 것이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를 창설한 목적이다. 고려인 사회단체를 설립한 것은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단체는 “사회적 취미, 성, 연령 기타 특징에 따라 고려인들을 단합시킨다. 강령의 문헌과 상기 단체 활동분석은 차이를 불구하고 유일한 목적, 언어, 풍습, 전통, 총체적으로 문화를 재생시키려는 목적이 그들을 연합한다”.<sup>4)</sup> 문화센터들은 소련 및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언어 및 문화를 되살리며 역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였다.

공화국에서는 고려극장이 성과적으로 활동하고있으며 “고려일보”가 민족어로 발간되며 TV 방송 “고려사람”, 라디오방송이 모국어로 방송되고있다. 극장이나 대중보도 수단들은 민족적 문화의 보관자로, 소수민족의 생활에 대한 소식 전달자가 됐다.

4) 강 계. 웨. 이상에 지적된 논문, 185페이지.

교육, 문화 분야에서 고려인들의 다대한 성과는 국가의 꾸준한 배려, 민족그루빠에 대한 주의 깊은 태도,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도움이 없이는 고려인 소수민족이 역사적 문명의 초보단계에 있었을 것이다.

고려인 소수민족은 재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며 문화발전에 각별한 주의를 쏟고 있다.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동포들과 연계를 맺고 그들과 친선관계를 튼튼케 하며 합동 국제회의, 포럼 등을 진행하고있다. 실례로 2006년 6월에 서울에서 해외한인 리더 포럼이 진행되었는데 대한민국 노무현대통령이 거기에서 긴 연설을 하였다. 이 모든 상봉모임은 외국에 사는 한인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더 낫게 발전시킬 가능성을 준다. 우리 혈육의 형제들의 민족적 재생 경험은 친선적 상호관계와 상호 이해에서 항상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민족적 독립을 얻은 것을 고려인 소수민족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공화국 정부가 실시하는 민주주의적 개조, 높은 생산잠재력, 풍부한 독창적 문화, 막대한 부존자원은 세계 강국들로 하여금 카자흐스탄에 주목을 집중하게 하였다. 카자흐스탄에는 매개 민족이 자기의 독창적 문화, 역사, 언어를 발전시키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그와 함께 다른 민족그룹과 마찬가지로 고려인들도 과도기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고려인들은 모두다 문제없이 잘 산다는 소문이 돌고있다. 시장관계는 진취성과 근면성이 있는 고려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려인들의 48%가 아직도 국가 보조금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부유한 민족이나 가난한 민족이 없다. 민족마다에 부자가 있고 빈궁한 사람이 있다. 고려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아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 그들에게도 속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모국어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모국어를 모르는 것은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70년동안 역사적 상황에 따라 러시아어가 모국어로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모국어 문화를 알아야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공화국의 다민족 가정에서 집성적 부분으로 당당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어 즉 자기 선조들의 언어를 모른다면 그는 누구인가? 끼르키시야의 작가 친기스 아이트마포브는 그런 사람들을 만꾸르트라고 일컬었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에서 사는 고려인들의 97%가 만꾸르트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만꾸르트가 되었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 보건대 러시아어는 고려인들에게 세계문명, 문화에로의 길을 닦아주었다. 고려인들이 모두다 한국어만을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구소련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무엇을 하였겠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알았기에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룩하였다.

민족마다 그가 소속되는 인종을 존경하기 위하여 선조들의 언어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역사적 상황에 따라 고려인들은 작은 파편으로 자기의 역사적 조국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부득이 고향 멀리에 있게 되었다. 모국의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였고 가치있는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정든 고향땅을 부득이 떠나 정착하게 된 새 지역의 조국에 적응하여 살아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이 과업을 당당히 실행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현지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민족적 소속을 뗀뗀이 대표하였다.

고려인협회의 목적은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하는것인데 이것은 고결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그들이 국어를 배워야 하고 외국어를 꼭 알아야 하며 한국어를 하다 못해 회화를 할수 있을정도는 알아야 하는것이다. 물론 다수가 첫 두가지 언어를 택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또다시 지역의 조건에 적응해야 하며 운이 좋으면 관리의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공화국에서는 국어를 모르고는 국가나



과학 기관에 취직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며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전반적으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고려인들은 국어를 열심히 배우고있는데 물론 이것은 시간을 요구한다. 모든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30년대에 고려인들은 러시아어가 모국어로 되도록 그것을 배웠는데 21세기 초에는 카자흐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좀 흐르면 고려인들은 카자흐어도 능숙할것이다. 생존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그리고 카자흐인민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임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지난 세기의 30년대에 그랬듯이 불만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카자흐스탄은 민주주의에로 전진하고있으며 공민의 합법적 사회를 건설하고있다.

위대한 민주주의적 전취물을 이용하며 카자

한국말을 꽤잘게 한다. 공화국에서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10여개의 종합대학들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대도시들과 고등교육기관들에는 한국어과가 있다. 거기에서는 한국어 전문가들을 양성한다.

교육원은 설립이래 15년간 큰 문화종합체로 성장되었다. 교육원에는 800석의 공연실, 큰 도서관, 컴퓨터실, 학습실, 스포츠 및 무용실들, 식당 및 기타가 있다. 해마다 20개의 그룹에서 50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고있다.

한국어, 전통, 문화 연구에서 카자흐스탄공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며 카자흐스탄과 한국간 교육기관들의 관계발전에 협조하며 한국어전문가 양성에서 대학, 단과 대학, 학교에 도움을 주며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하는등 기타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교육원의 과업이다. 교



카자흐스탄과 한국간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1991년에 알마티시에 대사관 직속 교육원이 열렸는데 그것은 사회 인문학과 언어강령 발전 확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높였다.

호스탄에 거주하는 민족마다 자기의 독창적인 문화, 역사, 언어를 발전 배가하며 종교자유, 개성의 자체확립을 위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고려인들의 정신적 재생, 전망적인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길들 중 하나다. 국가수뇌들의 회담, 한국과 카자흐스탄 대사관들, 사회단체들의 활동, "삼성", "대우", "LG"와 같은 대기업, 각종 합작기업과 회사들의 사업이 고려인들의 자체 확립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1991년에 알마티시에 대사관 직속 교육원이 열렸는데 그것은 사회 인문학과 언어강령 발전 확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높였다. 교육원이 개설됨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공화국의 대학, 학교, 유치원들에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있다. 결과 고려인들, 러시아인들, 카자흐인들 그리고 기타 민족 대표들이

교육원은 해마다 한국어 수준을 검열하는 올림픽을 진행한다. 지원자들은 한국어 콩쿨에 참가할수 있다. 거기에는 시, 옛말, 한국어로 된 연극장면, 한국가요, 전통음악, 춤, 읽기와 쓰기가 속한다. 한국문화 축전과 전시회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행사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문화기관들이 참가한다. 대학과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주는 교원들의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교육 및 교수 방법론이 토의된다. 한국은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들,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들을 공급한다.

한국문화축제 프로그램은 조선인민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다민족 카자흐스탄에 알리려는 것이었다. 이 모든 행사는 카자흐스탄주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교육원은 역사의 사정으로 잊어진 역사적 조국의 예술을 잘 알아보며 새것을 많이 보도록 도와준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는데는 교육원의 큰 공로가 있다. 여기에서 또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는데서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활동을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대사관은 사업을 능숙하게 조절하면서 원대한 과업을 확정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공화국에서의 시장경제발전에도 참가하였다. “크랍스” 상사를 지도한 조 워포르가 맨 먼저 그 길을 닦아놓았다. 고려인들은 은행, 회사, 상사 그리고 나라의 기타 중요한 부문을 통제하며 지도한다. 공화국의 경제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하는 몇 가지 이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 “꾸아트” 사장 남 올레그, “도스파르” 회사 사장 최 유리, “유스꼬 인터네스늘” 회사 총지배인 박 워포르, 주식회사 “꼬르뽀레이슨 카자흐미스” 사장 김 블라지미르, 주식회사 “뱅크 N)뜨르 크레디트” 사장 리 블라지슬라브, “술빠크-엘렉트로니크”<sup>5)</sup> 회사 사장 박 안드레이 등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비즈니스맨들 간 두 나라의 무역활동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상에 지적한 실례는 고려인들이 공화국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시하여 준다.

고려인들의 생활에서 역사적 조국과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한국 관계가 적극화되고 있다. 이 중요한 관계에서 고려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아래의 단락들에서 보기로 하자.

### 카자흐스탄-한국 간 협조에 고려인들의 참가

이런 사명을 위한 국제법률상 전제조건은 소련이 붕괴된 후 카자흐스탄-한국 공동성명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1995년에 양국 대통령들-김영삼과 엔. 아. 나사르바예브 간에 서울에서 있던 첫 회견시에 쌍방은 카자흐스탄고려인 소수민족

의 인격을 회복하며 자기의 정치권 실현 가능성을 다른 인민들과 동시에 담보하는데 돌려진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합의가 달성되었다. 정치적 과정과 국가들의 대화는 물론 국가들을 발전시킨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 원인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상호유익한 협조를 하는데서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이 길에서 고려인 소수민족이 두 나라를 연결해주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고리로 될 수 있다.

친선과 협조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국가들 간 연계를 가일층 확대할 모든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엔. 아. 나사르바예브 대통령의 한국 방문(1995년과 2003년), 대한민국 노무현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2004년)이 이것을 증명하여 준다. 정부들, 국회의원들, 비즈니스맨들, 학자들, 문화활동가들 간 수많은 실무적 접촉이 이 과정에 협조하였다. 이 조건에서 한국민족협회는 친선적 두 나라들 간 연계를 적극화하라고 호소하였다. 역사적 조국과 카자흐스탄 간 규합과 협조가 한국사회단체의 목적지향성 있는 방향들 중 하나이다.

역사적 조국은 고려인 소수민족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상시적으로 주목을 돌리며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신적 분야와 교육부문에 서 도와주려고 힘쓰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상황은 양국 대표단들과 일부 국가활동가들의 차후 많은 상봉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 회견들에서는 많은 주들에서 분포되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의 문제에 일련의 주목이 돌려졌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공화국 주민들의 일부분을 이루는 카자흐스탄 인민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이 구체적 경우에 이 벡터에 관한 관계가 고려인들의 생활정비와 생활보장 면에서 합동원조(한국-카자흐스탄)를 주도록 사업을 조직할 수 있다.

대한민국 노무현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주목을 돌리며 가능한 원조를 주며 문화교육센터를 조직하며 한국어 교육, 대학들에서 학과를 열어

5) 참고: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그들은 누구들인가」(편집 박 이. 페, 편집위원들, 강 웨. 엠, 김 게. 엔, 명 데. 웨, 박 아. 데, 유 웨. 까, 양원식(알마피 2005년), pp.379-400.

주는데 대하여 카자흐스탄의 정부와 사회단체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창조적 노동을 고려인들에게 호소하였다. 카자흐스탄 주재 전한국 태석원대사도 이에 주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소수민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긴 인종상 우리와 가깝지만 이곳 고려인들에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컨대 고려인 소수민족은 친선적 연계를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믿음직한 교량으로 될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우리 두나라와 인민들 간 협조 강화에 큰 기여를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sup>6)</sup>

카자흐스탄과 한국 인민들간 연계는 소련이 붕괴된 후 맺어졌기에 그의 역사가 짧다. 그러나 그 기간 이 연계는 형제적인 따뜻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인민들이 항상 미래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생각하게끔 되어있다. 그것은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할에 대하여 말한다면 양국 대통령들이 지적했듯이 해마다 커져야 한다. 그들의 심정은 카자흐스탄에 소속되어있지만 자기의 역사적 조국에 대한 신봉감이 고상히 발전되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어디에서 거주하든지 막론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관계를 공고히하는데 교량으로 역할한다는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 카자흐스탄 발전에 그들의 현저한 기여를 지적하였으며 고려인들의 문화적 및 정신적 발전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에 이르렀다. 엔. 아. 나사르바예브는 고려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고려인들의 재능, 근면성, 성실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제관계에서 그들은 우리의 상호 친선과 신뢰를 튼튼케 하는 독특한 다리로 되며 실무적 연계확대에 협조합니다.”<sup>7)</sup>

대한민국정부는 해외동포들을 가능한 지지

하는 것을 자기의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을 비롯하여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에서 실시하고 그 사업을 고상히 평가하고있다. 이것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2005년 12월 14일 CIS 나라들에서 거주하는 고려인 소수민족을 지지하는 새 강령을 제기하였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정책강구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되는 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언어를 배우며 교육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가능성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서울은 CIS의 고려인들을 위한 문화기관들에 재정상 원조를 주고 그런 기관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며 구소련에서 한국어로 발간되고있는 신문과 라디오방송국들을 지원할것이다. 그 목적은 CIS 고려인들이 자기의 인종상 특성을 보존하게끔 그들을 도우려는것이다.

한국정부는 또한 한국 국립창작집단과 젊은 봉사단들이 외국방문을 계획할 때 CIS 나라들을 방문함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소련에 현재 고려인들이 근 53만 3천명이 거주하고있는데 이는 해외에 사는 660만명의 8%이다.<sup>8)</sup>

언어연구에서 큰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고려인 세대는 카자흐스탄-한국 실무, 과학 및 문화 협동 동작에서 적극적 중개자들이다. 하긴 고려인 소수민족의 소수가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역사적 조국과 현재 조국간 “교량”의 문제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고려인들에게는 러시아로 완전히 동화될 위험은 없지만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치는 취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고려인들은 애국자들이며 친석적 두 나라를 연결하여 주는 고리로 된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소수민족이 언어의 장애물을 보다 성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어떤 길이 있는가? 물론 재정상 문제로 국가는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을 45년간 한국으로 보내지 못한다. 이 문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 간 협동노력으로 해결될수 있

6). 신문 “엑스프레스” 까. 2005년 9월 22일호.

7). 서울통보, 2003년 11월 16일호.

8). 역시 상기 간행물, 2005년 12월 16일.

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대학들 간에는 해마다 15-20명의 대학생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카자흐스탄의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한국으로, 한국에서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배우러 카자흐스탄에 올 수 있다. 대학 간 이런 교류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에서의 원대한 정치적 전략에 들어갈수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모국어는 임의의 인종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며 민족의 전진과 진보를 위하여 부단히 작동하는 원동력이다.”<sup>9)</sup> 그것을 가속도로 재생시키는 것은 고려인 소수민족의 가장 우선적인 과업이다. 물론 교육기관 망을 조성하는 한편 다른 다목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것은 라디오사업, TV방송 사업개선, 교육참고서, 사전 발행 등이다. 현대 카자흐스탄에서 특히 국가 간, 정부간 협력하에 상기 조치들을 실시할수 있으며 국가를 토대로 하여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토대위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생활, 공화국에서 민족 간 관계 공고화와 완성 체계에서, 이 관계의 문화를 형성함에서 그들의 역할에 큰 관심이 있다. 실지에 있어 거의 모든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당했던 30-40년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카자흐스탄, 카자흐인들, 러시아인들 그리고 공화국의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자기 전통에 대한 충직한 애국자들로 남아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자기의 인종적 독창성과 문화를 보존하며 발전시킴으로써만이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친선적 관계를 발전 및 공고화하며 새 세기의 현 세계에서 자기 선조들의 조국의 진보와 안전에 최대한 협조할수 있다.

## 결론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공화국에서 생활한 70년 간에는 여러가지 페이지가 있었다. 어둡고 밝고 슬프고 기쁜 페이지가 있었다. 그러나 페

이지의 글 줄마다가 인종그루뵈, 전체 카자흐스탄 인민의 유산이며 시대도, 그 어떤 힘도 그 페이지의 글자 하나도, 하나의 점도 지워버리지 못한다.<sup>10)</sup> 그 기간에 고려인들은 새 역사적 조건에 적응하였으며 인테리들, 정치활동가들, 학자들, 문화활동가들이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민족적 단합의 토대를 얻었는데 그것은 민족적 자체의식 보존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강제이주 이후 지난 70년 간에 고려인들의 운명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확정적으로 평가할수 없다. 자기의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린 것은 금후 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 앞에는 소련인민들의 성원에서 존재할 문제가 나섰다. 이 민족적 과업이 해결되었다. 이제는 문화를 재생시키며 시장관계에 성과적으로 들어설 문제가 해결을 요구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다방면적 협조에서 카자흐스탄과 역사적 조국 사이의 활기찬 교량으로 된다. 고려인들의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정확히 선택된 정치 및 생활 목표에 고려인 소수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70주년과 연관된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리 웨. 에프. 예브르아시아 「동방 (XX세기)의 지정학에서 러시아와 한국」. (모스크바 2000년), p.497.  
10). 강 계. 웨. 이상에 지적한 문헌, p.203.

기획연재 ⑤ 민족과 문학 - 임화의 경우

# 언어의 현실성과 민족어의 가능성

여 태 천

시인, 고려대학교 국문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고려대 강사.  
계간 『서정시학』 편집위원.



## 1930년대 민족어의 가능성

대체로 지금까지 문학과 내셔널리즘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이 드러나는 문학을 문제 삼았다. 아마도 그것은 근대문학 그 자체가 내이션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시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말처럼 근대문학의 형식 그 자체가 내셔널리즘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내셔널리즘인 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형식으로서의 근대문학이 내이션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1930년대의 문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근대문학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복잡한 조건들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1930년대는 제국주의적 식민 질서가 공고해지는 시기다. 불행하게도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의 문학인들의 임무는 대동아를 문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었다. 일제에 의한 대동아공영권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조선어 사용이 현실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조선의 문학인들은 조선어의 존재를 중요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선택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1930년대 문학적 상황은 조선어로 작품을 창작하는 현실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조선문단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될수록 조선어 교육이나 조선어로 창작할 수 있는 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조선문학의 위상은 매우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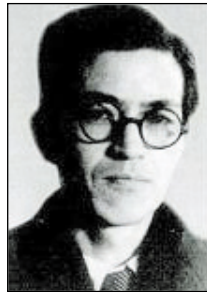


조선어, 조선문학에 대한 문학인들의 의식 역시 첨예해질 수밖에 없었다.

임화(1908-1953)는 민족의 언어로서 '조선어'에 대한 사유를 독자적으로 전개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문학과 문학사에 대한 임화의 태도는 예외 없이 언어에 대한 그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학과 문학사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족의 언어인 조선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임화가 당시 조선어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가는 조선어에 대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임화는 그의 유일한 평론집인 <문학의 논리>(1940)에 언어에 대한 중요한 글을 몇 편 수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1934년 이후부터 1940년 이전까지 쓴 글에서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에 대한 그의 핵심적인 사유가 담긴 몇 편의 글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조선어에 대한 임화의 주된 관심은 '근대어로서의 조선어'였다. 조선어는 식민지 시기 '국어'로서의 그 기능은 박탈당했지만 '민족어'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어로 된 공식적 글쓰기가 어려워졌다는 위기의식은 그를 포함한 문학인들에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창작의 제일 조건인 조선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충분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식민지 시대에 조선어 그 자체는 타자성과 주체성, 내셔널리티와 고유성 등의 문제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문학인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다. 조선어에 대한 임화의 언급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언급한바와 같이 '근대어로서의 조선어'였다. 당시 임화는 민족어인 조선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民族과 民族語는 조그만 時代的 差異는 있을지언정 恒久的이며 또 恒常 支配的인 身分階級의 言語는 全民族 全國民의 言語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sup>1)</sup>



<임 화>

임화의 민족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국제적 환경 안에서의 민족어, 민족문학의 위상 문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당시 카프(KAPF)의 서기장이었던 임화의 위치와 부제에 사용된 '민족어'를 참조할 때, 이 글이 사회주의 언어론과 언어정책의 결과임을 어렵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들이야말로 故郷의 근로대중—(即 故郷人口의 九割)을 의식 있는 存在에까지 昂揚시키기 爲하여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때문에"<sup>2)</sup>라는 구절을 참조할 때, 그는 노동자 계급의 언어가 조선어의 진정한 근대화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대중을 진정한 근대 조선어 구성의 주체로 상정한 것은 카프의 서기장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급 언어적 관점에 기초한 언어투쟁은 카프 해산(1935) 이후에 사라진다. 문제는 민족어의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이 아니었다. 민족어로서의 조선어가 아닌 근대어로서의 조선어의 현실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미 주어진 가치의 문제라면 후자는 극복되어야 할 현실의 문제였다.

1) 임화, 「언어와 문학—특히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문학창조》, 1934. 6. 21쪽.  
2) 위의 글, 24쪽.

그럼으로 우리는 眞實한 意味의 民族文學의 建設을 爲하여 生涯를 바칠 勇氣를 가지고 붓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번도 文學藝術 위에 自己의 實美한 姿態를 表現해보지 못한 故鄕의 諸現實 그 言語를 모든 逆境 가운데 放置되게 한 後迫國인 朝鮮에 있어 이것은 至極히 妥當한 것이어야 한다.<sup>3)</sup>

임화는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의 가치를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의 주장대로 그는 민족문학의 건설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칠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당연하게도 그가 목도한 것은 “한번도 문학예술 위에 자기의 실미한 자태를 표현해보지 못한” 민족어로서의 조선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조선어였다.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의 사멸을 지켜 보고 있었던 그의 행로는 카프의 해산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대어로서의 조선어의 위상이 확실해야 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에 대한 그의 태도다.

“現在의 各國語는 祖上의 純粹한 系統을 받아 온 것이 아니라 各時代 各個의 다른 言語로 말미암아 「多數의 言語의 支配의 結果」로 생겼다는 것이다.”<sup>4)</sup>

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민족어를 단일하고 순수한 무엇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언어관에 대해 반대했다. 민족주의 언어관으로는 현실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임화가 ‘민족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카프의 서기장이라는 그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카프의 해산으로 막을 내리게 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포함하여 조선의 신문학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어가 놓인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민족어로서의 조선어가 처한 현실의 역경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조선문학의 위기와 문학어



〈『문학의 논리』, 1989판〉

1935년 카프의 해산 이후 임화의 계급 문학론은 카프의 오류에 대한 자기반성을 수행하고, 이후 프로문학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민족문학을 논하게 된다. 임화가 이렇게 민족문학, 조선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조선문학의 위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그가 문학이론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이러한 관심과 위기감이 이후 「조선 신문학사」(《인문평론》, 1940. 10-1941. 4)의 기술로 이어졌다.

물론 임화가 ‘신문학’ 그 자체를 “이식문화의 역사”<sup>5)</sup>라고

3) 위의 글, 24쪽.

4) 위의 글, 22쪽.

호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는 한국 한문학의 역사를 신문학의 ‘前史’로 규정했다. 즉, 그는 “문학은 언어 이상의 것, 하나의 精神文化인 점을 생각할 때, 한문으로 된 문학은 조선인의 文化史의 한 영역인 文學史 가운데 당연히 좌석을 점령치 아니할 수가 없다.”<sup>6)</sup>고 하여 한문학을 조선문학사에 편입시켰다. 이광수가 언어와 민족의 완전한 일치 를 전제로 한 속문주의를 주창한 반면, 임화는 한 민족 내부에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계층과 계급이 존재함을 인정하려고 했다. 임화의 경우는 속어중심주의를 벗어난 지점에서 민족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임화의 문학사 기술방법에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항상 개입하고 있었다. 임화는 조선문학이란 민족이나 국민이 역사적인 존재인 것처럼, 어떤 선험적 존재로 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 아래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하였다.<sup>7)</sup>

文學語로서의 朝鮮語의 性能, 乃至 可能性에 對하여 本은 나는 懷疑하지 않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朝鮮語의 文學語로서의 限界 或은 桎梏 이라고 느껴지는 點이다.<sup>8)</sup>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에 대한 임화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어의 문학어로서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의 고백은 언어의 현실성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강조의 표현이다. 그는 문학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민족어로서의 조선어를 완성하기 위해 문학자들에게 형식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이도 그였다. “文學語는 항상 ‘랭’ 이고 言語 動態의 母語는 늘 ‘퍼물’ ”<sup>9)</sup>이라는 구절은 문학어, 시어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예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1930년대 조선어는 여러 가지 결함과 미발달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임화는 이러한 사실을 시민계급의 빈약과 근대적 통일어의 부재 등을 통해 지적한다.

근대 시민계급의 문화적 支配樹立에 있어도 그들의 민족국가의 확립과 한 가지 民族語의 통일—표준어의 확립, 봉건적 隔離의 유물인 方言의 소멸—을 성취한 것이다.<sup>10)</sup>

서구 근대 시민계급이 성취한 “표준어의 확립”과 “방언의 소멸”이 조선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 10. 29)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10. 2) 등의 노력도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 일차적 원인은 조선이 민족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임화가 강조한 것은 시민 자신의 계급적인 언어를 일

5) 임화,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485쪽(임화는 1940년 1월 13일부터 20일 까지 연재한 「朝鮮文學研究의 一課題」를 『문학의 논리』에 수록하면서 그 제목을 「신문학사의 방법」으로 바꾸었다).

6) 임화, 위의 글, 481쪽.

7) 임화, 「'조선문학'의 정의 이러케 규정하련다!—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삼천리》, 1936. 8. 94 ~ 96쪽.

8) 임화,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일편의 조잡한 각서」, 《한글》, 1939. 3. 19쪽.

9) 위의 글, 20쪽.

10) 임화, 「언어의 마술성」, 《비판》, 1936. 3(『문학의 논리』, 343쪽).

반국민의 그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임화가 생각한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

語彙란 속에는 死語, 古語, 外來語, 訛傳語, 混成語, 方言까지 드는 것이다. 千頁 事典에 五分之 一이나 現代語로서의 價値가 있을까? 朝鮮語는 어떤 곳 말보다도 이 差異가 甚할 것이다. 辭書가 全部 文學語가 되지는 않는다.<sup>11)</sup>

그는 조선어의 어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朝鮮語는 아직 哲學用語가 形成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sup>12)</sup>는 점이였다. 그가 “朝鮮語의 表現能力과 技能에 對한 浪漫的 생각을 反省할 必要가 있다”<sup>13)</sup>고 생각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임화가 조선어의 표현능력과 기능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표준어가 갖는 일반화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언어의 표준화와 통일화는 현실의 언어를 최량의 언어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달렸다. 표준화를 거쳐 사전에 등재된 모든 언어가 문학어일 수는 없다고 임화는 생각했다. 현대어로서의 가치를 지닌 언어야말로 문학어가 되는 것이다.

### 표현으로서의 생활어, 민족집단의 언어

임화는 당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등의 작품에서 보편적인 조선어의 양상이나 문학어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임화는 이기영의 『고향』(1933. 11~1934. 9)을 조선어 고유의 아름다움을 소설의 문체로 체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임화에게 이기영의 『고향』은 조선어가 할 수 있는 최량의 예술적 옹호자로서 하나의 표본이었다.<sup>14)</sup> 그것은 이기영이 한 계급의 말을 민족어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실생활에 사용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임화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언어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태도는 언어만 지키면 된다는 언어지상주의와는 달랐다. 아쉽게도 그는 당시 유행하던 외래어를 조선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과격함을 보이기도 했다.

「빠궂으」 「람푸」 「지까다비」 「오뎅」 「짜뻏트」 「괴—테」 「런던」 「○○○」 「外科醫」 「概念」 「現象」 「階級」 「세멘트」 등과 같은 모든 말은 決코 朝鮮語에서 排除해서는 아니 된다.<sup>15)</sup>

지금은 매우 친숙한 말들이 그 당시에 도 널리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이 말들 역시 문명의 진보와 함께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들이 전부 조선어에 포섭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논지의 골격이 공통경험과 공통감각의 형성을

11) 임화,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일편의 조잡한 각서」, 《한글》, 1939. 3. 19쪽.  
12) 위의 글, 19쪽.  
13) 위의 글, 20쪽.  
14) 임화 「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문학」, <조선중앙일보>, 1936. 3. 20.  
15) 위의 글, 1936. 3. 21.

위해서는 동시대 그 집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문명의 발전이 언어의 생성과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를 지연시키는 <문장파>의 복고주의적 태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氏(김동인, 윤백남, 육당, 이병기, 정인보—필자) 등에 있어서는 가장 노골히 懷古主意로 나타나 진부한 古語를 強制하고 死語 발굴 등에 열중”<sup>16)</sup>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특별한 의미에서 옛말이나 사라진 말 등을 발굴하는 것은 조선어의 독자적 발전에 유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장파>는 그 모든 말들이 가치 있는 조선어라고 여기고, 이를 독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 임화의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문장파>에게 언어는 전통주의 사상을 설명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임화는 문학을 기교로 환원시키는 예술지상주의도 비판했다. “외형적 美感만을 第一義로 삼고 자기의 文學語를 선택하는 언어상의 裝飾主意”<sup>17)</sup> 역시 문학어로서의 가치는 없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그가 「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문학」(<조선중앙일보>, 1936. 3. 8~24)이라는 글에서 고대 슬라브어의 난용과 서구 언어의 천박한 사용에 난색을 표했던 투르게네프를 자주 인용한 까닭을 알 수 있다. 모르긴 해도 글을 연재하는 동안 임화는 투르게네프가 주창한 “露西亞말의 純粹性を 保全하라!”를 번역하여 ‘조선어의 순수성을 보전하라!’고 문학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로 임화가 민족어로서 조선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저 아래로 가서는 諸賢들이 東京이나 外國遊學을 갈 때 배를 타는 釜山埠頭에서 往來하는 朝鮮勞動者의 會話. 또 손에는 「튜링크」(그들은 「도랑구」라고 한다)를 달라는 어린 少年들의 言語를 들었는가!

또는 農村에 가서 農事짓는 농군들이 그 農具의 이름을 몇 개나 우리말로 부르며, 그들의 순박한 어린 子弟들이 어떤 形態의 言語를 쓰는가를 들어보아도 좋고, 가까이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子女가 어떠한 말로 두 세 살 되는 어린애에게 말을 가르치는지? 關心해 본 일이 있는가? 또 學校를 갔다 온 아이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인 우리들에게 무슨 口調로 인사하며, 그들이 제 귀여운 동무들과 장난하며 즐기고 놀 때 무슨 말을 하든가?

作家여! 詩人여! 批評家여! 그때 그대들은 가슴에 물결을 잔잔한 채로 維持하지는 못하리라!<sup>18)</sup>

임화가 살아있는 조선어의 현장으로 인용한 곳은 이기영의 「고향」에 등장하는 장소와 거의 비슷하다. “부두” “농촌”이 그러하며, “노동자”와 “농민”이 그러하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식민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도시의 풍경을 적극적으로 시에 차용하려고 했던 점도 이 대목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임화가 그토록 고집했던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글의 논의를 위해서 임화가 인용했던 투르게네프의 시 「露西亞語」를 다시 인용한다.

16) 임화, 「언어의 미술성」, 《비판》, 1936. 3(『문학의 논리』, 346쪽).

17) 위의 글, 346쪽.

18) 임화, 「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문학」, <조선중앙일보>, 1936. 3. 18.



깊은 疑惑 가운데 祖國의 運命을 생각하고 근심하는 괴로운 그날에도  
 나의 집쟁이가 되고 기둥이 되어주는 것은 오직 너뿐이었다.  
 오오 偉大하고 힘찬, 眞實하고도 自由스러운 露西亞 말이어!  
 만일 네라는 것이 없었든들 어찌 故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落望치 않고 견  
 디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말을 가질 수 있는 國民이 어떻게 偉大하지 않다고 믿겠는가?

— 투르게네프, 「露西亞語」 전문

임화에게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는 인용한 시에서처럼 “집쟁이가 되고 기둥이 되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위대하고 힘찬, 진실하고도 자유스러운” 조선의 말이다. 이를 통해 임화는 조선의 현실인 “고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문학어로서의 조선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여겼다. 그 말을 사용하는 국민이 당연히 위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화에게 문학의 운명은 그 언어가 속하는 민족의 생활적인 운명의 표현 그 자체였다. 가령, 그의 유명한 시 「네거리의 순이」(『조선지광』, 1929. 1)와 「우리 오빠와 화로」(『조선지광』, 1929. 2), 그리고 「다시 네거리에서」(『조선중앙일보』, 1935. 7. 27) 등의 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오, 그리운 내 고향의 거리여! 여기는 종로 네거리,  
 나는 왔다, 멀리 낙산(駱山) 밑 오막살이를 나와 오직 네가 네가 보고 싶은 마음에……  
 넓은 길이어, 단정한 집들이여!  
 높은 하늘 그 밑을 오고 가는 허구한 내 행인들이여!  
 다 잘 있었는가?  
 오, 나는 이 가슴 그득 찬 반가움을 어찌 다 내토를 할까?  
 나는 손을 들어 몇 번을 인사했고 모든 것에게 웃어보였다.  
 변화로운 거리여! 내 고향의 종로여!  
 웬일인가? 너는 죽었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었는가?  
 나를! 일찍이 뛰는 가슴으로 너를 노래하던 사내들,  
 그리고 네 가슴에 메어지도록 이 길을 흘러간 청년들의 거센 물결을,  
 그 때 내 불쌍한 순이는 이곳에 었더져 울었었다.  
 그리운 거리여! 그 뒤로는 누구 하나에 위에서 청년을 빼앗긴 원한에 울지도 않고,  
 낮은 행인은 하나도 지나지 않던가?

— 「다시 네거리에서」 부분

임화가 말하는 “종로 네거리”란 곧 당대 민중의 삶이 가장 적실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이곳에서만 민중의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시의 화자가 “나는 왔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부터 시인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것은 바로 “고향의 거리”로 상징화되고 있는 “종로 네거리”다. 임화가 태어나고 자란 “낙산 밑 오막살이”란 보편적인 민중의 삶 그 자체다.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에 실망을 느끼면서도 시의 화자는 낭만적 열정을 잃지 않으려는 강력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임화의 1930년대 후반의 시는 당대 현실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은 한 시인의 실천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현실의 가장 충실한 면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임화가 생각한 진실한 조선어의 참 모습이란 바로 민중의 삶 속에서 오고가는 말이었던 것이다. ‘현해탄’ 연작시들에서 임화가 문제 삼고 있는 것 역시 배 위에서 만난 동족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의 현실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임화는 현실에 대해 도처에서 제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새로이 전진하고 있는 계급의 생생한 감정으로 노래하고자 했다. 물론 그 성과가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화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예술적 인식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지녀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언어는 문학에 있어 표현의 수단 형식일뿐더러 인식하는 데도 역시 유일의 수단인 것이다. 그것은 文學制作의 과정 가운데서 단순히 양식적 일면만을 體現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자의 현실에 대한 태도, 사상의 방향까지도 그 가운데 體現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同時代에서는 문학의 민족적, 계급적 차이에 의하여 역사적으로는 시대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相異한 언어적 特長을 具有하게 되는 것이다.<sup>19)</sup>

임화에게 언어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곧 그 작가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태도의 본질을 표시하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언어의 현실성

임화는 1930년대 조선의 문학을 언어, 특히 민족어를 통해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조선의 새로운 문학은 조선적인 것이 지니는 향토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고전적인 것의 구체적 표상들을 전통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문장파>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랐다. 오히려 임화는 이와 같은 고전부흥론에 대해 현실도피적이며 보수반동적 경향이라며 비판했다.<sup>20)</sup> 그의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말을 의식한다」라는 글이다.<sup>21)</sup> 임화의 「말을 의식한다」는 카프계 비평가 한효가 ‘소위 용어관의 고루성에 대하여’라는 부제로 쓴 「국문문학 문제」(<경성일보>, 1939. 7. 13-19)에 대한 김용제의 반박문 「문학의 진실과 보편성」(<경성일보>, 1939. 7. 26-8. 1)을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효는 문학적 현실이란 그 작가의 현실 속의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예술 작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일본어로 쓴 조선인의 작품은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이에 반해 김용제는 일본어가 문화어이며, 그것이 동양의 국어이자 조선의 국어이므로 당연히 문화어인 일본어로 글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임화는 이 두 논쟁을 보고 자신의

19) 임화, 「예술적 인식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 《조선문학》, 1936. 6. 12(「문학의 논리」, 358쪽).

20) 임화, 「역사적 반성에의 요망」, <조선중앙일보>, 1935. 7.

21) 임화, 「말을 의식한다」, <경성일보>, 1939. 8. 16~20(김윤식 옮김, 《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임화는 문화어와 비문화어의 구별을 설정하고 조선 작가들로 하여금 문화어인 일본어로 글쓰기를 주장하는 김용제의 논법이 문학의 진실성과는 범주가 다른 것임에 주목하고, 한효의 논법에 동조하면서 이를 한층 섬세화하였다.<sup>22)</sup>

말은 풍토와 더불어 자연스런 것이다. 타인이 읽기에 알맞고 또 자기가 표현하기에 충분하며 또한 아름답다면 그것은 문학에 있어서는 좋은 말이다.<sup>23)</sup>

임화에게 언어는 풍토의 문제와 같다. 그 풍토 속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말하고 듣는 언어가 곧 민족어다. 그것은 곧 표현에의 의지와 최량의 말로 설명된다. 최량의 말이란 사용하기에 좋은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사용되는 말이다. 즉,

작가가 날 때부터 듣고 말해 왔던 말, 일상 살이에서 불편과 부자연스러움이 없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작가가 이러한 언어로 자기 작품을 창작해 가는 것은 결코 무슨 도덕상의무나 윤리의식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장인의 심리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해야 할 터이다.<sup>24)</sup>

임화는 민족어의 가능성을 언어의 현실성에서 찾았다. 그의 시에 사용된 집단의 언어는 현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언어에 대해 발표한 글들은 임화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文學語가 별개의 언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原語보다도 더 많이 감동적이고 더 잘 이해되는 까닭은, 문학 그것이 광범한 의미에서 보면 '生活의 言語'의 특수한 일종이라는 데서 日常語 그것의 현실성을 부정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엷센쓰'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다.<sup>25)</sup>

문학어는 분명 일상어일 수는 없다. 임화 역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학어는 생활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일상어 그것의 현실성을 부정하지 않”는 말이어야 한다. 신세대의 문학이 자기의 생활세계를 창출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새로운 언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임화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현재에도 큰 울림을 준다.

언어는 가장 풍부히 사회생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작가는 그 먼 미래를 보는 1인이어야 한다.<sup>26)</sup>

## 글을 마치며

그 동안 우리 문학에서 발견되는 민족의 문제를 복수(複數)의 시선으로 살펴보았다.

22) 김윤식, 「작가와 말의 관계에 대한 임화의 태도」, 《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 327쪽.  
23) 임화, 「말을 의식한다」, 《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 317쪽.  
24) 위의 글, 319쪽.  
25) 임화, 「언어의 마술성」, 《비판》, 1936. 3(『문학의 논리』, 342쪽).  
26) 위의 글, 348쪽.

민족이란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쉽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우리의 근대문학에서 민족의 문제는 문학 그 자체와 한 몸이나 다름없다.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은 1930, 40년대 '계급' 역시 민족의 다른 이름이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문제 역시 민족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신동엽, 김수영 등의 시에 출몰하는 '민중'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며, 우리말의 가능성을 민족신화의 차원에서 보여주었던 서정주의 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더 이상 민족의 문제가 문학이라는 양식을 통해 제시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지적한 것처럼 일찍이 문학은 네이션 형성에 있어, 또 내셔널리즘의 핵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학은 현대사회에 대항할 만한 힘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근대문학이 형성되던 시기에 문학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와 같은 동일성을 상상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사라졌다. 문학을 아무도 반기지 않는 것처럼 민족의 이야기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굳이 민족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 방식은 문학이 아니라 영화가 훨씬 손쉬울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문자를 버렸다고 해도 문학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 연재는 이번호로 일단 연재를 종료합니다.〉

여태전

고려대학교 국문과와 같은 대학원 졸업하고 200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다. 시집 『국외자들』과 시론집 『김수영의 시와 언어』가 있으며, 현재 고려대 강사로 있다.



도서안내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 현대정치의 이념구조

■ 주요목차

- 현대의 정치이념
- 소련의 정치이념
- 중국의 정치이념
- 개도국의 정치이념

조정남 저 / 값 15,000원



교양사회



# **Abstract**



---

---

## Ethnic minorities and Chinese economy

Yang Ho Rhee (President of Institute for Chindirus Studies)

Key words: China economy, ethnic minority, ethnic minority economy, economic difference

There are 55 ethnic minorities in China. The ethnic minorities' 155 autonomous areas amounted to 64.3% of total Chinese territory, but most residential areas of ethnic minorities are poorer or poorest regions in China. Therefore, there are some concerns that the continuous impoverishment of ethnic minorities will be able to result in political unrests in China and their independent movement. There will be the possibility of division with in China in relation to ethnic nationalism based on economic imbalance between area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ethnic minorities' regions. Even though differences between economy of ethnic minorities and the Han economy are rather large, the prospect for ethnic minorities' economy is not so gloomy.

---

---

---

---

## Is there Taiwan national identity?

Lee, Sang Won (the National Assembly, Korea)

Key words: Taiwan, ethnic identity, national identity, political party

Ethnic identity, which had structured conflicts between benshengren and wairshengren, has been transformed to national identity through dual transition, Bentuhua and democratization, by party politics. Political elites als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national identity. Concerning the contents and scope, national identity has been intermediated and connected to a collective decision or a collective action by political parties and elites.

National problem in Taiwan is not the logical consequence of national identity construction but the prescription of party politics with regard to the contents and scope of it. This article applies data in four public opinion surveys in relation to identity-formation, political identification and the perception of reunification-independence problem. In this research,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process and regime transition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consider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elites' role in constructing national identity in Taiwan.

---

---

---

---

## **S**tudy on Korean ethnic communities in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Wang Seng (Professor of China Ji-Lin University)

Key words: Korean ethnic community, the Chaoxianzu, ethnic minority, the Korean cultural wave

This article is about Korean ethnic communities in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There are 56 ethnic minorities in China like the Hanzu, Mengguzu, Huizu, Zangzu, Uighurzu, Miaozi, Yizu, Zhuangzu, and so on. The Chaoxianzu(朝鮮族), one of ethnic minorities in China, has sustained their ethnic identities. Even though their population has decreased in recent times, but the Chaoxianzu has continuously influenced cultural spheres of China due to the spread of “the Korean cultural wave.” Therefore, other ethnic groups as well as the Hanzu have interested in Korean ethnic culture of the Chaoxianzu. This research analyzes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Chaoxianzu and their present situation. In relation to the policy, it focuses on a historical basis before and after the formation of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It also examines current life style and problems, mainly in regard to population, in the Chaoxianzu communities. The Chaoxianzu’s international migration has resulted in new changes in their communities.

---

---

---

---

## **A** report on the Yunnan province and ethnic minority residential areas

Hee Sun Kim, Jong-Ho Song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Yunnan, visiting residential place, interview, ethnic minorities

This report is about Korean researchers' traveling to acquire the data of ethnic minorities in the Yunnan province between 13th and 17th January in 2007. The traveling was a good opportunity to examine various ethnic minorities' cultures in China. Korea researchers visited famous places, showed us ethnic communities' life styles, in the Yunnan. In the process of visiting Western mountains forest reserve, Dianchi lake, Jiuxiang scenic region, Stone Forest, Yunnan nationalities village, Erhai lake, Dali ancient town, Bai nationality village, traditional Bai village, Yulong Snow Mountain, Black Dragon Pool, Lijiang Ancient Town, and so on, Korean researchers acquired the information of ethnic minorities who preserved their cultures.

The ethnic minorities have made efforts to preserve their traditional cultures and promote diverse activities for their cultures. Korean researchers could examine their specific life style through interviews with some of ethnic minority people. This report presents visiting places on the basis of traveling

---

---

---

---

timetable and explains ethnic minorities' life style.

### **The Naxi ethnic(納西族) Society**

Hee Sun Kim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the Naxi people, Yunnan, Lijiang, nomad

This report is based on a field research conducted in the Naxi autonomous prefecture of Lijiang and the Yunnan Province in China. In addition to data collected through this research, it is referred various documents and papers.

The Naxi was nomad lived in the area of the Gansu(甘肅) province and the Qinghai(青海) province. Even nowadays, their clothes style, wearing sheepskin, is continued among the Naxi people. This people had moved to the area of Yunnan and Sichun to evade the invasion of large ethnic communities like Tibetan, Han and Qiang and to find safe residential areas of pasture. Then they began to settle in the Lijiang area, while some Naxi people moved northward. The population of Naxi was around 308,839 in 2000. The Naxi has a pictograph which called as a 'Dongba' . The pictograph has about 2,200 characters and is pretty specified.

---

---



---

---

## The Bai ethnic(白族) Society

Jong-Ho Song (Korea University Alumni Newspaper  
Correspondent)

Key words: China, the Bai people, white color, cul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social culture and life style of the Bai like religious culture. For study, a field research, including in-depth interviewing, was conducted in the Bai autonomous prefecture between 13th to 18th January in 2007. The field research also included visiting homes and traditional buildings that showed their history and unique culture for the examination about life style of the Bai. The data was analyzed and then applied in this study.

The most prominent feature in the Ba's cultural tradition is their great fondness for white color. They use white color everywhere in their clothes, constructions and so on. Even they regard white color in dreams as an auspicious sign. The cultural characteristic of fondness for white color was usually found in the street of the Bai autonomous prefecture. It was also found in interviews with the Bai people.

---

---

---

---

## The Yi ethnic(彝族) Society

Jae-Won Kim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China, Yi people, Yunnan, ethnic homogeneity

The population of the Yi people in China is about 7.76 millions. The Yi people in China live mainly in the Yunnan, Sichuan, Guizhou, and Guangxi regions. The Yi people community is the largest ethnic minority community in the Yunnan Province, numbering 4.7 millions. Most Yi people live in mountain area. Their communities are being scattered in various areas between the Yunnan and the Liangshan(凉山) area in the Sichuan. As the emptiness of contact and between their communities and isolation, they have not recognized themselves as the Yi people and the identity of Yi people. Therefore, most of them have lived as individual tribes without the solidarity of ethnic minor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Yi people's history, language, clothes food shelter, religion, social custom, art, festival, and their present condition. It also examines the slavery system of Liangshan area which has been maintained until 1950s.

---

---

---

---

## Ethnic Minorities in the China Yunnan province (雲南省)

Jae-Won Kim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China, Yunnan province, ethnic minority, official  
ethnic minority

The Yunnan province is located the southwestern corner of China bordering Vietnam, Myanmar, and Laos. The population of the Yunnan is about 40 millions and the population of ethnic minorities in the Yunnan is over 14 millions. There are 55 'official' ethnic minorities in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official ethnic minorities, over five thousands, as an ethnic minority community. There are 25 official ethnic minorities and 15 of them have only lived in the Yunnan Province. The Yunnan is the most ethnically diverse region in China. There are 25 official ethnic minorities as follows; Yi(彝), Bai(白), Zhuang(壯), Hani(哈尼), Dai(傣), Miao(苗), Hui(回), Lisu(傈僳), Lahu(拉祜), Va(佤), Naxi(納西), Yao(瑤), Jingpo(景頗), Tibetan(藏), Blang(布朗), Buyei(布依), Achang(阿昌), Pumi(普米), Nu(怒), Mongolia(蒙古), Jino(基諾), De'ang(德昂), Shui(水), Manchu(滿), and Derung(獨龍). This article describes the characteristic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se ethnic minorities.

---

---

---

---

## **S**tudy on the change of relation between Korea and Malaysia with the Korean Wave

Chul Ho Cho (Lecturer,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in University of Malaya, Malaysia)

Key words: the Korean wave, Malaysia, Korea, culture

This study has tried to find out if the Korean-Malaysian relations are intensifying also at the civilian level in the 21st century, with focus on the Korean wave in Malaysia. The Korean wave trend that began with the airing of “Winter Sonata” in 2002 has brought socio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to Malaysia and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bilateral relations also at the civilian level.

Based on such significance carried by the Korean wave in Malaysia, we can say Malaysia’s acceptance of the Korean wave will likely continue for a long term and that the Korean wave will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In order to make more accurate predictions and make preparations for future Korean-Malaysian relations, we need to carry out research on changes in the Korean-Malaysian relations and the Malaysian wave in Korea, a new trend that is arising due to the “Twin Programme, My Second-Home Programme.”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wave in Malaysia, Malaysia will need Korea experts and Korea will need Malaysia experts to maintain and develop close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In this sense, the two countries should pay more attention and give more support to developing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programs in Malaysia, and the Malay and Malaysian

---

---

---

---

studies in South Korea concurrently.

### **C**urrent Circumstance and Prospect of Korean Ethnic Minority in Kazakhstan

Myeong Dmitri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in Almaty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Kazakhstan, Korean ethnic minority, migration, South Korea

This article is about the circumstance and prospect of Korean ethnic communities in Kazakhstan. In 1937, Korean ethnic minority had been forced to migrate from the Far East Asia region to the Central Asia, especially Kazakhstan, under the Soviet government policy. Despite the adverse circumstances, Korean ethnic minority made efforts to sustain ethnic identity and culture. There had been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n ethnic minority and Kazakhstan people.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Korean ethnic minority has been needed to be adapted to new circumstance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Kazakhsta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the post Cold War period, Korean ethnic communities in Kazakhstan could have opportunities to acquire supports, such as language learning materials and program, from its home country, South Korea. There are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near future in Korean ethnic communities about their identities preservation and adaptation to the market economy.

---

---



---

---

**The reality of Language and the possibility of  
nation-language- Mainly focused on Lim Hwa**

Yeo, tae-chon (Lecturer, Korea University)

Key words : Lim Hwa, Joseon-literature, Joseon-language,  
nation-language, literary language, modern language, reality of  
language

1930' s is the time which the imperialism colonial order come to notify publicly. Lim Hwa(1908~1953) was only a indigenous person who developed the private ownership regarding the Joseon-language. Lim Hwa' s attitude of literature and literary history is almost invariably accomplished above his recognizing on a language. The principal interest is Joseon-language as modern language which Lim Hwa regarding Joseon-language. He looked in the face the adversity of Joseon-language actuality as nation-language and groped the plan it would be able to overcome it. He endeavored to make newly Joseon-literature in 1930' s with a language, specially nation-language. And he searched the possibility of nation-language on reality of language. The language of group which was used in his poem, showed the features of actuality most well.

## 『민족연구』 논문투고와 집필요령 및 심사과정

한국민족연구원이 연 4회 계간으로 발간하는 『민족연구』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문제를 중심적인 연구과제로 설정, 현대세계의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본 연구원은 관련학과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 I. 논문투고

1. 편집대상: 민족주의 이론, 각 지역과 개별국가의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소수민족 현황 등과 관련된 논문.
2.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의 논문은 편집대상에서 제외함.
3. 원고는 '한글' 혹은 'MS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본 1부와 디스켓을 아래주소로 우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기 바람.
4. 연락처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전화번호: 010-4716-3616  
Fax: 925-3906  
Email: goodsociety123@hanmail.net

### II. 논문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120매 혹은 A4용지 15-20매 내외.
2. 한자와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넣어 표기.
3.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각주 작성 요령

#####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292쪽.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 95.

#####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 150-151쪽.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pp. 799-801.

### 2)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 III. 논문심사

1. 본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음.
2.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함.
3.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개별 심사위원의 “가, 수정, 불가”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됨.
4. 심사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3인 기준)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불가	가, 불가, 불가 수정, 수정,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5. 수정과정에서 논문 필자는 수정한 부분을 별도의 양식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함.

### IV. 『민족연구』 발행일 및 논문투고 마감일

민족연구 발행일	논문 마감일
2006년 3월 1일	2005년 12월 31일
2006년 6월 1일	2006년 3월 31일
2006년 9월 1일	2006년 6월 31일
2006년 12월 1일	2006년 9월 31일

한국민족연구원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민족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지인 『민족연구』를 연간 4회 발행·보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cncho.pe.kr/krce>)를 통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인적구성

원 장 : 趙政男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위원 : 葛振家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金秀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 Dmitry V. MYONG (국립 알마티대학교 교수)  
 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 洪敏植 (강원대학교 교수)  
 우평균, 김인성, 조화성, 김용찬  
 연구원 : 고병국, 김태영, 강권찬, 박지원, 이용승, 김혜림, 김희선  
 유정석, 안 석, 이태욱, 송종호, 조성환, 정려정, 김재원, 김병학



발행처

<p>민족연구 29</p> <p>〈계간〉</p> <p>ISSN 1229-2796</p>	<p>〈저널 편집부〉</p> <p>-----</p> <p>편집인 : 조 정 남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                  우/142-881 (☎ 010-4716-3616)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발행일 : 2006년 12월 1일(연 4회 간)</p> <p>-----</p> <p>발행처 : 교양사회                  Homepage : <a href="http://www.goodsociety.co.kr">http://www.goodsociety.co.kr</a></p> <p>-----</p>	<p>〈편집위원〉</p> <p>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김인성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기완 (창원대학교 교수)                  조정남 (고려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Dmitry V. MYONG (국립 알마티국립대학 교수)</p> <p>〈편집주간〉</p> <p>김용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p>
--	---	---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메이츠의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메이츠의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저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 <절취선> -----

### 정기구독 신청서



저널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시메이츠의 민족연구	계간	4권(1년분)	₩ 60,000	~	
		8권(2년분)	₩ 100,000	~	
구독자	구독자명(기관)				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